



이름다운  
용인역사하

이제학 지음





저자 이제학(李濟學)은 1950년 용인에서 이정용(李正鏞)옹의 3남으로 태어났다.

용인 초중고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했다.

1974년 친구 이은범과 <우리들만이> 시집을 만들었고 1997년 <용인의 산수이야기> 2007년 <내가 갔습니다(시집)>을 펴냈다.

E-mail=ljh3351159@hanmail.net  
블로그 = 다음 / 용인의 산수이야기

표제 : 池塘 金弘培



아송에서 본 조비산(상) 구봉산 정상석(중) 말아가리산과 태화산(하)





에버랜드 벚꽃길(상) 가현산 천주교 공동묘지 납골당(중) 미리내에서 본 애덕고개비(하)





성산일출(상) 김준용 전승비(좌) 경안천 발원지 문수샘(우)



중앙공원 현충탑(상)

탄천 징검다리(좌)  
 용덕사 철인상(우상)  
 광교산 정상석(우하)



이름다운 용의와 신하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자료 총서

## 이름으로 용인역사하기

초판1쇄 인쇄 2009년 11월 15일

초판1쇄 발행 2009년 11월 20일

---

지은이\_이재학

펴낸곳\_도서출판 굿피플(031-336-8585)

발행처\_용인문화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6번지 문화예술원 3층

전화 : 031)324-9600 팩스 : 031)324-9634

---

ISBN\_978-89-960403-1-6

\*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자와 용인문화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제·배포·사용을 금합니다.



이름다운  
용인의식하

이제학 지음

## 生居鎮川 死居龍仁



정낙균  
국가공무원 이사관 퇴임  
현 로봇산업협회 전무이사

누군가가 “돈이 없는 사람보다 추억이 없는 사람이 더 가난하다”고 했다던가, 그래서 나는 엄청 부자인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제혁이와의 추억을 떠올리면 공연히 입가에 웃음이 머금어지는….

초등학교 상급반 시절, 용인에서는 군내 모든 초등학교가 참여하는 축구대회가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 용인읍내에서 결승전을 갖게 되었다. 마침 내가 다니던 학교와 용인 초등학교가 맞붙게 되었는데 전후반이 모두 지나고 날이 어두워지자 다음날 다시 결승전을 가지기로 하였다.

당초에는 용인초등학교와 게임이 안 되리라 예상했는데 막상 결승전에서 붙어보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새우고 다음날 결승전이 열렸는데, 전반이 다가고 후반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쪽 수비수가 엉겁결에 걷어낸다는 공이 우리 쪽 골문으로 들어오는 기막힌 일이 일어나고 이내 우리는 그 골 하나로 패하고 말았다.

그런데 경기 중 상대방에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작은 아이 하나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는 것이었다.

그런 일이 있던 뒤, 얼마 후에 중학교를 진학하고서야 축구대회 때의 그 자그마하고 까무잡잡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다. 바로 그 아이가 제혁이었다.

중학교 때 제학이와 나는 왜 그리 숫기가 없었는지! 여학생 교실을 지날라 치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종종걸음 치던 꼴이라니….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는 남녀합반을 실시함에 따라 여학생들과도 비교적 스스럼없이 지내게 되었는데 어느 해 가을인가는 학교 대청소날 여학생들은 청소를, 남학생들은 고림리 산골짜기 논두렁에서 미꾸라지를 잡아 저녁에 누구의 집에서 만나 추어탕을 끓여먹던 다소 불량한 짓을 앞장서서 이끌던 아이가 바로 제학이었다.

공교롭게 대학교도 같은 학교로 진학하여 학창시절을 우여곡절 끝에 마치고 사회 진출은 달리하게 되었는데, 나는 직장생활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했는데 그는 결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닌데도 취업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얼마 후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양식집을 열었네, 무슨 소장을 하네 하면서 용인에 주저앉은 기색이었다. 아쉬워하면서도 그의 유달리 강한 자존심을 건드리기라도 할까봐, 아니 서로가 바빠 뜨막하게 살다가 10여 년 후인 1976년, “용인의 산수이야기” 라는 책을 한 무더기 부쳐와 그 책을 읽고 나서야 그가 용인을 떠나지 않은 속내를 나름대로 미루어 짐작하고, 나 스스로가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 용인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성어로 “生居鎭川 死居龍仁”이라는 설화를 든다. 내가 위와 같은 성어를 처음 접한 것은 중학교 때 당시 태성학교에 계셨던 것으로 기억되는 국중일(鞠重日)선생님께서 지으시고 누런 갱지에 등사 잉크로 찍어낸 “용인의 역사”라는 유인물을 통해서였다.

몇 페이지 되지 않는 (50여 페이지 남짓인 듯싶다) 그 프린트는 내가 40년 이상 고향을 떠나 살아오면서도 고향을 고향답게 생각하게 하는 샘물이다.

사실 왜 살아서 진천인데 하필 죽어서는 용인일까 하며 어린 마음에 섭섭하기도 했으나, 죽어서나 살아서나 살기에 좋은 곳이라면 그 아니 좋은가 하며 애써 자위해 왔는데, 최근에는 살아서 진천이라는 데는 십만 여 명이 안 되고

죽어서 사는 곳이라던 용인은 백만이 오늘 내일이니 옛 말도 변하는가 싶기도 하면서 결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용인 땅 구석구석에는 우리의 이제학 선생 같은 고향지기들이 피약벌아래 또 비바람 치는 곳은 날씨에도 산과 들을, 아니 용인을 끌어안고 끊임없이 갈고 닦은 결과가 배어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용인에 태(胎)를 묻은 모든 이는 물론이거니와 용인에 등지를 튼, 그리고 용인을 알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소중한 길잡이가 되어주길 간곡히 바라며, 아울러 용인이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성숙미를 더해가는 내 고향 용인이 되어주길 바란다.

## 아름다운 龍仁에 살며



이종민  
龍仁文化院長

용인을 사랑하고 용인의 자연을 사랑하는 진정한 용인의 산사람, 이제학 선생의 <용인의 산수 이야기>가 나온 지 12년 만에 개정판 <아름다운 용인의 산하>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롭고 알찬 내용으로 용인의 자연과 지리를 널리 알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타고하기까지 이제학 선생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용인은 예로부터 산자수려한 자연이 아름다운 고장으로 특색 있는 산들이 분포되어 있고 산마다 계각기 아름답고 슬픈 사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용인을 살아온 사람들의 삶이 배어 있는 진한 숨결이기도하고 용인 역사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세상 풍습이 변하고 세인의 무관심 속에 자칫 잊혀질 수도 있었던 것을 선인의 숨결을 찾고 역사의 흔적을 더듬는 이제학 선생의 노력이 있었기에 용인의 산하는 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이름을 유지하며 우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용인의 자연과 인문지리를 함께 아우르는 용인시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산하의 이름과 위치를 알아보고, 각 산들이 어떤 기후와 식생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은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용인의 산과 자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용인시의 환경과 생태를 보전하고 가꾸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 스치는 바람결에 땀을 식히며



저자 이제학

山中何所有 (산중하소유)  
嶺上多白雲 (영상다백운)  
只可自怡悅 (지가자이열)  
不堪持贈君 (불감지증군)

산중에 무엇이 있는가  
산마루에 떠도는 구름  
다만 스스로 즐길 뿐  
그대에게 보내줄 수 없네

남북조시대의 도홍경 시인의 시입니다.

나의 고향 용인의 산하를 보면 선도 아름답고 색깔도 곱습니다. 그리고 생김새는 너무나 멋지고 정겨움이 넘쳐납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물이 많다는 평범한 자연의 진리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용인의 산하는 늘 우리 곁에 있지만 평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용인의 산하가 우리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라는 성철스님의 법어가 떠오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이 다르고, 배우고 가르침에 무슨 조건과 이유가 있겠습니까?

월남소남지(越鳥巢南枝)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남쪽에서 온 새는 나뭇가지에 내려 앉을 때에도 고향 가까운 남쪽가지에 내려앉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미물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뜨겁게 표현한 말로 저의 책 “용인 산수 이야기”에 박범신(작가)선생님이 발문에 써주신 고향을 그리워함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담도록 10여 년 전에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나마 저는 고향에 살고 있으니 행복합니다.

아름답고 사랑하는 나의 삶터를 무작정 발품 팔아 모아 준비한 아주 소박하고 소탈한 작은 “아름다운 龍仁의 山河” 입니다.

내가 좋아서 쓴 이 한권의 책이 용인을 알고 알려는 분들에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작은 도움이 된다면 이것이 내 즐거움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용인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의 정표겠지요.

# 목차

추천사 4

발간사 8

## 제1장 기품 있는 산세 \_용인의 산 13

- |              |              |
|--------------|--------------|
| 1. 조비산 _14   | 11. 구봉산 _65  |
| 2. 석성산 _19   | 12. 오봉산 _69  |
| 3. 말아가리산 _28 | 13. 학산 _73   |
| 4. 광교산 _33   | 14. 삼봉산 _77  |
| 5. 부아산 _40   | 15. 굴암산 _80  |
| 6. 노고봉 _44   | 16. 독조봉 _86  |
| 7. 시궁산 _48   | 17. 건지산 _90  |
| 8. 문수봉 _52   | 18. 노고성산 _99 |
| 9. 형제봉 _56   | 19. 노구봉 _103 |
| 10. 향수산 _61  | 20. 함봉산 _108 |

## 제2장 늘 보고 싶은 \_용인팔경 111

- |                                  |                      |
|----------------------------------|----------------------|
| 1. 성산일출(城山日出) _116               | 5. 선유대4계(仙遊臺四季) _128 |
| 2. 어비낙조(魚肥落照) _119               | 6. 조비산(鳥飛山) _133     |
| 3. 굽든고개에서 본 용담저수지<br>(굽든眺望) _122 | 7. 비파담만풍(琵琶潭晚風) _135 |
| 4. 광교설경(光教雪景) _125               | 8. 가실벚꽃(稼室벚꽃) _138   |



### 제3장 백두대간의 뿌리 \_한남정맥 141

- |                      |                        |
|----------------------|------------------------|
| 1. 지지대고개 - 양지고개 _145 | 6. 메주고개 - 무너미고개 _168   |
| 2. 양지고개 - 망가리 _151   | 7. 무너미고개 - 망덕고개 _174   |
| 3. 망가리 - 양고개 _154    | 8. 망덕고개 - 잣말고개 _178    |
| 4. 양고개 - 아차지고개 _158  | 9. 잣말고개 - 가현고개(치) _183 |
| 5. 아차지고개 - 메주고개 _162 | 10. 가현고개 - 칠장산 _187    |

### 제4장 여울 따라 계곡 따라 \_용인의 하천 191

- |             |                 |
|-------------|-----------------|
| 1. 경안천 _193 | 5. 진위천 _217     |
| 2. 탄천 _205  | 6. 목신천(한천) _222 |
| 3. 오산천 _210 | 7. 추계천 _224     |
| 4. 청미천 _213 |                 |

### 제5장 용인시 경계밖기 \_향토순례 227

- |                   |                        |
|-------------------|------------------------|
| 1. 굴암산-용인고개 _230  | 11. 경희대-대한통운 _270      |
| 2. 용인고개-간들보 _237  | 12. 대한통운-석고개 _273      |
| 3. 간들보-오산천보 _240  | 13. 석고개-원암천 _278       |
| 4. 오산천보-능원농협 _243 | 14. 원암천-장울 _282        |
| 5. 능원농협-머내 _247   | 15. 장울-쌍령산 _285        |
| 6. 머내-발아산리 _252   | 16. 쌍령산-석천리도로 _291     |
| 7. 발아산리-광교산 _255  | 17. 석천리도로-길마재 _296     |
| 8. 광교산-버들치 _258   | 18. 길마재-구백암 _299       |
| 9. 버들치-고속도로 _261  | 19. 구백암-추계42국도 _303    |
| 10. 고속도로-경희대 _264 | 20. 추계42국도-굴암산출발점 _308 |

여 백

# 제 1 장

## 기품 있는 산세 \_용인의 산

- |         |         |
|---------|---------|
| 1.조비산   | 11.구봉산  |
| 2.석성산   | 12.오봉산  |
| 3.말아가리산 | 13.학산   |
| 4.광고산   | 14.삼봉산  |
| 5.부아산   | 15.굴암산  |
| 6.노고봉   | 16.독조봉  |
| 7.시궁산   | 17.건지산  |
| 8.문수봉   | 18.노고성산 |
| 9.형제봉   | 19.노구봉  |
| 10.향수산  | 20.함봉산  |



# 1 용인의 보물 조비산

조비산(鳥飛山 260m)

용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

백암투어 : MBC문화동산-조비산-한택식물원-백암순대. 이내순대



## 용인의 보물 조비산

용인에서 아름다운 산 하면 조비산이라고들 한다. 백암 들녘에 억새풀이 가는 가을이 아쉬운 듯 가녀린 깃털을 살랑살랑 흔든다. 겨울의 문턱에서 조비산의 아름다운 단풍잎도 한잎 두잎 세월의 나이를 세고 있다.

조비산(260m)은 처인구 백암면 용천리, 석천리, 장평리에 접해 있는 조그마한 돌산이다.

백암 쪽에서 보면 두 개의 바위를 쫓긋 세운 모습이다. 구봉산 쪽에서 보면 넓은 벌판에 고귀하게 홀로 뿔낸 듯 해서 세련되어 보인다. 동쪽 산상(한택식물원 쪽)입구에서 볼 때는 구름 속으로 하늘을 찌른 듯한 신비스러운 신선봉이다. 안성 쪽에서 보면 작지만 의젓하게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산이다. 한마디로 조비산은 보면 볼수록 멋과 품격이 있는 산이다.

용인팔경의 하나인 조비산은 동국여지지도 죽산현 편에 보면 “현 북쪽 십오리에 한 봉우리가 돌연 우뚝 솟아 돌을 이고 있는데 산이 높고 가팔라서 빼어난 모양이 기이하게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이 빼어나다 보니 산에 얽힌 전설과 이야기가 많은 산이다. 산에 접하기 전에 조비산 전설을 하나 소개한다.

## 이름을 폐하여 역적산

조선 초기에 이태조가 서울로 도읍을 옮길 때 삼각산 자리에 산이 없어 아름답고 보기 좋은 산을 이곳으로 옮겨 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한 장수가 조비산을 점지하고 서울로 옮겨가는 중에 이미 삼각산을 옮겨 놓았다는 소식을 듣는다. 더이상 산을 옮겨갈 필요가 없게

되자 석천리에 내려놓고 기분이 상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서울을 향해 방귀를 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조정에서는 불경을 저지른 조비산의 이름을 폐하여 조폐산 이라고 하고 역적산이라고 불렀다.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들은 머리를 한양으로 향하는데 조비산은 한양이 싫어 머리를 남쪽으로 돌리고 있다 하여 이 또한 불경하다고 역적산이라 부르는 이유라 한다.(지금은 전에 상부 중석광 채석 때 윗부분을 건드려 뒤돌아 보는 모습이 덜하다. 이런 모티브의 전설은 울산바위와 용인의 구봉산에도 비슷한 전설이 있다.)

## 정상은 호연지기 터

조비산을 가려면 백암 시내에서 장평리 쪽으로 향하여 조비산이 보인다. MBC문화동산 입구를 통해 평률마을에서 조천사 길로 오르면 조비산을 오를 수 있다. 노선버스로 한택식물원으로 향하는 길목이다.

마을에서 약 500m쯤 시멘트 길로 오르면 숲속 고즈넉한 곳에 조천사가 자리한다. 돌계단이 끝나는 곳에 아담한 요사채가 자리하고 앞 우물엔 깨끗한 감로수가 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계단으로 올라서면 커다란 바위를 후광으로 두고 대웅전이 반듯하게 자리한다. 왼쪽 산 밑으로 삼성각이 산의 품에 맞게 모셔져 있다. 불자들의 합장과 기도를 뒤로하고 대웅전 앞에서 보면 북쪽으로 조비산 들머리가 자리한다. 등산로는 바윗길이라 가뭍에도 먼지 하나 없는 길로 파고든다. 경사로에 밧줄을 걸어 위험한 바윗길을 안전하게 오를 수 있게 설치해 놓았다. 앞을 가로막는 큰 바위를 기어오르면 두 개의 바위 봉이 멋진 자태로 조비산의 구석을 조금

보여 준다. 바위 아래로 넓은 굴이 있어 바위굴 감상도 할 만하다. 바위길을 돌아 남쪽으로 들어서면 소방서에서 만들어 둔 조난 위치판이 있고 내친 김에 올라서면 넓고 편평한 조비산의 정상에 선다. 바위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바위 위에 하얀 정상석이 자리한다. 흰색의 정상석은 갓난 병아리 같이 예쁘고 앙증스럽다. 조비산과는 잘 어울리는 흰색 정상석이다. 옆으로 두개의 삼각점이 있다.

조비산은 모습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정상에서의 조망 또한 이름값을 하고도 남음이 있다. 사방이 막힘없는 봉우리에서 빙빙 돌며 주위를 감상한다. 넓은 공간이 주는 해방감을 만끽하고 이곳에 설 때 마다 다른 모습을 선사하는 신비의 장소다. 계절이 산색을 바꾸어 가며 답답한 도시에서의 탈출을 도와주는 산, 생활 속의 스트레스를 조비산 정상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이 실어가버리면 모든 사람들은 호연지기를 느낀다. 정상에서 구봉산 쪽으로 하산 길은 바위 길로 긴 로프를 걸어 놓았다. 위험과 스릴을 맛볼 수 있는 깜짝 코스는 찾는 이의 가슴에 조비산을 새롭게 각인 시킨다. 또한 이 길로 연결되는 등산로가 있다. (조비산-정배산-달기봉-구봉산-석슬암산-두무재-두무산으로 이어지는 긴 등산코스는 찾는 이가 점점 늘어나는 좋은 코스다. 6~7시간소요)

깎아지른 듯한 비탈 바위 아래로 펼쳐지는 모습에 설레며 흥분하는 마음을 보듬으며 바위 골로 조심스레 내려선다. 갈림길에서 서쪽 정배산 쪽을 버리고 남쪽으로 돌아서면 운동시설과 긴 의자가 있는 쉼터가 자리한다. 쉼터에서 조비산의 숨은 동굴의 모습과 크기에 다시한번 놀라며 묵히기가 아까울 정도로 널찍했다. 거대한 중석광산으로 수십 명이 들어가 설

수 있는 광산 터다. 요즘엔 무속인들이 제단을 꾸며 놓았다. 굴 입구 위에는 크라이머(암벽타기)들이 설치한 암벽구조물이 정상까지 이어진다. (크라이머들은 이곳을 안성으로 알고 있어 인터넷에 용인이라고 고쳐 올린 적이 있다.)

شط에서 산을 돌아가듯 말아들어 가면서 조비산 남쪽 바위벽의 변화무쌍한 바위조각을 감상한다. 좁아서 위험을 무릅쓰고 바위 틈으로 돌아간다. 조비산을 찾는 이들은 이 코스를 놓치면 후회한다. 바위벽을 타고 넘어서면 조천사 삼성각으로 향하는 코스도 있고 지금은 산길에 연결해 놓은 대웅전 옆길로도 이어진다.

한 바퀴 돌아 조천사 대웅전 앞에 서면 2시간이 걸린다.

조비산은 천의 얼굴을 지닌 기묘한 모습을 나에게 선사했고 푹푹속님의 독경소리가 진한 향내를 타고 돌아서는 나에게 복음을 선사한다.

#### ※ 백암 투어

MBC문화동산(촬영장)-조비산-한택식물원-백암순대. 이내순대 -옥로주 투어도 재미있을 듯. 이웃인 원삼 우리농원-사암저수지-와우정사(동부동)도 연계되는 코스.





## 2 용인의 중심 석성산

석성산(石城山 471.5m)

석성산 일출은 용인팔경.

군계일학(群鷄一鶴)처럼 용인 중심에 우뚝 솟은 용인의 상징적인 산이다.

석성산(471.5M)은 용인의 진산으로 용인시 중심에 위치한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역북동, 유림동, 기흥구 중동, 동백동이 접해 있는 산이다.



## 산악인들의 신년 시산제

동천에 솟는 해를 가슴에 안고 널따란 대지 위에 자리잡은 용인의 진산 석성산, 성산에 메아리 여울져 흘러 용인의 별과 골에 넘쳐 용인시민의 생활에 활력소를 넣어 주는 품 넓은 어머니 산이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산에도 산격이 있다. 용인시 전도를 보면 용인 중심에 우뚝 솟아 굳게일하처럼 용인의 상징적인 산임을 증명한다.

출중한 용모에 근엄함까지 간직하고 있어 사람에게 생생력과 함께 친근함마저 준다. 또 영스러움이 영마루마다 골짜기마다 서려 있는 신비로운 산이다. 새해가 되면 용인의 많은 산악인이 이곳 석성산을 찾아 시산제(산제)를 지내며 무속인들이 원성산에서 기도를 올리는 것은 석성산의 영스러운 산격 때문이다.

정상엔 정상석 그리고 망원경 옆으로 태극기가 자리하고 동편으로 간이 식탁과 쉼터가 있다.

## 설날 해맞이 명소

용인팔경인 성산일출의 성산은 1월1일 첫 일출을 보려고 수백 명의 인파가 붐비는 곳으로 새해의 바람을 빌며 산악회에서 제공하는 새해 첫 떡국에 일출주도 시식하는 곳이다. 헬기장에서 나무계단으로 줄을 따라 내려서면 포래산악회에서 세운 성산 등산로 표지판 옆으로 성산샘터가 자리한다. 너른 빈티는 쉼터로 매년 산악인들이 시산제(산제)를 지내는 곳이다. 이제 석성산 일출은 용인의 대표적인 볼거리가 되어 가고 있다. 특히 통화사의 대웅전 앞은 시계가 좋아 일출 명소 중 명소가 되었다. 동백

의 신도시 인구 증가로 성산의 가치와 위상이 더 높아지고 있다.

## 한남정맥이 통과하는 봉수대 터

옛 성이 있어 석성산이라 부르며 산 정상에는 통신대가 위치한다. 옛날 통신 수단인 봉수대가 있던 곳으로 봉(烽 불) 수(燧 연기),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로 나라의 변고를 알렸던 곳이기도 하다. 지금도 삼군 통신대가 주둔하는만큼 예나 지금이나 지리적 군사적으로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석성산은 한남정맥의 중심산이기도 하다. 한남정맥은 우리나라 산맥을 정리한 것으로 1800년경 옛 지도 산경표다. 산경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맥을 1개의 백두대간(백두산에서 지리산), 1개 장백정간, 13개의 정맥으로 북한에 5개, 남한에 8개중 용인을 통과하는 한남정맥은 강화입구 김포의 문수산에서 안성 칠장산까지로 용인이 중심 산맥이다.

자연에는 사계가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철 따라 변하는 산색과 산의 모습은 석성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산은 보는 곳에 따라 그 모습이 변한다. 등산로를 따라 석성산을 한번 올라보자.

## 석성산 등산로 탐방

(행정타운-5Km-정상-1.5Km- 터키참전비(6.5Km))

새벽의 성산을 만나고 싶었다.

산악인은 산을 보면 설렌다. 자연에 순화되는 줄도 모르고 내가 오를 수 있다는 작은 교만이 정상으로 나를 몰지만 결국은 산 속에 들고 만다.

입산 산문으로 들어서서 행정타운 뒤편으로 난 등산로로 향했다. 안내

판을 뒤로하고 잘 조성한 계단으로 해서 첫 능선에 오르면 운동기구가 있는 삼거리의 우남아파트쪽 등산로와 연결된다. 등산로는 산길로 매우 좋다. 조금 오르면 오른쪽은 관곡에서 오르는 길과 만난다. 이어서 큰 삼거리 원탁의자가 있는 길은 호국사, 삼거리에서 오르는 길이다.

새벽을 여는 용인시민의 기침소리가 여기저기 들린다. 오른쪽 삼군에서 오르는 길 옆엔 출입금지 표식이 있다. 계속 오르다 보면 이정표 있는 큰 삼거리가 나오는데 풍림아파트 길이다. 120여 계단을 오르면 투구봉이다. 석성산으로 오르는 능선에서 제일 높은 봉이다. 정상 부근에 딱따구리가 땅 바닥에서 나무로 옮겨 앉는다. 나에게 아침선물이라도 주려하나?

내리막길로 50여 계단을 내려서면 고압철탑 두 개가 서쪽 시야를 막는다. 철 구조물 사이로 초당곡의 아침이 보인다. 이어 오르막길로 오르면 왼쪽으로 오르는 길과 마주친다. 작은 리본들과 나무로 된 메주고개라는 표식이 있다. 이 길이 한남정맥 길로 메주고개로 내려가는 길이다. 정맥꾼들이 많이 늘었다. 전에 신문에서 한남정맥을 연재할 때는 길 찾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능선 길은 몇 번 오르고 내리지만 경사도 없고 초록색 긴 의자는 군에서 만든 오래된 구조물이다. 이어서 두 개 긴 의자 위를 지나면 통신대, 통화사 입구에 도착한다. (1시간 정도) 통화사 입구 사거리는 통신대 길 왼편으로 동백지구 초당초등학교 옆에서 오르는 군사도로다. 통화사 주차장으로 해서 산사 길은 시멘트길이다.(통신대를 통해 능선으로 헬기장까지 가는 정맥꾼들도 있지만 그럴 필요까지야) 시멘트 길을 조금 지나면 왼편으로 호랑이굴 그리고 옆으로 축성 자취가 있고 돌아가는 길에있는 식수 터는 물이 마를 때가 많다.

성산은 물이 적다. 옛날 60년대쯤 골짜기에서 가재를 잡던 때는 물이 많았는데 요즘은 비가 와야 물 구경을 할 판이다. 왼쪽으로 전각이 있다. 전에 소풍 오면 양지 바른 곳이어서 점심 먹던 곳이다. 지금은 현관 없는 전각과 석등만이 우리를 기다린다. 왼편으로 정상 표시, 이정표 오른쪽은 통화사다. 대웅전을 새로 불사했다. 티도 좋아보이는 곳이다. 미륵보살상 삼성각 등 경내를 구경 한다.

왼편으로 올라보면 소나무 조경목이 말라 죽어 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이어 줄이 매어진 등산로는 약수터가 있는 넓은 쉼터에 도착한다. 또래산악회에서 2005년에 설치한 석성산 안내판, 바위, 멋진 나무들 모두 우리를 편히 쉬게 한다.

헬기장까지는 철도 침목으로 이어져 있어서 올라서면 넓은 헬기장이다. 남쪽 초소 옆의 바위봉이 아주 좋은 전망대다. 오른쪽으로 정상을 향해 가서 커다란 안테나를 지나면 끝봉 정상이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고 쌍망원경 앞으로 2008년 11월에 만든 검은 정상표지석이 있다. 쉼터, 식탁, 정상에서 쉴 곳들이다. 망원경으로 보면 서울의 도봉산 인수봉 북한산 관악산 광고산 형제봉이 모두 한눈에 들어온다. 아주 맑지는 않아 인천 앞바다까지는 볼 수 없었다.

성산 조망의 압권은 동백의 조화로운 도시 모습이다. 잘 정리 되어 아름답다는 표현은 어떨지. 동쪽으로는 영동고속도로가 일직선으로 달려오며 북쪽에서는 할미산, 노고성산(할미산성)이 내려다보인다. 성벽은 숲에 가려 보이지는 않지만 턱밑으로 산객을 부른다.

급경사 길은 나무계단으로 만들어져 있어 쉽게 내려서면 왼쪽으로 계단

이 보인다.

이정표에는 동백이란다.(계단으로 내려서면 갈림길로 남쪽으로 성산마을로 이어지는 길이다. 계단은 급경사를 이어 놓았다. 이 길은 호수마을로 연결되는데 계단을 내려서면 평지 길로 호수마을까지 30-40분, 오름은 1시간, 동백 쪽에서 오르는 갈래 길이 많다).

내리막길 오른쪽으로 난 갈림길은 백련사 뒤로 연결된다. 계속되는 내리막의 전망터가 석성산 끝마루봉이다. 내리막에 줄을 매어두었다. 동백에서 오르는 길이 여럿 보인다. 이어 쉽터 같은 바위봉에 나무를 자른 곳이 의자 같아 앉아 목을 축여본다. 아침 등산은 물이 별로 필요없지만 여름의 산은 그래도 덥다. 이어 내리막길은 순탄하다. 숲길이 좁아지면서 고속도로의 차량 소리가 요란하다. 고속도로가 보이며 오른쪽에 가마실 서낭당비가 있다. 전에 고속도로 안에 있던 서낭을 옮긴 곳이다.

이 마성고개를 지도에서는 작고개라 한다. 그러나 백현(栢峯나무백 峴 고개현을 잘못 표기한 것)을 잘못 표기해 지도엔 작고개가 붙박이가 되었다. 작고개에는 6·25사변 때의 터키군 참전비가 있어 한남정맥꾼들은 이곳에서 쉰다. 정맥꾼들이 이곳을 지날 때는 고속도로 위를 통과 하는데 필자도 이곳을 너무 많이 통과하다 보니 불법 횡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느낀다. 도로공사나 용인시에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작고개에 서면 진퇴양난이다. 퇴로가 마땅치 않다.

#### 석성산을 오르려면

1. 용인행정타운-삼거리-투구봉-한남정맥-통신대 입구-주차장-통화

사-약수터-헬기장-정상

2. 호국사-삼거리-투구봉-1코스
3. 삼군사체력훈련장-삼거리-1코스
4. 동백동 초당초교옆-구 관음사-통신대길-통신대입구
5. 백령사-통화사-약수터
6. 터키참전비(고속도로)- 갈림길(동백)-정상
- 7.마성마을(고속도로)-굴다리-원성산(기도처)-능선-삼거리(동백)-정상
8. 호수마을-공원 -성산마을 갈림길-정상
9. 성산마을- 공원-호수마을길-정상
10. 고속도로(도로관리소)-삼거리-능선삼거리-정상

석성산의 진가는 맑은 날 정상에 오르면 남쪽으로 시궁산, 동쪽 말아가리산, 북쪽으로 관악산 북한산까지 보이며 서쪽으로 서해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차지고개의 전설은 삼거리 메주고개와 연결된 이야기로 용인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들었을 이야기를 소개한다.

#### **메주 고개 이야기**

옛날 먹조현 근처 삼거리에 아주 가난한 부부가 살았다. 이들 부부는 비록 가난하기는 하였지만 매우 부지런하였으며 부부의 정도 두터웠다. 아내는 남의 집 부엌일과 바느질을 도와가며 양식을 구했고 남편은 잡

일과 농사를 도와가며 돈을 모았다. 본성이 부지런하였던 이들 부부는 한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언젠가는 자신들의 농토를 마련하여 양식을 수확해 보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몇 해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부부에게 자그마한 땅을 마련하게 되었다. 조그만 밭을 구한 이들은 무엇을 먼저 심을까를 의논한 끝에 콩을 심기로 하였다. 해마다 남의 집에서 얻어 먹던 장을 이제는 자신이 농사지어서 만들어 먹어보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정성스레 가꾼 밭에 콩은 남의 밭에서 가꾼 것보다 실하였다. 아내는 콩을 던 후 메주를 만들어 장을 담그자고 하였다.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메주를 만들었다. 만들어 놓은 메주를 수없이 번갈아 세어가며 일하던 아내는 쇠파리 한 마리가 메주 위에 앉아 메주콩을 먹는 것을 보고 기분이 매우 상하였다. 메주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던 부인은 화가 나 만들던 메주를 던져놓고 쇠파리를 우선 잡을 생각으로 나무주걱으로 내리쳤다.

그러나 파리는 겹싸게 다른 메주로 옮겨 앉아 정성으로 만든 메주만 엉망이 되고 말았다. 더욱 화가 난 부인은 파리를 잡을 생각만 앞서 메주가 엉망이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주걱을 휘둘렀다. 쇠파리는 메주를 벗어나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날아가 버렸다.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뒤따라 갔다. 맨발로 파리만 쫓던 아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의 역조현을 넘었다. 이쯤에 이르니 파리도 지쳤는지 더 이상 날지 않고 한 발췌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아내는 이제는 꼭 잡으리라는 생각으로 몸을 던져 덮쳤다. 그러나 실수하고 자신도 모르게 아차 하는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고개를 아차지고개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결국 파리를 잡지 못한 아내는 몸만 더럽힌 채 포기하고 기진맥진한 채 돌아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발걸음이 자연히 어정어정 걸었다. 해서 지금의 어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집에 당도한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지금은 동백지구가 생겨 큰길로 변했지만 6-70년대에는 매우 굽은 위험한 길로 용인을 처음 찾는 사람들은 용인이 두메산골이라고 느끼던 큰 고개였다.

### 성산샘

서울에 사는 벼슬아치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모실 명당을 찾아 지관과 용인을 지나다 성산에서 명당을 발견하고 이곳에 묘를 쓰려고 자리를 잡았다. 날을 잡아 가묘를 쓰려고 땅을 팠더니 그 속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다. 물이 그치지 않고 솟구쳐 산 아래에 홍수가 났다. 벼슬아치는 크게 놀라 지관에게 연유를 물었더니 산 형상이 호랑이 형상인데 터가 호랑이의 눈으로 눈물샘을 건드려 물이 나오는 것으로 그냥 두면 산 아래가 물 난리 난다며 이 일을 막으려면 저기 큰 바위로 막아야 한다하였다. 그 바위로 물을 막으니 물이 막히고 바위 틈에서 조금씩 물이 흘러 나온 것이 지금의 성산샘 약수라고 한다.



### 3 용인의 제일봉 말아귀리산

말아귀리산(馬口山 595m)

용인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광주산맥의  
주봉 중에 하나로 지도상 무명봉이다.  
산나물, 약초의 보고다.



## 고장에서 제일 높은 산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의 산을 오르면 어머니 품 속 같은 포근함을 느낀다. 자주 찾는 곳이라 눈에도 익고 높지 않아 시간에 쫓길 걱정도 없으며 간편한 복장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좋다. 고향 산에 오르면 느긋해지고 마음 편하며 넉넉한 여유가 생긴다. 아침 일찍 산을 다녀와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오후에 산을 다녀올 수 있어 고향의 산은 생활의 일부로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 폭염의 삼복에도 숲속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고 겨울에는 흰 눈산에서 미끄럼도 탈 수 있는 고향의 산은 그래서 더욱 정겹다. 산 정상에서 해돋이를 보며 장엄함에 마음을 열었고 금빛 낙조를 보며 황홀함에 반한다. 산 속에서의 해돋이, 저녁엔 달밤의 고요함, 눈 덮힌 산, 신록의 산, 운해와 구름어린 산, 가까이에서 보는 느낌은 설렘의 연속이다. 산이 있어 우리는 늘 평화롭다. 이런 산들 중에서 우리고장에서는 어느 산이 가장 높을까?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와 광주시 도척면 추곡리에 접해 있는 말아가리산(馬口山)이다.

## 지도에도 없는 무명봉

용인시내에서 북동쪽을 보면 긴 산릉이 광주산맥이다. 그중에 제일 높아 보이는 산이 두 개 있다. 중절모자 모습의 태화산이 있고, 북쪽으로 삼각봉이 말아가리산이다. 높이는 태화산이 644m로 말아가리산보다 높지만 용인에서 보면 비슷하게 보인다. 태화산은 광주 도척면에 있고 말아가리산은 포곡읍과 도척면 경계의 산이다. 지금은 등산객이 많아져 이름이

알려졌지만 지도에도 이름이 없는 무명봉이었다. 전에는 용인에서 제일 높은 산이 광교산으로 알고 있었다. 성산신문(용인신문)에 용인의 산을 연재할 때 1/5000 지도에서 광주 태화산 옆으로 있는 높은 등고선을 보고 이곳이 광교산보다 13m 높다는 사실을 알고 신문 연재 때 말아가리산을 용인 제일봉이라 기술하여 용인의 숨어있던 무명봉이 일약 용인의 제일봉으로 시민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말아가리산은 유운리(에버랜드 근처)에서 보면 정상에 있는 바위가 말이 아가리 벌린 모습이라 하여 말아가리 산으로 이름붙여진 산이다. 광주산맥은 말과 연관이 많은 산맥이다. 광주의 백마산으로 시작되어 마락산, 말아가리산, 말치고개 등 말이 많이 등장한다. 지금은 말아가리산에 등산객이 많다. 광주 백마산에서 출발해 태화산까지 광주시에서 등산로와 이정표를 정비하여 등산하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도 났고 용인 시민들도 긴 코스를 좋아하는 등산객들은 이 코스를 자주 오르기 때문이다.

### 약초 산나물의 보고

산이 높고 골이 깊어 야유회 터로도 좋은 말아가리산은 봄철에는 산나물 캐는 시민들이 몰린다. 홀입 참나물 달래 다래잎 취 엄나무순 등 봄철엔 나물 캐러 모이고, 여름엔 개복숭아, 가을에는 도토리 밤 등 열매를 수확하러 모여든다. 사철 약초꾼들도 모이지만 요즘은 몸보신용으로 옷나무 엄나무와 야생화를 캐다 팔기 위해 잡꾼들이 많아 산이 몸살을 앓고 있다.

## 등산로

1. 금어리 통점-하메울식당-임도-선황당-정상
2. 금어리쇠내실-연못-전나무밭-넙적고개-정락봉-정상
3. 삼계리-금어산-용인공원묘지-임도-선황당-정상
4. 한티-굴암산-말치고개-소목재-정락봉-김량고개-정상
5. 주북리-소목재-넙적봉-정락봉-김량고개-정상
6. 초부리 상부곡-마락산-선황당-정상
7. 모현-노고봉-정광산 마락산-선황당-정상
8. 백마산-노고봉-마락산-선황당-정상
9. 광주 은곡사-태화산-헬기장-김량고개-정상
10. 광주 도척 추곡리-태화산-연지봉(헬기장)-김량고개

## 정상에서의 호연지기

쇠내실로 오르면 미인송 옆에 예쁜 작은 연못을 지나면서 용인시의 나무 전나무 군락지를 지난다. 능선으로 오르며 만나는 넙적고개부터 오름이다. 정락봉 김량고개를 통해 정상에 오르면 입 벌린 커다란 바위를 만난다. 바위 옆으로 용인시에서 만든 커다란 정상석이 있다. 정상석 옆으로 정상목(산사랑)엔 말아가리산 595m라 적혀있다. 누군가 태극기를 꽂아 두었다. 정상에서의 조망은 높은 산일수록 멋이 있다. 뒤편 동쪽엔 넙적고개부터 쫓아오던 태화산릉의 웅장함을 내세우고 북쪽 마락산 쪽 광주산맥도 볼거리다. 서쪽으로 포곡읍 너머 인자해 보이는 청산 그리고 용인 시내 빌딩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용인의 산천이 발 아래 있다. 자연을

벗 삼아 호연지기하고 선황당고개로 하산한다. 하산 길은 급경사다. 눈비가 올 때는 조심하여야 할 곳이다. 선황당엔 이정표(광주시)가 길을 알려 준다. 선황당 서쪽까지 연결된 임도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넓은 도로다. 도로를 따라 내려서면 하메울 퓨전식당이 있는 통점마을이다. 통점까지 버스가 통행한다.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을 지나 금어2리 마을회관 앞에서 쇠내실길과 만난다. 맞은편 쇠내실의 시골다운 풍경이 머릿속을 스친다.

말아가리가 마구산(馬口山)으로

馬九山-말아홉마리산으로

말아가리산을 마구산으로 한문으로 쓰는 것은 옳지 못하다. 원래 동물은 입이라 부르지 않고 아가리 대가리라 불렀다. 그만큼 인간을 존중해서 일 것이다. 100여년 용인시 지명 (조선지지 자료)에는 말아가리산-마아산(馬牙山)으로 부른 곳이 있지만 말아가리산은 순수 우리말이다. 어쩌면 말아가리산이 마구산(馬口山)-마구산(馬九山)-말아홉마리산으로 변한 것인지도 모른다. 뜻도 모르며 한문을 좀 안다는 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우리나라 고유의 지명이 잘못 변형된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한번 짚어 본다.



## 4 용인의 자존심 광교산

광교산(光敎山 583m)

용인 산으로 자존심을 지켜야 할 산  
부처가 가르침을 주어 이름이  
광교산이 되었다.



## 경계를 초월해 탐내는 곳

“여러 봉우리를 축용하여 공중으로 쓰아 올리니 철암한 기상은 우리 동방의 으뜸일세. 작은 것에 의지하며 흡사 홍몽에서 구분하니 방박함을 누가 조화의 공으로 알리요. 근기를 크게 살피니 편안함에 움직이지 않고 머리서부터 연이은 형세는 끝없이 넓도다. 세진의 탁주로 산에 오름을 흥겨워 하니 천년의 고풍은 축용을 그리워하네”(수지읍지에서)

1677년 숙종2년 김간의 “광고산에 올라”의 전문이다. 17세기의 김간 선생은 동방의 으뜸인 광고산에 탁주와 함께 오르는 풍류를 “너희들이 알아” 라고 소리하시는 것 같다.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등산의 모든 것은 아니다. 등산의 목표도 아니다. 그러나 산 정상에서의 휴식은 너무나 값지고 정상에 오른 사람들에게 넉넉한 만족도 주며 흐뭇한 기쁨도 준다. 또 정상에서의 사색도 남다르다. 정상은 그 나름의 특색과 정상만의 기쁨이 있다. 정상에 올라본 사람만이 정상에서의 느낌을 안다.

낮은 산이건 높은 산이건 산의 정상에 서면 색다른 느낌과 기쁨과 추억이 오래 기억 된다. 등산을 하다 보면 정상에 오르지 못하면 뭔가 허전함을 느끼는 것은 인간은 정점에서만 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다.

## 자기 것을 지키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애향

시루봉 정상은 용인-수원 경계에서 120m 용인 쪽에 있으므로 용인 땅이다. 광고산 시루봉에 올라 큰 석조 구조물을 보면 주객이 바뀐 모습을 알게 된다. 큰 구조물은 수원성 상징 모습에 뒷면에는 수원시장이 광고산



유래를 새겨 놓았다. 시루봉에 표식 구조물은 모두가 수원시에서 만들고 설치한 것들뿐이다. 정상에 조형물이 수원시 일색이어서 용인시민으로서 안타깝고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용인시민의 자존심 문제로 십여 년 전부터 이런 사실을 신문을 통해,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했지만 결과는 그대로였다. 2007년 용인시계 탐사단에서 검은 들판에 용인 경계표지를 만들어 정상에 설치하였지만 누군가가 파손해 버렸다. 광고산을 많이 이용하는 수원시민들은 광고산이 용인산인 줄 모르고 등반하며 수원시에서 용인시보다 애정을 갖고 관리하는 모습은 좋은 일이나 남의 땅에 자신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무례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독도에 우편번호(799-805)를 지정하고 주민등록을 옮기고 주민을 살게 한 것처럼, 자기 것을 알고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애국이고 광고산을 아끼고자 하는 것이 용인시민의 애향이다.

2008년 11월 광고산 정상에 수원시에서 만든 구조물을 철거하고 용인시에서 정상석을 만들어 광고산에 설치했다.

광고산은 광고설경 용인팔경에 속한다. 수원시에서도 수원팔경에 광고적설로 정할 만큼 광고산은 설경이 아름답다. 청계산 바라산 백운산 광고산 형제봉으로 이어지는 긴 능선의 설경은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신비다. 광고산은 물이 풍부한 산이다 그래서 낙생저수지, 고기리의 물놀이터가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옛날에는 산이 거해 사찰과 암자가 많았다고들 한다. 시루봉과 토끼봉 동쪽 계곡에 있는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는 국가 보물 제9호로 고려시대 유물이다.

토끼봉 남서쪽에 위치한 김준용 장군 승전비는 병자호란 때 유일하게 승

전한 곳에 세운 것으로 경기도 문화재 제38호이며 병자호란 때 이곳에서 청나라군대와 대적하여 김준용 장군의 부대가 승리했다. 후에 화성성곽공사의 총책임자인 변암 채제공(청계천벽화 정조대왕반차도의 영의정)이 김준용 장군의 전승 이야기를 전해 듣고 친히 찾아와 광교산 자연석에 기념비를 새겨놓고 흠족해 했다는 곳으로 이 골짜기를 호랑곡이라 하여 오랑캐가 행복한 곳이란 뜻이다. 이곳을 지나는 등산객들은 한번쯤은 들러 우리 선조의 기개가 담긴 비석을 보시라 권하고 싶은 곳이다. 광교산(595m)은 원래 광악산이었는데 928년 왕건이 후백제 견훤을 평정하고 나서 산 근처 행궁을 차리고 군사를 위로할 때 산 정상에서 불빛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이 산은 부처가 가르침을 주는 산이라 하여 산 이름을 광교라 명(命)하여 광교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또 용인시지에는 먼 옛날 도인이 제자들을 올바르게 가르쳐 후세에 빛이 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수지에서 본 광교산이 시루같다하여

광교산 정상에서 동쪽으로 300여m쯤 가면 바위봉이 나타나고 오른쪽 계단은 수지 토월약수터, 수지성당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다. 큰 바위에 오르면 수지와 분당이 한눈에 내려보인다. 전망터다. 이 바위가 수지에서 보면 떡시루같다 하여 시루봉으로 불리었으며 현 시루봉은 표시가 있다 하여 꽃대봉이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정상이 시루봉으로 불리게 되었다. 광교산 남쪽으로 토끼재가 있다. 수원시 쪽 사방땀으로 쉽게 오를 수 있는 코스다. 토끼재를 지나 오르는 봉우리를 토끼봉으로 불렀는데 종루봉,

관음봉으로 불리는 이 봉우리는 정상에 팔각정이 있고 소나무 숲과 어우러지는 수원시 정경이 보기 좋은 곳이다. 서쪽으로 상광교동으로 내려서는 길이 있다.

### 국가보물 9호 현오국사비

광교산 동쪽 서봉사지(瑞峰寺址)에 있는 이 비의 전액(篆額)은 「증시현오국사비명」(贈諡玄悟國師碑銘)이다. 비신(碑身)은 높이 1.88m 너비 0.97m의 전판암으로, 화강암의 부석(趺石) 위에 세워졌으며, 이수(이수: 석계, 인장 등의 표면과 머리 부분에 뿔 없는 용의 형체를 조각하여 장식한 것을 지칭함)는 없다. 제액(題額)의 글자는 지름 약 8cm의 전서(篆書)이며, 본문은 3.3cm의 해서(楷書)이다.

행문(行文)의 머리에는 고려국 대화엄 부석사 주지 증시현오국사비명 병서(高麗國大華嚴浮石寺住持贈諡玄悟國師碑銘并序)라 되어 있다. 본문을 지은 이는 이지명(李知命)이며, 글씨를 쓴 이는 고려 때 초서(草書)로 유명한 유공권(柳公權)이다. 비문의 말미(末尾)에 대정(大正)이십오년 을사(乙巳)월 일 문입등봉 선 서봉사입석 흥왕사대수 민구 각자(大定二十五年 乙巳二月日門入等奉宣瑞峰寺立石興王寺大師敏求刻字)라는 기록이 있는데, 대정(大定) 25년은 명종(明宗) 15년(1185)으로서 현오국사가 시멸(示滅)한 지 7년 후다. 흥왕사(興王寺)의 대사(大師)인 민구(敏求)가 각자(刻字) 하였음도 확인할 수 있다. 비석의 조형은 보경사원진국사비(寶鏡寺圓眞國師碑), 억정사대지국사비(億政寺大智國師碑), 보광사중창비(普光寺重創碑)와 같이 윗변의 양각(兩角)을 귀접이한 규형(圭形)이고, 지대석(地臺石)도 4변을

접었다. 개석(蓋石)과 여러 조식(彫飾)을 생략한, 고려 말 석비(石碑)의 새로운 계류(系流)를 형성하는 좋은 사례이다.

명문(銘文)에 의하면 현오국사는 고려 중기의 승려로 휘(諱)는 종린(宗璘), 자(字)는 중지(重之)이며, 속성(俗姓)은 왕씨(王氏)이다. 어려서부터 기량이 뛰어나고 심대하였다. 15세에 불일사(佛日寺)에서 수계(受戒)하고 의종(毅宗) 원년(1147)에 수좌(首座)가 되었다. 명종(明宗)은 원년(1171) 중추(仲秋)에 그에게 좌세(佐世)의 호(號)를 내리고, 내전(內殿)에 불러들여 가사(袈裟) 한 벌을 하사하였다. 명종 8년(1178) 7월에 53세 나이, 법랍(法臘) 39세로 시멸(示滅)하였다. 명종은 매우 애통해 하며 최광유(崔光裕) 등을 보내어 국사(國師)를 봉하고, 시호(諡號)를 현오(玄悟)라 하였다. 같은 달 17일에 동림(東林) 산기슭에 다비(荼毘)하였다. 현오국사는 대각국사(大覺國師)의 여풍(餘風)을 이은 대표적인 고승(高僧)이다.

## 한남정맥 길목

백운봉 앞 미육군통신대부터 광교산 토끼봉 형제봉 버들치로 이어지는 한남정맥 길이다.

### 등산로

1. 수지 토월약수터-생태공원(수지성당)- 광교산
2. 버들치-형제봉-토끼봉-정상
3. 수지 신봉동-천년약수-형제봉
4. 신봉동 성광기도원-양지고개-토끼봉

5. 고기리 배나무골- 능선 바위봉 -정상
6. 고기리 상손곡- 능선 -바위봉
7. 고기리-고분재 -백운봉-노루목 정상

#### 수원쪽

1. 반딧불 화장실 또는 경기대 - 백년수-형제봉-정상
2. 상광교저수지 양지고개-토끼재-정상
3. 사방땀-토끼재 -정상
4. 파장동-갈대밭- 노루목-정상
5. 지지대고개-통신대-갈대밭-노루목-정상



## 5 아기 엮은 산 **부아산**

부아산 (負兒山 403.6m)

온조가 백제의 도움을 찾던 부아악으로  
알려진 산으로 아기 엮은 모습의  
용인대학교 뒷산.



## 온조가 백제 도읍지 찾던 부아악

부아산(403.6m)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제1시조 온조 편에서 주몽(고구려 시조)의 곁을 떠난 비류와 온조가 오간 등 열 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부아악에 올라 도읍이 될 만한 곳을 찾았다는 내용이 있는 산이다. 남쪽 서리 쪽에서 보면 산 모습이 사복사면이 둥글고 돌출되어 그 모습이 어린이를 업고 있는 형상에서 이름 지어진 산으로 부아산(업을眞, 아이兒라)부르게 되었다. 용인시내에 가까이 있고 산도 높지 않아 접근하기 쉬운 산이므로 등산객이 많이 찾는다.

부아산 등산로에 하나의 대간과 여덟 개의 정맥을 완주한 솔로 준희의 리본을 보는 순간 대단한 산꾼이 부아산을 지나갔구나 생각하며 신약인으로서 설렘이 울컥 솟는다.

산행 중에 등산로에 걸려 있는 리본을 보면 마음이 훈훈해짐을 느낀다. 요즘 국립공원에서는 리본을 매지 못하게 한다. 등산로(탐방로)나 이정표를 잘 만들어 두어 길 찾기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정표가 확실치 않은 곳에서는 리본이 길라잡이 표식이다. 우리가 이곳을 통과 했으니 후담자는 이곳으로 오세요 란 정중한 안내표식이다. 순간순간 리본을 보면 안심도 되고 마음도 즐겁다. 등산인끼리의 훈훈한 정감이 흐르고 있으니 말이다.

부아산에는 명지대학교 뒤 함박산으로 이어지는 학고개(하고개: 삼거리 아랫고개라 하여 하고개로 더 알려졌다. 100여 년 전 지명지지엔 학(鶴)고개) 에코브릿지(동물 이동로 길이 190m 폭 19 높이10-12m)가 있다. 산과 산을 파내 터널 형식으로 만든 넓은 에코브릿지지만 경사도가 높아 동물들이 낙상할 만큼 가파른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등산로를 다시 만들고 있

다. 경기도에서 만들어준 터널로 우리에게겐 편리한 길이지만 동물 이동로로서는 문제가 있다. 용인대학 골프연습장 쪽에서 오르다 만나는 바위 속 쉽터는 물이 넉넉하여 쉽터로 좋고 정상에는 정상석이 동쪽으로 향해 있다. 북쪽 10m 아래쪽 거북바위도 볼거리다. 팔각정에서 쉬는 등산객에게서 여유가 넘친다. 부아산 거북바위 쪽으로 하산하다 중간 바위봉이 있다. 바위봉에서 북쪽으로 보는 성산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다. 너른 벌판에 뾰족한 모습으로 솟아오른 균제일학의 성산은 또다른 볼거리다. 남동으로 내려서는 길엔 에코브릿지와 서울공원묘원이 있다. 북쪽은 용인대학교의 전경이 산 속에 아늑하게 자리잡고 있다.

## 등산길

등산로는 삼거리에서, 늘 푸른 아파트 삼가초등학교, 천주교 공원묘지에서, 용인대학교 골프연습장으로 연결된다. 골프인도어 옆 능선을 따라 넓은 등산로로 올라가서 계곡쉽터 갈림길 옆 묘지 위로 올라서면 전망바위다. 계속 경사로를 올라서면서 평지 오른쪽으로 거북바위가 보인다. 거북바위 위에서 동편으로 전망이 좋다. 부아산 서쪽 능선 아래로 영진골프랜드로 이어진 한남정맥으로 성산까지 한눈에 들어오고 삼거리 궁말 상직동의 산 속이 속내를 보여준다.

10m쯤 올라서면 팔각정과 벤치가 자리 잡은 넓은 터에 정상석이 있다. 남쪽으로 안테나가 머리를 내민다. 안테나 쪽으로 내리막 길은 급경사로 줄을 잡고 내려서면 삼거리길이다. 서쪽으로 계속 내려서면 지곡리 저수지로 이어지는 길이다. 능선에서 오른쪽 길로 내려서면 한남정맥길로 영



진골프랜드 담을 끼고 삼거리 지곡리 길로 내려선다.

정상에서 동쪽 길인 에코브릿지쪽 등산로는 넓게 잘 조성되어 있다. 작은 봉 두 개를 넘어 내려서면 소방서 위치 표시를 지나 고압 철탑을 통해 근처 서울공원묘원으로 접어든다. 오른쪽 길로 내려서면 학개 터널 남쪽으로 내려선다. 동쪽 에코브릿지로 내려서는 길은 위험하기도 하고 묘지를 미로처럼 찾아 넓은 공터가 하고개터널 위다. 동쪽 가파른 절개지로 오르면 덕골, 동진이, 명지대를 잇는 한남정맥으로 함박산으로 이어진다.

### 등산로

1. 42번국도(늘 푸른 아파트)-용인대학교-북쪽바위-거북바위-정상
2. 하고개-공원묘원-상덕저수지갈림길- 정상
3. 한남정맥-영진골프랜드-능선-정상
4. 지곡리 및 신갈-영진골프랜드능선-정상
5. 한남정맥(함박산, 명지대)-하고개에코브릿지-공원묘원-상덕저수지갈림길-정상
6. 상덕저수지-갈림길-정상



## 6 모현인 마음 속의 산 노고봉

노고봉 (老古峰 573.6m)

노고봉 정광산 새달음산을 모아 노구봉이라 하며 모현면민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산이다.



## 광주산맥의 중심 산

동방에 정기 모여 수려한 조국 그 중에도 산수 좋은 용인 내 고향은 애  
향가 노랫말처럼 수려하고 산수 좋고 아름다운 산들이 많다. 산의 모습은  
제각기 다르다. 산에는 흙으로 된 산과 바위(석산, 암봉)로 된 산 그리고  
바위와 흙으로 이루어진 산으로 구분한다. 용인에는 흙으로 된 산으로는  
시궁산, 부아산을 꼽을 수 있고 바위산으로는 성산, 조비산 그리고 바위  
와 흙의 산으로는 말아가리산, 광고산이 대표된다. 보통 흙으로 이루어진  
산은 정상이 민둥봉으로 둥글고 모나지 않아 덕이 있다거나 원만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풍수학자들은 그런 산 근처에 사는 사람은 산을  
뒹아 품격도 덕이 있고 유하다고들 한다. 노구봉 정광산을 곁에 둔 모현  
사람들이 현인을 추모하는 마음을 지녔듯이 덕 있고 착한 사람들이 많다  
는 생각이 든다.

산을 오르다 보면 나라에서 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이용하기 위하여 임  
도나 방화선을 만든다. 산에 접근이 용이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 여러 곳  
있다. 그 중에 노고봉은 방화선을 만들어 놓은 산에 해당되는 산이다. 10  
여 년 전 광주산맥 정상을 방화선(불의 이동을 막기 위해 산능선을 폭 10  
여m로 나무를 전부 베어 만든 선)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산 모습만 이상  
해졌고 후에 잡풀과 산초나무만 우거졌다. 지금은 넓은 등산로가 되어 버  
렸다. 노고봉은 왕산시내에서도 방화선을 쳐 한때 등산로가 없어진 적도  
있다. 다시 등산로를 개설하여 지금은 모현시민의 웰빙 산으로 자리매김  
했다. 어쨌든 불조심 산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시민  
모두 생활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용인의 동북을 보호하는 용인산릉

용인시의 서북쪽은 발아산 백운산 광교산 형제봉이 감싸안아 용인을 보호하듯이 용인의 북동쪽으로 노고봉 정광산 벌떡산 큰봉 마락산 말아가리산 굴암산으로 이어지는 광주산맥이 용인을 감싸안고 있다. 용인 보호막의 시발점인 노고봉과 정광산은 그 모습이 넓은 품을 지녀 45번 국도에서 보면 마음의 고향 어머니 품 속 같이 늘 포근하다. 산세가 험해 등산로 외에는 접근이 어려운 산이지만 전에 인삼조합장을 지내신 정 조합장께서 고향인 모현 노고봉에 인삼 씨를 뿌려 산삼(장뇌삼)이 나는 산으로도 알려졌고 한때는 약초꾼들이 몰려든 때도 있었다.

노고봉(578.6m) 정상에는 삼각점과 산사랑에서 만든 돌탑 그리고 벤치, 외대 교수산악회에서 만든 노고봉 정상표지석이 눈에 띈다. 동쪽으로 발달된 등산로는 광주 새재달음산으로 이어진다. 북쪽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를 따라서면 바위봉이 전망터다. 산 아래로 펼쳐진 모현면 소재지 경안천 너머로 구만이산 달기산이 턱 밑으로 내려다보인다. 노고봉에서 정광산까지는 500여m 거리로 함박꽃나무(산목련)가 넓은 잎을 뽐낸다. 민동봉 정광산(562m)에는 2004년 1월 1일 왕산초 동심회에서 세운 정상표지석이 있다.

노고봉 정광산은 서쪽에서 보면 널찍한 큰 품으로 안정감이 드는 산으로 노고봉이라 부른다. 노고봉에서 암봉을 돌아 내려서면 모현시내까지 등산로를 잘 정비해 가파르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등산로다.

노고봉 주위엔 미인송이 많다. 방화선을 만들면서도 미인송을 보호한 흔적이 여러 곳 있다. 왕산에서 오르면서, 외대 쪽에서 오르면서 쉽터에

서 만나는 우리 소나무 미인송은 언제나 고향에 온 기분으로 산행할 수 있어 노고봉 산행의 맛을 더욱 좋게 해준다.

산 아래 갈월저수지는 물이 깨끗해서 여름철에 많이 찾는 물놀이 터다. 지금은 상부의 식당을 많이 이용한다. 멀리 내려다보이는 경안천가에 약 천 남구만 선생의 사당과 용인팔경인 비파담 만풍을 멀리서나마 보면서 서편으로 떨어지는 낙조 속에서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 재 너머 사래긴 밭을 언제 갈까 하느냐' 읊조리며 나에게 물어본다. 저 아래 보이는 능선을 언제 하산하려나. 정광산에서 서쪽 능선으로 약천 남구만 선생의 묘로 이어진다.

※ 참고: 노고봉은 4개의 봉우리가 산릉을 이루고 있다. 앞 봉은 바위봉, 뒷 봉은 새재달음산(570m동쪽) 옆 봉이 정광산(562m남쪽) 그리고 노고봉(573.6m)이 중앙에 있고 제일 높다. 어느 산 지도에서 보면 산릉 전체를 정광산으로 표시한 책이 있는데 이것은 봉이 산에 포함 된다고 해석한데 비릇된 것 같다. 거꾸로 모현에서는 산 4개를 합하여 노고봉으로 알려져 있다.

## 등산로

1. 시경계 종주 코스
2. 초부리 삼단폭포-정광산
3. 초부리- 패러글라이딩 활공장-벌떡산-정광산
4. 초부리북쪽능선-정광산
5. 왕산시내-쉼터-바위봉-노고봉
6. 외대정문-약수터-능선-쉼터-바위봉-노고봉
7. 외대(학생회관)계곡-돌고개-바위봉-노고봉
8. 외대뒤-용인고개- 돌고개-바위봉-노고봉



## 7 선녀의 연못 시궁산

시궁산(時宮山 513.9m)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했던  
연못을 시궁이라 한다.  
용인의 남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 용인의 명산 시궁산

산이 좋다. 산을 좋아하다 보니 산에 자주 오른다. 산에서 만난 사람들은 용인 명산이 어디냐고 묻는다. “아름다운 명산” 작가 김홍주 선생은 명산을 다섯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산의 형상 형태에 따라 명산을 정한다. 둘째, 정상 모습과 전망에 따라서 명산을 정한다. 셋째, 산속 계곡의 아름다운 모습. 넷째, 산 속에 자라나는 나무들과 암석의 배치. 다섯째, 산길이다. 산의 골격과 숲, 그리고 산등성이를 잇는 산길의 아름다움에 개울까지 산길이라고 한다. 나는 여기에 여섯 번째로 역사와 전설을 지닌 산을 추가하고 싶다.

첫째, 산의 형태로 볼 때는 용인에선 노고봉, 건지산, 성산, 광교산 시궁산, 조비산. 둘째, 정상 모습 전망으로는 성산, 광교산, 시궁산, 조비산, 부아산. 셋째, 계곡으로 시궁산, 광교산, 말아가리산, 성산. 넷째, 나무와 바위의 배치로는 광교산, 시궁산, 말아가리산, 성산. 다섯째, 산길에서는 시궁산, 광교산, 성산. 여섯째, 역사와 전설에서는 광교산, 시궁산, 성산.

앞에 열거한 여섯 가지 명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 줄 수 있는 산은 그리 많지 않다. 굳이 정하면 시궁산, 성산, 광교산 정도일 게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산이 명산일까? 아름다운 산으로는 금강산, 설악산, 묘향산을 뽑을 것이고 종주와 웅장함으로는 지리산과 덕유산이 으뜸일 것이고 영산으로는 백두산, 한라산이 아닌가. 산 하나에 많은 것이 함축된 산은 없을까? 아름다움과 품격과 신비를 간직한 산이 있다면 월출산이다. 주봉 천황봉은 금강산 설악산을 옮긴 것 같고, 능선으로 이어지는 구정봉은 지리산의 축소판 같다. 거기에 미왕재의 갈대숲은 색다른 산의 맛을 더해주는

산이다. 산을 휘감고 있는 영스러운 기운은 백두산처럼 신비를 느낀다. 거기에 호남인의 기개로 상징되는 국보인 마애불 남근석 굴 통천문 무위사 등 스치는 곳마다 새롭고 색다른 인상을 주는 월출산이 명산으로 한번쯤 등산해 보라고 권하고 싶은 우리나라의 명산이다.

### 선녀의 목욕터 시궁

시궁산은 용인시 남쪽에선 제일 높은 산이다. 동북에 말아가리산 서북쪽에 광고산, 중심에 성산, 남쪽으로 시궁산까지 연결하면 역 삼각형 안에 성산이 자리한다. 전설에 의하면 산 정상에 연못이 있었는데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하던 곳으로 신선봉이라고 불렸다. 선녀들이 목욕하던 연못을 시궁이라고 하는 데서 이름지어진 산이다.

조선지지 자료에는 국사봉으로 표기돼 있기도 한 산이다.

### 긴 산행으로 연계

시궁산은 품이 넉넉한 높은 산으로 여러 산으로 연결되어 긴 산행을 하기에 적당한 산이다. 시궁산을 중심으로 삼봉산으로 연결되며, 남쪽으로 거문정으로 쌍령산과 한남정맥으로 연결돼 문수산으로 이어지고, 남쪽으로 미리내를 끼고 묘봉으로 가는 도중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산도 만난다.

천주교 성지 미리내도 접근성이 좋다. 천주교 용인 양지공소에서 미리내까지 김대건 신부의 운구 길을 별미고개(신덕고개)-용해곡고개(망덕고개)-거문정고개(애덕고개)를 천주교 3덕고개 길로 성지순례 길이다.

시궁산은 오르는 코스도 아기자기하고 긴 산행에 길도 좋지만 정상에서



보는 어비리 저수지의 낙조는 용인팔경 어비낙조의 진면목이다. 정상도 정상석을 세우면서 넓혔다. 정상석 이정표까지 있어 사진 찍기도 좋아졌다. 바로 아래 큰 헬기장이 넓어 등산객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시산제 지내기에 좋은 곳이다. 주위에 성륜산(굴암산) 천년고찰 용덕사도 있고 용인시에서 도로가 좋아 접근하기 좋은 산으로 많은 등산객이 즐겨 찾는 산이다.

## 등산길

1. 삼봉산-안부-헬기장-정 / 삼봉산에 오르는 코스는 삼봉산(참조) : 삼봉산에서 급경사로 내려서 안부에 서면 수녀원에서 오르는 길과 화산컨츄리로 오르는 사거리에서 능선을 통해 긴 코스로 오르면 정상 서쪽 헬기장이다.

2. 수녀원- 안부-헬기장-정상 / 묵리길에서 수녀원으로 들어서면 수영장 쪽 계곡을 따라 올라서면 사거리 안부에 도착한다.

3. 도로 옆 (전)산모롱이-쉼터- 바위능선- 정상 / 장촌 입구 전 산모롱이에 이정표 옆으로 등산로가 있다. 급경사로 오르면 쉼터가 있고 쉼터에서 능선으로 오르면 암릉이 있다. 암릉에서의 조망이 좋고 바로 정상으로 연결된다.

4. 거문정-애덕고개-헬기장- 삼거리-정상 / 거문정에서 임도가 연결된 애덕고개에서 오른쪽 능선 길로 한참을 올라서 정상 남쪽 헬기장을 통해 봉우리능선에 오르면 묘봉리 길과 만나 계단으로 해서 정상으로 오른다.

5. 묘봉-삼거리-정상 / 묘봉길은 길을 아는 사람이 찾는 길로 김 전대통령 선산 동쪽 능선으로 올라 계속 북쪽으로 통하면 정상으로 연결된다.



## 8마애불이 있는 문수봉

문수봉(文殊峰404.2m)

용인의 유일한 마애불이 있는 산으로  
문수사에서 유래된 산이다.  
경안천(문수샘) 발원지가 있는 산이다.



## 문수사지가 있던 문수봉

산의 이름도 가지가지다. 그리고 산 이름도 특색이 있다. 용인의 산도 특색에 따라 분류해 보면

1. 모습에 따라- 말아가리산(말아가리 모양), 부아산(아기 업은), 함박산(함지박모양)
2. 역사, 전설 -광교산(왕건행군) 노고성산(할미성)
3. 종교적 - 백운산, 대덕산(도교), 문수산, 법화산, 용화산, 미륵산(불교) 노고봉
4. 인물-구만이산(남구만)
5. 봉우리-칠봉산, 구봉산, 삼봉산
6. 마을명-남산, 금어산, 대지산
7. 서식생물-매봉, 응봉, 토끼봉
8. 명물-석성산, 수정산, 굴암산
9. 위치- 남산, 앞산, 뒷산
10. 생김새-조비산(새가 나는 형상), 갈미산

모든 산들은 이름만 들어도 특색이 풍겨 나온다. 문수봉은 불교의 문수보살을 상징하는 산이다. 원삼면에서 북서쪽 끝에 있는 용인팔경 곱든고개와 접해 있는 산으로, 산에서 용인팔경인 사암저수지 주위를 볼 수 있다.

우리 생활이 불교 문화권이던 신라,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국내 산 이름도 불교에서 유래된 곳이 많다. 금강산 비로봉 지리산 반야봉 천왕봉 관음봉 등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 문수보살 친견은?

용인시 원삼면 문촌리 내동 뒷산 문수봉도 문수사지에서 연류된 산이다.

문수봉 팔부능선에 문수사지 마애불(용인에 유일한 마애불 도지정 유형 문화재 제120호)이 있는 산으로 불교 화엄경에 선재동자가 처음으로 만나는 보살이며 신라 자장스님이 중국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부처님 진신 사리와 가사를 받았다는 보살로 조선 세조대왕이 오대산에서 문수동자를 만났다는 이야기 속의 보살 이름이다. 불교에서는 지혜를 상징하며 왼손에 연꽃을 들고 사자를 탄 모습의 보살이 문수보살이다.

문수봉은 산 정상이 넓은 평지에 동쪽으로 팔각정이 있다. 부아산 정상 팔각정과 흡사하다.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정상석도 2008년에 만들었다. 동쪽으로 소나무들이 멋있다. 문수봉도 한남정맥의 길목으로 뒤편으로 거대한 석유비축기지가 있고 예전에는 이곳이 경안천 발원지였다. 지금은 비축기지 건설로 흔적도 없다. 그래서 문수봉 서북쪽에 문수샘을 경안천 발원지로 만들었다. 반대쪽 동쪽에 있는 청미천(백암으로 흐르는 한강 지류)도 문수봉이 발원지다.

문수산에는 마애불 아래 약수터가 있다. 바위 구조물 사이 옷나무 밑으로 흐르는 샘물이 불교식으로 말하면 감로수다. 주위에 고산 식물인 산죽(조릿대)이 많은 곳이 문수사지다. 샘터 주위는 공원으로 꾸며 놓았으며 개복숭아 나무 아래 맷돌 아랫돌 모양의 바위가 있다, 북쪽 곱든고개에서 오르면 첫 봉우리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다.

활공장에서 주봉까지는 3-400m로 가을철에 도토리가 많은 능선이다. 전망이 좋은 문수봉은 한남정맥 종주꾼과 약수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의

외로 많다. 산 아래에는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우리랜드와 문수사를 대신한 규모가 아주 큰 법륜사도 만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앞마을 내동 마을회관 주위는 고인돌이 몰려있는 곳이다.

문수봉은 한남정맥종주는 물론 때없이 올랐던 산으로 문수봉에 관한 시도 많다. 문수사지, 문수봉 등등 중에서 천년묵언을 소개한다.

### 천년묵언

이제학

꼬불 꼬불

조릿대 환호

굽은 고개

들리는 산소리 묘음

올려다본 문수봉

들리는 물소리 불음

산 가려 궁금증만

여름이 할퀴고 간

마애불 천 년 묵언 들었다

수로가

옷나무 진 내린 샘

산길 밤새 늘어놓은

땀 흘려 천 년 묵언 흐른다.

도토리 상수리 알밤 주우며

턱아래 마애불 날 끌어



## 9 다시 찾고 싶은 산 형제봉

형제봉(兄弟峰 448m)

천주교 성지 은이(양지공소) 골짜기를 안은 산으로  
와우정사 굽은고개로 이어져 접근하기 좋은 산이다.



## 재미난 민화가 살아 숨 쉬는 운학골짜기

행정구역상 동부동 운학 골짜기는 운학동 해곡동 호동 3개동으로 이루어진 용인시내 동남쪽 골짜기를 말한다. 경안천의 발원지인 용해곡이 있다. 운학천을 기준으로 남쪽은 용해곡을 포함해 호동, 북쪽 끝은 해곡동, 아래를 운학동이라고 한다.

운학리는 삼삼리 묵동(먹거리) 장재미 별학이 학촌 어둔이, 호리는 예직(길업) 범안골(범만골) 해곡리는 해실이 별미 등이 합쳐진다.

골짜기에 국사봉 형제봉 정기를 받아 인심 좋고 풍요가 넘치는 골짜기로 재미있는 민화를 소개한다.

옛날 '범안골' (호동)에 살고 있던 호랑이가 '학골'에서 날아드는 국사봉 학을 잡으려고 '어둔이' (운학3동)에 어두워 질 때까지 숨어 있다 용이 되려는 이무기를 '먹거리(묵동)' 까지 쫓아가 잡아 놓고 보니 먹이가 '삼삼' (운학1동리)해 보이는 지라 막 입을 다시며 먹으려는 순간 별안간 하늘에서 날 '벼락이' (별학동) 치는지라 혼비백산 겁을 먹고 도망쳐 능선 옆 '장재미'에서 마음 놓고 먹고 보니 맛이 '별미' (해곡동)였다. 호랑이는 운학천을 넘어 '용해곡'으로 가다 용해곡 용에게 용이 되려는 이무기를 죽인 꾸지람을 듣고 후회하며 문수봉 문수보살에게 '예직' (호2 동)이에서 예를 갖추고 기도를 올리니 '길업' (호1동) 좋은 일이 생겨 호랑이는 마음을 착하게 먹고 오래도록 살았다는 민담이다.

## 주봉 아래로 작은 봉으로 이루어진 형제봉

형제봉은 운학리에서 보면 2개의 봉우리가 보이지만 신평리에서 보면

큰 봉우리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봉우리들이 형제봉을 만든다. 내어둔 골짜기에는 형제봉 자락에만 절이 셋이나 있다. 관음사, 보문정사, 용애사가 있다. 내어둔에서 형제봉은 조금 경사가 급하다. 주민들이 주봉 아래에 성터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올라 보니 산 중턱부터 골짜기에 돌이 많고 성을 쌓았던 곳도 보이지만 옛날 나라에 큰 변고가 생겼을때의 피난처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8부 능선에 넉넉하게 흐르는 식수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람이 오래 기거할 수 있는 장소다. 골짜기 아래에 있는 용애사 입구에 있는 약수터 물맛이 좋다고 이름이 나 있다. 형제봉은 산나물과 가을에는 산열매가 많다. 그래서 봄가을에 산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제법 알려진 곳이다.

양지 42번국도 옆에서 오르는 길은 급경사 길이지만 2개 봉우리를 넘어서면 고압철주를 세우려고 사방으로 길을 열어 놓았다. 철탑 옆 바위가 많은 곳이 있다. 넓은 편에 속하는 평상바위 바둑바위 거기에 동굴바위로 알려진 동굴도 2개나 있다. 바위골에는 이미 철탑이 있어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셋길을 놓친다. 삼거리에서 능선에 올라서면 봄철 망태버섯 군락지를 지나 한 봉우리를 넘으면 정상으로 오른다. 정상에는 여러 개의 긴 의자 운동기구에 누리장나무가 예쁜 꽃망울을 달고 있다. 남쪽으로 난 길은 연화봉 입구로 별미(신덕)고개로 이어진다. 천주교 성지인 양지공소가 계곡에 있다. 김대건 신부의 미리내까지 운구길로 형제봉 끝자락 별미고개를 천주교에서 신덕고개라고 비석을 세워두었다. 별미고개를 넘어서면 해곡리 와우정사가 자리한다. 누워 계신 부처로 유명한 와우정사는 볼거리가 많은 사찰이다. 와우정사 뒷산도 연화봉이라 부른다.



## 등산길

1. 42국도(양지입구)-삼거리-평상바위-첫봉우리-정상
2. 42국도-은이공소-은이계곡-별미고개-연화봉입구-안부-묘터-정상
3. 해곡리-와우정사-별미고개-연화봉입구-정상
4. 보문정사-능선-묘터삼거리-정상

42번 국도 양지입구(버스정류장) 오른쪽에 양지면에서 등산로 입구를 잘 만들었다. 흰색 건물의 식당 뒤로 오르면서 등산은 시작되며 계단을 오르면 우거진 숲속이다. 이정표가 잘 돼 있어 등산은 어렵지 않다. 오른쪽 갈림길은 용인(마평동)으로 이어지는 능선길이다. 정상을 향해 오르다 고압선 첩탑을 만들어 제3봉은 없어져 평상바위를 비롯한 바위능선은 첩탑 옆에 있다. 형제봉은 참나무가 많으며 능선으로는 벚꽃도 많다. 작은 봉우리 몇 개 넘어서면 정상에 오른다. 이정표에 운동기구 벤치가 몇 개 있는 정상은 작은 쉽터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하나뿐이다. 조금 내려서면 고춧(오래된 묘)이 허물어져 있다. 내어둔 관음사나 보문정사로 내려가려면 오른쪽 능선을 택하여야 한다. 이곳에서 많은 등산객이 내어둔 길을 못 찾고 다른 곳으로 하산하는 경우가 많다. 길을 따라 내려서면 안부 못 미쳐 왼편으로 하산길이 있다. 그곳으로 내려서면 작은 골짜기 물줄기로 이어져 은이 골짜기 입산통제소 200여m 위 물가로 내려선다. 이곳부터는 물이 넉넉하여 등산객이 많이 쉬어가는 물 놀이터다.

이어지는 등산로에서 오른쪽으로 널찍한 종중묘가 산 아래 보인다. 안부를 지나 이정표는 남쪽으로 연화봉이다. 주 등산로는 동쪽으로 계단을 내려서며 사거리 고개다. 별미고개는 천주교에서 성지 길로 신덕고개라

는 비석을 만들어 두었다. 왼편 북쪽은 은이계곡으로 천주교 양지공소 그리고 42국도 출발 지점 근처다.

남쪽으로는 와우정사로 내려서는 운학리 길로 이어진다. 앞 능선 길로 계속 올라서면 칠봉산 능선길을 만난다. 왼쪽(북쪽)으로 칠봉산 정상길로 갈미산 영실산 독조봉 청소년수련원으로 이어지고, 오른쪽(남쪽)으로는 곱든고개 에코브릿지 문수산으로 이어진다.

아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형제봉은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좋아 매주 찾는 이가 많은 산이다.



## 10 불심이 가득한 향수산

향수산(香水山457.4m)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딱따구리가 사는 산으로 용인에서 가장 오래된 천년고찰 백련사와 에버랜드를 안고 있는 산이다.



## 그대가 생생 보살이네

이제학

백련사에 이르러 절을 보고  
향수산에 이르러 산을 본 다음  
그대를 바라다보니  
그대가 생생 보살이네  
밤길 돌리며  
산새 소리 밤새 이어져  
그대 말소리를  
다시 듣고 가네.

## 愛寶樂園(에버랜드)을 안은 향수산

옛 생각에 잠긴 불심을 떠올린다.

어릴 때 산 이름도 모르고 어머니 뒤를 따라 불공 드리러 오솔길(지금 에버랜드 미술관 앞)로 접어드는데 산 어디선가 도끼로 나무 찍는 소리에 놀라 어머니를 꼭 끌어안았다. 후에 알았지만 까막딱따구리(천연기념물)가 나무 쪼는 소리가 그렇게 큰지 새삼 놀랐다. 산중턱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는데 노보살님이 다소곳하고 정중하게 부처님께 불공드리던 모습이 떠오른다. 벌써 50년이 흘러버린 영상이다.

향수산에 있는 백련사는 역사가 깊은 사찰로 용인에서는 가장 오래된 사

찰이다. 신라 40대 애장왕 2년(801) 신웅선사가 창건하였다. 조선 태종4년(1404년) 무학대사가 18나한을 조성하였다. 백련사는 절 규모도 크다. 조계종에 속해 있고 신도들의 노력으로 불사를 거듭해 대웅전 전면회랑 종가 나한전 등 찾는 불자들에게 깊은 불심을 심어주는 사찰이다.

향수산은 에버랜드 뒷산으로 산이 유하고 포근한 흙(육)산으로 접근성이 좋은 산이다. 앞은 에버랜드 뒤로는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동쪽으로는 승주골 고개로 연결된다. 에버랜드 큰 호수를 삼만 육천지라 하고 위 작은 연못은 오천지라고 한다. 그 연못으로 흘러드는 물이 맑고 수량이 넉넉해 계곡놀이로 좋았던 곳이다. 지금은 에버랜드에서 관리를 잘 해서 봄철 벚꽃이 많아 가실(에버랜드)벚꽃을 용인팔경으로 정하게 되었다. 향수산은 에버랜드에 가려 등산객은 적지만 백련사까지 차량이 접근할 수 있어 신도와 산객이 많이 찾는다.

## 등산길 개요

향수산은 정상이 넓어 수십 명이 한꺼번에 설 수 있는 곳이다. 향수산을 오르는 길은 에버랜드 중문에서 정문 쪽으로 연구소 갈림길에서 북쪽으로 백련사 이정표를 따라 오르면 절에 도착한다. 백련사 앞 전면 좌측 탐비 옆으로 올라서면 등산로가 나타나며 돌아서면 3개의 묘가 있다. 묘 앞으로 가는 길은 향린동산 할미산, 성산으로 가는 길이다. 묘 옆으로 올라서면 산 능선에 연결되며 노고성산(할미산)에서 연결된 능선을 따라 오른쪽으로 오르며 뽕죽봉을 지나며 만나는 널따란 평지가 향수산 정상이다. 삼성에서 만든 두 개의 장승이 있다. 넓은 터에 2009년에 만든 정상석은

위치와 방향이 어색해 보인다. 이어지는 길로 똑바로 가면 산불 초소 밑으로 에버랜드순환 도로로 내려선다. 오동나무숲을 끼고 남쪽으로 내려서면 백련사 갈림길이 나타난다. 차량 출입 차단기가 설치돼있다.

정상에서 북쪽으로 큰 바위가 있다. 바위 뒤로 등산로가 있다. 그길로 계속 이어진 등산로는 할미당산을 지나 성주골고개로 내려선다.

정상에서 노고성산으로 가려면 서쪽으로 내려서면 갈림길이다. 오른쪽으로 레이크사이드CC가 보인다. 이어진 길에서 오른쪽 길은 사기막으로 가는 길이며 조금 내려서면 향린동산 뒷길로 한남정맥으로 아차지고개로 간다. 왼쪽 길은 향린동산 길 안에 한 고개를 통해 할미산성(노고성산)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 등산로

영동고속도로-할미성-향린동산-삼거리-향수산

백련사-묘지-향린동산길-정상

정상-바위-할미당-동림리



# 11도읍지의 꿈을 간직한 산 구봉산

구봉산(九峰山 465m)

고려말 도선국사가 와서 보았다는 도읍지의 꿈을 간직한 산으로  
봉마다 신령스러움이 배어있는 산이다.



## 아름다운 아홉개의 봉우리

이중환의 “택리지” 경기편 앞부분을 보면 “죽산의 칠장산은 기호 경계에 우뚝 솟았고 서북으로 뻗치어 수유현에서 크게 끊어져 평지가 된다.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 용인의 부아산이 되고 또 석성산 광교산을 일으킨다. 죽산 남쪽에 구봉산이 있는데 봉우리로 둘러싸여 산성을 만들 만했다.”

택리지 중에서 용인의 구봉산 설명이 잘못 기술되어 있다. 바로 잡으면 죽산 서북쪽에 있는 산이 구봉산이다.

구봉산은 봉우리가 아홉 개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백암면 원삼면을 동서로 나누고 있는 긴 능선의 산으로 서쪽은 태영CC가 자리 잡고 있는 산이다. 북쪽으로 맑은 물이 있는 두창 저수지와 저수지 위 늪지대는 생태 연구가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동쪽에는 임도가 산 중턱으로 연결 돼 있고 MBC 문화동산은 TV 촬영장이 있어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봉우리는 아홉이지만 전엔 주봉은 바위봉으로 측량 삼각점이 있는 남쪽 3번째 봉이 가장 높은 산이라 하였는데 2008년 정상석을 만들며 정상이 확실한 북쪽에서 3번째 봉에 새로운 삼각점을 심고 그곳에 구봉산 정상석을 세워 정상임을 알린다. 무인산불감시카메라에서 태영CC로 굽어보면 골프장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 터다. 골프장 너머로 한천(목신천)은 고삼저수지로 유유히 흘러 안성과 용인을 어어 준다. 북쪽으로 동지골은 별장촌이며 만화 박물관이 관심을 끈다.

이렇게 수려하고 신령스러운 산에는 전설이 많다. 그중 하나만 소개해 보면...



## 한양 될 뻔 했던 산

고려 말 한양에 도읍을 정하기전의 일이다. 도읍지를 정할만한 곳을 찾기 위해 전국 각지의 명산을 모두 알아보라고 하였는데 그때 구봉산도 그 가운데 끼어 있었다. 여러 신하들이 논의하여 삼각산 계룡산 구봉산이 일차로 선정되었다. 대신들이 산들을 찾아가 산세를 파악하였는데 구봉산이 신령스러운 산으로 찾아온 대신들도 감복하였다. 최종적으로 삼각산과 구봉산이 선택되었지만 인력으로 선택할 만한 일이 아니어서 도사의 힘을 빌기로 했다. 도사는 두개의 산 가운데 봉우리를 100개를 먼저 만드는 산 근처를 도읍지로 정하기로 하였다. 그때부터 구봉산 산신령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봉우리를 만들기 시작하여 100개를 모두 만들었다. 삼각산 산신령은 한 봉우리를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구봉산 산신령은 100개를 만들고 급히 알려려고 할 때 갑자기 억수같은 비가 퍼부어 봉우리 하나를 쓸어 버렸다. 구봉산 산신령이 낙담하고 있는 사이에 삼각산 신령은 마지막 한 봉우리를 만들어 결국 삼각산으로 도읍을 정했다고 한다. 구봉산은 풍수지리에 의하면 기세가 높아 그 기가 여주 영릉(세종대왕 능)까지 이어져 영릉이 명당이 된다는 풍수의 이야기도 있다. 필자는 전설에 100개 봉우리보다 10개 봉우리로 해야 구봉산과 앞뒤가 맞는 것 같다.

구봉산 아래 구봉마을 건너 마을엔 무학대사가 도읍을 찾으러 다니다 기거 했다 하여 무학이 마을이 있고 홍수 때 봉우리가 떠내려가 안성에 작은 산이 만들어 졌다 한다.

달기봉은 구봉산의 한 자락이지만 실제 올라보면 많이 떨어져 있다. 한 남정맥이 구봉산을 지나면서 만나는 달기산은 봉우리가 닭의 벼슬모양의

산이다. 정상엔 넓은 터와 아름다운 소나무가 많이 눈에 띈다. 산을 넘어 서면 천주교 공원묘지로 연결된다. 정배산 아래 용인CC가 새로 생겨 오르는 길은 황새울 농장을 거쳐 오를 수 있다.

정배산은 전에는 높은 산이었지만 토질이 마사토에 가까워 세월이 흐르며 능선이 무너져 산이 낮아졌다. 옛 지도에는 정배산 이름이 있지만 지금의 형체는 작은 산이다. 남쪽 황새울농장 북쪽은 MBC문화동산이 있다.

석술암산은 용인산수이야기에는 파리봉으로 소개한 바 있는 산으로 백암 쪽에서는 툭 튀어 나와 잘 보이는데 산 속에서는 찾기가 어렵다. 일부러 찾아 올라서면 진달래가 주위를 싸안은 봉우리다. 작은 소나무 숲으로 오르면 동쪽의 백암이 한눈에 들어온다. 양준이로 연결되는 등산로가 있다.

### 등산로

1. 조비산-정배산-달기봉-구봉산
2. 두무산-두무재-석술암산-구봉산
3. 골안(두창)-석술암산-구봉산
4. 잣말고개-한남정맥길-동지골(만화박물관)-구봉산
5. 벼루모퉁이-임도-구봉산
6. 목신리-동지골(만화박물관)-구봉산
7. MBC문화동산-임도-구봉산



# 12영육이 살아 숨 쉬는 오봉산

오봉산(烏峰山)418.6m

영육이 숨 쉬는 오봉산은 조선말기 매국노 송병준 별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처가의 명당과 순교자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는 양지면의 마음 속에 각인된 산이다.



## 임금이 계실 명당

금박산(긴박산, 김박산)으로도 불리는 양지면 추계리 뒷산이다. 지도상 오봉산과 금박산은 다른 봉우리로 금박산(429.7m)이 더 높다. 좌전고개에서 보면 주봉 근처의 봉우리가 3개이고 옆으로 6개의 작은 봉우리가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이 오봉산에 이순자 여사의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이장하였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 명당자리는 3봉은 삼정승, 6봉은 육조를 상징하며 이곳이 임금 계실 명당이라고 한다. 이 터는 처갓집의 덕을 본다는 봉황이 하늘을 나는 형상으로, 묘를 쓴 곳이 봉황의 머리로 큰 석물(돌)을 쓰면 봉황이 날지 못한다하여 석물을 쓰지 않았다 한다. 오봉산 9부 능선에 아래위로 나란히 있는 두 개의 묘는 당시 호화 묘지는 아니었다. 한때 산불이 났고 지금은 관리를 안해 잡풀이 우거져 있지만 묘에 올라 보면 멀리 좌전고개까지 포근히 안고 있어 아마추어 풍수들도 명당이라고들 한다. 오봉산 아래에는 99칸짜리 집이 있었다.

지금은 온누리교회 재단에서 운영하는 저택은 일제 강점기 친일매국노 송병준의 저택으로 친일파들의 소굴로써 의병들의 기습을 많이 받던 곳이다. 해방 후 김두환과의 인연으로 유명한 하야시(선우영랑)는 한국인이었다. 해방 후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그가 죽자 한국인 부인은 송병준 저택을 구입하여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짓고 온누리교회재단에 헌사했다. 후에 기독교100주년기념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가을에 흐르는 물이 너무 맑고 아름답다는 추계천, 식금리의 전 문화원장이신 향사 (고)박용익 선생의 공적비, 기호제일선원 동선사 비구니 정

원스님의 모범적 구도의 모습은 금박산이 간직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품 안 사람들이다.

봄은 산의 아름다움이나 길가에 풀 한 포기조차 작은 움직임도 이야기 거리가 되는 계절이다. 신록의 5월이 봄 속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봄 냄새를 맛보는 것은 산꾼들만이 갖는 전유물일 것이다.

금박산은 봉우리가 다섯이라 오봉이 아니라 흑연광이 있었다 하여 까마귀 오(烏)자를 써서 오봉이라 한다.

요즈음 추계리 수양관 동쪽 능선 넘어 전원주택지를 개발하여 오봉산(금박산) 접근이 쉬워졌다.

## 등산로

1. 42번국도 추계리 기독교 수양관-기독교 100주년기념관 뒷길- 안부- 동쪽능선- 갈림길- 정상 (왼편길은 금박산, 덜러덜봉으로 군부대주둔지)
2. 수양관내-교회-오른쪽능선-기도처-전원주택 진입로- 급경사-모터-정상
3. 추계리-전원주택지-능선길-모터-정상
4. 총신대-뒷길- 능선-100주년안부-삼거리 -정상
5. 기남이고개- 총신대능선-100주년안부-삼거리 정상

수양관 안으로 들어서서 숲을 지나면 뒤편으로 베들교회 앞으로 능선길이 있다. 능선에 올라서서 시멘트길로 건물을 통과하면 오른쪽의 전원주

택에서 오르는 길과 만나며 급경사의 금박산 등산로다. 가파른 경사를 오르면 왼편으로 묘지가 아래 위로 2기를 지나면 오봉산 정상에 도착한다. 민동봉 동북쪽에 봉우리도 있다. 정상에서 서쪽으로 내려서는 길은 어렵지 않고 능선길은 칠부 능선에서 갈림길이다. 북쪽으로 군부대(금박산, 털러덜봉)길이다. 계속 내려서면 안부, 100주년기념관에서 오르는 길이다. 입구에서 2km쯤 수양관으로 연결된다. 시멘트길 옆으로 작은 냇가는 물이 깨끗하여 여름철 피서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안부에서 계속 서쪽으로 오르면 멋이 묻어나는 산길로 능선으로 이어진 길은 갈림길을 만난다. 왼편 잘 발달된 길은 충신대로 내려서는 길이다. 충신대 캠퍼스도 볼 만하다. 갈림길을 통과하면 측량 삼각점이 있는 봉을 만난다. 이곳부터 능선 길은 기남이고개로 아시아나CC에 도착한다.



## 13 어릴 적 추억이 가득한 <sup>학</sup>산

학산(鶴山 239m)

석성산 줄기로 번암 채재공 묘와 뇌문비, 김량 장군의 묘가 있다.  
은인이 나타나 덕을 베푼다는 처인구청 북쪽의 은덕굴 뒷산이다.



## 학산에 가면

이제학

내 어릴 때 놀던

학산에 가면

진달래 개나라 반갑게 마중 나온다.

산 능선에 올라 하늘을 보니

하늘은 그대로 인데

오솔길 작은 나무들 이제 몸 불 킨

거목되어 점잔케 인사하네.

나 어릴 때 놀던

학산에 가면

이름 모를 숲속 친구들

옛 친구 왔다고

반긴다.

### 나의 어릴 때 병정 놀이터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의 남쪽 중앙공원 산을 노구봉, 북쪽 산을 학산이라 부른다. 돌봉치 바위가 학의 벼슬이라면 왼쪽 초등학교 공신주택은 오른쪽 날개, 유림동 뒷산은 왼쪽 날개다. 학산은 유림동 쪽 표지봉과 능선 끝봉 두봉이 239M로 제일 높은 봉이다.

학산은 돌봉치(178M) 햇골입구산(234M) 구성말뒷산(236M) 놀이터가 있는 봉우리(238M)가 고만고만한 산으로 이루어진 용인시내 북쪽산릉이다.

학산은 석성산 줄기로 용인시내를 감싸 안은 산이다. 삼군사령부 앞에 정조 때 영의정을 지내신 변암 채제공의 뇌문비와 묘소가 있다. 상수도 취수장 위에 국궁장이 있는 햇골은 임진왜란 때 전투가 심했던 곳으로 해



골이 많았다 해서 햇골로 불리던 곳이다. 유림동 버드실 입구에 물바위는 무속인들의 기도처로 잘 알려졌다.

역북동 구성말은 음터굴이라 하여 음터로 성산의 산신이 여자(마고)할머니에서 유래했으며 요즈음은 구성, 아홉 개의 별이 있는 곳이라 삼군사령부가 생겼다고 한다. 은덕굴은 용인초등학교 동편 골짜기로 큰 덕을 지닌 분이 나타나 좋은 일을 할 곳이라 은덕골로 불린다. 공신주택 아래 능말은 전에 능을 쓰려고 했었다하여 능말이라 부른다. 용인의 김량장이 생기게 된 유래는 김해김씨인 김량우랑이 절충장군 벼슬을 하면서 살아생전 좋은 일을 많이 하여 명성을 얻었는데 어느 날 도인이 저작거리(장터)를 만들면 후대까지 이름이 난다하여 저작거리를 만든 곳이 김량장이란다. 김량우랑의 묘가 중앙감리교회에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때 그 곳에 일본의 신사(신궁)를 지으려고 이장을 시켜 역북리로 옮겨서 지금의 자리인 돌봉치 은덕굴에 묘지가 있다. 용인초등학교 뒤 학산에 큰 안테나가 있다. KBS-TV 용인중계소 탑이다. 학산에는 은덕굴 약수터, 구성아랫약수, 구성말약수가 있다.

전에 이름을 날리던 구성말 약수는 수질이 좋지 않아 음용수로는 부적격이라 이용객이 없고 아랫약수는 수량도 많고 입구에 개울나무에서 떨어지는 옷물이 인기가 좋다. 은덕굴 약수는 하절기에는 건수로 대장균이 발생해 여름철 식수로는 삼가야 한다. 학산을 오르다 보면 산 속 나무는 대부분 리기다소나무 천지다.

학산은 등산로가 잘 조성돼 있어 많은 시민이 이용한다. 코스도 다양하여 이용객이 원하는 코스를 택하면 된다.

## 등산로

1. 구성말(한우리아파트근처), 용인중(통메고개), 공신주택 -삼거리-쉼터-돌봉치
2. 은덕굴 입구-돌봉치
3. 아랫약수 갈림길-삼거리-정삼삼거리-정상-구성말고개(돌탑)-성산

구성말 한우리A 근처에서 들머리로 오르면 용인중학교 서쪽에서 오르는 길과 합류하며 조금 더 오르면 공신주택에서 나무계단으로 오르는 쉼터를 지나 돌을 깔아 놓은 길로 오르면 큰 안테나(KBS)앞에서 공신주택에서 오르는 길과 만난다. 그리고 삼거리에서 돌봉치 은덕굴에서 오르는 등산로와 만난다. 등산로는 쉼터, 쉼터에서 구성말길로 연결되며 다음 쉼터에서 또 구성말길 그리고는 아랫약수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약수터로 내려선다. 오른쪽 길은 평지길로 오르면 아랫약수 뒷길로 연결된다. 계속 오르면 정상 삼거리에 도달하고 왼편으로 정상에 오르고 내리막길 안부사거리에는 이정표와 돌탑이 있다. 왼편으로는 구성약수 그리고 터널입구에 도착한다.

정상 삼거리에서 오른쪽(동쪽)으로 오르면 쉼터가 있고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면 오른쪽으로 햇골에서 오르는 길과 버드실에서 오르는 길을 통과해야 한다. 계속 가면 유림동사무소 뒷봉에 오른다. 왼편은 유림동으로 내려서는 길이다. 오른쪽으로 등산로는 결국 햇골입구 오른쪽으로 내려선다. 구성말-정상삼거리-쉼터-햇골입구까지는 2시간이상 걸리는 긴 코스다.



## 14 이동면의 트레이드마크 삼봉산

삼봉산(三峰山 414.7m)

이동면민이 크고 웅장한 시궁산보다  
삼봉산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이유는?



## 마음속의 산

봄의 문턱에서 산길을 오르다 보면 도시의 큰 길보다 비좁기는 하지만 녹을 것은 다 녹고 스치는 바람은 따스함을 더해 산을 통하여 자연을 접할만한 때다.

이동면민들이 상징적 의미에서 크고 웅장하고 거창한 시궁산보다 삼봉산을 좋아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삼봉회 삼봉산악회 등 이동면민의 정서에 삼봉이란 의미가 내면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삼봉산은 그런 의미에서 이동면민의 고향의 산 마음속의 산이다.

삼봉산과 시궁산 성륜산(굴암산) 안에 조용한 동리가 묵리다. 산 속에 숨어있는 마을처럼 도시와 동떨어져 있던 조용하고 온화한 마을이 도로 사정이 좋아지면서 별장촌으로 인기가 높다. 학일리로 통하는 문수터널 길이 완성되어 이동에서 원삼 백암 등 연결이 쉬워 교통의 요지로 변하는 마을이다.

묵리마을에 대표되는 용덕저수지는 굴암산 용덕사에서 생긴 용의 은덕을 입었다 하여 용덕저수지다. 저수지와 삼봉산 사이 산자락에 이곳에 400여 년 전 조선 개국공신 청해군 이지란의 자손 청해이씨 사람들이 묵리에 기거 하게 된 이문주 이수민의 묘가 있는데 그분들이 나의 조상 어른이시다.

이동면에서 보면 삼봉의 모습이 비대칭이지만 용인 노구봉에서 보면 완전대칭의 삼봉이 아름답다. 삼봉에서 보는 어비저수지는 용인팔경의 어비낙조다. 금물결 칠랑이는 넓은 호수에 비치는 낙조는 정말 아름답다.

## 등산로

1. 목리 입구 시미리길(팜파스식당 옆)-임도-능선(삼거리)-북봉 -  
중간봉-장상(헬기장)

2. 시미리, 덕성리- 골짜기-능선(삼거리)-북쪽

3. 수녀원-골짜기-사거리안부-(왼쪽)시공산-(오른쪽)삼봉산입구  
-평상(구조물)-급경사-정상

4. 시공산-안부-평상-정상

삼봉산 등산은 시공산과 연계해서 오르는 것이 보통이다.

45번 국도 천리에서 용덕저수지(신원CC)를 통해 팜파스(식당)옆으로 산으로 통하는 큰길로 오른다. 임도를 만나면 임도 갈림길에 등산로 이정표가 있다. 계곡으로 오르면 능선 삼거리에 시미리 쪽에서 오르는 길과 만나며 능선길은 북동에 도착한다. 첫 봉에는 의자 및 운동기구를 설치한 쉼터를 만들었다. 중간에 있던 묘지도 이장시켰고 정상인 삼봉은 입구 이정표엔 시미리 갈림길이 있다. 정상 앞으로 벤치 몇 개와 식탁이 있다. 뒤에 있는 헬기장이 정상이다.

정상에서 남동쪽에 보이는 큰 봉우리가 시공산이다. 시공산 쪽으로 경사로엔 밧줄이 있고 경사로를 내려서면 나무평상이 있고 옆으로 시미리로 내려서는 길이 있다. 그리고 200m 내려선 곳에서 만나는 사거리 안부는 수녀원으로 내려서는 날머리다. 이어지는 길은 시공산으로 오르는 길이다.

정기 노선 길로 목리 장촌까지 차량이 통행하므로 노선버스를 이용하면 편하다.(장촌-거문정-애덕고개-시공산-안부-삼봉산-임도-팜파스)



## 15 산사에서 용안수로 **굴암산**

굴암산(窟庵山 340m)

천년고찰 용덕사가 있는 산이다.

용굴에 얽힌 전설이 살이 숨쉬는 필자의 조상들이 살던 곳의 산이다.



여름은 일상과 도시 속의 피로와 더위에 갇힌 사람들에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

산바람 그리고 소와 담 거기에 폭포가 있는 계곡, 우리가 가볍게 접근 할 수 있는 산과 바다 중에서 굴암산 산사에서 용안수로 더위를 식히자.

굴암산은 용굴이 있어 붙여진 산으로 용인에서 향수산 백련사와 더불어 오래된 고찰인 용덕사가 자리하고 있는 산으로 성륜산(聖輪山)이라고 부르는 산이다.

## 합장

이제학

산사의 하산 길

벽안스님 합장

석양의 산객

황금 몸신

달마가 서쪽에서 왔나

자색 광채

2조 혜가선사

달마에

합장

## 용안수와 용덕사

산사로 오르는 길은 포장길이지만 꼬불꼬불 급경사다. 불법을 만났어 결코 쉽지만은 았음인가 보다. 입구의 소나무들이 고찰의 면모를 보여 준다. 연리지 같은 황송을 잡고 만나는 곳이 해후소다. 현대식 화장실은 용인사에서 지원해 만든 건물로 들어서면 내부는 한옥풍이 나는 건물로 환경을 고려한 독특해 보이는 화장실이다.

성효스님이 오시면서 불사를 일으켜 규모가 큰 사찰로 변해 있다. 멀리 요사채가 있고 대웅전을 새로 지어 뒤편에 탑을 배치해 보궁 형태로 만든 가람 배치가 특이하다. 신라말 고승 도선 국사가 절에 기거하시다 지기(地氣)가 너무 세서 수도승들이 몸을 상할까 걱정이 되어 지기를 누르기 위해 삼층석탑과 철인 상을 3기 만들어 절에 보관하여 지기를 눌렀다 전한다. 예전에 주지스님에게 허락을 받고 2기 철인 상을 보고 사진 촬영을 한 기억이 난다. 산 칠부 능선에 암자가 있는 곳이 용굴이다. 이곳 묵리는 할아버지 사패지다 보니 전에는 우리 산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30여분의 시제를 모시는 곳의 한 부분이다. 커다란 동굴을 통해 위로 올라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하여 어릴 때는 굴을 통해 산을 오른 적이 있다. 지금은 굴로 오르는 길이 위험해 삼가고 굴 안에 부처님 상에 참배하고 왼쪽의 용안수를 마셔 보는 것으로 만족한다. 남쪽 능선에 삼성각은 산 아래를 굽어보는 전망대다. 용굴과 삼성각 사이 안부를 통해 경사지 등산로를 오르면 두 봉을 사이에 둔 안부다. 남쪽 봉으로 오르면 헬기장이다. 올봄 애벌레팀 용인 알아가기 회원들과 시산제를 지낸 곳이다. 아래 주차장에서 오르는 길은 경사가 작다.



오던 길로 돌아 오르는 정상은 웅색한 봉우리다. 산길은 신원CC옆을 통해 한남정맥길 석유비축기지 능선으로 연결된다. 문수봉이나 호동 운학동으로 연결된다.

## 등산로

1. 영보자애원-용덕사-용굴-정상
2. 주차장-남쪽능선-헬기장-정상
3. 용해곡-망덕고개-갈림길-신원CC-정상
4. 문수봉-비축기지-삼거리-신원CC-정상

굴암산에는 용의 덕을 본 이야기와 용굴에 얽힌 전설이 있다.

### 용덕사의 용굴

굴암절이라 부르는 용덕사 위로 용굴이 있다. 굴 양쪽에 샘물과 하늘로 향해 뚫린 굴이 있다. 옛부터 이 굴을 용굴이라 부른다.

옛날에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사서 인간세상으로 쫓겨난 용 한 마리가 이곳에 갇혀 있었다. 백일 동안 인간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수도를 하여야 다시 승천할 수 있다고 하여 옥황상제의 말대로 수도에 전념하여 백일을 다 채운 다음 승천하려 하였는데 별안간 하늘에서 뇌성벽력이 떨어지고 사방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번개 소리가 진동하여 동리 사람들은 무서워서 감히 밖으로 나오질 못하였다.

이때 동굴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서 주민 한 사람이 마침 나무를 하

고 있었는데 이같은 광경에 놀라고 무서워 땅에 엎드려 떨고 있었다. 용굴로부터 용이 막 승천할 때 이 나무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들고 용을 바라다보고 넋을 잃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 오르던 용이 괴음을 지르며 바위 위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용이 승천할 때 인간이 엿보아 부정을 타서 백일기도가 허사가 되고 만 것이다.

용굴로부터 벗어날 때 용굴 위가 뚫어졌으며 그 때 용이 승천하며 실수로 한쪽 눈을 다쳐 피를 흘렸다고 한다. 용굴 밑으로 흐르고 있는 양쪽 샘 가운데 하나는 그 당시 흘린 피 때문에 지금도 물빛이 뿌옇게 변해 못 마시고 왼쪽 샘은 깨끗해 약수라 한다. 주민들에 의하면 이 굴을 타면 탄 횟수만큼 생명이 연장된다 하며, 옆으로 뺀 굴은 어린이들이 타는 곳이고 곧장 위로 뺀 굴은 어른들이 타는 굴이라 한다.

한편, 양쪽에 흐르고 있는 샘물은 백일 동안 용이 흘리던 눈물이라 하는데 이 샘물에는 여러 가지 영험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소원을 빈다고 한다. 용이 못 이룬 원을 얻으려는 인간의 작은 소망일 것이다.

### 용덕의 전설

용덕사와 용덕저수지는 용의 덕 이야기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옛날에 중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효심이 지극한 한 처녀가 굴암산 굴 속에 살고 있는 용이 여의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여의주를 가지면 부모님의 병환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갖은 고생 끝에 용을 만나 여의주를 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지만 용의 거절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용이 말하기를 용은 여의주가 없으면 승천 할 수 없고

네게 이 여의주를 주면 100년을 기다려야 여의주를 다시 가질 수 있다고 계속 거절을 하였다. 처녀는 그래도 아버지를 살려 달라고 3일 밤낮으로 애원을 했다. 그러자 용이 그녀의 효심에 감동하여 내 비록 100년을 기다려도 좋으니 여의주로 아버님의 병환을 고쳐 드리라고 여의주를 주려는 순간 포수가 쏜 화살이 용의 한쪽 눈을 맞추어 용은 죽어가면서 여의주를 처녀에게 주며 아버지의 병환을 고치라며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그 후 처녀의 아버지의 병은 다 나았고 용이 살았던 굴 양쪽에 용이 흘린 눈물이 약수가 되었는데 한쪽은 다친 눈에서 나온 피와 같은 탁한 물이 나오고 한쪽은 깨끗한 약수가 나와 지금도 한쪽 물은 마시지 못한다는 전설에서 부녀가 용의 덕을 보았다 하여 용덕사로 명명됐다고 한다.



## 16 원삼을 품에 안은 독조봉

독조봉(獨鳥峰 437m)

원삼의 북쪽산릉의 주봉으로 용인청소년수련원과  
3·1독립운동의 만세공원이 있는 산으로 조망이 좋은 산이다.



독조봉437-용실산422-갈미산447-칠봉산400 북쪽을 산릉이 막아주어 원삼은 지리적 복지다. 조선지지 자료에는 독조봉의 獨朝峰를 督朝峰으로 표기하고 있다. 七峰山(내동) 龍頭山(용암) 督朝峰(항곡) 栗山(미평) 拖美山(좌찬리) 乾芝山(맹리) 水晶山(맹리).

죽산군 원일면에 있는 산명을 보면 칠봉산은 용암과 내동이 겹치고 문수봉을 문촌리로 구별한 것 같다. 독조봉은 한문을 바꿔 쓰고 있고 용두산은 현재의 용실산을 말하는 것 같다. 이 산릉에서 가장 높은 갈미봉을 갈미산으로 부를까 걱정이다. 지도상엔 갈미봉은 칠봉산에서 은이로 갈린 봉우리로 옛 지도에도 있다. 타(拖)미산은 퇴미산 태봉산으로 부르는 토성이 있는 산을 표시한 것 같다.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상황에 따라 지명이나 기타 이름이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바뀌는 것을 알고 있으면 내용 없이 바뀌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용인에서 산 이름이 바뀐 곳 중에서 선장산은 노고성산이 돼야 하고 갈미봉은 갈미산으로 부르고 싶다. 10여 년 전에 용인의 산수이야기 집필 당시 마을의 노인들이 가르쳐 주신 이름들이 틀려 이번에 바로 잡고 싶은 이름으로는 텐봉은 할미당, 광교산내 종류봉이나 비로봉은 토끼봉으로, 백암의 파리봉은 설술암산으로, 천주교에서 만든 삼덕고개는 애덕은 거문정고개, 망덕은 해실이고개, 신덕은 별미고개로 쓰고 싶다. 용의 덕을 보았다는 용덕저수지를 신원 저수지로 신원CC에서 이름 바꾸는 일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독조봉-용실산-갈미산-칠봉산으로 이어지는 등산 코스는 볼거리와 주위의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곳으로 등산하기 좋은 곳이다.

## 좌전고개

독조봉 아래 좌전고개는 조선 초기 제2차 왕자의 난을 주도한 좌찬성 박포가 귀양살이를 했다 하여 좌찬성고개가 좌전고개로 변했다고 한다. 지금은 큰길로 변했다. 일제 강점기 때 3·1독립운동이 용인에선 3월21일 최초로 일어난 곳으로 지금 이곳을 만세공원으로 조성했다. 북쪽 자락으로는 썰매장 수영장이 있는 용인시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용실산 북쪽 양지CC안 한국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가 숨어서 포교하던 골배마실에는 신부입상이 있다. 골프장 안엔 스키장리프트가 용실산 정상까지 연결돼 있다.

이어진 갈미산은 이 산릉에서 산 높이는 제일 높지만 뽕죽봉 하나다. 갈미산을 뒤로하고 내려서면 사거리 안부에서 남쪽으로 사암저수지 낚시터로 연결된다. 북쪽은 양지골프장이다. 안부를 지나며 만나는 칠봉산은 봉우리가 일곱이다. 칠봉산 끝엔 곱든고개로 에코브릿지가 있다. 독조봉에서 칠봉산까지 보이는 원삼 뜰은 사암저수지와 어우러지는 용인 팔경의 하나다. 북쪽이 산릉으로 막힌 관계로 원삼은 맛있는 과일의 생산지다. 독조봉 7부 능선에 보각사라는 선승들의 기도처가 있다.

## 등산로

1. 청소년수련원(3코스)-운동장-능선-바위봉-독조봉- 안부삼거리-1삼거리- 용실산-용두산(정상삼거리) - 안부(사거리)-칠봉산(정상삼거리)-2 삼거리-곱든고개(에코브릿지)
2. 항골 저수지-안부삼거리
3. 양지리조트-1삼거리

- |                 |                   |
|-----------------|-------------------|
| 4. 별장지-용두봉      | 5. 사암저수지-농장-안부사거리 |
| 6. 골배마실-안부사거리   | 7. 헬기장-칠봉산정상      |
| 8. 은이-별미고개-2삼거리 | 9. 곱든고개-칠봉산       |

곱든고개 에코브릿지 동쪽으로 칠봉산 들머리다. 길 건너는 문수봉, 마애불 이정표가 있다. 칠봉산 들머리로 올라 20-30여분 오르면 왼편으로 양지공소(천주교)이정표가 있다. 별미고개로 가는 길이다. 산을 계속 오르면 오른쪽에 벤치가 있고 원삼 좌향 건지산 쪽이 내려다보는 전망대다. 바로 올라서면 삼거리가 칠봉산 정상이다. 왼편 미군헬기장을 통해 갈미봉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몇 고개를 넘으면 사거리안부다. 사암저수지와 골배마실로 통한다. 안부에서 경사지를 오르면 갈미산이다. 갈미산에는 사암리별장에서 오르는 길이 있다. 조금 내려서면 북쪽으로 양지 CC스키장 초보자용 리프트가 있다. 멋있는 소나무가 있는 옆이 용실산 정상이다. 용실산이 스키장 리프트 꼭대기다. 용실산에서 내려서면 삼거리다. 직선 길은 양지리조트와 무수막 대성사로 내려선다. 오른쪽으로 내려서면 안부의 향골저수지에서 오르는 길과 만난다.

갈림길에서 오르막으로 올라서면 독조봉 정상으로 이어진다. 정상 초입에 북쪽으로 내려서는 길은 수련원 썰매장으로 이어진다. 조금 더 오르면 이정표와 벤치가 있는 곳이 독조봉 정상이다. 그리고 바로 아래 바위는 원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다. 오른쪽으로 내려서면 밤농장 서진농원으로 내려서며 왼편 북쪽 길은 수련원 운동장 또는 만세 공원으로 이어진다.



# 17 원봉수대가 있던 산 **건지산**

건지산(巾之山 411.4m)

수정산과 연계하여 등산 할 수 있는 산으로  
지산CC 스키장, 수정산의 수정과 허적의 굴의 전설을 간직한 산이다.





## 봉수대에 관해서

봉수에 관하여 정식으로 법으로 제정하여 실시한 것은 고려 때 즉 1149년(의종 3)에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 조진약(曹晋若)의 상주(上奏)에 의하여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하되 평상시에는 한 번씩 올리고 2급(二急)에는 두 번, 3급(三急)에는 세 번, 4급(四急)에는 네 번씩 올렸다.

조선에서는 세종 때에 정식으로 봉수제도를 마련하였는데 평시에는 횃불을 한 개, 적이 나타나면 두 개, 적이 국경에 접근하면 세 개, 국경을 넘어오면 네 개, 접전을 하면 다섯 개를 올리되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불어서 연락을 할 수 없을 때는 봉줄들이 차례로 달려서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봉수대는 지방 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데 용인의 건지산 봉수대는 흔적도 없다.

봉수의 간선(幹線)은 직봉(職烽)이라 하여 동북은 경흥(慶興), 동남은 동래(東萊), 서북은 내륙(內陸)으로는 강계(江界), 해안 지방으로는 의주(義州), 서남은 순천(順川)의 5개 처를 기점으로 하여 서울의 목멱산(木覓山 : 남산)을 종점으로 했다. 직봉 외에도 간봉(間烽)이라는 보조선이 있어 본봉 사이의 중간 지역을 연락하는 장거리의 것과 국경 방면의 전선초소(前線哨所)로부터 본진·본읍으로 보고하는 단거리의 것도 있었다. 봉화가 서울에 연락되면 병조에서는 사람을 지정해서 다음날 새벽에 승정원(承政院)에 보고하여 이를 임금에게 보고 한다.

그리고 봉화대는 표주(標柱)를 세워서 경계를 설정하고 거짓 봉화(烽火)나 단순한 방화(放火)를 막론하고 그것이 경계선의 백보(百步) 이내에서 일어났을 때는 병조에서 관할 단속했고, 백보 외에서 일어났을 때는 해당

진영에서 단속하게 했는데 이들은 대개 사형에 처했다. 그리고 봉화대 근처에서는 무당이나 토속에 의한 잡신 제사를 금했다.

### 맹리에 고인돌

산 모양이 방巾(方巾)같다 하여 건지산으로 불리는 산이다. 동국여지지도에는 건지간(乾之山)으로 기록이 있으나 죽산읍지나 여지도서에는 건지산(巾之山)으로 표기돼 있다. 남동으로 죽산 망이산에 응하고 서쪽으로 용인의 석성산 봉수지에 응한다.

건지산은 봉수대가 있었던 곳으로 나라에 변고가 생기면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빛으로 알리던 옛 통신 수단이다. 남산에서 제주까지 일사천리로 연결되는 통신망은 남산-관악산-성산-건지산-망이산으로 연결된다.

건지산은 모양이 잘 생긴 산이다. 백암 원삼에서 보면 주봉과 바위봉이 양 어깨가 되어 원삼을 안고 있는 형세다. 산내 정원사에는 도봉 대덕스님이 계시다. 건지산 중턱 마을 뒤로 산신제 터에서는 매년 10월1일 큰 제를 올린다. 산 아래 맹리에 있는 고인돌(지석묘)은 역사적 사료로 많은 학자들이 찾는 곳이다. 토성이 있었던 태봉산(태미산)과 사이에 지산CC가 자리하고 골프장 안에 있는 척골지 저수지 주위는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북쪽 정상 넘어 스키장이 있어 겨울철 등산 팬 스키장에서의 설경을 즐길 수 있다.

### 수정산(水晶山) 348 M

어릴 때 수정 주우러 찾던 산이다. 그때는 수정산의 수정만큼이나 유명했던 소바위가 있었는데 어느 해 홍수 때 그렇게 큰 소바위가 쓰러져서

지금은 누워버려 와우봉이 되었다. 그 홍수 때 산 동쪽 바위 아래 있던 작은 암자도 홍수에 떠내려갔다. 산 너머 수정초교는 용인에 숨어 있는 산골학교다. 수정사는 규모는 작지만 경내 풍경이 너무 멋이 있고 특히 바위 사이사이로 고개를 내민 붉은 소나무는 용인에서는 제일 멋있는 소나무들로 보호수로 지정할 만한 소나무들이다. 산 아래 양천 허씨 집성촌으로 허씨 세장지에는 초당 허엽 선생과 그의 자제들인 허성 허봉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의 묘와 여류시인 허난설헌의 시비도 있다.

전에 유명한 풍수가 17번 국도를 지나치며 용인 출신 제자(윤 모 씨)에게 이곳은 참 좋은 터인데 건지산 독조봉 산릉이 많은 인재를 낼만한 곳인데 수정산이 악산이라서 라고 말문을 닫았다. 제자가 그래도 이곳엔 인물이 난다고 하니 그분 왈 문인이지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용인에서 산수가 수려한 이곳 수정산에는 허적의 굴이 있는데 굴에 대한 이야기는 꽤 재미있고 널리 알려진 옛날이야기다.

## 허적의 굴

수정사에 정원사라는 절이 있었다. 암자 뒤에 큰 바위가 있고 바위 밑으로 굴이 있는데 이 굴을 허적이 굴이라 부르고 있으며 이에 얽힌 전설이 있다.

조선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허적 선생은 당시 충청도였던 외사면 가창리 지경에서 출생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가 젊었을 때에 수정산 암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암자 뒤의 바위굴 앞에서 주지스님이 밥을 지어 치성을 드리더니 20여 마리의 산 닭을 굴 속으로 던지는 것이 아닌가.

허적 선생이 생각해 보니 공양쌀을 올리는 것은 부처님 앞이거나 아니면 산신각에서 할 일이거늘 그도 저도 아닌 바위굴에서 주지스님이 공양쌀을 올리는 것은 아무래도 괴이스러운 일이라 생각했다.

후에 허적 선생은 주지스님을 만나 무슨 제를 올리기에 굴 속에 공양 메를 올리는 연유를 물었더니 주지스님의 대답은 이러했다. 바위 굴속에는 아주 큰 구렁이가 살고 있는데 초하루 보름으로 산 닭을 공양하지 않으면 이 구렁이는 반드시 절을 해치려고 하므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간의 내력을 털어놓는 것이었다.

의협심이 강했던 허적은 미물에게 어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분개하더니 그놈을 해치워 버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지스님은 손을 저으면서 “부잣집 대들보와 같은 크기의 구렁이를 어찌 처치한다는 말씀이요?” 하면서 굳이 만류 하였으나 염려 말라고 주지에게 말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니 스님은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다음 초하루까지 기다려 공양 올릴 준비나 하라고 하였다.

마침내 산 닭 공양하는 날이 되었다. 허적은 법당의 넓은 귀틀마루의 송판을 하나 걸러 하나씩 여러 개를 뽑아 놓았다. 그리고 환도를 날이 시퍼렇게 갈아놓은 다음 절차대로 메를 지고 산 닭을 굴 앞에 가져다 놓고 목탁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마자 소나기가 쏟아지는 소리 같은 것이 잠시 들리는가 싶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가 산 닭을 먹으려고 굴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이를 보자 허적은 산이 떠나갈 듯 큰 소리로 호령을 한다. 너와 같은 미

물이 어찌 불가에서 수도하는 승려들을 괴롭힌단 말이냐?

그러자 구렁이는 성이 나서 오늘은 이 어른께서 너의 방자하고 요망스러운 작태를 단죄하리라 하고 막 삼키려던 닭을 뱉어 내동댕이쳐 버리고 허적을 쫓아 나오는데 그 소리가 마치 소나기 퍼붓는 듯 괴이하였다.

허적은 비호처럼 몸을 날려 법당 마루로 들어가 미리 빼어놓은 귀틀마루 구멍으로 빠져나왔다. 구렁이도 그를 쫓아 마루 밑으로 들어가 그 구멍으로 머리를 내밀 때쯤 허적은 다시 건너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또 다음 구멍으로 빠져나오고 하자 성난 구렁이도 계속 그 모양으로 쫓아 다녔다. 결국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들쭉날쭉 다니는 동안 긴 구렁이는 마루구멍 안팎으로 꼬인 형국이 되었다.

이렇게 되자 허적은 예리한 환도를 빼어들고 여기저기 토막을 쳐 마침내 우환을 깨끗이 퇴치해버리게 되었다. 그런데 순간 구렁이 몸체에서 붉은 피와 함께 이상한 서기가 뿜치더니 허적이 사는 마을 쪽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다음날 어제의 일을 모두 잊은 채 허적 선생은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데 집에서 종 하나가 내달아 오더니 별채 소실이 밤사이에 급체로 거동을 못한다고 하였다. 급히 집에 당도해 보니 과연 소실은 전신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했다. 이를 보자 측은하여 왜 그러느냐고 물으며 그의 손으로 어루만지니 기이하게도 허적의 손이 닿자마자 평시와 같이 몸이 회복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 이삼일 묵으면서 격조했던 부부의 정을 나누었다. 그리고 다시 입산하여 과거공부에 전념하는 동안 어언 십삭이 되었을 때 소실은 옥동자를 분만하였다. 어찌나 잘 생겼는지 보는

사람마다 관옥 같고 옥골선동 같다 하여 원근 향리에 소문이 자자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형 미수 허목이 오셔서 아이를 보더니만 아우를 불러 이 아이를 당장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이다. 허적은 무슨 연고로 혈육을 저버려야 하느냐고 물었으나 끝내는 형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형님이야말로 세상에서 일컬어 이인(異人)이라고 하는 분으로 동해바다 영해에 퇴조비를 세워 조수를 물리친 비범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있는지 또 한해가 지나 소식은 전보다도 더 영특하고 잘생긴 옥골선동을 얻게 되었다. 먼젓번 버린 자식을 늘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아이 보다 더 잘생긴 아들을 얻었으니 그의 기쁨은 뛰고도 남을 만하였다. 그런데 이를 본 미수 선생은 역시 전과 같이 이 아이도 마저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우 허적은 엎드려 목을 놓았다. “이제 후일 어떤 화를 당할지라도 이애는 버리지 못하옵니다”라고 하자 미수 선생은 길게 탄식하면서 어찌하랴, 자네가 그럴 결심이라면 형제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네 하면서 그때 족보의 문적을 분리시켰다고 전한다.

이 옥동자는 무럭무럭 자라 일취월장 원숙해지고 글 배우는 재주가 뛰어나 원근에서 부러워하는 헌헌장부가 되어 교서정자를 지냈다. 그러나 영의정이 된 부친 허적 선생의 세력을 믿고 방자함이 심하여 유부녀 이차옥을 강탈하는가 하면 청풍부원군의 첩과 싸워 이빨을 부러트리는 횡포를 저질러 좌윤 남구만의 상소로 배척을 받더니 급기야는 복선군 남을 추대하려는 역모에 관련되어 숙종6년에 처형 되었는데 그가 바로 허적이 다. 핏덩어리를 보고 장래를 내다보았던 허목 선생의 형안도 놀랍거니와

이를 두고 후세 사람들은 구렁이의 원령이 멸문지화를 입게 하였다고 전하는 얘기로써 지금도 백암면 내창 뒷산에 허적이 굴이탄 바위가 전하고 있다.

## 등산로

건지선과 수정산은 두 산을 연계해서 등산을 하는 것이 시간적 거리로나 합리적인 선택일 듯 싶다.

석실- 능선-수정산- 고개(두산의 안부)- 건지선 바위봉 -건지산정상-스키장-지산CC클럽하우스 -17번국도

### <건지산>

1. 17국도-지산CC-스키장-정상
2. 맵리-안부-바위봉-정상
3. 마장고개-수정산 갈림길-남쪽바위봉-정상

### <수정산>

1. 석실-능선-수정산
2. 안부-능선 -정상
3. 수정사(별장지에서 오르는 코스가 몇 곳 있다) -능선- 정상
4. 가창-능선-정상

백암면 가좌리 석실로 가는 길이 넓다. 석실로 가기 전에 수정산 자락이 펼쳐 있어 어느 들머리로 들어서나 수정산을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안전

하게 석실을 택하면 석실 입구 왼쪽 들머리, 석실 앞을 통해 보이는 능선, 그리고 동네 안으로 들어서며 왼쪽으로 오르는 곳이 들머리다. 들머리로 들어서면 능선 길로 완만하다. 수정산을 향해 바위봉을 지나 다시 만나는 큰 누운 바위를 만난다. 이곳이 수정산 정상이다.

그 유명한 수정산 소바위가 넘어져 누워 버린 모습이다. 바위 위로 올라 보면 원삼면의 모습이 눈 아래다. 오른쪽으로 가창리에서 연결된 길이 있다. 정상에서 내려서면 바위길 아래 갈림길이 있다. 왼쪽 길은 맹리 마을에 있는 느티나무 정자로 이어진다. 오른쪽 길로 내려서면 맹리에서 내창을 넘는 맹리고개길이다. 고개 길을 질러 건지산 들머리로 들어서면 아기자기한 산길은 오른쪽 시 경계 길과 마주치며 편평한 쉼터를 만들고 급경사로 오른다. 둥근 진달래 둔덕을 지나 올라서면 건지산 남쪽 바위봉이다.

수년 전 봉화 재현 때 이곳에서 봉화를 올린 적이 있는 바위봉이다. 지금은 장난기 넘친 봉우리 이정표가 있다. 바위봉에서 서쪽으로 내려서면 나무 숲속 길은 마음까지 산림욕에 취하게 한다. 작은 봉우리에 이정표와 긴 의자를 만들어 두었다. 이천시에서 만든 조형물이다. 이정표의 정상이 잘못 표기돼 있다. 능선으로 향하면 오른쪽으로 굽는 왼쪽 능선 100여m 아래 봉수대가 있던 곳이다.

능선은 커다란 바위 틈으로 올라서면 건지산 정상이다. 편평한 쉼터에서 보이는 전망 터다. 사방이 둘러 보인다. 북쪽으로 급경사로 이어진 스키장 그리고 클럽 하우스까지 걸어서 내려서는 기분도 좋다. 골프장을 구경하며 정문 17번 국도까지 내려서면 용인시청소년수련원, 만세공원 근처 도창말 입구 고개가 용인 31만세운동 시발지이다.





## 18 마고할멈의 하루꺼리 성 노고성산

노고성산(老姑城山)349m

신라말 마고 할머니가 하룻밤에 쌓았다는  
전설이 어린 산으로 동백지구와 에버랜드에 접한 산이다.



## 신라의 성

서울의 의사 강원장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다. 청와대 근처 개방된 북한 산성, 광주 남한산성 그리고 안성의 죽주산성을 요새 다녀왔단다. 몇 년 전 고구려 칼을 연구한다고 대전 KAIST에 같이 동행한 적 있는 친구는 용인의 태봉토성 석성산 등 산성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이 있는 친구다. 용인에 있는 산성, 그래도 보존상태가 나은 곳이 할미산성이다. 친구를 생각하며 할미산성을 찾기로 했다.

97년 용인의 산수 이야기에 할미산성의 산을 선장산이라 잘못 표기했고 당시는 지표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도 잘못 기술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선장산은 신원리 선장고개 근처 산인데 용인에서 먼저 나온 책자를 참고 하다 보니 실수를 했다. 또 고려 때 성으로 표기 했는데 지표조사 후에 신라의 성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서 조선지 지료에서 노고성산으로 기록된 것을 토대로 노고성산으로 명기한다.

노고성산내 할미산성(老姑城)은 충북대학 중원문화재연구소의 광역지표조사와 경기도 박물관 시굴조사 결과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해 판상형 석재로 축조된 둘레 길이 651m 종단 320m 횡단 130m 넓이 9000평 높이 4~7m의 테미산성이다. 내부시설로는 수구지, 토광, 건물지등이 확인 되었으며, 유물로는 철제가위 등 철제류 일부와 신라계 토기류가 주로 채집되어 신라가 한강유역 진출 시기인 6세기에서 7세기 초기에 축조되어 한정적으로 사용된 성으로 신라의 한강 유역진출을 밝힐 수 있는 성곽이다. 그러나 석성산 줄기의 석성으로 석성산과의 연관 관계도 할미성 연구에 필수적일 것이다.

할미성 유래는 마고(마귀)할멈이 하루 만에 성을 쌓았다는 이야기로 인해 할미산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노고성산을 접근 하는 방법은 동백동에서 직접 석성 남서쪽으로 오르는 길이 있다. 한남정맥에 속하므로 한남정맥 길인 석성산에서 오르는 방법, 향린동산 쪽(향수산, 한고개, 향린동산) 에버랜드 후문과 마성고개로 오르는 길이 있다. 그러나 접근성이 좋지 않아 탐방을 하려면 나들목을 연구 해야 한다.

노고성산 동백지구에서 등산로를 개설하였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백에서 출발했다.

백현마을 9단지 앞에 할미산성 유적지 표시 그리고 1.5km라는 표식은 9단지 앞과 통로굴 입구에도 있다. 도로를 따라 오른쪽 길로 돌아서면 도로 공사장에서 북쪽으로 통로 굴로 들어선다. 긴 굴은 차량이 다닌다. 굴을 통과하면 전원주택이 있다. 주택 서쪽으로 새로 만든 통로굴이 있다. 좁은 통로, 굴을 통과하면 연결되어 영동고속도로 통로, 굴로 이어 진다. 좁은 굴이라 마음까지 웅크려진다. 굴을 통과하면 동쪽산이 할미산성이 있는 노고성산이다. 산골짜기로 오르는 길을 따라가면 오른쪽으로 산성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다닌 흔적이 보이지만 좋은 등산로를 택한다. 넓은 골짜기는 바위들이 여기저기 보인다. 묘지 길로 이어져 능선에 오르면 이정표가 있다. 동백지구 할미산성 향린동산표식이 있다. 산성까지는 600m 표식을 보고 오른쪽으로 능선을 향한다. 경사는 크지 않아 오르기 에 편하다.

바위가 험클어진 곳, 돌성이 무너진 곳이 할미산성이다. 할미산성에서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성벽이 보인다. 석성으로 오르는 길을 철조망으로 막았다. 할미성은 개인 소유 임야로 허락없이 출입시 법적조치 하겠음 이란 경고문이 철조망에 붙여 있다. 어휴 무서워 산주인님은 남의 땅 안 밟고 사시는지? 철조망을 넘어 헬기장을 지나 정상에 올라서면 경기도 유적 안내판과 안테나(무인 산불감시용)가 있다. 뒤편으로 내려서는 길, 동쪽에 버랜드로 통하는 길, 모두 철조망에 경고문이 붙여 있다. 한남정맥꾼들의 리본이 보란 듯이 이곳저곳 붙여 있다. 성을 한 바퀴 도는데 30분이면 충분하다. 성벽 주위로 탐방로가 이어진다. 성벽에 돌로 만든 진지는 전에 예비군들이 만든 돌 구조물이다.

성을 넘어 북쪽으로 향수산까지는 3.5km정도다. 길가에 운동기구기 있는 갈림길은 향린동산 동백 중학교에서 오르는 길이다.

## 등산로

1. 한남정맥과 연계되는 산행으로 석성산으로 해서 잣고개에서 남쪽능선으로 오른다.
2. 향린동산 쪽에서 북쪽으로 오르는 길
3. 동백동에서 오르는 길
4. 에버랜드 후문으로 오르는 길



## 19 중앙공원(central park) 노구봉

노구봉(老龜峰202m)

용인시내 중심에 있는 산으로 중앙공원 안에  
충혼탑과 독립유공자 석농 유근선생의 묘가 있는  
용인시민의 쉼터이다.



## 중앙공원 central park

난 용인시 김량장동 북구 용인초등학교 옆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들의 놀이터인 뒷산을 돌봉치 또는 뽕죽산 이라고 불렀다. 앞으로 시내를 넘어 매일 바라다 보이는 머리가 둥근 산을 동그락산이라 부르며 켜다. 산 이름에 별 관심이 없이 살아오다 90년대 용인의 산수 이야기를 쓰면서 용인의 산 이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97년에 발행한 책에도 실렸던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곳, 매일 산책을 하는 산 이름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는 많이 놀랐고 창피하기도 했다.

새벽 운동을 할 때 자주 뵈는 유성희(전 태성 교감) 선생님의 노구봉 책자를 보고 노고봉인데 왜 노구봉이라 쓰셨나 하는 의구심이 생겨 아는 분들께 문의를 하고 조사해 보니 운학리에서 보면 태성중고등학교 뒷산이 거북이의 꼬리를 닮았다 하여 생긴 산 이름으로 노구봉이라고 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지금 태성중고등학교 앞 아파트의 이름이 구미마을이 된 것도 고증에 의한 것이다. 노구봉(老龜峰)은 부르는 사람에 따라 노고봉, 노구봉이라고도 부른다. 조선지지 자료에는 노고봉(老鼓峰)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기회에 용인의 산수 이야기에 지명을 잘못 표기한 노구봉과 포곡에 선장산, 할미산은 노고성산, 신원리 덴봉은 할미당산, 백암에 파리산은 석술암산으로 바로 잡는다.

노구봉 (202m)은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중심 산이며 중앙공원(central park)이 있다. 김량장동과 남동 사이에 위치한 낮지만 시민이 많이 찾는 산이다. 주위에 42번 산업도로를 끼고 현충탑 서학사

옷샘 천주교 주위로 중심이 되고 노구봉 용학산 174고지로 연결되는 등산과 산책로로 이용하는 산이다.

2008년 용인시에서 대대적으로 중앙공원을 만들어 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했다. 동쪽을 중심으로 관리동을 포함해 관찰의 숲 말아마당 미르마당 충혼마당 전망의 숲으로 꾸미고 옷샘약수 쪽으로 배움의 숲 모험의 숲 마을마당을 만들었고 다양한 휴식공간과 자연교육을 직접 체험 할 수 있게 조성했다.

남동쪽 태성중고 뒤에서 시계방향 반대로 운동기구 농구장 어린이 놀이터 야외분수대 관리동 인공연못 인공폭포를 거쳐 300여 계단을 오르면 충혼탑을 충혼마당이라 한다. 충혼탑에서 꽃길을 통해 100여 계단을 오르면 노구봉 정상에는 팔각정을 중심으로 나무로 마루를 깔았으며 운동기구를 배치했다. 노구봉 정상에는 다양한 나무와 꽃들이 있다.

태성중고에서 시계방향으로 돌면 자연연못 그리고 약수터로 올라 차량이 오를 수 있는 큰길로 현충탑으로 연결되며 약수터 다리 전에서 우측으로 산책로가 있다. 산책로는 산 중심으로 시계방향 반대로 돌아 현충탑 계단으로 연결된다. 현충탑이 보이는 중턱에 항일 독립운동가 석농 유근 선생님의 묘가 있다. 묘로 통하는 길도 없고 묘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공원에서 표지판과 진입로를 만들었으면 한다.

현충탑 계단에서 계속 돌아가면 서학사(삼층석탑 대웅전 요사채) 위로 산신각(석상) 아래로 나무다리를 연결하여 배움의 숲으로 연결된다. 배움의 숲 정상 쉼터는 전망대다. 왼편으로부터 부아산 석성산 향수산 노고봉 정광산 말아가리산 태화산 굴암산으로 해서 금어산 쓰레기 매립장 굴뚝까

지 보인다. 물론 용인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계속 노구봉을 돌아 가면 모험의 숲을 통해 광장 그리고 마을 마당 옷샘 약수터로 연결된다.

구미동에서 거북이 꼬리능선으로 오르면 남동쪽 길과 연못으로 오르는 길이 연결되어 정상에 오른다. 정상에는 운동기구가 있으며 주위에 무궁화 벗단풍 오동 물박달 목련 등 다양한 나무와 비비추 원추리 으아리 쪽 도리풀 등이 꽃동산을 만든다.

정상에서 서쪽능선으로 내려서면 묘지 앞으로 아름다운 층층나무를 볼 수 있고 역사의 길로 접어들면 현재길 과거 길엔 나무로 쉼터를 만들었다. 중간에 장승과 솟대도 있다. 안부로 내려서면 오른쪽으로 모험의 숲을 그리고 정자가 있는 마을마당을 통해 옷샘으로 연결된다.

옷샘은 두 마리 용머리석을 조각하여 용의 입에서 식수가 나온다. 주위의 나무는 석화송에서 10여 년 전에 심은 주목나무다. 지금도 많은 시민의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안부에서 서쪽능선으로 오르면 어른들이 걷기운동을 하는 곳 그리고 교수마을 옆을 통해 묘지가 많은 봉우리가 용학산이다. 용학산에서는 명지대학이 전면에 있고 뒤로 함박산 내령이 명지대학교를 감아 돈다. 북쪽으로 내려서는 길은 보리원 금촌집 문예회관으로 연결된다.

서쪽으로 내려서면 동진이 고개를 넘어 능선으로 오르면 갈림길이다. 왼쪽은 명지대 정문으로 향한다. 오른쪽으로 따라서면 174고지로 연결된다. 174고지위는 넓은 터로 운동기구가 있다. 명지대 정문 백인사가 보이며 북쪽 길로 내려서면 용인소방서 용인도서관 그리고 디지털센터 뒤 돌계단을 내려서면 역북아파트촌을 통해 용신중학교 역북초등학교 42번국



도로 연결된다.

용인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아침운동 산책길은 이미 시민과 함께 하는 곳이며 휴일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인다. 10년 전 보다 노구봉 탐방로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얼굴이 더 밝아 보이는 것은 공원이 더욱 산뜻해져서가 아닌지.

들머리- 현충탑 계단. 서학사. 태성중고 강당, 옷샘약수, 문예회관. 명지대 입구 식당촌, 용인디지털센터, 동진마을.



## 20 한을 풀어 주는 함봉산

함봉산(306.3m)

이동면 서리와 남사면 완장리에 접한 산으로  
봉우리에 올라 기도하고 약수를 마시면 한을 풀어 준다는 전설의 산.



## 한봉산이 함봉산으로

전설에 의하면 함봉산 봉우리에 올라가 산신께 기도하고 산 아래 약수터를 마시면 한이 풀린다고 하여 한봉산으로 부르다 세월이 흐르며 함봉산으로 불리고 있는 산이다.

함봉산(306,3m)은 남사면 완장리와 이동면 서리에 접해있는 산이다. 용인시 경계에서는 삼봉고개와 삼부고개 사이에서 동쪽으로 뻗은 산이다.

함봉산을 오르려면 서리에서 완장리로 넘는 싸리재(고개)에서 시작하는 것이 쉽다. 전에 서리 하변에 도축장이 있을 때는 내장탕이 유명해 사람이 많이 몰리던 곳이지만 지금은 한적하여 함봉산의 존재나 관심도 그만큼 적어졌다. 싸리재는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다. 차선을 넓히려는 공사를 준비 중이다. 서리 하반을 지나 고개 위에 서면 함봉산 반대쪽인 동쪽으로 능선이 있다. 연안이씨 재실 연화사 옆 봉으로 원덕성산으로 해서 송전으로 또 안어고개 화골로 이어지는 나지막한 산릉이다.

서쪽으로 보면 함봉산 앞봉에 산 8부 능선까지 택지를 조성했다. 고개 옆으로 절개지가 들머리다. 들머리인 절개지로 오르면 능선길이 있다. 능선길로 택지조성 옆으로 능선길은 첫 봉우리를 향한다. 7부 능선에서 택지조성지 끝과 마주친다. 하늘에 큰 새가 난다. 택지 끝에 앉아있는 커다란 새 한 마리도 올빼미다. 한 놈은 하늘을 날고 한 놈은 절개지에서 이곳을 주시한다. 야행성 새인줄 알았는데 큰 머리 큰 눈이 멀리서도 보인다. 능선에서 바로 올라선 첫봉이 259고지다. 산길은 탄탄로로 숲속을 빠져 능선으로 올라서면 둥근 빈터가 함봉산(306m)이다. 정상은 전에 넓은 터였는데 지금은 좁다랗다. 서쪽에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든 돌무더기

위에 정상목을 새로 만들어 세워 두었다. 요즈음도 산사에서 정상목을 교체 하는 듯 싶다. 참 좋고 뜻있는 일을 산악회에서 하는 것 같다. 산 정상에 올랐으니 산신께 기도를 해야 하는데 약수터를 모른다. 서쪽으로 참나무 사이로 갈림길이 있다. 왼쪽 길은 완장리 중동 완장 제1저수지 능선길이다. 오른쪽 길은 능선으로 이어진다. 256봉 정상에는 서리 하반으로 이어지는 길이 보인다. 계속 능선으로 오르면 265고지다 왼편으로 갈림길은 능선으로 해서 완장 제2저수지로 연결된다. 그리고 올라서면 넓은 길에 이어진다. 용인시 경계 길이다. 함봉산은 날머리(탈출로)가 좋지 않다. 북쪽 하반 계곡 길은 길다. 물론 시 경계점에서의 탈출로는 삼봉고개로 내려서는 길도 무척 길다.

함봉산만 등산하려면 함봉산 하나로는 너무 짧고 볼거리 및 등산의 맛이 적다. 그래서 시경계를 건다 들르는 것과 무봉산을 연계해서 산행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 등산로

1. 하반 - 사리짜 - 앞봉 - 함봉산
2. 하반 - 북쪽 공장지대 - 계곡 - 산다랭이 길 - 앞봉 - 함봉산 정상
3. 시경계길 - 265봉 - 256봉 - 함봉산
4. 완장리 - 완장리 중동 들머리 - 능선 - 함봉산
5. 완장 제1저수지 오른쪽능선 - 능선 - 함봉산
6. 완장 제2저수지 능선 - 256고지 - 함봉산

## 제2장

### 늘 보고 싶은

### \_용인팔경

1. 성산일출(城山日出)
2. 어비낙조(魚肥落照)
3. 곱든고개에서 본 용담저수지(곱든眺望)
4. 광교설경(光教雪景)
5. 선유대4계(仙遊臺四季)
6. 조비산(鳥飛山)
7. 비파담만풍(琵琶潭晚風)
8. 가실벚꽃(稼室벚꽃)

## 개요

수려한 용인의 으뜸 팔경을 선정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은 까닭이다. 외지에 내놓을 아주 뛰어나거나 빼어난 곳은 적어도 나름대로 우리를 현혹할 만한 곳이 많다는 말이다. 그동안 수도권 위성도시로서 어쩔 수 없는 개발과 일부 난개발 그리고 사유재산의 이용 등으로 자연이 많이 훼손 되어 용인팔경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래도 선정 위원들이 곳곳을 다니며 최선을 다해 나의 고향 용인의 팔경을 뽑았다.

1. 성산일출(城山日出) - 용인팔경중 제 1지로 마성에서 본 운무에 솟는 성산과 성산 정상으로 몰려드는 운무도 멋지고 아름답지만 용인의 중심 산 성산에서의 새해 1월1일 해돋이(해맞이)를 뽑았다. 동쪽의 구름이 걷히고 시뻘건 태양이 떠오를 때 1년을 설계하고 한해의 풍요를 바라는 마음까지 담은 성산의 일출광경은 그야말로 일품이다. 성산 끝 봉과 헬기장 그리고 헬기장 남쪽 봉우리에서의 일출 광경은 날짜에 관계없이 신비로움 그 자체이며 보는 이 가슴에 영원히 남는 모습이 된다.

2. 어비낙조(魚肥落照) - 용인팔경중 제 2지로 어비(송전저수지) 낙조를 뽑았다. 맑고 넓은 금물결을 흔들며 서편을 물들이고 산 속으로 스며드는 일몰의 모습은 우리들의 시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잡아 놓고 어둠이 깔릴때 까지 시상에 잠기게 한다. 어비낙조의 진면목은 삼봉산, 시궁산 정상부근에서 보는 낙조가 으뜸이다. 가을날 갈대가 우거진 사이로 단풍 숲 소나무 사이로 황금물결을 뿌리고 차츰차츰 사라져 가는 광경은 자연의 조화에 나를 돌아다보는 숙연함 마저 느끼게 한다.

3. 곱든고개에서 본 용담저수지(곱든眺望) - 용인팔경중 제 3지는 곱든고개에서 원삼으로 넘어가며 용담저수지를 북쪽 독조봉 갈미산 칠봉산과 멀리 건지산 수정산 그 사이로 용담저수지 주위의 전원 풍경과 어울리는 모습이 장관이다. 저수지를 중심으로 원삼들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며 독조봉에서 보는 원삼 백암으로 넓게 트인 모습, 문수봉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서 문수봉까지 가는 동안의 모습도 또한 비슷한 전경들은 원삼만이 갖고 있는 자랑거리다.

4. 광고설경(光敎雪景) - 용인팔경중 제 4지는 광고설경이다. 수원팔경중 광고적설을 모방 한다는 생각이 들어 심사숙의를 했지만 용인에서 설경으로는 말아가리산의 설경 또한 광고산에 비교할 만했지만, 백운산에서 광고산 형제봉으로 이어지는 광고산릉의 모습이 더 웅장하고 멋지다.

실제로 광고산의 설경은 수원 쪽의 모습은 용인 수지시내, 대지산 근처에서 보는 모습에 비교가 되지 못한다.

5. 선유대4계(仙遊臺四季) - 용인팔경 제 5지는 제일리 선유대 사계다. 선유대 규모는 작은 듯 하지만 커다란 바위 위에 정자에 앉으면 옛 어르신들의 풍류를 느끼게 하는 곳이다. 바위에 새겨진 암각의 시구를 보노라면 우리 선조의 정취가 배어 나오는 기분이다. 주위의 연못과 선유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유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지 계절의 맛을 더해준다. 시민의 사람으로 한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다.

6. 조비산(鳥飛山) - 용인팔경 제 6지로 조비산이다. 조비산은 많은 전설을 간직한 산으로 새가 나는 형상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산의 모습이 아름답고 오묘하여 누구나 한번쯤은 오르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싶

은 산이다. 조용한 마을에 나 홀로 솟은 신비스런 느낌을 주는 산이다. 하산(한택식물원 쪽)고개에서 보는 조비산은 한마디로 신선봉이다.

7. 비파담만풍(琵琶潭晚風) - 용인팔경중 제 7지는 비파담만풍이다. 비파담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솔직히 어려움이 있었다. 30여년 전만해도 구만이산 달기봉에서 본 비파담은 소나무에 학이 날고 노구봉 정광산의 모습과 잘 어울렸다. 남구만 선생이 이곳에서 비파를 타고 시상에 잠기는 모습이 저절로 상상되던 곳이었다. 선정할 당시는 오염된 물과 오물 쓰레기장이었다. 그러나 경안천 살리기 운동이후 차차 비파담의 모습을 찾아가는데서 역시 잘 선정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남구만 선생의 추억이 담긴 옛 모습으로 비파담이 되살아날 것이다.

8. 가실벚꽃(稼室벚꽃) - 용인팔경중 제 8지는 에버랜드 벚꽃이다. 특히 에버랜드 내 호암미술관과 삼천육백지로 이어지는 벚꽃의 아름다움의 극치다. 수년 전에는 진해군항제나 경주, 군산, 쌍계사 등으로 벚꽃 구경을 갔지만 용인시민은 에버랜드 가실 벚꽃구경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 외에도 민속촌, 골프장, 골프장 입구, 노송지대 등 많은 곳이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에서 우리가 접하기 좋은 곳에 용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있다.

선정을 마치고 시민에게 알려려고 보니 꼭 마음에 드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8곳 모두 나름대로 특색과 모습이 있어 앞으로 관계자님들과 시민의 관심 속에 용인관광상품으로 일조하리라 생각된다. 시민에게 볼거리와 역사 공유도 겸할 수 있는 용인 8경이 새로운 명소로 거듭 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나라에서 이름난 명승지 산책

■대한팔경 - ①백두산 천지 ②한라산 백록담 ③금강산 일만 이천 봉 ④부전공원(개마고원) ⑤태종대 해운대 ⑥모란봉 을밀대 ⑦석굴암 일출 ⑧압록강 뗏목

■관동팔경 - ①간성 청간정 ②낙산사 의상대 ③강릉 경포대 ④삼척 죽서루 ⑤울진 망향정 ⑥평해 월송정 ⑦고성 삼일포 ⑧통천 총석중

■지리10경 - ①천왕일출 ②반야낙조 ③노고운해 ④벽소명월 ⑤세석철죽 ⑥직전단풍(피아골) ⑦칠선계곡 ⑧연하선경 ⑨불일폭포 ⑩섬진청류

■설악8경 - ①용비승천 ②운학무해 ③칠선유동 ④홍해형엽 ⑤춘망철죽 ⑥야월선봉 ⑦만산향훈 ⑧개화설경

■수원팔경 - ①광고적설(광고산) ②화산두견(현릉 철쭉) ③서호낙조 ④팔달청람(맑은 하늘) ⑤남제장유(수원천 버들) ⑥용지대월(방화수류정 달빛) ⑦화홍관창(화홍문의 장쾌한 물보라) ⑧북지상린(북지 연꽃)

■이천구(9)경 - ①도드람산 ②설봉호 ③삼형제바위(설봉산) ④설봉산성 ⑤산수유 마을 ⑥반룡송 ⑦애련정 ⑧말머리 바위(노성산) 9. 도예촌

■여주팔경 - ①神勒暮鍾 (신록모종) 신록사에 울려 퍼지는 저녁 종소리 ②馬巖漁燈 (마암어등) 마암앞 강가에 고기잡이배의 등불 밝히는 풍경 ③鶴洞暮煙 (학동모연) 강건너 학동에 저녁밥 짓는 연기 ④燕灘歸帆 (연탄귀범) 강어울에 돛단배 귀가하는 모습 ⑤洋島落雁 (양도낙안) 양섬에 기러기떼 내리는 모습 ⑥八蕪長林 (팔수장림) 오학리 강변의 무성한 숲이 강에 비치는 전경 ⑦二陵杜鵑 (이릉두견) 영릉과 녕릉에서 두견새 우는 소리 ⑧婆婆過雨 (파사과우) 파사성에 여름철 소나기 스치는 광경



# 1 해돋이 명소 **성산이출출**

성산(석성산)높이 413.5M



용인시 기흥구 중동, 처인구 역삼동, 유림동, 포곡읍에 접해 있는 용인의 진산이다.

용인 팔경의 성산일출은 새해 아침에 보는 것도 좋지만 1년 사계절 언제 보아도 찾을 때마다 색다른 맛과 느낌을 주는 신비로움이 존재한다.

성산은 일출도 좋지만 정상에서 보는 조망 또한 일품이다. 멀리 서해바다까지 뻗고 펼쳐 북쪽으로 관악산 도봉산까지 전개되는 자연의 파노라마는 또 다른 성산의 볼거리다.

### 우리 곁에

이제학

성산이 금빛 물든다.  
이른 아침 동해바다를 밀친 태양에  
성산이 금빛 물든다.  
저녁노을 성산을 감싸 밤새 온정에 쌓인다.

성산에 메아리  
용인을 맴돌아  
그 속에 용인이 있다.  
용인이 숨 쉬고 살찌는 풍요를 위해  
성산은 우리에서  
용인의 기상을 알린다.

일출은 신비다. 그래서 명승지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에 일출이나 일몰을 자주 표현하는 것은 아름다움에 신비가 가미되어 더욱 빛나기 때문이다.

신비는 꿈에 자연과 삶에 맛과 흥이 더해진 것으로 용인팔경에도 일출과 일몰이 포함되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해마다 새해 첫날에는 일출을 보려고 성산을 찾는다. 성산 정상을 중심으로 수많은 인파가 희망찬 새해에 나, 가족, 나라, 세계평화와 온 누리 인간의 평화와 번영과 축복을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모두는 태양의 오름에 박수하고 일출과 함께 모두 환희의 박수를 보낸다.

용인의 산악인들이 새벽부터 떡국에 귀밝이 술을 준비하면 신년 해맞이 축제는 절정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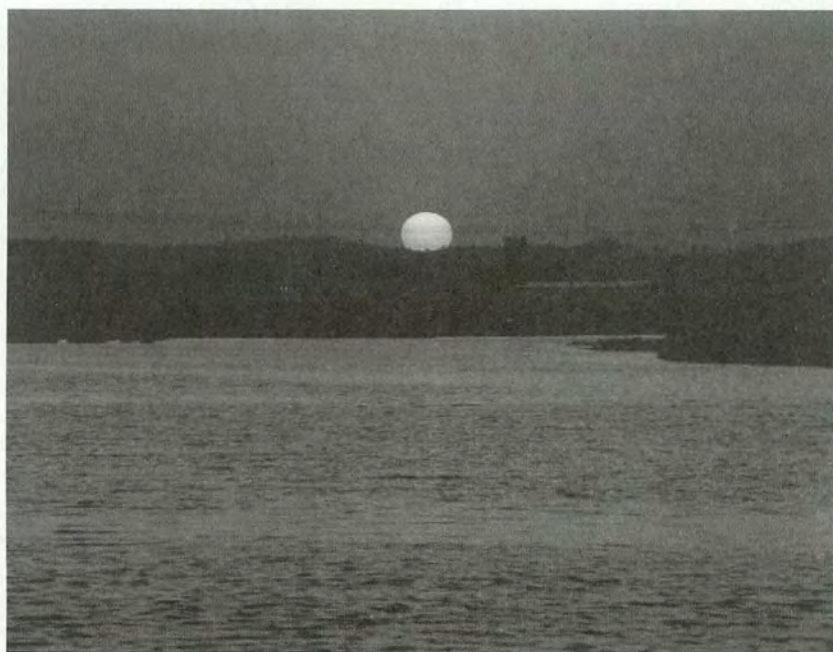
일출 광경은 예술이다. 용인시내 노구봉 들봉치 서쪽 부아산 광고산 북쪽 노고봉 말아가리산. 동쪽 금박산 문수봉 남쪽 삼봉산 시궁산에도 환희의 축제가 예술로서 승화된다.

성산은 일출만 이름답고 상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금강산이 계절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산의 모습이 그때 그때 바뀌기 때문에 생긴 이름들이다. 성산도 신록의 봄, 여름의 푸름, 가을의 단풍으로, 겨울엔 눈웃을 입은 모습을 보인다. 그뿐인가, 성산은 보는 곳마다 모습을 달리한다. 예버랜드에서 보면 운무 속 신비, 용인시내 및 45번 국도에서 보면 넉넉한 어머니 품 같고, 서편에서 보면 웅장하고 거대한 장수의 기세다. 남쪽에선 다정한 이웃으로 다가오는 용인의 진산임에 틀림없다. 산은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 맛을 느끼지 못한다.

정상에 오른 사람만이 정상의 맛을 느끼듯 성산에 오르면 누구도 느끼지 못한 자연의 묘미를 느끼며 성산의 위대함을 간직하게 된다. 용인은 성산이 있어 더욱 빛난다.



## 2 해님이 명소 에비낙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에 있는 용인에서 가장 큰 저수지다.

송전저수지는 원래 어비리란 지형으로 고기의 날개 지느러미와 같이 생겼다하여 어비촌 이라 불렸다. 어비촌 가운데로 묵리, 서리, 천리에서 흐르는 물이 풍부하여 72년 수역에 제방을 쌓아 저수지가 생겼고 어비리가 물에 잠겨 글자 그대로 고기가 살찌는 마을(漁肥里)저수지가 생겼다. 옛부터 말이 씨가 된다는 이야기가 실감나게 하는 지명이다.

45번 국도를 따라 안성 쪽으로 가다보면 송전리를 지나면서 넓디넓은 저수지를 만난다. 송전에서 묘봉리로 들어서는 언덕길에서 광활한 수면 위에 태양이 저수지를 물들이고 사라지는 모습이 어비낙조라 하여 용인 팔경중 하나다.

### 어비낙조

이제학

산에 지친 살찐 고기  
바람에 나부끼는 은비늘  
태양이 희롱하니 금비늘이네  
산마루 바위 모두에 금빛 뿌려  
황금물결 황금산하  
용인의 자연을 쉬지 않고 색칠한다.

송전에서 보는 낙조도 아름답지만 시궁산, 삼봉산을 등반하여 산 정상에서 보는 어비낙조는 그야말로 용인팔경 어비낙조의 진면목이다.

오후에 땀을 쪽 빼고 정상에 올라 내려다보이는 황금 호수 위로 하루를 마감하려는 붉은 태양의 마지막 발광색의 조화는 우리 마음의 감동을 주고도 남을 만하다. 특히 갈대 숲 사이로 밀려드는 낙조는 용인팔경의 진수다.

용인시에는 저수지가 여러 곳 있다. 큰 저수지로는 기흥 송전 용덕 삼인 동 두창 용담저수지가 있고 6개의 저수지는 기호수리조합에서 관리한다. 수지 고기리에 있는 낙생저수지는 수화홍안지부에서 관리하며 나머지 규모가 작은 55개 정도는 용인시에서 관리한다. 이중 1/3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속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예나 지금이나 치수사업은 국가사업이다. 용인에서 제일 큰 저수지는 면적 3151 평방미터 저수량 17000입방미터의 송전(어비리)저수지다.

송전이나 묘봉리 낮은 곳에서 보는 어비낙조는 또 다른 멋이 있다. 수평선 너머로 어비낙조는 수면과 산릉을 물들이는 태양의 아쉬운 작별을 감상하노라면 낙조는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 주려는 태양의 따뜻한 마음 같다.

은빛 물결 춤추는 어비리 저수지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본다. 어호8경은 무명시다. 그러나 잘 알려진 시를 한번 올린다.

1 쌍령산에 해가 뜨고 2 수선대 달이 밝다 3 탁영정자에 친구들 한데 모여 4 돌무루에서 낚시질하고 5 용강에 해가 지면 6 방목리에 저녁연기가 핀다. 7 금단사 새벽 종소리 8 갈마산 솔잎에 쌓이네.

예전에 토요일산악회, 모임선, 세븐, 산 끈들(용인 산만 다니는 산악회)모임과 삼봉산, 시궁산에 올라 어비낙조를 그야말로 용인팔경 어비낙조의 진면목을 보곤 했다.

저녁노을 물든 어비촌 찰랑이는 물결은 금비늘 되어 바람을 희롱하고 바람이 밀치면 금물결이 울렁인다. 내 마음 홀로 서 있는데 물결이 마음을 흔드니 저절로 경탄한다. 산을 오르며 흘린 땀은 어느새 낙조(樂鳥)에 흘러 날아가 버리고 내 몸 안엔 환희만 가득 찬다.



### 3 원삼인의 삶터 전원풍경

## 굽든고개에서 본 용담저수지





동부동 해곡동에서 원삼면 사암리로 넘는 고개는 굽이가 많아 굽은 고개, 굽든고개, 굽든고개라고 한다. 예부터 이 고개가 험하여 호랑이가 출몰했고 고개 아래에 범암굴, 호리란 지명도 생겼다.

해곡동에서 굽은 고개를 따라 한참을 오르면 고갯마루의 에코브릿지(야생동물 이동로)가 있다. 남쪽으로 문수봉(마애불이 있는 곳) 북쪽으로 칠봉산에서 독조봉까지 등산로 입구다. 고개로 넘어서면 광활하게 펼쳐지는 멋들어진 전원 풍경을 만난다. 이 굽든고개와 굽든고개에서 내려서다 본 원삼 북쪽 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용인 팔경의 하나다.

고개 정상에서 사암리 쪽으로 내려서면 왼편으로 칠봉산, 갈미봉, 영실산, 독조봉이 북쪽을 감싸안고 태봉산 지산 CC 건지산 수정산이 울타리 같이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오른쪽의 문수봉의 산봉우리가 연결되어 하나의 포근한 전원의 세계로 감싸 안은 모습을 우리가 만나려는 것이다. 그 포근한 모습 가운데 그림과 같은 사암 저수지를 중심으로 농토와 숲, 그리고 군데군데 보이는 시골농가의 모습은 그 조화로움에 의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이 전원풍경이구나 라는 경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동면 서리 상덕에서 동탄면 만의사로 넘는 고개를 아흔아홉 고개라 한다. 얼마나 굽이가 많았으면 아흔아홉 고개라 할까. 처인구 동부동 해곡동에서 원삼면 사암리로 넘는 고개도 굽이가 많아 굽든고개, 굽은 고개, 굽든고개 등으로 불린다. 옛날에는 남쪽으로 길이 있었는데 겨울철에 산에 응달이 들어 눈이 오면 차량통행이 위험해 북쪽으로 길을 옮겼는데 그 길이 지금의 굽든고개 길이다. 당시는 호동으로 길이 있었다. 예전에

길이 험해서 호랑이가 나타난다 하여 호리 범양굴 등 호랑이의 흔적이 지금도 지명으로 남아 있다. 당시 큰 도로가 없던 시절에는 이 길이 한양으로 연결돼 많은 객이 이용하던 길이다. 홍명희 선생의 '임꺽정'에 임꺽정이 일죽 칠장사로 병해스님(갯바치)을 만나러 가다가 가짜 임꺽정 소동이 있던 고개가 곱든고개다. 지금은 2차선 포장도로이지만 굽이 많기는 마찬가지다. 곱든고개 정상에 오르면 에코브릿지(동물이동로)로 터널을 만들었다. 터널을 통과하면 북쪽으로 칠봉산 등산로 남쪽으로 문수봉 마애불로 통하는 등산로가 있고 이를 지나면서 나타나는 광활하게 펼쳐지는 멋들어진 전원풍경이 용인팔경이다. 원삼은 동쪽으로 건지산 태봉산 수정산이 자리하고 북쪽으로 독조봉 영실산 갈미봉 칠봉산 그리고 서쪽으로 문수산에서 쌍령산까지 산릉으로 이어져 그 안의 분지는 전원마을로 아직 남아 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도시화 되어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그런 도시화도 친환경적인 마을로 변화된다면 영원히 살고 싶은 용인의 땅이 원삼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 4 설산의 진수 **광교설경**

광교설경 (光教雪景)



수원8경에 광고적설이 먼저 이름지어져 있어 용인8경에 광고설경을 넣으면 수원8경을 모방한다는 분위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원시내에서 보는 광고산의 설경보다는 용인 수지 쪽에서 보는 광고산 설경이 더 아름답고 웅장하다는 의견을 받아 들어 용인팔경에 광고설경이 포함되게 되었다.

광고산 설경은 한마디로 설산의 진수다. 형제봉의 볼륨 있는 산세, 거대한 광고산, 안테나의 백운산 그리고 바라산 청계산으로 이어지는 긴 산릉이 흰 눈으로 색깔하고 민가로 내려와 설산을 보여주는 것만 같은 광고산의 설경이야말로 용인시민을 위한 눈의 향연이요 축제다.

아름다운 광고설경은 어느 곳에서 보는 것이 제일 아름답고 쉽게 볼 수 있을까? 수지시내에서는 아파트나 고층빌딩 때문에 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시내 동쪽에 죽전과 모현 오산리 사이의 대지고개에서 보면 광고설경을 쉽게 볼 수 있다. 또 죽전고개 마루에서 대지산으로 향하며 등산도 겸한 광고산 설경 감상은 건강한 레저 활동의 한 방법일 것이다.

### 첫눈 맛이 처녀 산행

이제학

쌓인 눈에 흘러  
이 봉 저 봉 헤맨다.  
젖은 발 저려와  
두 눈 불켜 찾는 산길  
땅거미 길 감추려

밀려들면

머리에 서릿발 서는데

광고산 꼬리

겁먹은

내 발목만 잡는다.

겨울산행은 눈 산행이 제격이다. 몇 년째 눈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2월에 눈이 많이 내린다. 대신 내륙지방은 영동에 비해 눈이 적어 눈 산행을 기대하는 산악인을 실망시키지만 2월이 되며 백두대간을 눈이 뒤덮고 나면 등산객을 유혹한다. 2008년 5월13일 지리산 천왕봉에서 8cm 눈을 만났으니 2008년은 나에게는 행운의 한해였다. 용인에서 눈을 만나려면 높은 산으로 가야한다. 용인에는 광고능선과 말아가리산(馬口山)능선이 설산의 맛을 느끼게 한다.

모든 자연은 좋은 만큼 그만큼의 위험도 많다. 장미가 아름다움이 있지만 가시가 있듯이 산도 아름답고 좋고 즐거움을 주지만 추위와 어둠의 산에는 어려움과 위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 5 조상들의 풍류가 숨 쉬는 곳

# 선유대 4계

■ 선유대 4계(仙遊臺四季)



청와대에서 80세 넘는 노인들께 선물하여 더 유명해졌다. 원삼면 맹리에 사시는 이필영 옹께서는 텃밭에 명아주를 심어 손수 청려장을 100여 개 이상을 만들어 80이 넘는 원삼 노인들께 선물을 하셨단다. 어른들이 나이가 드시면 걸어 다니는데 의지할 것으로 세상에서 제일 가볍다는 지팡이가 청려장이다. 그 청려장을 짊고 벋들과 이야기하고 풍류를 즐기러 모이는 곳이 선유대다.

선유대는 양지면 제일리에 있는 옛 어른들이 노시던 곳이다. 용인에는 경포대나 죽서루나 의상대 같이 유명하거나 큰 정자는 없다. 그러나 향토 유적으로 지정된 사은정(기흥구소재)은 우리 조상들이 농사짓고 나무하고 낚시질하고 나물 캐는 네 가지 낙을 준다하여 사은정이라고 했다. 그런 정자도 시류에 빛을 잃었고 남구만 선생이 풍류를 즐겼다는 비파담도 흔적이 없다. 또 모현 왕산리 경안천 근처에 마음을 씻는다는 세심정은 근래 생긴 노인정이다.

그러나 선유대는 실제 선조들이 풍류를 즐겼던 흔적이 많이 배어 있는 곳으로 조상들의 온기를 느끼기에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제일초등학교 남쪽100M쯤에 작은 산 아래 북쪽을 향한 정자가 보인다. 실개천이 모여 도는 곳에는 면사무소에서 공원을 조성하여 현대식 조경과 선조님들의 풍류가 혼합되어 부담없이 돌아볼 수 있는 곳이다. 작은 듯한 정자를 받치고 있는 바위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연못은 시조 소리를 간직한 듯 옛 어른들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선유대(仙遊臺)는 청려장 짊고 풍류를 즐기러 모이는, 제일리 양지 어른들의 옛 풍류객이 모이는 경로당이다.

## 낮추려네

이제학

몸과 마음의 낮춤 해탈에 접근	몸 속에 스며든 미풍 속 칼바람
신체의 낮춤 자신을 위한 배려	무릎 굽혀 낮추려니 무릎이 없다
마음의 낮춤 보고 싶다	엎드려 오체투지로 이어져
흘러가는 바람에 숨어	엎드려 느끼는 내 뒷모습
주검의 신비에 취해	명분은 찾았는데
핑계를 신의 뜻이라	피안을 보니
좋은 곳만 찾아 다녔는데	명분 또한 허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올라	공이란
커튼을 치면	모두 버리라는데
시류는 바람 되어 멋 부린 커튼을 흔든다.	내겐 버릴 것조차 없으니

청려장을 짚고 다니면 젊어진다는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가 유명하다. 명아주는 발이나 빈터에 흔히 자라는 한해살이 풀로써 장이 라고도 부르는 풀이다.

영어로는 goos foot(거위발) 잎이 거위발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초록색도 있고 흰색은 흰 명아주라 부른다.

예부터 지팡이는 자기가 만들어 짚지 않았다. 지팡이 자료는 나무도 많지만 노인이 소지하기에는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 청려장이 유명하다.

청려장은 가볍고 단단하며 울퉁불퉁하여 보기에 좋아 노인들의 지팡



이로는 옛부터 안성맞춤으로 선물로도 많이 이용했다. 통일신라시대부터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하사품으로 이용 되어 지금까지 줄곧 이어지는 미풍양속이다.

나이가 50세 되면 자식이 부모님에게 만들어 선물한다는 지팡이를 가정(家杖), 나이가 60세 되면 마을에서 만들어 선물한다는 지팡이를 향장(鄉杖), 나이가 70세 되면 고을원님이 만들어 선물한다는 지팡이를 국장(國杖), 나이가 80세 되면 나라에서 만들어 선물 한다는 지팡이를 조장(朝杖)이라하는데 이런 지팡이를 청려장이라 한다.

도교에서 신선이 짚고 다니는 것이 청려장으로 명이주 잎이 솟아날 때 색깔이 푸르다 하여 푸를청(靑)을 넣었으며 푸른색은 영원함의 상징으로 장생불사(長生不死)를 나타낸다고들 한다.

삼국시대에 나타나는 남화노선이 짚고 다녔다는 지팡이도 청려장이며 고려 말 나옹대사가 남긴 선왕가에도 청려장을 빗겨 들고 명산을 찾아들어 라는 대목도 있다.

조선시대에는 담양 면양정의 송순은 그 유명한 삼언가에서 부여장 송백년(扶藜杖 送百年) 청려장을 짚고 백년을 보내리라 라고 읊고 있다.

이퇴계 선생이 사용했던 청려장도 지금 안동 도선서원에 보관되어 있고 이시진의 본초강목에는 청려장을 짚고 다니면 중풍에 걸리지 않는다는 기록에서처럼 울퉁불퉁한 청려장 표면 돌기가 손바닥을 지압 하듯 눌러 효과가 있다고 한다. 지금에도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에는 대통령이 노인에게 청려장을 드리는 행사를 행한다.

영국여왕 엘리자벳이 안동 하회 마을에서 선물로 청려장을 받고 탐스럽

고 가벼워 좋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는 일화도 있다.

이용희 전 국회의원께서 선유대를 포함한 주위의 땅을 희사하여 선유대를 보존케해 주셨다. 근처에 고마운 뜻으로 공적비를 세웠다. 감사하는 마음도 미풍양속이다. 면사무소에서 선유대를 공원으로 조성했다. 작은 듯 한 정자를 받치고 있는 바위 그리고 아래 연못은 옛 어른들의 풍류소리를 간직한 듯 고풍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 신선이 노는 곳 仙遊臺

연못 쪽으로 새겨진 글씨는 음각으로 글씨가 또렷해 읽을 수 있다.

이준, 김병일, 심원장, 강진원, 이조경, 구운서, 이조훈, 유영근, 유만주, 이근학, 임형준, 임완준 12명의 이름이 3명씩 쓰여 있고 제공회첩시주 정사년 3월 유장근 그리고 그 옆엔 작은 글씨로 이섭 근성이라고 맺는다. 모두 한자로 쓰여 있고 한마디로 풍류를 곁들여 어울리는 제공회 회원 이름인 듯 보이고 회장이 유장근 인듯 싶다.

전 문화원장이셨던 고 박용익 선생님께서 8-90년 전쯤 양지에서 벼슬을 하고 풍류를 아시던 분들로 참관 참의도 하신 분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위 동쪽에는 가인암(可人岩)이란 글씨와 확실치 않은 문자와 이름들이 있다. 정자 바로 밑 그러니까 바위 꼭대기엔 선유대가 한문으로 쓰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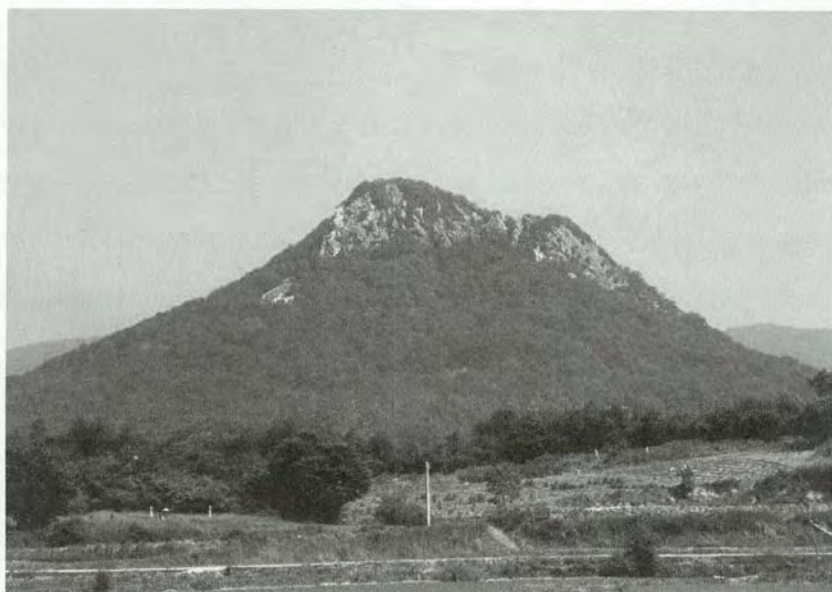
선유대는 웃어른들의 삶이 배어 있는 몇 안 되는 정자로 충효의 고장 용인에서 한번쯤 찾아가 웃어른들의 생활을 느껴보는 역사의 체험장이다.

선유대는 도시를 떠나 운치있고 고풍을 느끼게 하는 역사의 접근이다. 우리 한번 신선이 되어 보자.



## 6 용인에서 제일 아름다운 산 조비산

조비산(鳥飛山)



한남정맥은 용인 남쪽에 솟은 아홉 개 봉의 기가 모여 여주 능서에 명당을 이루니 이곳이 영릉(세종대왕릉)이란 풍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구봉산에 올랐다. 구봉산에서 달기산과 갈라져 동쪽으로 뻗은 산릉은 정배산을 통해 기를 모아 마침표 같은 점의 산을 만드니 이 산이 조비산이다.

동국여지승람에는 “한 봉우리가 우뚝 솟아 돌을 이고 있는데 그 돌구멍에 흰 뱀이 있어 매년 큰물이 질 때를 타서 천민촌에 내려와 사람과 가축에 우환이 되었다(내 고장용인 지명지지에서)”고 전하는 산으로 전설과 이야기기 많은 산이다.

용인팔경 중에 용인에서 제일 아름다운 산으로 불리어지는 조비산은 전에는 산의 머리가 남쪽으로 뻗쳐 있었다. 1970년경 규석을 캐려고 머리 부분의 바위를 훼손하여 지금의 머리가 잘려 뾰족봉이 되어 역적산으로 불리던 이야기가 무색하게 되었다.

초기에 이태조가 서울로 도읍을 옮길 때 삼각산 자리에 산이 없어 아름답고 보기 좋은 산을 이곳으로 옮겨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한 장수가 조비산을 서울로 옮겨가는 도중 이미 삼각산을 옮겨 놓았다는 소식을 듣고 더 옮겨 갈 필요가 없게 되자 석천리에 내려놓고 기분이 상한 분을 이기지 못해 서울을 향해 방귀를 끼었다. 이 사실을 안 조정에서는 불경을 저지른 조비산의 산 이름을 폐하여 조폐산으로 하여 역적산이라고 불렀다.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은 머리를 모두 한 양으로 향하는데 조비산만은 한양이 싫어 머리를 남쪽으로 돌리고 있다 하여 역적산으로 불리는 이유도 되었는데 70년 이후 부터는 머리 부분이 없어 역적산 이야기의 의미가 감소하여 재미가 덜해졌다.



# 7한 폭의 동양화 비파담만풍

비파담만풍(琵琶潭晩風)



조선 숙종 때의 영의정이었던 남구만이 낙향하여 정자를 짓고 비파를 타며 경치를 즐겼다고 전해지는 곳으로 울창한 숲과 백로들이 나는 모습이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하다. 청구영언에 실린 남구만의 시조도 이곳에서 지어졌다고 추측되고 있다.

동창(東窓)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  
재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시를 어디서 지으신 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 너머에 재를 장사래 고개(갈월과 파담 경계 45번국도)라하고 사래긴 밭은 갈월입구를 이야기한다고 한다.

비아수하면 어렸을 때 미역 감고 자맥질하며 바위에서 뛰어들던 널따란 보막이다.

경안천의 본류로 용인의 물을 모아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를 지나며 구만이산 아래의 큰 물막이 보를 비아수라 불렀지만 행정구역으로는 모현면 갈담리다. 갈담리에서 노구봉 아래를 갈월 45번국도 경안천 인접은 파담으로 구분 하고 파담에는 남구만 선생의 사당이 있는 앞개울을 비파담이라고 부른다. 약천 남구만선생이 말년에 이곳에서 풍류를 즐기며 생활

하셨던 곳이라서 비파담으로 불리는 곳이다.

팔경을 정할 때 만해도 이곳은 무분별한 건축과 폐기물, 물은 오염투성이었다. 그러나 훗날 약천선생이 풍류를 즐기실 때만큼 맑은 하천과 경관이 좋은 곳으로 만들어 후세에 넘겨주자는 차원에서 팔경으로 선정했다. 그 후 지금은 어떤가? 경안천 살리기 운동이 벌어지며 물은 이미 맑아졌고 주위의 환경도 좋아지고 있다. 큰 보막이 공사 후 넓었던 비야수가 더 넓어져 있다. 구만이산 약천 선생의 이름의 산과 달기산으로 이어지는 산세와 구만이산 아래 전나무 숲은 벌써 경치 좋은 곳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천변에 약천 남구만 선생의 사당이 옛 명성에 버금가게 자리하고 있다.



## 8 봄에 내린 하얀 꽃비 가실벗꽃

| 가실벗꽃(稼室벗꽃)





용인시의 문화재 분포가 국보 16점, 보물 29점, 도 기념물 9점 등 유무형 문화재가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은 것은 에버랜드의 호암미술관이 있기 때문이다. '호암'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회장의 호로 평소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국내와 외국, 특히 일본에서 보물들을 모아 만든 미술관이다.

호암미술관이 있는 에버랜드는 국민관광지로 너무나 유명한 곳으로 새삼 소개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가실, 동막, 이성동을 합하여 가실리라 칭하게 되었는데 에버랜드는 용인시 포곡읍 가실리를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향수산 서편으로 흘러내린 물이 모인 삼만 구천지는 지금은 양어저수지다. 이와 어우러지는 호암미술관과 주위의 풍경은 평시에도 많은 인파로 붐빈다. 봄철이면 이 주위의 벚꽃은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가 좋아 보는이의 마음을 흔들고도 남는 경치를 용인시민에게 보여 준다. 그래서 용인 8경에 가실벚꽃이 선정되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꽃을 좋아했다. 그래서 꽃놀이를 즐긴다. 봄철 앞산에 진달래, 개나리, 조팝나무로 흥을 돋우고 철쭉이 필 때면 지리산 아래봉 세석평전 소백산 등에, 벚꽃이 피면 진해 군항제, 군산입구, 경주 쌍계사 화개장터 등으로 구경꾼들이 몰려다닌다.

이제는 봄 뿐 아니라 사시사철 꽃구경을 용인에서 할 수 있다. 벚꽃피면 에버랜드 전체가 벚꽃이고 장미축제, 튜립축제도 있고 한택식물원에 야생화 구경까지 곁들이면 용인이 곧 큰 꽃동산이 되어 버린다.

## 가실벚꽃

이제학

애보낙원(愛寶樂園)의 꽃잔치  
삼천육백호수 불어오는 봄바람  
어디서 왔을까  
화닥 피어나는 봄기운  
알각 밀려 피어버린 가실벚꽃  
뒤덮은 꽃대지 애보낙원(愛寶樂園)  
잎물든 꽃망을 새싹들의 아우성  
만인 눈흘린 벚꽃놀이

에버랜드는 꽃동산이다. 그 중에서도 삼천육백호수와 호암미술관 주위의 벚꽃은 인위적으로 만든 꽃의 낙원이다.

## 제3장

# 백두대간의 뿌리

## 한남정맥

1. 지지대고개 - 양지고개
2. 양지고개 - 망가리
3. 망가리 - 양고개
4. 양고개 - 아차지고개
5. 아차지고개 - 메주고개
6. 메주고개 - 무너미고개
7. 무너미고개 - 망덕고개
8. 망덕고개 - 잣말고개
9. 잣말고개 - 가현고개(치)
10. 가현고개 - 칠장사

## 개요

한남정맥을 답사하는 사람들은 산악인을 포함해 상당히 많다. 그 실례로 인터넷의 한남정맥답사기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답사 중 선답자들이 남긴 리본을 보면서 용인시민으로서 용인을 통과하는 후답자에게 용인을 알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용인사람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답사기를 쓰려한다.

우리 한반도의 옛 지도에 나타난 산맥을 정리한 것이 1800년경 찬표된 산경표(山經表)다. 산경표는 여암 신경준이 동국지도류의 산줄기 흐름을 토대로 문헌비고의 산수고(山水考)를 집필한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가 찬표한 것이다. 그 내용은 전국의 산줄기를 하나의 대간(大幹) 그리고 또 하나의 정간(正幹) 그리고 13개의 정맥(正脈)으로 규정하고 여기에서 다시 가지 쳐 뻗은 기맥(岐脈)으로 기록했다.

산맥 이름을 정리하면 대간은 백두대간, 정간은 장백정간, 13개 정맥은 1.낙남정맥 2.청남정맥 3.청북정맥 4.해서정맥 5.임진북예성남정맥 6.한북정맥 7.낙동정맥 8.한남북정맥 9.한남정맥 10.금북정맥 11.금남호남정맥 12.금북정맥 13.호남정맥으로 1대간 1정간 13정맥을 한반도의 줄기로 표현한다.

하나의 대간인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 땅의 중심산맥이 되며 모든 물줄기를 크게 동서로 양분한다. 하나의 정간인 장백정간은 두만강과 어랑천, 수성천의 분수령으로 백두대간 원산 설령봉에서 두만강 하구 서수라곶 까지도.

13정맥은 백두대간에서 가지 친 산맥으로 북쪽(북한)에 5개의정맥 남쪽



(남한)에 8개의 정맥을 말하며 13개의 정맥 중 용인을 통과하는 정맥이 한남정맥이다.

우리가 답사하려는 한남정맥은 13정맥의 하나로 백두대간인 속리산에서 서북쪽으로 이어진 한남북정맥이 안성시 칠현산에서 서쪽으로 뺀 금북정맥과 서북쪽으로 한남정맥과 갈라선다.

한남정맥은 안성시 칠현산에서 칠장산을 시작으로 강화도와 연결된 김포 문수산까지 160km 정도를 해발 200m 내외의 산들이 이어져 한강 분류와 남한강 남부 지역의 분수령을 이룬다. 이 줄기를 이루는 산들은 문수산, 수안산, 가현산, 계양산, 철마산, 양지산, 수암봉, 광고산, 응봉, 성산, 부아산, 함박산, 문수봉, 구봉산, 달기봉, 도덕산, 관해봉, 칠장산으로 이어진다.

한남정맥 중에서 안성 칠장산에서 용인을 중심으로 용인에 접한 수원의 지지대고개 까지 소개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지지대고개로 향했다.

국도 1번 도로를 따라 수원을 지나는 정조임금의 효성이 서린 역사적장소인 지지대고개에 접하게 된다. 바로 수원시와 의왕시 시경계 고개가 지

지대고개다. 수원 쪽에서 왼편으로 지지대비가 있는데 이 비에는 정조의 뜻을 기리기 위해 1807년 홍문관 제학 서영보가 지었고 윤사국이 글씨를 써서 건립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4호) 정조가 아버지 장현세자(사도세자)의 원침인 용릉 전배를 마치고 환궁하는 길에 이 고개를 넘으면서 멀리서나마 용릉이 있는 화산을 바라 볼 수 있으므로 이곳에 행차를 멈추게 하고 용릉쪽을 돌아보면서 떠나기를 아쉬워하였다고 한다. 이때 정조의 행차가 느릿느릿 하였다. 하여 이곳의 이름을 한자로 느릿지(遲)자 두자를 붙여 지지대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 런가하면 지지라는 뜻은 보통 느리다는 것이 아니고 옛부터 부모를 생각해서 “지지”하다는 뜻으로 말하는 고사에서 유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사관 벼슬에서 물러나 노나라를 떠날 때 공자의 걸음이 너무 지지(遲遲)함에 제자인 자로가 어찌 그리 발걸음이 느리냐고 그 까닭을 물어 보니 공자가 말하기를 “노나라는 나의 부모님 지향이니 더디고 더딘 나의 걸음이여라 부모님의 나라에서 내가 나기 때문이여라” 한데서 그때부터 이 말이 나왔다고 한다. 더욱 아버지를 모신 곳을 떠나가는 정조임금의 발걸음이 가벼울 리 없고 공자의 말과 같이 역시 걸음이 더디다는 데서 지지대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도 전해지고 있다.

지지대고개 동편으로는 효원공원을 만들어 효의 도시 수원을 상징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했다. 정조임금의 동상 그리고 효원전시관 그리고 6·25때 유엔군으로 참전한 프랑스군 참전비를 조성했는데 매년 11월 11일 2차 대전 종전일을 기해 프랑스대사관에서 참배행사를 하는 참전비도 한 번쯤 둘러 볼 만한 곳이기도 하다.



# 1 멋이 넘치는 용인의 서북 능선길

## 지지대고개~양지고개

거리 : 지지대고개 -4.2- 백운산 -1.5- 광고산 -1.7- 양지고개(7.4km)

### 범봉-백운봉-광고산

몇 년 전만 해도 한남정맥 지지대고개부터 헬기장까지 약 3.9km가 휴식년제에 묶여 탐방하기가 어려웠었다. 그러나 2003년 2월 15일부터 2006년 1월 3일까지 출입이 허락되면서 출입금지 바리케이드 현수막이 모두 철거되어 입구가 깔끔하다. 그래서 탐사하는 마음이 편했다.

효원공원 맨 위쪽에 위치한 프랑스 참전 기념관 앞에서 동쪽으로 고속도로 진입로 밑으로 터널이 보인다. 굴다리로 이동하다 왼편으로 시멘트 통로가 보인다. 그곳이 휴식년 때 정맥꾼들이 다니던 길이다. 직선으로 이어진 터널엔 등산로라는 페인트(스프레이) 낙서가 반갑기만 했다. 굴다리를 통과하면 산길로 포장도로가 마감되며 흙길로 오르막이다. 언덕에 송전탑이 보이는 왼편으로 고속도로 진입로가 버티고 있다. 갈림길 옆 문무석이 있는 규모가 큰 묘지가 있다.

산으로 오르는 등산로는 산 능선을 쫓아 오르면서 정맥 마루금임을 알

수 있다. 수원에서 시작하는 한남정맥의 시작이다. 송전탑을 뒤로하고 가파른 능선으로 오르는 길은 넓고 비탈길에 네모난 철로침목으로 산사태를 막으며 길을 조성했다. 첫 번째 봉우리에 도착하며 왼편으로 오래된 철조망을 옆으로 마루금이 이동한다. 폐허가 된 군부대 벽돌 막사 구조물이 왼쪽에 있다. 수원시에서 휴식년 때 숲아베기를 잘 해두어 산길은 후련함을 느끼게 한다. 등산로는 능선길을 따라 3.9km를 서너 번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산객을 자주 만날 수 있었다. 오후에 만난 고개는 의왕 대안사와 수원파장동을 잇는 수의고개다. 오른쪽으로 광고저수지가 멀찌기 아름다움을 보낸다. 왼편으로 의왕의 아파트 건물이 보이면서 소나무 숲에 바위 주위로 산림감시소, 옆으로 헬기장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 광고헬기장(367m)이다.

넓은 봉우리에 흰색의 표식 옆에 등산안내판 그리고 산림욕장으로 내려서는 나무계단을 잘 조성했다. 헬기장에서 사방을 둘러보고 나무 사이 동쪽으로 내려서는 길이 통신대 헬기장으로 가는 마루금 길이다. 1.5km 통신대 헬기장이란 이정표를 뒤로하고 좁다란 등산로로 내려서며 등산로는 이번엔 짧게 오르고 내려가는 길이며 능선엔 설 만한 벤치가 봉우리마다 서너 개씩 있다. 통신대 헬기장까지는 많은 사람이 오간다. 30분쯤 걸어서 오르막을 오르면서 둘러선 벤치에 많은 등산객이 보인다. 숲속에서 점심을 먹는 사람들이 많다.

고개에 올라서니 수백 평의 시멘트헬기장이다. 동쪽으로 철펜스 뒤로 미군통신대가 보인다. 통신대 헬기장 주위는 등산객의 쉼터다. 북서쪽으로 의왕시가 내려다보이고 동쪽산릉은 백운산 통신탑이 잡힐 듯 올려다



보인다. 아스팔트길로 해서 미군통신대로 이동하면 오른쪽으로 파장동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 마루금은 통신대 정문으로 향하고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통신대 철탑을 끼고 내려서는 길은 좁지만 계단 길은 느낌이 좋은 길이다. 계단을 내려섰다. 다시 오른 곳은 통신대 후문, 이 곳부터 통신탑까지는 시멘트 계단 길이다.

500여 계단은 꼬불꼬불 올라선다. 선답자들이 이곳을 힘들어 했듯이 모두들 절름걸음이다. 통신탑 관리 초소 정문 왼쪽으로 백운산 340m 표시를 보며 정문에 도착했다. 통신탑을 올라다보며 오른쪽으로 돌아서면서 능선 넘어 철조망으로 이어진 길과 만난다. 거대한 통신탑 철조망 좌우로 연결 백운산으로 오가는 등산로다. 능선으로 오르면 이번에는 개구리 무늬의 통신안테나가 있다. 이곳부터 용인과 수원시 시경계다. 의왕시 수원시 용인시 경계점이다.

우리 군 통신탑이 한눈에 들어온다. 통신탑을 끼고 돌아가면 큰 바위봉이 좋은 전망대다. 계속 마루금을 따라 남쪽을 이동한다. 시야가 열린 봉우리에선 북쪽으로 백운산, 바라산, 남쪽으로 광고산이 얼굴을 내민다. 용인시의 서북릉이다. 이어 편한 능선길로 오르고 내리면 숲속에 쉼터가 보인다. 숲속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역새발 삼거리다. 돌탑 앞으로 수원 쪽으로 내려서는 길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한다. 이제는 초라하지만 남아 있는 갈대가 가을바람에 누런 깃털을 흔든다. 갈대 뒤로 키 큰 안테나가 보인다. 새로 만든 안테나는 너무 커서 한참을 올라다본다. 철탑을 따라가면 능선길은 철탑을 피해 한참을 내려선다.

날씨가 건조해서 흙길의 먼지는 발을 디딜 때 마다 풀풀 바지로 기어오

른다. 등산화는 이미 황토색으로 변한 채 다시 능선으로 오른다. 모두 한숨을 쉬는데 99.9 경인방송 안테나가 초라한 모습으로 큰 안테나에 기대서 있다. 오르고 내리는 등산로는 걷기 편한 등산로다. 능선위에 올라서면 산불감시초소 그리고 간이대피소가 노루목이다. 아담한 귀틀집(통나무집)옆으로 운동 기구가 많이 있다. 새로 단장하여 등산객들이 운동기구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듯 싶는데 이렇게 멀리 힘들여 올라와 운동을 한다는 것도 또 다른 의문이다. 노루목을 지나며 등산로 고갯길엔 로프를 걸어 놓아 쉽게 오를 수 있다. 설 만한 능선엔 벤치를 만들어 수원시가 광고산을 아끼는 모습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나타난 광고산 시비(장세영 군 작품)가 자리한다.

1999년 장안구에서 백일장을 실시해 우수작품을 시비로 만들어 곳곳에 설치해놓았다. 시를 읽는 여유있는 등산객을 뒤로 하고 오른 곳엔 광고산(시루봉) 125M의 이정표가 보인다. 마루금은 계속 백운산부터 용인시와 수원시의 시경계길이다. 이곳에서 광고산 주봉 시루봉이 용인에 속해 있고 마루금은 직진하여 토끼봉으로 이어진다.

용인 땅 광고산 주봉은 바위돌 위에 수원시장이 만든 성루모양의 돌로 된 상징물엔 시루봉이란 음각의 글과 뒤편에는 광고산 유래를 새겨 놓았다. 용인시민으로서 수원시장의 월권이라고 여러 차례 항의를 했고 결국 용인시에서 2008년11월에 광고산이라는 정상석을 새로 설치했다. 수원 시민이 더 많이 이용하는 광고산을 도립공원화 하는 것도 좋은 생각 같다. 정상석 뒤에 용인시 표시를 안한 것이 아쉽지만 수원시민에 대한 용인시의 배려라고나 할까?

정상에서 동쪽으로 300m쯤 가면 큰 바위봉이 있다. 바위 위에 오르면 수지와 분당의 도시가 한눈에 보인다. 이곳의 야경은 참으로 아름답다. 혹 야간 산행을 할 때면 하늘에 별이 아름다워 별천지도 구경거리다. 이 바위봉이 시루봉이다. 수지에서 보면 바위봉이 띄시루 같다 하여 시루봉이라 불리었고 정상 시루봉은 측량삼각점 표시가 있다 하여 풋대봉이라 불리다 언젠가부터 두 봉을 시루봉으로 불리게 되었다. 새로 만든 정상석에 광고산으로 음각해서 원래 시루봉은 이름을 되찾는 기회가 됐다.

광고산은 용인팔경엔 광고설경 수원팔경엔 광고적설로 양쪽 시 모두 설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졌다. 광고산(595M)은 원래 광악산이었는데 928년 왕건이 후백제 견훤을 평정하고 산 근처 행군을 차리고 군사를 위로 할 때 산 정상에서 불빛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이 산은 부처의 가르침을 주는 산이라 하여 산 이름을 광고라 명(命)하여 광고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다시 돌아 정맥길 시경계점인 마루금으로 돌아오면 길은 바윗길로 내려선다. 흙길을 만나며 등산로는 매우 좋고 줄이은 등산객이 붐빈다. 능선에 선 소나무는 험터로 능선엔 이런 숲 곳이 여러 곳 있다. 네 개의 작은 봉을 넘는다. 한참을 내려서면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이 토끼재다. 수원 사방땀에서 오르는 길로 수원에서 광고산으로 오르는 가장 짧고 쉬운 길이다. 이곳은 언제나 사람이 붐비고 나무계단으로 이어진 등산로는 보기에 좋은 명물이다. 토끼재에 쉬고 있는 많은 등산객은 정상에 가까이 왔다는 안도감에서인지 편안한 자세로 음료수와 음식을 먹는다. 여름철 휴일에는 음료수, 아이스크림도 판매하는 곳이 있다.

토끼재에서 앞산으로 오르는 길은 가파르다. 오르면 갈림길이다. 오른쪽 길은 토끼봉(10년 전쯤부터 비로봉으로 불린다)으로 오르는 나무계단으로 올라선다. 왼쪽 길은 토끼봉을 피하는 우회길이다. 토끼봉 정상엔 팔각정이 있다. 팔각정에서 보는 수원시가지가 토끼봉 소나무와 어우러져 멋을 느끼게 한다. 서쪽으로 소나무 숲으로 광고동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 마루금으로 내려서는 길 입구에 김정희의 광고산이라 부른다. 시비를 두고 내려서면 지름길과 만나며 오른쪽으로 김준용 전승비 70m의 안내판 있다. 동쪽 산 아래에는 서봉사지로 현오국사탑비(국가 보물 9호 문화재)도 있다.

김준용 전승기념비는 경기도 문화재 제38호로 병자호란 때 이곳에서 청나라 군대와 대적하여 김준용 장군의 부대가 승리한 곳으로 후에 화성 성곽공사의 총책임자인 변암 채제공(청계천벽화 정조대왕반차도의 영의정)이 김준용 장군의 전승 이야기를 전해 듣고 친히 찾아와 광고산 자연석에 승전기념비를 새기게 하고 흡족해 했다는 곳으로 이 골짜기를 호랑곡이라 한다. 오랑개가 항복한 곳이란 뜻이다. 이곳을 지나는 등산객들은 한번쯤은 들러 우리 선조의 기개가 담긴 비석을 보시라 권하고 싶다. 이곳에서 양지재까지는 먼저 시작되는 나무계단은 계단 높이가 오르기 편하게 만들어 탐방이 쉽다. 큰 산마루를 넘으면 또 계단을 내려선다. 마루금은 이내 형제봉이 고개를 내민 양지재에 도착한다. 동편으로 용인시 신봉동 양지말 서쪽으로 수원시 상광고동으로 이어지는 고갯길이다. 하지만 수원 쪽은 휴식년제로 출입을 통제한다. 특색은 간이 화장실이 있고 왼쪽의 큰 뒷자리에서 쉬어 가고 싶은 고갯다.



## 2 형제봉에서 응봉(매봉)에서 수지 상현동으로 양지고개~망가리

┃ 거리: 양지고개 -0.3- 형제봉 -2.8- 버들치 -2.0- 망가리(5.1km)

양지고개는 신봉동과 상광교동을 잇는 고개로 예전 오지 신봉동 양지말에서 수원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길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던 곳이지만 지금은 등산객이 머무르는 곳일 뿐이다. 남쪽으로 한남정맥 마루금은 형제봉으로 이어진다. 양지고개에서 가파르게 소나무길로 오르면 나무계단이 나타나고 경사가 큰 나무계단을 오르면 새로 만든 계단으로 연결된다. 바위 사이로 수원 쪽으로 트인 곳은 쉽터지만 바위도 멋있고 전망도 좋은 곳이다. 오른쪽으로 정상상을 오르지 않고 다니는 지름길 계단이 있다. 다시 왼쪽 바위 틈을 비비고 오르면 큰 바위봉이 형제봉 정상이다. 용인시에서 만든 이정표와 정상석이 바위 꼭대기에 있다. 내려다보이는 동쪽 앞에 2개의 작은 봉을 합쳐 형제봉이다. 3형제봉이라고 해야할 듯싶다. 봉 위 바위탐에 오르면 전망이 매우 좋은 곳이다. 특히 광고산 설경을 이곳에서 보면 더욱 아름답다. 그 아래로 신봉동으로 가는 길이 있다. 형제봉 정상 남쪽으로 큰 바위에는 아래로 두 개의 굽은 줄이 매여 있다. 아래로

조심히 내려서면 소나무 숲 속에 박재삼의 시비가 있고 남쪽으로 내려서면 형제봉을 벗어난다. 이곳부터 나무계단은 끝없이 길다. 넓은 산길에 백년수 이정표를 무시하고 경기대 표지판을 따라 내려선다. 백년수는 수원시에서 잘 관리하는 약수터로 광고동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다. 계속 경기대 쪽으로 내려서면 이의동 갈림길이 있다. 이곳에서 경기대 쪽으로 한참을 내려서 큰 고개를 넘으면 경기대 건물 옆 철조망을 만나고 계속 내려서면 나무계단을 통해 수원시가 자랑하는 반딧불화장실이 있다. 반딧불화장실이 수원에서 오르는 등산로 입구며 그 앞으로 멋들어진 광고저수지가 자리하고 이곳부터 상광고동으로 이어지는 광고산 등산객을 위한 셔틀버스를 이용하게 하여 교통제증이나 환경을 위한 수원시의 배려를 보여준다.

다시 마루금은 이의동쪽 능선으로 이어진다. 조금 내려서면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천년약수터가 있다. 용인시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는 시민을 위해 주위를 체육공원화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은 용인사람이 아니라 수원사람이 대부분이다. 계속 1.3km를 내려서면 버들치고개에 도착한다. 통나무안내판이 있고 아스팔트길은 이의동과 신봉동을 잇는 고개로 등산객 승용차가 길 옆으로 주차되어 있다.

앞에 버티고 내려다보는 응봉(매봉)으로 오른다. 왼쪽 십터를 지나 오르면 왼쪽으로 갈림길이 몇 개 나오지만 결국 매봉(응봉)약수터로 이어진다. 이곳은 숲아베기와 벌목을 잘해 산행이 편하다. 맨 위 왼쪽 갈림길은 나무를 이용한 계단이다 계속 올라서면 군부대 철조망이 있고 오른쪽 길은 용인시 경계길이며 산 넘어 43번국도 독바위로 연결된다.

나무계단을 따라 산을 왼쪽으로 돌아서며 작은 고개를 넘어서면 널따란 매봉약수터가 있다. 2001년 7월8일 개정이란 기록이 있는 약수터는 주위에 운동기구를 설치했다. 이용객이 많다. 약수터를 지나면 군부대 철조망을 따라 마루금이 이어진다. 군부대철조망은 DMZ철책을 걷는 기분을 느낀다. 이곳에서 뒤돌아보면 광교산 형제봉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다. 미로 같은 철조망 길은 왼쪽으로 별장지 철조망과 나란히 간다. 삼거리에서 똑바로 가면 정암 조광조 선생 묘지 쪽이다.

정맥길은 왼편으로 철망을 따라 내려서면 아파트 건설로 인한 임시 등산로는 망가리로 이어진다. 응봉의 군부대는 광교신도시 계획으로 이전하여 군부대는 비어있다. 오른쪽으로 내려서면 아파트 건물을 짓는 사이로 등산로를 만들었다. 등산로를 따라 내려가면 43번 국도 서원말이다. 전에는 망가리로 통하는 산길로 이어졌는데 지금은 길 건너 버스 정류장에서 아파트로 들어서게 된다.

망가리로 가려면 국도를 따라 조금 올라 가야한다. 두산인력개발원 근처의 성동마을 버스정류소 근처를 망가리라 한다. 망가리란 예전에 엘지 아파트 근처에 길이 막혔다 하여 막힌 거리가 망가리라 불리게 되었다. 대원물류 두산인력개발원 골프인도어가 있는 곳이 마루금인데 그곳으로 갈 수가 없다. 멀리 보이는 소실봉까지가 마루금이다. 그곳을 가려면 아파트촌을 지나야한다. 그곳이 늦은재 (만현)길이다. 지금은 늦은 고개란 말은 없어지고 만현이란 말이 아파트 이름으로 붙어있다. 이곳에서 소실봉으로 이어지는 늦은재 길은 어디가 정확한 마루금이라도 말할 순 없지만 지도를 참조로 마루금에 접근해본다.



### 3 평지에서 마루금 찾는 정맥길

## 망가리~양고개

거리: 망가리 -2.0- 소설봉 -1.2- 삼막곡 고개 -2.4- 양고개(5.6km)

응봉 근처 절골 망가리고개는 43번 국도 성동마을 버스정류장이지만 신도로가 생기면서 지금은 심곡서원골 앞으로 지나는 구(舊)길이 되어버렸다. 신봉동으로 통하는 43번 국도와 만나는 망가리 고개에서 시작하기로 한다. 서원말의 심곡서원은 효종원년 정암 조광조 신위 주향으로 경기 지방문화재 제7호다. 모현에 있는 충렬서원(정포은주향)에 정암 선생 신위를 모시다가 효종 때 옮겨왔지만 대원군의 서원철폐 때 충렬서원은 철폐되고 심곡서원은 철폐되지 않아 오래된 건물 그리고 주위의 은행나무, 느티나무 보호수 등으로 도시 속에 고풍의 서원으로 참배하는 것도 역사 공부다.

버스정류장에서 대원물류 두산인력개발원 골프연습장이 보인다. 왼쪽으로 큰길로 돌아서 가면 영락교회 옆 만현2육교에 쉽게 접할 수 있다. 망가리에서 심곡서원 쪽으로 가다보면 수지 본갈비 옆으로 벽산아파트 풍산아파트 길을 따라 올라가면 골프연습장 옆 벽산108동 풍산101동



사이를 통해 삼성쉐르빌 101동 옆 풍산 아파트 수위실을 지나 102-104동 사이 뒷문으로 내려서면 용벽 길은 새로 짓는 건물과 50m 좁은 길이다. 포장길은 삼성쉐르빌 정문 그리고 순복음교회 옆으로 만현2육교를 만난다. 만현2육교에서 직선거리로 소실봉이 보인다. 방주교회 현대하이파크 쪽이 마루금이다.

만현2육교에서 계단을 내려서면 큰길로 방주교회까지 이어지며 43번 신작로 밑을 통해 방주교회를 지나면 송대관노래연습실 앞길로 상현2동 사무소 앞으로 돌아서면 소실봉 길을 만난다. 소실봉 길을 따라 오르면 상현초등학교 앞으로 소실봉 들머리 등산로가 보인다.

소실봉 자락으로 올라서는 길은 조금은 좁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아 좁다란 길로 능선으로 오를 수 있다. 능선엔 신주로 만든 원형지적도근점이 있다. 산 능선까지 파먹은 아파트가 내려다보이는 능선길엔 아파트 담장이 산 위까지 설치되어 있다. 나무받침계단이 나타나며 오르면 소실봉 정상이다. 널따란 평지에 측량삼각점 그리고 운동기구들이 있는 정상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마루금은 계속 아파트담장을 끼고 내려선다. 보정동 쪽으로 오르는 등산로를 보며 끝 봉에 서면 소현초, 중학교 그리고 수자원 공사 등이 내려다보인다. 소현중학교 넘어 절개지가 보인다. 그곳까지가 마루금이다. 끝 봉에서 급경사 길로 내려서면 소현중학교 앞이다.

소현중학교는 소실봉 허리를 잘라 만든 학교다. 마루금을 따라가려면 학교를 질러가야 하는데 돌아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아 중학교 내로 들어가 운동장 오른쪽 끝 배드민턴장(전에는 씨름장)에서 3단 절개지로 올라선다. 철망울타리 끝이 벌어진 개구멍으로 통과해 서쪽 소로를 따라가면

커다란 종종모지를 따라 내려선다. 함양박씨 종종 묘비석을 지나면 오른쪽으로 수자원공사 철조망이 보인다. 그곳까지는 큰 밭이 가로막아 밭을 질러 철조망으로 접근하면 선답자의 리본이 길을 안내한다. 수자원공사 이중철조망을 따라 능선에 서면 흰색 둥근 방범초소가 자리한다. 길은 남쪽으로 이어진 등산로는 잡풀도 없이 쉽게 삼막곡 고개에 도착한다. 영동고속도로 왼쪽에는 삼막곡 저수지가 마을 안에 있다. 산 속에 안긴 아름다운 오지마을도 큰길이 생겨 쉽게 접근을 허락한다. 고개를 질러 올라 서면 시멘트기둥의 철조망이 밤나무단지로 이어진다. 부서진 블록창고 지하창고 등을 지나며 밤나무단지를 벗어나면 묘지 밑으로 멀리 영동과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밭 아래 한진운수가 보인다. 내려서는 길은 새로 만든 고가도로다. 오른쪽으로 돌아 마을 입구에서 큰길로 내려서야 한다. 큰길을 따라 고가도로 밑에서 마루금이 한진운수 뒤로 통과한다. 한진운수 사무실 차고지를 지나며 초록원 간판을 통과한다. 그리고 인터체인지 부근 커다란 가족묘지 같은 곳에서 고속도로가 마루금이다. 고속도로로 갈 수 없어 다시 한진운수 앞으로 통하는 큰길로 내려서 시멘트담을 끼고 돌면 경부고속도로 농로였던 지하터널엔 1.8\*폭2M 표지를 따라 고속도로를 넘어선다. 몇 개의 비닐하우스가 있다. 고속도로 쪽 군부대철조망을 따라 오르면 둥근 참호가 능선마루금이다. 전쟁시 고속도로 활주로를 보호하기 위해 주둔했던 군부대 막사로 능선에는 참호 그리고 페타이어로 만든 진지가 부서진 채로 남아있다. 그곳에서 북쪽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보면 전에 큰 마을이 있었던 선바라니 고개(망객현 望客峴)이 야기가 생각난다.

## 선바라니 고개

선바라니 고개는 손님맞이 고개로 이곳엔 맹 씨가 일백 호가 살고 있었다. 삼남지방에서 장사를 하거나 과거를 보러 이곳에서 숙박을 하여야 마포나루 아침 배를 탈 수 있었으므로 노숙촌이 되었다. 일찍 출발 하여야 하므로 닭닭이 울면 일어나 출발을 하므로 몇몇 맹 씨들이 짜고 새벽이 되기 전에 닭소리를 냈다. 그러면 손님들이 서둘러 선바라니 고개로 오르면 맹 씨들이 망을 보다 그들을 덮쳐 노자나 귀중품을 빼앗는 도적의 소굴이 되었다. 그러던 중 맹씨촌에 마음이 곧고 현명한 며느리가 이 일을 알고 밤늦게 쌀을 씻으며 이런 노래를 불렀다.

길주명주 가는 베 장사님 네 닭 울었다 떠나지 마오. 그 닭 울음소리는 장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맹 서방네 인 닭소리랍니다.

이 광경을 본 한선비가 내용을 알아차리고 관에 신고하여 도둑을 소탕 하였다 하는 망객현에 얽힌 이야기가 언뜻 스친다.

능선을 따라 오르면 마루턱에 폐허가 된 진지를 돌아 우측으로 들어서면 국토유지건설사무소 건물과 테니스장 주차장이 보인다. 철조망을 따라 문으로 통해 정문으로 갈 수도 있다. 마루금은 이미 영동고속도로이므로 큰 의미는 없다. 정해진 길을 따라 내려서면 여성인력개발원 옆 늘푸른빌라 정원으로 주차장에 도착한다. 고속도로 쪽으로 건설교통부 수원 국토유지건설사무소 문 앞 건널목 앞으로 횡단보도가 있다. 이곳을 양고개라고 한다. 주위엔 LG가스충전소 생명의 교회 근처가 구성삼거리다. 고속도로 너머엔 신갈운전면허시험장 새천년그린빌이 양고개를 끼고 있다. 양고개에서 수지나 분당, 신갈로 가는 차량은 면허시험장이나 여성인력개발원앞에서 승하차하면 된다.



## 4 42번 국도와 나란히 하는 능선 양고개~아차지고개

거리: 양고개 -3.2- 강남대갈림길 -1.0- 아차지고개(4.2km)

양고개 건널목을 건너서 고속도로 밑으로 굴다리를 지나 철망에 돌을 채운 옹벽이 있는 고속도로 옆에 조경석으로 절개지를 만들었다. 조경석으로 올라 철망 옹벽 위로 아슬아슬하게 걸어 영동고속도로 주변으로 오른다. 주공임대아파트104동 쪽으로 능선은 풀숲에 아까시나무 밭이다. 능선에 오르면 마루금 길이 나타난다.

길은 고속도로와 평행선을 이루며 100m쯤 되는 방음벽을 지나친다. 방음벽과 아파트 사이에 발농사를 그럴 듯 하게 짓고 있다. 방음벽을 지나치면 아파트 쪽으로 사각정과 체육시설과 산책로가 마루금과 같은 방향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나타난 소나무 능선 길은 슈아베기를 해놓아 앞이 잘 보인다. 고속도로 너머로 래미안 아파트가 나타난다.

선릉초교와 선릉중학교 건물 뒤로 운동시설 산책로가 계속 이어지고 푸르지오 아파트 뒷문에서 왼쪽절개지로 이동하며 고속도로와 아파트 사이로 마루금이 이어졌다. 왼편으로 영동고속도로의 차량행렬과 구성 아파

트촌 뒤로 법화산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언남초교 철조망까지는 길은 아니고 나무보호 부목과 잡나무 절개지의 위험이 공존하며 언남초교 철조망 울타리 끝에서 급한 경사면 절개지로 내려선다. 담장이 있고 채소도 심어 놓아 철조망을 끼고 돈다. 결국 밭 안으로 들어서 초교 벽면으로 낸 철조망 문으로 나르면 육교 옆 건널목이다. 왼쪽으로 초원아파트 상떼빌 관리소로 들어선다. 상떼빌 아파트를 통과하면 탁트인 북쪽으로 동부, 동일, 하이츠 법화산과 아래 법무연수원, 경찰대학, 신일아파트가 구성의 상징처럼 위용을 나타낸다. 초원아파트 101-108동 뒤로 돌아서면 후문이 있다. 전자카드식 개폐문으로 통과할 수가 없다. 정맥길도 끊어 놓고 길까지 막은 사정은 있겠지만 문은 열어 두었으면 좋지 않을까? 나무로 만든 울타리가 남쪽 면을 다 막고 있어 요령 있게 통과하면 수원CC 철망 사이로 길이 있다. 오른쪽 수원CC 철망 너머로 높아 보이는 산이 보인다. 그곳이 200고지다. 그 곳으로 마루금이 이어진다.

길은 양쪽 담을 끼고 왼쪽으로 상떼빌아파트 옹벽 아래로 길이 있다. 고속도로 밑으로 언남리로 연결되는 길이다. 이제부터는 수원CC 철망을 따라 마루금은 동쪽으로 이어진다. 이 길은 아파트주민의 산책로라 사람의 왕래가 많다. 산책로는 빙글 돌며 소나무산마루 측량삼각점을 지나 나무계단을 지나 평지로 이어진다. 급하게 오르면 능선에 피뢰침이 있고 수원CC 물탱크가 위치한 200고지 인성산에 도착한다. 서쪽으로 골프장 필드가 넓게 펼쳐져 걷는 정맥꾼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었다. 상떼빌아파트 뒤로 광고산부터 지나온 정맥의 마루금이 또렷이 보인다. 동쪽으로 마루금이 이어지고 삼거리 운동시설에서 남쪽으로 원일사 직진하면 강남대

학이란 이정표가 자리 한다. 계속 길은 넓고 편하다. 그리고 만나는 곳은 앞에 두 기의 커다란 묘지다. 시멘트로 연결된 쪽으로 금령김씨 종종 묘역이 잘 조성돼 있다.

이곳 대부분의 묘는 금령김씨 묘역이다. 구갈이 금령김씨 집성촌이었기 때문이다. 길 아래로 강남마을 아파트가 보인다. 이곳을 설명하면 42번국도 강남대학교 뒷산이다. 남쪽으로 내려서면 강남마을 동쪽 아파트촌이다. 마루금은 동쪽으로 이어지고 좁다란 길로 내려선다. 고개를 오르면 구갈에서 청덕리로 있는 고개 왼쪽으로 폐자재 집하장이 보인다. 시멘트 폐자재를 부숴 재활용하는 곳 같다. 소음이 대단했다. 그리고 오른 봉우리 왼편으로 길이 열리고 정맥꾼들의 리본이 길을 알린다. 똑바로 오르는 길은 산봉우리로 향하지만 정맥길은 아니다. 정상은 철조망이 있는 갈천산이다. 다시 마루금은 왼편으로 내려서며 왼쪽으로 집하장의 굉음이 들린다. 그 너머로 200고지가 보인다. 집하장을 빙 돌아가고 있었다. 완만한 경사면 앞에 철조망이 나타난다. 철조망에서 왼쪽을 택하여야 한다.

길은 철조망에 붙어 아래로 이동한다. 철조망길이 꺾이며 계속 철조망에 붙어 길을 연다. 밤나무 껍질이 많은 밤나무 단지를 지나면 산 아래로 지나는 차량이 보인다.

철조망 끝 절개지에 서면 경사로는 아래 넓은 마당으로 이어진다 비탈길로 내려서며 오렌지색 내천숯불갈비 입간판 아래 2차선도로가 아차지고개다. 넓은 빈티는 꽃밭이다. 상전벽해가 생각나는 곳이다. 전에는 컨테이너 조립식건물 음료수를 팔았던 폐허 건물을 없애고 공원으로 만들었다. 길 건너 작은 벽돌상가가 있고 간이 화장실 뒤로 마루금이 연결된

다. 왼쪽으로 영동고속도로 청덕아파트입구 오른쪽 고개를 넘으면 어정  
가구단지다. 동백지구 건물 위로 용인의 진산 성산이 위용을 자랑 한다.  
아차지고개는 구성과 어정 동백지구를 잇는 고개다.

아차지고개의 전설은 삼가리 메주고개와 연결된 이야기로 용인 사람이  
라면 한번쯤은 들었을 이야기는 석성산 편에 있다.

아차지고개는 구성에서 동백지구로 들어오는 차량이 많은 편이다. 가구  
단지까지 300m쯤 내려서면 버스 정류장이 있다.



## 5 용인의 진산 석성산을 넘는 정맥길 아차지고개~메주고개

거리 : 아차지고개 -1.3- 영동고속도로 -2.5- 향수산길림길  
-1.9- 석성산-2.2-메주고개(7.9km)

아차지고개 남쪽 가구단지 아래는 동백지구로 신시가지다. 아차지고개를 질러 능선으로 오르면 잡목과 아카시아나무가 지저분하게 나뒹굴고 있다. 왼쪽 산 아래 소목장은 없어졌지만 철망은 그대로 있다. 철조망을 끼고 능선으로 들어서면 마루금을 찾는 정맥꾼들은 단숨에 오를 수 있는 능선이다. 가구단지 위로 건물들이 보인다. 동진원마을로 한센병(나병)음성환자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전에 모 후보 선거참모로 동진원마을 다방에서 한센환자대표들과 만나 난생처음 코도, 손도 없는 그분들과 악수를 나눌 때 식은땀을 흘리던 내 모습이 아련히 떠오른다. 비록 필연의 만남이지만 무엇이든지 마음먹기 달렸다는 교훈으로 선입관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행복이다. 능선에 오르니 산 속에 생각지 못한 건물이 나타난다.

전원주택이 능선을 점령했다. 주택을 끼고 앞으로 나서면 청덕마을아파트가 우뚝 솟아 있다. 초록색 철조망을 따라 가며 민가로 내려섰다. 발 옆



으로 해서 산 능선으로 오르면 아파트 전면 능선에 측량삼각점이 있다. 아파트를 끼고 돌아 내려선다. 소나무가 빼곡한 숲길엔 가족묘지에서 조용하라는 흰 팻말이 자주 보인다. 산길은 오랜만에 콧노래를 부르고 싶은 솔잎 양탄자 길이다. 조금 후 내려선 곳은 영동고속도로 밑으로 통하는 굴다리다. 어정 동백지구에서 청덕리로 잇는 굴다리 앞이다. 전에는 굴을 지나면서 큰길 오른쪽이 마루금으로 올라다 보이는 큰길로 88CC와 향린 동산으로 이어졌었다. 그러나 지금은 법화산 터널이 생기며 마루금으로 가기가 어렵다. 굴다리 앞 있는 LPG충전소 앞으로 법화산 터널 쪽으로 멀리보이는 고가도로를 돌아서 길을 건너야 한다. 그리고 새로 만든 길로 넘어서 돌아오면 왼쪽으로 높은 절개지로 철계단이 보인다. 철계단 위에서 보면 그곳이 마루금임을 알게 된다. 오른쪽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청덕리 마을로 옛 지명이 물푸레골 맑은 물 푸른 곳이란 뜻으로 탄천의 발원지다. 이곳의 물은 삼막곡 물과 만나 풍덕천에서 정평천 그리고 머내에서 고기리쪽 물과 만나 분당으로 흐르는 탄천의 발원지다.

탄천과 동방삭이의 이야기는 탄천 편에 있다.

백운산에서 이곳까지 오는 한남정맥은 물매를 따라온 것이다. 정맥이란 물을 가르는 줄기로 북쪽으로 흐른 물은 탄천으로 흐르는 물줄기며 고속도로 남쪽에서 이곳까지의 남쪽 물줄기는 기흥으로 해서 오산천으로 흐른다. 이어 에버랜드에서 용인을 통과하는 동북쪽의 물매는 용인천(경안천)으로 흘러 한강으로 흐른다. 용인은 지대가 높아 용인에서 타 시군으로 물이 흘러 내려가지만 다른 시군에서 들어오는 물줄기가 없는 도시다.

마루금에서 북쪽으로 전에 이용하던 향린동산으로 통하는 길이 끊긴 채

남아 있다. 전에는 향린동산(산속 별장촌)정문 앞을 통해 계속 올라서면 아스팔트길은 88CC 길로 향린동산 후문에 도착해 무인 출입문을 돌아 들어가면 산으로 넘어드는 마루금과 마주쳤지만 지금은 향린동산으로 통하는 정문을 앞으로 만들어 향린동산으로 가는 길은 88CC로만 이어진다. 88CC를 향해 옛길로 들어서면 새로운 길로 이어져 오르면 전에 향린동산 길로 내려서면 왼쪽으로 동산 뒷길이다. 계속 큰길로 올라서면 길 맨 위쪽에서 오른쪽 사이로 넓은 산길이 나타난다. 길로 내려서면 향린동산 뒤쪽 사각정이 있다. 향린동산 울타리가 마루금이다. 울타리 뒤로 등산로가 이어진다. 산길은 백련사에서 통하는 길과 만나며 오른쪽으로 이어진다. 마루금은 에버랜드와 향린동산 사이 능선으로 연결된다. 철조망을 따라 이어진 길은 향린동산 외각 순환도로를 따라 이어진다. 깊이 파인 고개 에버랜드로 내려 설 수 있는 한 고개다. 가실에서 청덕리로 넘는 하나 뿐인 고개라는 뜻이다. 골짜기에 조성된 향린동산은 조용하다. 인기척이 없는 커다란 별장촌으로 동산내 저수지가 별장 규모를 알게 한다. 이곳이 오산천 기흥저수지물의 발원지다. 순탄한 등산로는 에버랜드를 감아 돌며 노고성산(할미산성)에 도착한다. 성곽이 부서진 북벽으로 올라서면 부서진 무인 산불감시카메라가 꼭대기에 자리한다.

할미산성은 백제 때 조성한 성으로 9000평정도 둘레 700m 종단 320m 횡단 130m 자연석을 이용한 산성이다. 선장산으로 명명되지만 원래 선장산은 신원1리 선장고개 뒷산이다. 그래서 할미산성이 있는 산은 옛 문헌에 노고성산으로 불려야 할 것이다. 마고(마귀)할미이 하룻밤 만에 성을 쌓았다는 이야기로 유명한 산성이다. 지금 지표검사를 마쳐 용인

사에서 성을 곧 복원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부서진 바윗돌을 밟고 오르면서 펼쳐지는 성은 감시카메라 아래 헬기장에서 시작하여 순환도로가 있다. 마루금은 성내를 질러 내려서며 부서진 성곽을 통해 멀리 올려다 보이는 성산으로 이어진다. 내려선 능선길은 절개지를 피해 오른쪽 수로로 내려서 영동고속도로로 내려선다.

맞은편 터키참전비까지 고속도로를 조심해서 무단횡단하여야 한다. 영동고속도로 내에 있는 터키참전비는 6·25때 3064명이나 참전한 터키군을 기린다. 월드컵 때 형제국으로 소개한 터키의 참전유가족들이 참전비에서 참배하는 모습을 운 좋게 촬영할 수 있었다. 잘 조성된 참전비 주차장에 몇몇 차량이 주차해 있다. 쉽터로 이용된다. 선답자들이 작고개로 소개하는 이 고개는 원래 잣고개로 잣나무로 만든 배가 지나갔다는 전설과 잣나무가 많았다는 고개로 한자로 백현(栢峴)이다. 동백지구의 백현과 같은 고개로 전대리에서 이정표로 넘던 고개다. 고속도로 동쪽 옆으로 철계단이 있다. 계단으로 올라서면 검은 비석 마가실 서낭당 앞으로 한남정맥길이 이어진다. 뒤편 에버랜드 나들목에 나뭇잎 에버랜드 심벌이 보인다. 마가실 성황당은 고속도로 공사로 옮겨졌고 용인의 무형문화재 할미성 대동굴의 신을 모시는 곳이기도 하다.

선황을 지나며 오르막길은 지루함을 느끼는 코스다. 성산(석성산)자락으로 서너 개의 산마루를 지나면서 왼쪽으로 원성산 기도처 백련사길 오른쪽으로 동백지구로 내려서는 나무계단 길을 만난다. 바위봉에는 중리란 화살표 그리고 정상으로 오르는 급경사는 나무계단을 만들었다. 오른쪽 동백으로 내려서는 계단길옆 이정표는 호수마을 길이다. 계단을 통해

오르면 성산 끝 봉에 오른다. 낙하 방지 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나무탁자가 가지런히 놓여있고 쌍망원경과 태극기가 휘날린다. 2008년에 만든 정상석이 조금 작은 듯한 인상을 준다. 봉우리에서의 시계가 좋다. 멀리 관악산과 서울, 우리가 지나온 광교산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 서쪽으로 동백지구부터 인천 앞바다, 동쪽으로는 영동고속도로가 직선으로 뻗어 있고, 남쪽으로는 우리가 가야할 정맥의 부아산 함박산 등이 산 아래로 펼쳐진다.

석성산(471.5M)은 용인의 진산으로 용인시 중심에 위치한다. 통신대를 통해 마루금이 연결되지만 정맥의 의미만 새기며 헬기장에 도착한다.

약수터에서 통화사로 통하는 내리막길은 좁다. 통화사 옆을 지나 통신대 입구통화사 주차장을 지나며 갈림길이다. 통신대 군사도로는 동백지구로 초당초교 옆으로 연결된다.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내려서는 길이 마루금 길로 내려서면 용인시행정타운 삼군사령부로 이어진다. 마루금에서 한번 내려서며 올라서면 감투봉으로 갈림길이 있다. 산 아래로 송전탑이 보이는 곳이 정맥길이다. 이곳에선 길을 잘 찾아야한다. 한번 놓치면 엉뚱한 곳으로 가기 일쑤다. (갈림길 리본을 찾기 바람) 능선에서 갈려 내려서면 오른쪽으로 동백 난방공사 굴뚝이 보인다. 계속 내려서면 넓디넓은 신도로가 매주고개다. 전엔 2차선이던 길이 이젠 건너기도 벅찬 길로 변했다. 용인 경전철 길이 절개지에서 보인다. 절개지 오른쪽으로 철계단이 보인다. 절개지 보호 철펜스가 길게 막혀 오른쪽 끝으로 이어진 철계단을

이용해야한다. 도로로 내려서면 길 건너 용인배수장경계로 리본을 보며 올라야 한다. 배수지를 확장하며 정맥길도 조금 이동 됐다. 42번 국도 메주고개라 부르는 곳으로 먹조현이다. 동백지구에서 용인시내로 통하는 길이다.



## 6 용인시내 남쪽능선으로의 산책로

### 메주고개~ 무너미고개

거리 : 메주고개 -1.0- 42국도 -2.5-지곡리 고개 -0.8- 부아산  
-1.2- 하고개 -2.2- 함박산 -1.7- 무너미고개(9.4km)

삼가동에서 동백지구로 넘는 메주고개는 먹조현고개다. 지금은 큰길로 변했지만 예전에는 2차선도로로 구불구불 굽어 위험한 길이었다. 수어선(수원-여주)증기열차가 다녔던 이곳은 고개가 높아 터널입구에서 기차가 간신히 오르던 곳이다. 터널위로 대로와 경전철이 지난다. 화운사 앞길 이 옛길이다. 화운사길 옆으로 용인배수지정수장 울타리 밑으로 정맥꾼들이 붙여 놓은 리본을 따라 오른다. 배수장확장공사로 길을 잘 찾아야 할 곳이다. 좁다란 길이 송전탑까지 연결된다. 메주고개 먹조현(覓祖峴)에는 할아버지를 찾는 고개의 전설이 있다.

#### 먹조현의 호부

삼가리에 홀로 된 시아버지를 모시고 외아들을 키우며 사는 한 시골 부부가 있었다. 이들 부부는 가난하지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친을 잘 봉양했다. 할아버지 또한 손자를 끔찍이 아껴주어 집안에는 화기가 돌았다. 그러던 중 남편이 부역 때문에 집을 비우게 되었다. 남편이 없

는 동안 시아버지는 아들 대신 나무를 해서 시장에 내다 팔았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돌아오실 때쯤이면 항상 아이를 업고 배웅을 나가 고갯마루에서 시아버지를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 깊어도 시아버님이 돌아오질 않았다. 비명소리에 가보니 시아버지가 호랑이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에 며느리는 호랑이를 크게 꾸짖으며 네가 정말 배가 고프다면 내 등에 있는 아이라도 줄 테니 우리 시아버지를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아이를 호랑이에게 주자 호랑이는 아이를 물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겨우 정신을 차린 시아버지는 손자를 잃은 슬픔에 오열하였다. 며느리의 간곡한 애원으로 집으로 돌아온 시아버지는 나는 이미 늙어 죽어도 한이 없는데 어찌하여 어린 자식을 죽게 했느냐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며느리는 자식은 다시 낳을 수 있지만 부모는 어찌 다시 모실 수 있겠느냐 하며 마음 상하지 않으시길 새삼 부탁 하였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더욱 마음 아파할까봐 더이상 겉으로 슬픈 척도 하지 않았다.

오늘도 벽조현을 지나는 정맥꾼들의 마음을 숙연 하게 한다.

송전탑을 지나치면서 오르막 이후 평지 길은 왼쪽으로 화운사 지붕을 보며 진행한다. 화운사는 비구니절로 농인선원은 공부하는 여스님이 있는 조계종에 속한 큰 사찰이다. 마루금은 작은 산마루에서 갈린다. 계속 앞으로 가면 동백지구 서쪽 산으로 봉우리가 두 개여서 불리는 두리봉은 고인돌까지 이어진다. 왼편으로 돌아 내려서는 정맥길은 남쪽엔 소나무 북쪽엔 참나무가 구별되는 길로 화운사 안테나를 지나면서 자동차 소리가 요란한 정신병원 효자병원 쪽으로 향한다. 조수보호구역 말목이 있는 곳에서 내려서며 정신병원 앞길 절개지가 보인다. 남쪽 절개지 길은 매우 넓다. 코스모스 꽃이 만발하였다. 절개지에서 왼편으로 깎아내린 비탈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도 정맥꾼들은 이곳으로 내려서 성산주유소로 내려

선다. 지금은 내려서 봤자 42번 국도 중앙분리대를 넘을 수가 없다. 결국 서쪽 아래 정신병원 앞 건널목으로 이동 하여야 하며 위험천만이다. 능선에서 오른쪽 계곡으로 큰 종종 묘로 통해 42번국도 정신병원 앞으로 내려가는 길을 택하여야 건널목을 통해 쉽게 42번국도를 넘을 수 있다.

신호를 받아 정신병원 앞으로 이동하면 된다. 길을 건너면 다시 동쪽으로 신작로를 따라 오르면 절개지로 오를 수 있다. 절개지 앞으로 놓인 넓은 길은 산을 돌아 능선으로 오르게 됨으로 야간 산행자는 이 길로 오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절개지에 서면 수많은 차량이 항시 정체되는 정신병원고개를 따라 능선으로 이동한다. 산마루를 넘으면 정신병원 뒤로 통하는 길과 만나는 궁말 고개(정신병원-상직동)다. 이곳부터 산 능선까지 오름도 걷기편한 곳이다. 멀리 철탑을 따라 오르면 커다란 송전탑이 두 개가 있다. 남쪽 송전탑 아래로 금잔디가 산객을 유혹한다. 한번 앉아 포근한 풀 냄새를 맡고 가는 곳이다. 햇살이 강렬하게 그리고 멀리 용인의 상징 용인행정타운이 시야에 들어온다. 금잔디에 포근히 안겨 꿈 속 길은 남쪽으로 이어진다. 이제부터 산 속 송전탑이 길을 안내한다. 송전탑 건설 때 차량이 다녔던 능선길은 원상복구되어 작고 조잡한 소나무로 길을 연다. 송전탑 근처에서 커다란 절개지를 또 만난다. 삼거리(궁말)에서 지곡리로 넘는 고갯길이다. 산 넘어 부아산 아래 영진 골프랜드에 골프장망이 보인다. 왼쪽으로 돌아내려서면 묘지 옆으로 긴 알루미늄 계단은 묘지 길이라 위험하다. 계단을 통해 지방도로에 내려선다. 길 건너 절개지 보호 철망 끝으로 영진 골프랜드를 끼고 다시 부아산 자락 절개지로 오른다. 마루금은 남쪽으로 솔가리가 쌓인 산길을 따라 능선에서 갈림길을 만



난다. 오른쪽 능선길은 지곡리로 가는 길이다. 왼쪽으로 부아산을 향한 능선은 급경사에 줄을 따라 올라서면 무선안테나가 있는 부아산 정상이다. 정상석은 2009년에 만든 것이다. 아담한 정자 그 주위로 철봉 나무의 자가 자리했고 산 아래 용인대학이 내려다보인다. 왼쪽의 길로 내려서면 철봉 왼쪽 길 끝에 부아산 거북바위가 부아산 정상을 올려다본다. 멀리 성산의 남쪽 모습이 삼가동마을과 잘 어우러진다. 계속 내려가면 용인대학, 또는 42번 국도로 통하는 등산로다.

부아산(403.6m)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제1시조 온조편에서 주몽(고구려시조)의 곁을 떠난 비류와 온조가 오간 등 열 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부아악에 올라 도읍이 될 만한 곳을 찾았다는 내용이 있는 산으로 남쪽 천리 쪽에서 보면 산 모습이 아기 입을 형상의 산으로 부아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용인시내에 가까이 있는 산이므로 등산객이 많이 찾는 산이다. 부아산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서면 걷기 편한 능선길은 두 개의 봉우리를 통해 노란 색의 부아산 정상이란 조난 위치표시가 있다. 계속 내려서면 마루금은 송전탑을 지나면서 공동묘지를 만난다. 묘지는 학교개 에코브릿지(동물 이동 다리)를 끼고 양쪽으로 건너편은 서울공원묘원이다. 서쪽에서 에코브릿지로 내려서는 급경사로 동물 이동로가 아니라 동물낙하자살고지 같다고 선답자들은 말한다. 그 소리를 들었는지 등산로를 다시 만들었다.

오른쪽 묘지를 통해 급경사를 내려서면 넓은 공터가 있다. 이 고개는 에코브릿지 터널공사를 하면서 학교개로 명명했지만 실제로는 삼가리 아래 있는 학교개로 알려진 고개다. 오른쪽 급경사 절개지로 오르면 능선길로

명지대 앞 덕골에서 오르는 길과 마주친다. 남쪽에 솟은 봉우리를 향하면서 송전탑 너머로 명지대학이 한눈에 들어온다. 산길은 이내 능선으로 올라서며 서울공원묘원 묘지가 남쪽 산꼭대기까지 팍 차 있고 맨 위로 새로운 석조 납골당 다섯 기가 보인다. 현대식 납골묘를 구경하면서 산 아래로 이어지는 묘원을 향해 먼저 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발걸음을 동쪽으로 향했다. 서울공원묘원 정상은 묘원이 만든 도로를 따라 절개지로 오르면서 묘원을 벗어난다. 소나무 숲을 따라 내려서면 명지대학을 끼고 송전탑은 마루금 쪽으로 병행한다. 그리고 나타난 넓은 공터 왼쪽으로 명지대 공학관에서 오르는 명지대 등산로를 만난다. 몇 년 전에 명지대 직원이 함박산 명지대 등산로지도도를 만들었는데 무척 섬세하게 잘 만들어 당시 지도를 보고 등산한 기억이 난다. 정맥의 마루금은 평지로 함박산으로 향한다. 능선길로 오르면서 임도를 만난다. 임도(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차량 및 장비가 진입 할 수 있게 산길을 만든 곳)와 함께 등산로는 이어진다.

산으로 향한다. 산봉우리는 무명봉으로 외롭게 서 있다. 북쪽으로 명지대학교 전경 그리고 행정타운으로부터 용인시내 중심지가 한눈에 스쳐간다. 이곳에서 명지대 운동장을 향해 촬영한 선답자들의 사진을 많이 접하는 전망 좋은 곳이다. 송전탑이 있는 함박산 정상에 선다. 정상에 등근 웅덩이에 참나무 한 그루가 있다. 거대한 고압전선철탑이 근처에 있다.

함박산(434.6m) 옛날 노아의 방주 이야기 같이 대 홍수가 천지를 개벽할 때 용인의 모든 산과 들이 물에 잠겼는데 부아산에서 호리로 이어지는 산이 문혀 버렸고 물 위로 남은 곳은 노루실 뒷산 꼭대기만 함박만큼 남

아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함박산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그때 산이 무너져 고개가 생겼다하여 무너미고개가 되었다고 한다. 정상에서 북쪽 명지대 쪽으로 내려서면 명지대 뒤편 신기저수지(낙시티)를 통해 명지대 체육관으로 통한다.

정상에서 동쪽으로 능선길을 따라 내려선다. 잡목이 유난이 많다. 한참을 내려서면 잘 조성된 묘지 길로 들어선다. 묘지를 따라내려 서면 묘지 입구에 망향의 대성동산이란 입간판이 보인다. 평안남도 대동군 시족면의 이 선생께서 12,000평을 면민에게 기증하여 실향민들이 죽어서라도 함께 살자는 아름다운 동산이다. 실향민의 아픔을 되새기며 통일을 기원해본다. 마루금은 솔밭 사이를 가르며 전주유씨 가족묘까지 지나치며 왼쪽으로 이어진다. 길은 소로로 산마루에 오르면 갈림길이다. 왼편으로 벗짚지붕 흙집(초가로 만든 행여집)이 있다. 오른쪽 길로 내려서면 45번 국도 넓은 길 절개지에 도착한다. 절개지를 오른쪽으로 내려서 남쪽 300여미터 통로를 통해 돌아 마루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으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으나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다. 중앙분리대는 높아 위로 통과할 수는 없고 분리대 아래로 기어 나갈 순 있지만 위험한 일은 안했으면 좋겠다. 45번 국도 건너편 절개지에 철계단을 통해 능선에 오른다. 동쪽 산 아래 45번 구길을 향해 낙엽송숲을 지나 성진철강 한우촌갈비 옆으로 내려선다. 맞은편 은화CC입구 왼쪽 능선이 마루금이다. 산이 무너졌다는 무너미고개는 이동면과 용인시내를 잇는 고개다. 정맥꾼들이 시작과 구간종료를 하는 곳으로 용인터미널이 3km쯤 된다. 버스도 자주 다니는 길이다.



## 7 경안천을 끼고 발원지로 향하는 산길 무너미고개~망덕고개

거리: 무너미고개 -3.7- 염치고개 -4.0- 망덕고개(7.7km)

45번국도 무너미고개에 서면 갈 길이 막연하다. 선답자들의 말로는 은화삼 입구 절개지로 간다고 하지만 끝내 헛수고다. 밤이나 새벽 골프장 쉬는 날은 골프장을 통해서 갈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곤란하다. 남쪽골짜기에서 논둑으로 향하는 길이 있다. 본인은 골프장을 통해 몇 번 지나쳤지만 지나치며 영 떨떠름한 기분이었다.

은화삼CC 정문으로 들어서면 클럽하우스를 앞에 두고 오른쪽 영선창고 앞을 통해 오른쪽 산 쪽으로 골프장 길로 무조건 올라서면 9번홀 T 그라운드 뒤편으로 철조망(선답자 리본이 보인다)을 통해 마루금이 연결된다. 이곳부터는 높은 산이 없는 능선길이다. 한강수계인 운학천을 끼고 함께 같이 가는 능선길로 들어서며 하천과 운학동이 내려다보인다. 하천 너머는 운학동이고 하천 안쪽은 호동이다. 옛날 호랑이가 다녔다고 해서 호동인데 산 크기로 봐선 영 아닌 듯싶다. 능선길로 들어서며 갈림길에 삼각점을 지나면서 산 능선에 종종모지를 지나친다. 갈림길에서 오른쪽을 택

하여 한참을 오르면 운동기구에 벤치가 있는 천리주민의 산속 쉼터다.

남쪽으로 천리 쪽에서 오르는 주민들이 많은 편이다. 동쪽으로 좁은 길로 들어서면서 산길은 걷기 편한 능선길에 소나무 잎(솔가리)능선이다. 잘 발달된길로 가다 좁다란 갈림길을 관심 있게 잘 보아야 한다. 리본이 보이는 길로 갈라지면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한 곳에서 내리막 아래로 큰길이 보인다. 능선까지 길을 뚫다 중지한 곳이 염티(염치) 소금고개다. 고개 넘어 호리 승마장으로 연결될 길이다. 고개로 내려서면 시멘트로 절개지 옹벽을 만들고 공사를 중단한 고개는 남쪽으로 산 들머리로 올라서면 사람이 다닌 흔적을 느끼는 풀 속 길로 정맥은 이어진다.

염치(鹽峙)는 소금고개다 염치가 염티로 부르게 되었다. 천리(샘골)에서 묵리 용덕저수지 앞에서 왼쪽으로 오르면 염티 마을이다.

옛날 소금장수가 지계에 소금을 지고 고개를 넘다 힘도 빠지고 배도 고파서 지계를 뺄치고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데 멀리서 바가지 굵는 소리가 나서 쳐다 보니 숲속에서 묘지에 하얀 여우가 사람의 해골을 굶다 머리에 쓰면 사람으로 변하고 벗으면 여우로 다시 변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그곳만을 보고 있는데 여우는 사람으로 변장하고 마을로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소금장수는 변장한 여우를 따라 가보니 아랫마을에 결혼식을 올리는 집으로 들어 가는게 아닌가! 소금장수는 이집에 무슨 변고가 있을 것을 예감하고 집근처에서 집안을 주시하는데 밤이 으스스해지자 신부가 기절하였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집안이 발각 뒤집혔다. 소금장수는 그러면 그렇지 하고 지계 작대기를 들고 신부방으로 들어가 아랫목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작대기로 때려잡으니 백여우로 변해죽어 있었다.

주인은 소금장사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많은 선물을 주어 즐겁게 고개를 넘었다하여, 소금장수가 넘었던 고개라 하여 염치(소금고개)라 부르게 되었다.

숲속 능선길은 송전탑을 따라 동으로 향하면 흰색 둥근 말뚝엔 한강수계지역표식이 있다. 왼편으로 멀리 국사봉 그리고 채석장은 산을 파먹은 모습의 산이 되어 나타난다. 이어지는 능선봉우리는 묘지가 있고 산마루 부근은 나무를 베어 사방이 탁 트였다. 송전탑을 따르는 능선은 몇 개의 산마루를 지나 오른쪽으로 거대한 십자가를 만난다. 산 속에 네온까지 설치했던 구조물이다. 아래 기도원에서 만들었을 것 같다. 그리고는 오른쪽으로 신원골프장이 자리 잡았다. 이어지는 산길은 오르락내리락 순하게 송전탑을 따라 골프장과 운학동 계곡과 함께 동쪽으로 이어진다. 조금 높다 싶은 산마루를 넘으면 넓어지는 안부 아래로 검정비석이 나타난다. 안부 너머로 임도가 끊긴 채로 보인다. 해실이고개(망덕고개)다. 천주교인들이 우리나라 최초 신부이신 김대건(앙드레)신부의 운구길에 세 개의 고개비를 만들었다. 별미고개(신덕고개) 이곳엔 망덕고개 그리고 거문정고개(애덕고개)를 만들었다. 김대건 신부가 새남터에서 목이 잘린 후 한 신도가 시신을 수습하여 몰래 양지배매실(골배마실)로 옮겨왔다. 배매실은 신부가 어려서 자라난 곳이다. 지금은 양지골프장안에 한복에 갓을 쓴 입상이 있다. 천주교의 박해가 심해 양지면 남곡리 숨어 포교하던 곳이다. 우리나라 최초 은이공소를 열었던 곳으로 숨은 곳을 은리(隱理)로 부른다. 공소에서 형제봉 골짜기 해곡동에 신덕고개 용해곡에는 망덕고개 거문정에 애덕고개를 통하게 하였으며 비석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미리내 성지로 통하는 삼덕고개를 잇는 천주교인의 성지순례길이다.  
운학동의 독특한 마을명을 엮은 전래동화가 전한다.

## 별미

옛날 범안굴(호동)에 사는 호랑이가 국사봉(학 모양의 산)의 학을 잡아 먹으려다 어둔이(운학동)에 용이 되려는 물고기를 잡아 신나서 물고기를 물고 먹거리(운학동)에서 먹으려는데 별안간 하늘에서 벼락(운학동)을 치는 지라 놀래 혼비백산 하여 장재미(운학동)에서 안심하고 맛있게 먹었는데 그 맛이 별미(해곡동)였다. 호랑이는 개울을 건너 용해곡(호동)에서 용을 만나 용이 되려는 물고기를 잡아먹은 것을 후회하고 문수봉(문수사지 마애불이 있음)을 향해 예직(호동)에서 예의를 갖추고 기도하니 길업(호동) 좋은 업을 얻었다는 마을 명으로 꾸며진 민담이 존재 한다.

고개는 탈출로로 이용되는 길이지만 용해곡에서 해곡동까지는 멀고 버스도 불편한 곳이다.



## 8 원삼 벌 평지 길에서의 마루금 길찾기 망덕고개~잣말고개

거리 : 망덕고개 -3.1- 문수봉 -2.8- 사암삼거리  
-2.8- 가재월리 -2.3- 잣말고개(11.0km)

내 종교가 거룩하듯이 남의 종교도 존중되어야 한다. 나의 종교관이다. 망덕비에 묵념하고 임도 왼쪽 옆으로 마루금이다. 임도는 묵리로 이어지는 길이다. 등산로는 좁은길로 능선으로 몇 개의 마루봉을 지나 나무기둥에 군인들의 비표가 있다. 긴 오름으로 이어지며 능선에서 석유비축기지 내 오일탱크가 보이기 시작하는 봉우리가 바래기산(원 경안천발원지산)이다. 이어진 능선에선 멀리 문수봉 보인다. 석유비축기지를 끼고 도는 코스는 능선위에서 갈림길을 만난다. 오른쪽으로 묵리 화일리란 이정표 너머로 사각정자에 벤치가 자리했다. 이 길로 계속 진행하면 쌍령산 시궁산으로 이어진다.

정맥 선답자가 붙여 놓은 리본을 따라 왼편으로 내려서면서 등산로는 원삼면에서 만든 등산로로 길이 확실하다. 철조망 안으로 거대한 10개의 비축탱크 크기에 위축되고 소방시설 감시초소들을 만나며 한참을 돌아야 했다. 골짜기인 고개로 내려서며 가파른 경사로로 힘들게 오르면 한 그



루의 소나무 넓은 빈터에 아담한 정자가 있는 곳이 문수봉 정상이다. 300여 평 정도의 정상에선 사방을 다 볼 수 있다. 정상에는 정상석을 서쪽에 세웠다. 무인 카메라 안테나 넓은 마당에는 운동기구가 여러 개 있다. 동쪽으로 보이는 원삼면 전경이 용인팔경의 하나다.

용인 팔경에 곱든고개를 넘어 사암리 좌향리 미평리 사암저수지와의 어우러짐이 도시와 농촌의 조화다. 문수봉 북쪽엔 곱든고개가 있다. 한남정맥의 종착지 칠장사를 임꺽정이 스승 병해대사(갯바치)가 기거하던 칠장사를 가다 가짜 임꺽정을 만나 이루어지는 스토리의 장소로 알려진 곳이다. 이정표는 독특하며 멋있게 만들었다. 이곳부터 안성경계점인 가현산까지 만든 이정표 구조물이다. 매봉재를 향해 동남쪽으로 마루금을 따라 내려선다. 통나무계단을 따라 내려서면 산죽이 양옆으로 터널을 만든다. 오른쪽으로 문수사지 마애불(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0호)이 위치한다. 자연석에 북쪽과 서쪽방향을 두 분의 보살상을 새겨놓은 용인의 유일한 마애불이다. 마애불을 보고 다시 마루금으로 20m쯤 내려서면 옷샘 약수터로 들어선다. 마루금에서 50m쯤에 위치한 옷 샘터는 샘터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물도 받고 쉬어가는 곳이다. 바위에 맺들자국 개복숭아 나무가 자리한다. 참옷나무 아래로 흐르는 옷샘은 주위에선 매우 잘 알려진 샘이다. 샘터 남쪽으로 새로운 계단길을 만들었다. 계단으로 내려서도 되고 다시 마루금으로 돌아가 내려서면 큰 둥근 바위근처에서 두 길이 만난다. 이어 잘 조성된 산길은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오르는 갈림길에 이정표가 있다. 마루금은 계속 남동으로 향한다. 매봉재 갈림길에서 이정표대로 동쪽으로 내려선다.

매봉재로 가면 원삼면 소재 고당리로 연결되는 등산로다.

마루금은 왼편으로 돌아 내려선다. 혹 마루금이 틀리지 않을까도 걱정되는 곳이다. 그러나 이정표가 확실히 있다. 전에 다녀간 선답자의 리본이 안심 시키던 곳이다. 마루금으로 계속 내려서면 오른쪽으로 사찰 지붕이 보인다. 조계종 법륜사로 스케일이 대단히 큰 사찰이다. 불자라면 한번 돌아볼 만한 이색적인 사찰이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용인농업기술센터에서 야심차게 만든 우리랜드 농업종합단지다. 마루금은 절개지에 로프로 연결해 놓았다. 아래로 미리내마을 입간판이 보인다. 왼쪽으로 큰 건물이 용인시 농업기술센터다. 용인시농업센터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우리농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농업을 시민과 함께하는 이벤트 농원이므로 꼭 둘러볼 만한 곳이다.

절개지를 내려서면 오른쪽으로 이정표를 만난다. 마을 첫 집으로 해서 두 개의 별장을 지나면 마을 안쪽 왼쪽으로 소나무밭이 보인다. 소나무밭이 마루금이다. 별장에 개들이 많다. 울음소린지 웃음소린지 크긴 크다. 빈터 나대지를 통해 소나무숲으로 들어선다. 들어서면 건너편에 새로 만들 길 옆으로 절개지의 이어지는 길이 마루금이다. 계속 저수지 방향으로 길 옆으로 내려서면 오른쪽으로 하얀 외딴집을 만난다. 외딴집을 지나 경운기 길로 이어진다. 묘목 밭을 지나며 왼쪽으로 돌며 판넬 공장 문을 통해 공장을 지나치면 철조망을 친 정문을 나와 시멘트 길로 내려선다. 길은 이내 원삼으로 통하는 도로에 도착한다.

이곳 길 찾기가 어려우면 기술센터 큰 길로 내려서도 된다.

장수농원이란 비석에서 길 건너에 동진건물 왼편으로 사암 삼거리 주유

소가 있다. 앞길은 원삼과 용인시내 또는 17번국도로 양지를 잇는 길이다. 길을 건너 경운기 길로 오르면 연안김씨 합동연단을 크게 만들었다. 지방마다 돈 많은 종중들은 집안 자랑을 하는 것 같다. 좌측 건너 편 길에 있는 돌 공장을 보면서 계속 동쪽으로 향하면 묘목과 과수원 쪽으로 정맥꾼 리본이 보인다. 어땡든 찾아 이곳으로 들어서야 한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언덕으로 마루금은 이어진다.

사람이 자주 다니지 않아 고생이 되지만 길 찾는 이에겐 정맥길만 따라야 한다. 넘어선 곳엔 사거리가 나타난다. 농장 철조망을 통해 오르면서 묘지를 따라 올라서면 왼쪽 아래 농장이 보인다. 앞이 열려 건지산 수정산이 보인다. 언덕으로 오르면서 소나무와 잔디가 마음을 혼돈다. 하늘보고 누워 나처럼 떠가는 구름을 본다. 멋진 정경을 뒤로하고 언덕으로 올라서면 밭둑으로 마을 뒤턱으로 마루금은 이어진다. 그리고 두릅밭으로 통한다. 두릅을 따지 말라는 주인의 팻말을 보며 설마 산악인도 인간인데. 묘지를 통해 마루금은 마을 안 길 같은 곳을 지나 산마루를 넘으면 왼편으로 가좌리 교회를 낀 마을이 보인다. 원삼면 가재월리다.

전엔 이곳도 수정산 아래까지 가좌리 였는데 마을이 갈리면서 수정산 아래는 가좌리, 이곳은 가재월리로 나누어져 교회 이름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다. 포장된 도로를 지나 들머리로 올라서면 가재월리를 왼쪽으로 소나무밭을 안아 돌면서 마루금은 콘크리트 공장 옆 페타이어가 있는 곳으로 내려서면 이제부터는 도로가 마루금이다. 정맥꾼들은 설마 이런 길이 정맥일까 하는 의구심이 가는 마루금이다. 승마목장 간판 뒤에 황토 더미와 넓은 초지가 보이는 길로 따라 내려선다. 아스팔트 사거리에 서면

멀리 큰 통신 안테나 쪽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서면 된다. 안테나 뒤로 설  
술암산 구룡산이 보이는 길을 따라서면 안테나와 큰 건물 담을 만난다.  
담을 끼고 반 바퀴쯤 돌면 정문에 극동기상연구소란 간판을 보며 산 쪽으  
로 이동한다. 언덕 위 지방도로는 원삼과 백암을 잇는 잣말고개 또는 두  
창리 고개다.

고개 근처에 눈독 쪽으로 작은 움막들이 보인다. 원삼면이 자랑하는 오리  
쌀을 수확하는 오리농법 청동오리집이다. 여름에는 오리냄새가 나고 흐린  
날은 더 심하게 난다. 그러나 농가 수익을 위해 그 정도는 참고 살아가는 농  
민들이다. 용인의 자랑 오리쌀 백옥쌀을 애용해 주길 바란다. 잣말고개는 아  
래 동네에서는 높은 고개라 하여 성으로 표현 한다. 그래서 동네 이름도 성  
밑이다. 지금은 확장공사를 하고 있으니 마루금 입구를 잘 찾아야 한다.



## 9 용인의 남쪽 땅을 좌우로 굽어보는 능선 길 젓말고개~가현치

거리 : 젓말고개 -3.5- 구봉산 -1.9- 달기봉 -2.6- 가현치(8.0km)

젓말고개 아래 독성1리를 성리라 부른다. 두창리와 독성1리를 잇는 고개가 높아 성(城)으로 불렸다. 백암과 원삼의 경계로 정맥 나들목이다. 고개 이름이 지명일 때는 두 개인 경우가 많다. 두창리서 볼 때는 젓말고개, 젓말에서 볼 때는 두창고개 같이 고개 너머 마을의 이름을 붙여 불러 고개 이름이 돌인 곳이 많다. 고개 절개지 중간으로 마루금 리본이 있는 둔덕으로 산을 오르면 높지 않은 능선에 오르면 산 전체를 수종갱신 하느라 나무를 모두 베어 놓았다.

황무지를 뚫고 가는 기분으로 능선으로 향한다. 능선에 오르면 뒤로 거대한 안테나와 주위의 마을이 마루금 같지 않은 곳을 지나온 기분이다. 능선삼거리 삼각점에서 왼쪽으로 향한다. 오른쪽에 가로막힌 산 너머는 용인의 축구요람 용인시 축구센터가 있는 곳이다. 왼쪽 끝엔 두무재가 있는 창말이다. 봉우리에서 내려서면 안부에 두창(골안)저수지 구봉산 이정표에서 구봉산 쪽으로 향한다. 능선에 오르면서 별장지가 나타난다. 오른쪽으로

통나무(귀틀집)집이 나타난다. 이곳은 원삼면 목신리 동지골 계곡능선으로 만화박물관 빌라 휴게소와 별장촌이 있는 곳이다.

귀틀집을 끼고 돌아서며 즐거운 산행을 하는 곳이다. 삐죽 선 입석바위 옆으로 벤치를 지나며 산길로 접어든다. 오르막은 밧줄을 걸어 겨울철 위험에 대비해 놓았다. 밧줄을 잡고 올라서면 산중턱의 삼거리다. 이정표는 설술암산 두무재 쪽에서 오르는 길이다. 우뚝 서있는 보기 좋은 바위를 끼고 선답자들의 리본이 수십 개가 매어있다. 오른쪽으로 돌아 오르막길로 오른 봉우리가 구봉산 첫 봉이다. 산은 오르락내리락 봉우리 벤치를 지나서 가끔 산 위로 나르는 패러글라이딩의 모습을 보면 문득 하늘을 날고 싶은 곳이다. 이어서 용인의 정상석 중에 가장 아름다운 돌을 만난다.

전망이 좋은 곳으로 태영CC의 푸른 잔디가 한눈에 들어온다. 삼각점을 다시 만들어 정상임을 증명한다. 전망 좋은 봉우리를 지나 무인산불감시 카메라가 있는 봉우리에 서면 태영CC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책장 들여다보는 듯 내려다보이는 골프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림을 보는 기분이다. 이어 넘어선 작은 바위봉으로 삼각점이 있었던 봉우리를 전에는 구봉산 정상(465m)이라고 했던 곳이다. 이어지는 봉우리를 지나면 널찍한 마지막 봉이 나타난다. 전에 백옥쌀 현수막을 농협직원들이 걸어 놓았던 것과 산사들의 돌탑 표지목도 철거했다. 시에서 이정표를 잘 만들었다. 쉼터 같은 넓은 빈터다. 똑바로 내려서면 바위봉으로 연결된 길을 따라 내려서면 용인과 안성 경계인 벼루 모퉁이 길로 내려설 수 있다. 쉼터에서 나무사이로 용인팔경의 조비산 그리고 정배산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마루금은 왼쪽 깎아비탈에 계단을 놓고 밧줄을 걸어 줄을 따라내려 선

다. 왼쪽으로 신돈 촬영장이었던 MBC문화동산이다. 급경사를 따라 내려서면 산초나무가 많다. 산초나무를 벌목한 곳엔 언제나 가시를 세우고 등산객을 피곤하게 한다. 평지 길을 지나면 앞에 달기봉이다. 경사로를 따라 멋있는 소나무를 피해 오르면 두 개의 봉우리에선 평퍼짐한 산마루다. 이정표가 있다. 달기봉 두 봉을 둘러보고 맑은 공기로 마음을 전환하고 내려서면 전엔 억새밭이었는데 벌목한 후에는 억새가 별로 없다.

벌목한 산 옆으로 소나무밭을 따라 내려서면 벌목하면서 만든 시멘트 길에 도착한다. 왼쪽으로 내려서면서 정배산 문화동산길 이어 앞으로 용인CC 그리고 황새울농장으로 가는 길이 있다. 백암엔 백암토속순대 황새울농장 조비산구경 MBC문화동산 한택식물원등 먹거리와 구경거리가 많은 곳이다. 오른쪽으로 돌아서면 체력단련장이 나온다. 계속 직진하면 철탑 그리고 웅덩이를 지나면 마루금은 큰 절개지를 만난다. 절개지로 올라서면 가현산 천주교공원묘지다. 올라서자마자 산 정상 부분에 천주교에서 만든 아파트식 납골묘를 산 위에 만들어 놓았다. 공원묘지도 크지만 납골묘 또한 1천명은 되는 듯 싶어 보인다. 요즘 화장 인구가 50%를 넘었다니 참 다행이다. 불교신자들은 각성해야 한다. 불교의 장례 문화는 다비(화장)식인데 불교는 화장을 권유 못하고 획기적인 납골묘를 천주교에서 장려한다. 국가적으로 환영할 일이며 국토사랑이 아름답다.

마루금은 공원묘지 철조망을 따라 가야한다. 잡초가 우거진 곳을 통해 납골당을 직접 관찰해본다. 납골묘 앞 석문에는 꽃단장을 해서 납골묘라기보다 장식 예술물 같았다. 그리고는 산다랭이로 기어오르면 천주교 율타리 철망이 정상으로 이어진다. 용인시에서 만든 마지막 이정표가 있다.

산불감시초소는 아래 철근구조물만 남아 있다. 옆으로 삼각점이 있는 곳이 가현산 정상이다. 왼쪽 갈림길이 용인시와 안성시 경계다.

안성은 예로부터 유기가 유명했다. 그래서 안성맞춤이란 안성을 상징하는 말까지 생겨났다. 세월이 흘러 유기업도 쇠퇴기로 들며 안성엔 이제 명물이 바우덕이 사당패가 안성을 알리는 새로운 명물이 되었고 영화 왕의 남자를 통해 더욱 유명해진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일명 화랭이는 여자의 몸으로 남사당 꼭두쇠가 되어 안성의 남사당을 한국에 명물로 만든 대단한 여걸이다.

용인은 대표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아쉽다. 세계최고를 추구하는 골프장이 많은 용인에서 PGA, LPGA 대회를 유치하여 골프 도시로 용인을 알리는 것은 어떨지.

이제 지지대고개에서 시작된 한남정맥 용인구간이 끝나는 구간이다. 이미 산꼭대기까지 묘지가 들어서 산 이름도 없어진 지 오래지만 산길은 남쪽 넓은 길로 이어진다. 산 아래쪽으로 내려서며 오른쪽 좁은 길을 택한다. 내려서는 길은 공원 묘지 끝자락 묘지를 만나고 계속 내려서면 급경사로 밀려 내려선다. 2차선 포장도로가 가현치(가현고개)다. 산 아래 덕산저수지와 어울리는 시골마을은 풍요로워 보인다. 이 아름다운 마을도 전에 여름 수해 피해를 본 곳이다. 고개 절개지에 큰 철책을 낀 가현치는 삼죽면 울곡리와 보개면 현리를 잇는 큰 고개다.





## 10 미륵신앙을 더듬으며 칠장사로의 정맥길 가현치~칠장사

거리 : 가현치 -2.3- 국사봉 -2.7- 삼죽면사무소 -3.5- 도덕산  
-2.4- 관해봉 -0.9- 칠장산 -1.2- 칠장사(15km)

가현치를 출발하면 마지막 구간으로 한남정맥의 종착지 칠장사까지 다. 칠장사는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칠현산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2교구 용주사 말사로 636년 선덕여왕 5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였으며 고려 초 혜소(972-1054)스님이 홍제관을 짓고 수도할 때 7명의 악인을 교화하여 득도의 경지에 이르는 현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산 이름을 칠현산이라 했다. 현존당우로는 대웅전 원통전 영각전 명부전 천왕문 요사체가 있다. 칠장사에는 국보296호 오불회괘불탱화가 있다. 경기도문화재 34호 인목대비친필족자, 경기문화재 114호 대웅전, 115호 소조사천왕상, 보물 488호 혜소국사비등 문화적 가치가 많은 유물을 보유한 큰 사찰이다. 절 내에는 임궽정의 스승 갯바치가 병해스님이 되어 임궽정이 칠장사를 자주 찾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절 맨 위에 위치한 7악인 7현인으로 제도된 일곱 현인의 화신을 모신 나한전은 어사 박문수가 기도를 드리고 장원급제했다는 당시 과거시제인 몽중등과시의 현장이 칠장사다. 절 입구에 당간

지주(찰간대)는 지방유형문화제39호로 우리나라에선 제일 귀한 당간지주로 역사적 자료다. 사찰은 대대적인 불사로 크게 복원해 관광코스로 알려져 찾는 이가 많은 절이다.

82번 지방도로 아래 덕산저수지와 마을 전경은 목가적이다. 절개지 왼쪽으로 철망 펜스 옆으로 리본을 따라 오르는 길은 잡목에 가시덩쿨을 헤치고 가파르게 언덕 위로 올라서면 정맥 마루금이다. 소나무 참나무 길로 이어진 봉우리는 상봉이다. 상봉에서 조금 가다 보면 헬기장이 나온다. 헬기장에서 내려서면 덕재고개다. 선황처럼 들무더기가 있다. 완만한 산길은 국사봉을 향해 남쪽으로 길을 연다. 국사봉 7부 능선에서 왼쪽으로 길이 휘어진다. 국사봉 정상 100m를 남겨두고 지름길이다. 국사봉으로 올라가면 헬기장으로 커다란 바위 아래로 대학캠퍼스, 남품소류지와 멀리 고삼저수지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다.

미륵신앙의 중심도시 안성이다. 안성에는 미륵신앙의 상징 미륵상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후고구려의 궁예가 미륵이라고 자칭하고 자신의 모습을 미륵으로 만들어 국사봉 아래 세운 궁예미륵이 있는 곳이다. 다시 돌아 내려서 마루금 길로 들어서면 완만한 길에 커다란 바위를 지나내려서면 덕골고개에 도착한다. 고개에 올라서면 송전탑이 자리한다. 송전탑을 만들 때 닦은 큰길이 임도처럼 나타난다. 길 왼편으로 절개지를 따라 올라서면 국사봉 중턱에 고즈넉한 곳에 조화를 이룬 절집에서 목탁 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그렇게 도착하면 헬기장이 덩그라니 자리한다. 갈림길에서 좌측으로 돌아 산 아래로 내려서면 넓은 공터로 통하는 조경석으로 내려선다. 넓은 터가 길이다. 이곳까지 길을 만들었다. 길을 따라 왼

편으로 내려서면 대성사 노인복지원이 있다. 절 앞으로 들머리에 리본이 있다. 결국 앞 도로를 따라가도 만나는 길이지만 정맥꾼들은 끝까지 마루금을 찾아간다. 고생스런 좁다란 능선길은 김정흙으로 발을 무겁게 한다. 한참 후에 절개지로 미끄러져 내려선다. 포장도로 가운데 소나무와 산죽이 어울리는 동산이 길을 양쪽으로 나눈다. 길을 넘어서면 이번에는 걷기 편한 즐거운 산길이 시작된다. 소나무 숲을 오르고 내리기를 여러 번 하면 산길은 태정마을 끝집 울타리로 길로 내려선다. 태정마을 한복판 언덕길이다. 길은 직선으로 좁은 능선으로 한우농장 옆으로 이어지며 프락식당 앞 지방도로로 올라선다. 가현치에서 이어진 길이다. 삼죽으로 통하는 길로 노인회관을 지나 정류장 너머로 삼죽면사무소 정문으로 들어선다. 면사무소 뒤편 복지회관 셋길로 마루금은 이어진다. 산다랭이를 따라 올라서면 능선이 마루금이다. 묘지를 피해 오른 능선은 큰길 앞 절개지를 만난다. 왼쪽 끝으로 이동해서 내려서면 묘지 길로 죽산 만남의 광장휴게소로 내려선다.

원래 이곳 이름은 죽일면 죽이면 죽삼면이었는데 부르기가 거북해 일죽이죽 삼죽으로 부르게 된 곳이다. 광장 앞으로 4차선 고속화 도로를 넘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길 건너 공사 중인 나대지 쪽으로 들어서며 절개지를 따라 올라서야 된다. 왼쪽길이 쉬운 곳으로 오르면 능선이 마루금이다. 그리고 고개를 넘듯 산길을 따라가면 비포장도로 길로 내려선다. 녹배고개다. 고개 옆으로 흰색은 마리아상과 건물이 보인다.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면 좌측으로 김갑세 장로의 묘에 평생외길로 주님만을 보며 걸어갔다는 묘비가 심금을 울린다. 우리는 또 한남정맥을 따라 한길로 가야한

다. 마루금은 계속 남쪽으로 이어진다. 고개에 올라서니 366.4m의 삼각점이 있는 도덕산이다. 길을 내려서며 좌측으로 올라 갈림길에서 멋진 평원을 만난다. 신정목장이다. 저 멀리 산 아래까지 펼쳐져 있는 초지는 멋진 알프스의 초지, 영화 사운드오브뮤직에서 느끼는 그런 배경이다. 조금 아래 홀로 선 나무 아래에서 기지개를 펴며 소리질러본다. 모두 아름다운 노래되어 사진 속으로 빨려들어 왔다. 그리고는 영화의 주인공처럼 뒤로 넘어지며 풀 속에 잠겨버렸다.

농장 경계는 녹슨 철조망이 마루금으로 변했지만 농장의 추억을 담아 오르는 이에겐 철조망이 보일 리 없다. 산마루는 편평했다. 아무 표지판도 없다. 지도상으로는 관해봉 같았다. 그리고 또 올라선 봉우리엔 관해봉이란 표석이 있다. 나무에 둘러싸인 봉우리 그리고 한쪽에 매어놓은 수많은 리본이 있는 이 봉우리가 칠장산이었다. 야호 소리 여운이 채 끝나기도 전에 헬기장에 도착했다. 이제 한남정맥의 종착점이 산 아래 있다고 생각하니 지나온 산길이 머리를 스쳐간다. 헬기장에서 내려서는 길은 매우 편하고 넓다. 이정표는 칠현산으로 오르는 길과 칠장사로 내려서는 길로 나누어진다. 안부에서 칠장사까지의 내리막길은 환상의 산책로다. 유난히 많은 산죽을 끼고 돌아서면 칠장사 뒤편으로 들어서며 한남정맥 답사는 끝이 난다.

지지대고개를 시작하여 긴 산행을 마치며 우리 주위에 아름다운 산들 그곳에 담긴 이야기들 모두 내 가슴에 깊이 각인되었다. 정말 이 아름다운 강산을 보존 보호 하여 후세에 남겨 주어야할 사명감을 다짐하며 다시 한번 "용인의 산하 아니 우리나라의 산하를 사랑합니다"라고 외친다.

# 제4장

## 여울 따라 계곡 따라

### \_용인의 하천

1. 경안천
2. 탄천
3. 오산천
4. 청미천
5. 진위천
6. 목신천(한천)
7. 추계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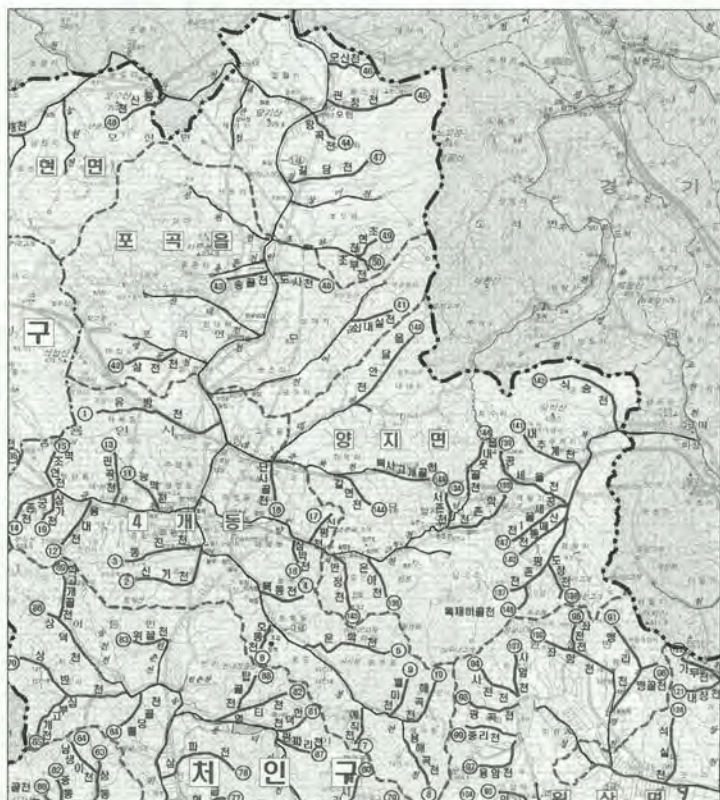
# 소하천 현황도





# 1 광주의 소천 경안천

경안천(慶安川)-26.6km



### 경안천(慶安川)(26.6km)

“용인현지도읍지”에는 광주의 소천(小川)이라 기록되어 있다. 근원(발원지)은 용인시 호동 해실마을 남쪽 아래기산 계곡에서 시작된 물이 경안천의 근원이다. 그러나 호동 해실이에 석유비축기지가 생기면서, 문수봉 서쪽 계곡을 발원지로 만들었다. 운학동 호동 사이를 흘러 김량장동 마평동 그리고 포곡읍 모현면을 경유해 광주시 오포를 지나 팔당으로 유입되는 하천이다.

한강 수질 보존을 위하여 경안천 살리기 사업으로 하천변 정비는 물론 수질 보전에 시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하천이다.

경안천변에는 앞곶(前串), 참바대, 배모루 등 속지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옛날에는 작은 배가 다니던 하천으로 추측한다. 경안천 주위는 팔당수계 보전지역으로 묶여있어 이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이다.

김량천은 용인시 처인구 중심을 관통하는 하천으로 금학천과 합쳐지며 경안천의 확실한 본류가 된다.

### 김량천(金良川)(10.6km)

해곡리에서 석유비축기지 입구의 경안천 발원지 이정표를 따라 석유비축기지 정문 근처에서 왼편 길 계곡으로 향하면 발원지 이정표에 700m 표시가 있다. 산 능선으로 계단길을 만들었다. 왼편 계곡으로 오르는 길이 쉽고 계곡으로 운치도 있다. 발원지의 입석이 있는 곳이 현재 경안천 발원지 문수샘이다.

문수샘에서 발원한 실개천은 373고지 356고지에서 모인 물과 합하여



발원 지류의 시작이 된다. 개천 물은(1.1km) 바래기산 용해곡 골짜기(용해곡고개-망덕고개)에서 발원한 물(0.5km)과 합하여 0.8km를 흘러 은이산 연화산 계곡물을 모은 해곡리 와우정사 쪽 별미천(1.7km)과 합하여 하천의 형태를 갖추어 경안천의 본류(1.9km)가 해곡리 세 갈래 천에서 형성된다.

해곡리 앞개울은 물놀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수량으로 서북쪽으로 용인 시내를 향해 흐른다. 넓은 개울이 형성된 경안천은 1.2km에서 예직마을을 통과한 예직천(1.2km)과 만나 운학동으로 접어든다. 수량측량지점 물막이 보와 채석장을 지나 1.9km 쯤에서 내어둔천과 합수된다.

형제봉 좌우 골과 국사봉 물을 모은 운학천은 관음사 골짜기에서(0.7km) 용애사 골짜기물(0.8km)과 만나 내어둔 마을을 통해 1.5km를 내려서 운학천(2.3km)은 운학초교 입구에서 경안천(5.0km)에 들어선다. 경안천은 직선으로 900m 쯤 흘러 호동 근처에서 염치고개에서 발원한 호리천(0.9km)은 경안천이 되어 오른쪽으로 휘어져 2개의 물막이 보를 지나 1.5km에서 호동을 지나 묵동 마을을 통과하는 묵동천(1.5km)을 만나 넓은 개천이 되어 운학공원 자전거 도로를 끼고 운학보 그리고 김량장동의 큰물막이 보를 통과하면 김량천(9.3km)에서 신기천을 만난다.

신기천(3.5m)은 함박산 북쪽 골짜기 명지대 안에서 발원(0.7km)하여 신기저수지(2.8km)를 지나 남동 신기 대촌을 지나 평옥에서 경안천을 만난다. 경안천은 100m아래에서 동진천(2.9km)을 만난다. 동진천은 명지대 앞 남동 동진 덕골(0.8km)을 시작으로 동진저수지(2.1km)를 지나 용인 시내를 경계로 남동 사거리에서 경안천에 합수된다.

합수된 경안천은 1.2km 북쪽으로 마평동과 김량장동을 가르며 현대아파트 버스터미널 김량천 대교를 지나 하천 공원을 통해 용인시내에서 금학천과 합수한다. 용인종합운동장 근처에서 합수한 두 하천은 큰 하천으로 경안천(10.6km)의 면모를 갖춘다.

#### 해실천

칠봉산 서쪽계곡에서 발원하여 와우정사 계곡물과 합하여 해실마을 앞에서 곱등고개 서쪽 계곡물과 합하여 마을회관 남쪽에서 경안천 발원지 용해곡천과 합류 되면서 김량천이 시작되는 하천이다.

#### 운학천

형제봉 서쪽계곡에서 발원하여 관음사를 통해 어둔리에서 국사봉 물과 북쪽 산다랭이 물과 합하여 운학동으로 통해 김량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다.

#### 예직천

동부동 호동 용해곡 남쪽 예직마을 위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예직 마을을 관통하는 실개천이다.

#### 묵동천

운학동 묵동 먹거리 계곡 서쪽에서 발원하여 먹거리 앞 자전거도로를 통해 김량천에 유입되는 실개천이다.

#### 신기천

함박산 북쪽 계곡에서 발원한 물은 명지대 남쪽 신기저수지로 영입되어 대촌으로 흐르며 주위의 물과 합하여 45번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향하다

평옥마을 아래서 김량천 본류에 합치는 소하천이다.

#### 동진천

경안천의 지류 김량천의 소하천으로 동진마을 학교개 서쪽계곡에서 발원하여 동쪽 덕곡마을과 명지대 앞을 통해 남동 구미동 마을에서 김량천으로 유입되는 작은 하천이다.

#### 금학천(金鶴川)(6.8km)

용인현지도읍지에 금령천(金嶺川)이라 하는데 물의 근원이 금령역 남쪽에서 나와 양지현 경계에 이르러 소로에서 북으로 흘러 광주의 소천(경안천)으로 흘러 간다고 하였다.

금학천은 용인 시내 동서를 세로로 질러가는 하천이다. 삼가동에서 중앙동으로 흐르는 물줄기는 42번 국도와 나란히 용인시행정타운 용인대학등기소 처인구청을 같이하며 김량장 동구 북구에서 김량천과 만나는 용인시의 중심하천이다. 발원지는 영진골프랜드 안쪽 부아산 북서쪽 계곡에서 시작한다. 부아산 중턱에서 시작된 금학천은 상직동 물을 만나 삼가리 궁말을 가로질러 42번 국도 근처에서 벽조현천(1.6km) 물과 합수하며 1.9km 아래 용인대학 부아산 북쪽 물과 합수하며 42번 국도를 지나 합수하며 금학천의 본류가 된다.

금학천 물은 42번 국도와 평행선으로 동쪽으로 흘러 하고개 용인대를 거쳐 흐르는 용대천(1.9km)과 행정타운 근처에서 합수한다. 새로 건설 중인 용인경전철을 따라 흐르는 듯 같이 용인 시내를 향한다. 명지대 입구에서 삼군가 골프장에서 발원하여 관곡저수지를 지난 관곡천(1.2km)

을 만나 서릉초등학교 뒤로 용인시내로 접근한다. 명지대 북쪽 계곡으로 역삼동사무소 앞을 통과한 물(1.5km)을 모아 시내로 들어서며 구 주공 근처에서 능막천(2.2km)이 합수한다. 역북동 구성말 약수터 위 계곡에서 시작된 물은 구성 중간 약수를 만나 삼군사령부 앞을 지나 낙은 마을을 관통하여 구 주공 뒤로 흘러온 능막천은 금학천(5.8 km)에 합수하며 용인의 중심가 5일 장터를 끼고 김량천에 합수한다. 작은 하천 오리골천은덕골천 보이지 않는 하천을 간작하고 지금은 경전철 공사 중이지만 예전엔 수여선 협궤 열차길이 금학천으로 용인 시민의 추억을 간직한 하천이다.

#### 먹조현천

한남정맥 성산에 투구봉 남쪽 계곡에서 발원한 물은 먹조현을 통과해 화운사 계곡물과 합류하여 경전철 기지창 물이 합쳐지고 궁말천과 합하여 금학천이 시작되는 소하천이다. 궁말천-부아산 서북쪽(거북바위계곡)에서 발원한 물이 상직동 물과 합하여 궁말을 가로질러 삼가리 42번 국도를 통해 먹조현 물과 만나는 금학천의 본류이다.

#### 용대천

하(학)고개 동쪽 계곡과 부아산 용인대학 뒤 계곡에서 출발한 물은 용인대학 앞에서 합류하여 천주교 공원묘지 앞을 통해 42번 국도를 통해 금학천에 합류되는 소하천이다.

#### 관곡천

삼군사령부입구 체육단련장 계곡물이 관곡 저수지를 통해 관곡마을을

관통해 서릉초등학교 근처에서 금학천에 합류하는 소하천이다.

#### 능막천

삼군사령부내 계곡물은 구성말 약수물이 합하여 중간동을 거쳐 낙은 마을을 지나 역북주공아파트와 역북공원 사이로 금학천에 합류하는 하천이다.

#### 양지천(陽智川)(11.6km)

독조봉 용실산 갈미산 북쪽 양지리조트 스키장에서 발원하는 양지천은 1200m 아래 제설용수지를 지나 남곡저수지로 모인다. 남곡저수지를 통과한 물은 2.5km 양지시내에서 충신대학에서 발원하는 학천과 만난다.

#### 학촌천(4km)

충신대학 뒷산 오봉산 줄기에서 발원하여 충신대를 관통하여 학촌을 지나 양지시내로 내려서며 양지천에 합류한다. 학촌천을 합류한 양지천은 200m 아래서 은이천을 만난다.

#### 은이천(3km)

형제봉과 갈미봉 사이 별미고개에서 발원하여 천주교 은이공소를 통과하여 등촌근처에서 양지천에 합수된다. 합수된 양지천은 장례식장을 지나며 송문리 북쪽으로 흘러 송문교를 지나며 송문천을 만난다.

#### 송문천(2,1km)

반쟁이 마을 계곡에서 발원하여 42번 국도를 지나며 양지천에 합수한다.

#### 양지천

마천교를 지나며 제법 큰 하천이 되어 마평동과 고림동을 가르며 용마

초등학교 그리고 용인종합운동장 북쪽에서 경안천 물과 합수된다.

#### 남곡천

양지리조트 스키장에서 발원하는 남곡천은 아래 제설용수지를 지나 남곡저수지로 모인다. 남곡저수지를 통과한 물은 양지 시내 쪽 별판을 가로질러 42번 국도근처에서 양지천 지류인 학천과 교동천의 합천 물과 합하여 양지천이 된다.

#### 교동천

양지 시내 뒷산 교동천 아시아나CC 기남이 고개 남쪽 계곡물은 영동고속도로를 통해 양지(교동) 시내를 통해 교동뒷산 금류사 계곡물이 합쳐 42번 국도 근처에서 양지천에 유입된다.

#### 은이천

별미고개(신덕고개)근처인 계곡이 수려한 형제봉과 갈미산 계곡물이 합하여 은이계곡을 따라 천주교 은이 공소를 지나 공장지역 지나 42번 국도 근처에서 합류하는 소하천이다.

#### 송문천

형제봉 내령에 반정 깊은 골짜기 계곡에서 반정마을을 통과하는 소하천이다.

#### 삼박곡천

삼박곡 마을 계곡은 넓고 깊다. 형제봉 능선은 반정을 거쳐 용인인 시내로 향하는 능선에서 삼박곡으로 서너 골짜기가 모여 42번 국도를 지나 신평리에서 양지천에 유입되는 소하천이다.

#### 대대천(7.8km)

대대천은 음달안이 소목재고개에서 발원하여 정수리 사기막고개에서

발원하는 물과 합수하여 고림동 임원에서 주북천과 만나 경안천에 합류하는 하천이다.

대대리 굴암산 계곡안으로 소목재 고개에서 발원한 음달안천(3.2km)은 자작나무이야기식당 한터캠프를 지나며 한터천과 만난다. 대대리와 정수리 사이에 있는 사기막 고개는 44번 국도로 눈이 오면 정수리 사람들이 눈길을 쓸어야 차량이 통과하는 급경사 고개이다. 고개 근처 골짜기에서 발원한 한터천(2.7km)은 아시아나 골프장 물과 합하여 한터 저수지로 모인다. 저수지를 떠난 대대천은 용화사 계곡물을 만나고 이어 음달안이 물을 만나며 하천의 모습을 갖춘다.

합류된 물은 한터 반공위령비 앞을 지나 숲원이를 통과해 고림동 임원에서 주북천(4.3km)을 만난다.

#### 주북천

양지면 주북리 고래실(1.7km)에서 시작하여 배실천(1.1km)과 합류하여 주북리와 영동고속도로를 끼고 임원에서 대대천에 합류한다. 대대천은 44번 국도를 따라 직선으로 서쪽을 향하면서 경안천에 합류한다.

경안천은 김량천과 금학천이 만나는 곳에서 하루로 400m에서 양지천과 300m 햇골천을 만나면서 1200m 에우리보를 만난다. 그리고 대대천을 만나고 2.4km에서 새고지보 그리고 유방천을 만난다. 3.2km에서 보던지보를 지나 금어천을 만난다. 금어천을 지난 물은 영문천을 만나며 바로 붓들보를 만난다. 발원지에서 붓들보까지 15.6km를 흘러온 것이다.

#### 유방천(4km)

유방천은 성산 동쪽계곡에서 발원하여 지장실을 통해 버드실로 향하다

백령사 계곡물과 합수하여 영동고속도로와 나란히 경안천으로 흘러든다.

#### 금어천(6.4km)

금어천은 용인에서 제일 높은 말아가리산 임도 근처에서 발원하여 하메울 식당 앞을 통해 통점마을을 관통하다 불당골물과 쇠내실 물이 합쳐지며 금어리 쓰레기 매립지 앞을 통과하며 서쪽으로 흘러 둔전과 보평사이에서 경안천에 유입된다.

#### 영문천(3.3km)

마성 잣고개 근처에서 발원한 계곡물은 마성저수지로 모인다. 마성저수지물은 영문리 마을길을 따라 동쪽을 향해 흐른다. 포곡읍 배머루에서 경안천으로 흘러든다.

붓들보에서 1km 내려가면 에버랜드로 통하는 삼계교를 지나 두계울을 지나면 가실천을 만난다.

#### 가실천(5.3km)

가실천은 향수산에서 발원하여 에버랜드 삼만육천지에서 전대리를 통해 경안천으로 흘러든다.

가실천을 모은 경안천은 당골보를 지나치고 물이 깊기로 유명한 빙경수를 지나 빙경보를 만난다. 빙경수보를 지난 경안천은 신원천을 만난다.

#### 신원천(3.6km)

신원천은 선장산에서 발원하여 신원저수지 신원 3리 2리 1리 동네를 통과하며 구만이산 근처에서 경안천으로 흘러든다.

신원천을 모은 경안천은 경방 옆으로 흘러드는 초하천을 맞고 비야수 근처에서 초부천을 만난다. 그리고는 용인팔경의 하나인 비파담을 만든



뫼들보를 지난다. 이어서 독점리를 잇는 초부교를 지나며 넓은 세울보를 지나며 월촌 앞에서 오산천을 맞이한다. 오산천을 모은 경안천은 왕산대교를 지나 독가보 경안천보 간들보에서 용인 시계를 떠나 광주시로 들어선다.

#### 초하천(1.6km)

모현면 초부리 용인공원묘지가 있는 큰 골짜기물을 모아 경방 옆을 통해 경안천으로 흡수된다.

#### 초부천(3.2km)

정광산에서 흘러내린 초부천은 용인휴양림부지에서 3단 폭포를 만들고 사방댐을 통해 상초하에서 큰 산 계곡물이 합하여 추부리 길을 따라 경안천으로 흘러든다.

#### 갈담천

정광산 북서쪽 상류에서 발원한 물이 노고봉 남서쪽 물이 모현면 갈담리 갈월저수지로 모여 45번 국도변 돌담이 마을을 통해 경안천 비아수 위쪽으로 유입되는 하천이다.

### 오산천(14.1km) 윗사기막-경안천

오산천의 발원은 오산리 윗사기막에서 시작된다. 지금은 레이크사이드CC 서코스 1번 홀 근처에서 시작하여 아래사기막을 지나 오산수가든을 지나 본동까지 4km를 흘러 본동 근처에서 대지고개(1.5)와 솟돌봉물(1.5)이 합수된다. 합수점 1.5km쯤 내려가면 레이크사이드 동코스 14번 홀에서 발원한 물(3.4km)은 포은묘지 입구 43번 국도 아래에서 오산천 본류

에 합수한다. 합수한 물은 0.8M 아래 왕림교에서 광주 오폐면 능평리에서 흘러내린 신현천을 만나 큰 하천으로 변한다. 넓은 벌판으로 흐르는 오산천은 2.6km 퇴치미에서 43번 국도 고가도로 아래를 통하여 3.1km를 내려서 광주 문형천을 만난다. 걸 스카우트 월촌 하마산을 거쳐 2.1km 내려와 왕산에서 경안천에 합수한다.

#### 능원천

모현면 능원리에서 내려오는 하천이다. 오산천의 발원지인 사기막을 시작으로 윗소우리와 우명동 아랫소우리 물이 모여 능원에서 오산천에 합류한다.

#### 동산천

모현면 동림리 할미당산 물이 모여 동산저수지를 통해 동림리를 거쳐 오산천에 합류한다.

#### 상마산천

모현면 일산리 상마산 북쪽에서 발원하여 오산천에 유입된다.



## 2 좋은 휴식터 탄천

탄천(炭川)-11.4km



## 탄천(炭川)(11.4km)

탄천은 유명한 하천이다. 서울시 삼성동 면허시험장이 장마로 문을 닫았다고 한다. 남의 일같이 별로 관심없어 했는데 면허시험장 삼전도 옆을 흐르는 물이 용인의 하천 탄천이다.

탄천은 동방삭이 염라대왕 탄천 이야기처럼 검은 물로 물이 맑지 못했는데 지금은 용인 성남에서 관리를 잘해 50cm의 물고기가 노닐고 수지에서 서울까지 자전거 도로를 열어 좋은 휴식터로 변화시킨 하천이다.

탄천의 발원지는 청덕리 물푸레울이다. 물이 푸른 골짜기를 부르는 동네이름에서 발원한다.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남쪽 사기막고개에서 발원한 물은 88CC를 지나 경찰대학 앞으로 영동고속도로와 나란히 하여 구성을 관통하여 법화산 물을 받고 경부고속도로까지 무려 5.5km를 내려서 평지에서 삼막곡 물을 맞이한다.

삼막곡 저수지는 산 속에 숨어 있는 자그마한 저수지로 삼막곡고개가 시경계길이다. 1.5km의 물은 경부고속도로 활주로를 빗겨 탄천으로 흡수되어 4.6km를 고속도로와 나란히 수지 풍덕천에서 대지고개 내대지물과 합하여 탄천의 주류가 된다.

응봉 아래 버들치 북쪽의 물(1.3km) 용인의 천년약수물은 500m아래에서 형제봉 남쪽계곡(1.6km) 물과 합수하여 3km를 내달려 서봉사지 홍말 성광기도원 물을 모아 6.0km 내려온 물과 합하여 정평천으로 수지사 내를 통과해 수지구청 앞을 지나 1.5km아래 풍덕천에서 탄천본류에 합류된다. 합류된 본류는 1.3km를 E마트 죽전 2동사무소 옆으로 글로리아

교회와 구미동 사이 징검다리에서 분당으로 들어선다.

광교산의 탄천물은 바라산 아래 발아산리를 떠난 물줄기는 서광사계곡 물은 서광사를 지나 2.2km 아래 분당 석유비축기지물과 합류하여 0.9km를 내려서면 고분재물과 합친다.

바라산과 백운산 계곡에서 출발한 고기천은 관음사를 지나 2.8km 아래에서 배나무골 물과 합하여 0.3km에서 고기리 유원지를 지난다. 여름엔 인파가 모이는 고기리 유원지를 따라 내려서면 고기초등학교 앞을 지나 낙생저수지로 유입된다. 용인 사람들이 고기리저수지로 불리는 저수지를 통과하면 고기천은 용인과 성남을 경계로 동쪽 2.4km를 흐른다. 수지 자전거도로 입구 공원에서 동막천을 만난다.

동막천은 광교산 아래 상손곡에서 중손곡으로 동막골에서 염광의원을 지나 5km를 달려와 고기천에 합류한다. 실제로는 낙생저수지부터 고기천도 동막천이라 부른다. 합류된 동막천은 자전거 도로 끝의 다리에서 성남으로 들어선다. 이곳에서 1.2km 아래 분당 오리동에서 탄천본류와 합하여 분당을 경유해 서울로 흘러 들어간다.

남한지(南漢誌)에 보면 용인의 석성산에서 발원한 물이 서쪽으로 용인 현을 싸고 돌아(옛 용인현은 구성) 수지 장전포를 지나 광교산을 돌아 낙생면을 거쳐 삼전도로 들어간다 하였다. 발원지는 아니지만 내용은 맞게 기술하였다.

## 동막천

바라산에서 분당 물이 합쳐 석운사 계곡을 통해 내려서던 하천은 분당

석운동 석유비축기지에서 내려오는 석운천과 장의마을 위쪽에서 합류하여 정의교에서 고분천과 합류하여 낙생저수지로 흘러든다. 낙생저수지부터 용인과 성남의 경계로 머내를 지나 고속도로, 전철, 산업도로를 지나 구미동에서 탄천분류에 유입된다.

#### 고기천

바라산과 백운산 물이 곡현(고분재)마을로 모여 고기천이라고도 부르는 하천은 배나무골과 말구리물이 합쳐져 동막천에 합류되는 하천이다.

#### 손곡천

광교산 상손곡으로 모여 말구리 물이 모여 중손곡으로 흐르는 동천천이다. 손곡물은 손기교에서 동막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이다.

#### 정평천

광교산과 형제봉 서봉으로 흐르는 물을 신봉천이라 한다. 형제봉과 응봉 사이로 흐르는 성복동을 지나, 응봉과 독바위물이 합류하여 성복천이 된다. 성복천은 풍덕천리에서 합류하여 정평천이 된다. 정평천으로 정평을 지나 수지시내 34번 국도를 따라 죽전입구에서 탄천분류(청덕천)에 합류한다.

#### 청덕천

탄천의 본류로 탄천의 발원지물이라 할 수 있다. 법화산 동쪽 물푸레고개(윗사기막) 남쪽에서 발원한 물은 청덕동을 통해 아차지고개 물이 합쳐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경찰대 입구로 구성동을 지나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죽전으로 흐른다. 도중에 실개천으로 삼막곡천 이현천 소실천 마복천을 합류하여 정평천으로 모아 탄천이란 이름으로 성남에서 동막천과 합류한다.

## 탄천과 동방삭

어느 날 저승사자가 동방삭을 잡으러 왔다. 동방삭이는 저승에 있을 때 천상에서 공을 세워 옥황상제로부터 삼천갑자를 살도록 특권을 받았다고 속여 저승사자를 돌려보냈다. 저승사자가 다시 인간들의 생명부를 보니 동방삭의 수명이 잘못된 것을 알고 다시 잡아보니 이번엔 등창을 앓던 종기 자국을 보여주며 이것이 옥황상제의 도장이라고 속였다. 천상에서 1각은 지상에서 몇 백 년의 세월과 같으므로 동방삭은 삼천갑자를 누릴 수 있었다. 그 후 동방삭이는 저승사자를 피해 다녔으므로 저승사자가 방방곡곡 그를 찾아보았지만 헛수고였다. 그래서 생각 끝에 솥을 한짐 사다 개울가에 앉아 매일 솥을 닦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을 지나던 변장한 동방삭이 그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겨 그 연유를 물었더니 언젠가는 흰 솥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하자 동방삭은 하도 어이가 없어하며 자신이 삼천갑자를 살았지만 솥을 닦아 흰 솥을 만든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자신의 신분을 알려 저승사자에게 잡혀 죽었다는 이야기다. 그 후 이내를 검정 솥물이 흘렀던 하천이라 탄천으로 불리게 됐다는 이야기다.



### 3 향린동산에서부터 흐르는 오산천

오산천(烏山川)-15.7km





## 오산천(烏山川)

오산천은 구성 노고성산 옆 향린동산에서 발원하여 기흥 구성물을 모아 신갈저수지를 통해 오산천으로 합수되는 물줄기를 오산천이라 한다.

오산천의 발원지를 동백의 메주고개와 향린동산의 동백저수지 위 골짜기를 몇 번이고 재보았지만 결국 향린동산이 더 길어 향린동산으로 발원지를 쓴다.

향린동산은 한남정맥 능선에서 모여진 물이 향린동산 내 동백저수지에 모여 2.3km를 내려서면 잣고개 터키참전비에서 내려서 1.7km에서 만나 1.0km를 내려서 어정에서 메주고개 물과 합수한다.

메주고개는 전에 수여선이 다닐 때 터널이 있던 험한 고개였다. 성산 줄기에서 내려 온 두리봉물이 합쳐져 동백지구를 관통하며 2.5km를 흘러 어정에서 향린동산 물과 만나 고인돌 삼거리로 흘러간다. 그리고는 정신병원 뒷산에서 발원한 물과 만난다.

용인정신병원 뒤 계곡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정신병원 효자병원을 지나 수원동에서 두리봉 물과 쌍용아파트 물을 만나 현대출고장 고인돌을 지나 어정천 물을 만난다. 큰 하천으로 변한 오산천을 갈천이라 한다. 구갈 경주김씨 갈천공파 집성촌에서 유래된 갈천은 강남대학을 지나 용인경전철 환승역 앞 녹십자를 지나며 신갈시내 남쪽으로 3km나 흘러 상미천을 맞이한다. 상미천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시작된 물로 상미에서 내려오는 물과 만나 3.0km를 흘러 2km아래 신갈저수지에 유입된다.

저수지 입구엔 지곡저수지 물과 골드CC 물이 모여 8km나 흘러온 물과 함께 저수지로 합류한다.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거리가 3.7km 물막이 보

에서 수증공원을 1km 내려서며 용인시 경계를 만난다.

옛 문헌에는 “구흥천이라 부르는 용인 내 오산천은 동국여지승람에 구흥역 남쪽에 있다. 물의 근원이 보개산에서 나오는데 남쪽으로 흘러 수원부 오산위 원천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 고매천

무봉산 골프CC에서 발원하여 용인시와 화성 동탄을 경계로 하는 하천으로 고매리에서 기흥저수지 아래 오산천으로 유입된다.

#### 지곡천

부아산 자연수련원 근처에서 발원한 물과 신고매에서 시작된 물은 지곡저수지를 지나 상동에서 합류하여 지곡동을 거쳐 상갈동에서 기흥저수지에 유입된다.

#### 수원동천

용인정신병원 고개 근처 물이 모여 민재궁을 지나 수원동에서 두리봉 물과 합류하여 하지석을 지나 오산천 본류에 유입된다.

#### 초당천, 어정천

성산 아래 윗초당곡은 매주고개 물로 동백지구를 통해 두리봉 물과 합쳐져서 노고성산 물인 향린동산 본류에 합쳐진다. 어정 물은 향린동산과 동백저수지를 지나 어정에서 초당천과 합류하여 하지석에서 수원동물과 합하여 42번 국도로 신갈시내를 관통하여 상미물을 받아 기흥저수지에 합류하는 오산천의 본류다.



## 4 용인의 남쪽 하천 청미천

청미천(淸漢川)-19km



청미천은 원삼 문수봉 동편에서 발원하여 원삼과 백암의 물을 모두 모아 안성을 통해 남한강으로 유입되는 용인의 남쪽 하천이다.

삼성물산은 문수봉 중턱에 있다. 이곳에서 발원한 물은 중소기업청(1.8km) 연수원 물과 합하여 내동으로 흘러 모인다. 내동 근처 고인돌군을 통과해 326번 도로에서 용바위골 물(1.1km)과 합하여 1.3km 아래 사암저수지로 들어간다. 칠봉산의 모든 물을 모은 사암저수지 물은 미평뜰로 2.9km에서 좌전에서 내려오는 물과 만난다.

좌전고개에서 발원한 물은 0.5km 아래 좌향 2저수지로, 용실고개에서 발원한 물은 좌전 항골 1저수지를 거쳐 항골마을을 지나 1km에서 좌전고개 물과 합수하여 0.7km에서, 지산전추리 척골저수지 위 0.6km 발원한 물은 척골저수지 1.9km 맹리에서 내려오는 물과 합수하여 1.1km 아래서 사암저수지 물과 합쳐져 청미천의 모습을 갖춘다.

청미천은 1.6km 가좌리 마을 물을 흡수하여 1.6km에서 평대천을 만난다.

평대천은 구봉산 석술암산 북쪽에서 시작되어 2.2km 두창저수지를 만나 미평뜰에서 청미천에 합수된다. 청미천은 1km 아래서 지령골천을 만난다.

수정산에서 시작된 물은 1.9km 구백암 물과 합하여 2.8km 내려와 청미천에 합수된다. 청미천은 남쪽으로 1km 아래서 방곡천을 만난다. 대덕산 오방낭골 약수터에서 발원한 방곡천은 오방낭골을 지나 3.8km를 서쪽으로 흘러 청미천에 합수된다. 백암 시내를 더듬으며 통과한 청미천은 1.7km를 남으로 흘러 청계천을 만난다. 청계등을 출발해 2.7km를 달려 온 청계천은 큰 하천이 된다. 청미천은 1.3km 아래 내수곡천을 만난다.

내수곡천은 두무재에서 시작하여 2.3km를 달려와 청미천을 키운다.

이젠 제법 큰 냇가 된 청미천은 1.4km에서 가리산천을 만난다. 석술암산 아래 양준이를 통과한 가리산천은 가리산저수지를 지나 2.9km를 흘러 청미천이 된다. 계속 문일보를 지나 1km 아래서 용천개울을 만난다.

장경사를 통과한 용천개울은 MBC문화동산과 정배산 구봉산 물을 모아 6.3km 조비산을 끼고 장평에서 청미천에 합수된다. 청미천은 0.4km를 흘러 백봉천을 만난다. 백봉천은 대우 연수원에서 모은 물을 대흥동 계곡물과 합하여 4.5km를 달려와 넓디넓은 청미천에 합수된다.

청미천은 청계천과 합수하여 0.6km 아래에서 용인의 마지막 물 계천을 만난다.

청미천은 넓은 냇가 되어 2.4km 아래 아송교에서 용인 땅을 뒤로하고 안성으로 흘러간다. 장장 19km를 달려와 말없이 흘러간다.

#### 미평천

청미천의 본류로 문수봉 동편에서 발원하여 내동을 통해 사암저수지로 유입된다. 원삼의 북쪽산릉인 칠봉산은 사암저수지로 유입되고 독조봉의 물과 좌전고개 물은 좌향 제2저수지를 통해 미평리에서 합류하여 청미천의 본류가 된다.

#### 계천(황새울천)

구봉산 달기봉 정배산에서 모은 물은 용인CC 황새울농장을 거쳐 5.3km를 흘러 청미천에 합류한다.

#### 용천천

구봉산과 달기봉 사이의 물은 MBC동산 근처 불당골에서 모여 용천리

를 흐르며 정배산 앞을 지나 조비산 북쪽으로 용천리 동쪽에서 청미천에 합류한다.

#### 가창천

수정산 북쪽과 건지산 남쪽 협곡 사이에서 발원한 물은 소학산 물을 가곡마을에서 모아 두평마을에서 뒷동골산 물이 합쳐 신창을 경유하여 근곡리에서 청미천에 유입되는 하천이다.

#### 맹리천

지산CC는 건지산 정상부인 서쪽으로 흘러 척골지로 모여 맹리로 향한다. 건지산과 수정산 사이 맹리 내촌에서 모여 행군리에서 척골지 물을 만나 청미천(미평천)에 유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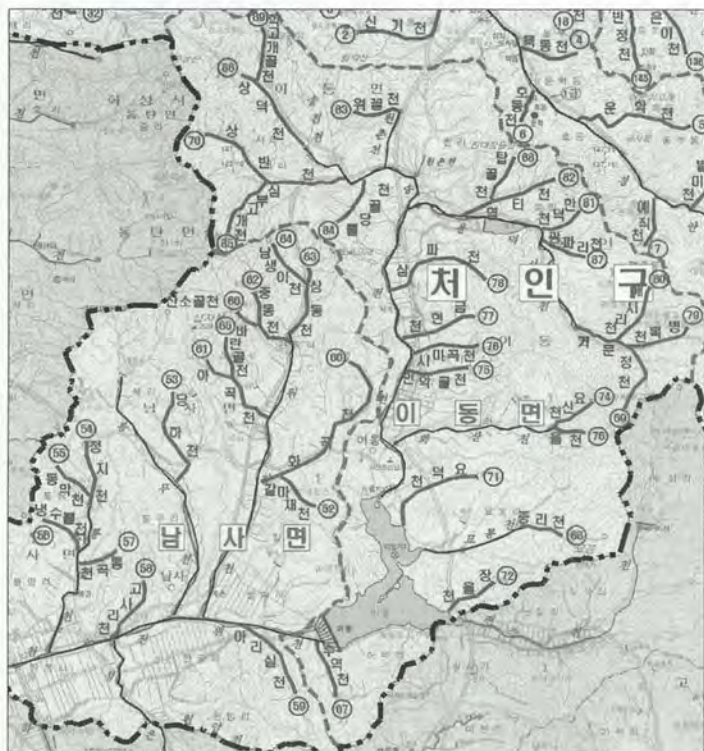
#### 대덕천

백암면 대덕산에서 발원하고 입석재 오방난골에서 발원한 물이 서쪽으로 흘러 상촌마을에 합하여 박곡리 동쪽으로 흐르는 하천을 박곡천 또는 대덕천이라 부른다.



## 5 시공샘이 발원지인 진위천

진위천(振威川)-23.1km



진위천의 발원지를 찾아 부아산 골프장과 묵리 거문정 위 시궁산계곡을 실측도 하고 도상거리까지 조사한 바 시궁샘이 부아산 골짜기보다 긴 것을 확인한 후 묵리 거문정에서 시궁산 동쪽 계곡으로 1km 쯤에 마르지 않는 샘을 발견하고 수차례 답사하여 샘으로 판단하고 시궁샘이란 이름으로 발원지를 확인했다.

첫번째, 시궁산 정상에서 미리내 쪽으로 내려서면 갈림길에 거문정 장촌 이정표를 따라 100m 내려서면 계곡에서 진위천 발원지인 시궁샘을 만난다.

두번째, 거문정에서 하천을 따라 물막이보를 수십 개 지나 올라서면 계곡으로 또는 등산로를 따라 올라서면 임도 다리 건너로 등산로 이정표를 지나 올라서면 두개의 긴 의자 앞 계곡에 시궁샘이 있다.

진위천은 묵리 시궁산 서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이동 남사의 물을 모아 평택시 진위면을 통과하는 하천으로 용인시와 평택시 상수원보호 관계로 시 차원의 민원이 발생하는 하천이다.

용인시 이동면 묵리 용덕천은 묵리천이라 하며 미리내 거문정(애덕고개) 고개 아래 거문정 계곡 물 (2km)과 장촌 해살이골 물(1.5km)과 합수하여 시궁산 삼봉산 성륜산을 끼고 영보자애원 수녀원 그리고 굴암 한덕골을 지나며 5.2km를 내려와 용덕저수지로 합수된다. 용덕저수지 물은 1.7km를 달려 천리에서 서리천을 만나 진위천으로 하천의 형태를 갖춘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상덕 저수지 위 골드CC안에서 발원한 서리천은 1.7km를 흘러 상덕 저수지로 모여든다. 상덕저수지는 물이 맑아 태공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저수지에서 1.0km를 내려서면 서울공원묘원과 학고개 물이 합수된다. 이곳에서 천리로 통하는 도로를 따라 2km를



남쪽으로 향하던 물은 서리 하반에서 내려오는 물과 만난다.

함봉산 서쪽 골짜기와 서리 백자도요지 물은 하반에서 만난다. 서리 하반 마을회관 주위는 한때 내장탕으로 유명했고 지금은 흥진크라운 하이바(보호모)공장이 유명하다. 하반을 경유한 하천은 1.5km를 내려 다시 1.5km를 내려온 서리천에 합수되어 연안이씨 연화사물을 모으고 45번 고가도로 밑으로 흘러 천리로 들어선다.

함박산은 대홍수 때 홀로 함지박만큼 남았다는 산으로 남쪽 골짜기 물을 모아 노루가 터를 잡아 주었다는 노루실로 들어서면 봉우리가 하나 무너졌다는 무너미고개 물과 은화삼 남쪽 계곡 물이 모여 1.5km를 내려와 천리에서 합수한다. 합수된 물은 천리아파트촌 뒤로 흘러 용덕천을 만난다.

이곳부터 5.5km의 진위천은 덕성리 시미리를 거쳐 동인농장을 돌아 화산천과 만난다.

화산천은 화산저수지위 0.6km에서 시작되어 화산골프장 저수지를 통해 3.0km를 내려와 진위천에 합류한다. 그리고는 큰 하천이 되어 4.8km 아래 송전저수지(어비리) 물막이 보에 도달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산인 묘봉리에서 시작된 물은 1.1km에서 새미골(2.5km) 물과 만나 1.5km의 묘봉교를 지나 3km 아래 저수지로 들어온다.

저수지 물막이보 아래를 수역이라고 한다. 수역 아래는 하천 물이 넓은 하천이 되어 2.5km 아래에서 남사면 완장천을 만난다.

함봉산 남쪽 골짜기 물은 완장2저수지 완장1저수지를 지나 1.2km아래에서 합수하여 0.9km 아래에서 싸리재(서리재) 3km 물과 만나며 처인성 앞으로 300m아래서 창리저수지 물을 만난다.

아늑한 마을 화골(꽃골)에서 군부대 쪽으로 이동한 물은 안어고개물과 창리저수지에 당도한다.

저수지 물은 넓은 냇가 되어 삼인동으로 통과해서 남사 시내입구에서 진목리쪽으로 6km를 내려와 진위천에 합류한다. 그리고는 500m아래에서 동막천을 만난다.

동막천은 동막골(1.8km)물과 풍목골(1.0km) 물이 모여 삼인저수지를 만든다. 삼인저수지는 실개천으로 5.6km를 내려와 진위천을 만든다. 진위천은 큰 강처럼 유유히 2.5km를 흘러서 통삼천을 만난다.

통삼천은 동막저수지 0.3km위에서 시작하여 동막저수지에서 4.7km를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진위천에 합류한다. 진위천은 고속도로를 질러 평택으로 들어선다. 전에는 용인 남사 월경부락이지만 지금은 고속도로로 갈러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로 불리는 용인의 옛터다. 진위천은 23.1km나 달려와 은산리 고속도로에서 용인을 떠난다.

### 묘봉천

이동면 묘봉리 갈미산 북쪽에서 발원하여 상리를 지나 중리에서 묘봉에서 발원한 물은 중리저수지로 유입되어 중리에서 합수되어 어비리 저수지에 유입되는 하천이다.

### 봉무천

화성산 북쪽 능선에서 발원한 물은 북리저수지를 통해 삼인동물과 합하여 신흥동 당하동을 거쳐 산정동 도장골 앞을 지나 봉무리(내기마을)를 지나 봉무교를 통해 진위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이다.

### 사후천

평택시 동천리 사후동 저수지 물은 경부고속도로 봉명리 새말에서 경기도 소방학교 계곡 물을 합류하여 고속도로를 통해 진위천에 유입된다.

### 상덕천

이동면 서리 상덕 코리아CC 가물랑골 물이 부아산 서남쪽 물과 모여 상덕 저수지로 영입되어 동쪽으로 흐른다. 학교개 물과 사기막골 물이 합류하고 함봉산 서북쪽 삼봉고개 물이 하반에서 합류하여 천리에서 샘골천과 합류하여 묵리천과 만나며 진위천의 주천이 된다.

### 샘골천

함박산 남쪽 노루실을 통한 물은 은화삼CC 남쪽 골짜기 샘골에서 만나며 숙대연수원 아래 골짜기 물이 합류하여 샘골에서 상덕천에 합류한다.

### 완장천

함봉산에서 발원한 물은 서쪽 완장저수지 1 2호를 지나 매릉동에서 서리고개에서 함봉산 동쪽 물과 중동에서 합류하여 매릉동에서 합류하여 남쪽으로 흐른다. 창리 꽃골마을에서 시작한 물은 창리저수지를 통해 완장천으로 유입되며 방아리 후촌 물도 진위천으로 유입된다.

### 묵리천

시궁산 남동쪽 계곡에 시궁샘을 발원지로 계곡을 통해 거문정으로 흐르는 물은 장촌 골짜기 물과 합류하여 굴암을 지나 한덕골 물과 합류하여 용덕 저수지에 유입된다. 용덕저수지물은 서쪽으로 흐르다 염티고개물과 적동마을에서 합류하여 45국도를 지나 서리천과 만나 진위천의 본류가 된다.



## 6 한천이라고도 불리는 목신천

| 목신천 (한천)~11.2km



삼학사 오달재 선생이 태어나실 때 땅의 기운을 모아 풀이 말라 죽어 고초골이 되었다는 고초골저수지에 모인 물의 지류를 찾아가면 문수봉과 쌍령산이 비틀어 놓은 골짜기에서 목신천은 발원하여 2km 아래 고초골저수지에 당도한다. 저수지에서 0.8km 아래에서 문수봉 마애불 근처 옷샘(1.7)에서 발원한 지류와 합류한다. 다시 1.4km 쯤에서 쌍룡산에서 발원한 지류를 만나고 1.2km 흘러 쌍룡저수지(2.0km)로 향하여 본류에 합류한다. 이 물줄기는 고당리를 빙거 1.2km를 흘러 야광입구에서 고당리(2.1km) 성리물(2.0km)과 합하여 죽능리를 통해 목신리로 들어선다. 1.8km 아래 구봉산 북쪽 물과 등지골 물(2.9km)은 청룡학생수련원 근처에서 합수된다. 그리고 1.0km 아래서 원수골 진수저수지 물(1.5km)과 합하여 2.7km 벼루모퉁이를 돌아 경수사 입구에서 안성 고삼 저수지를 향하는 하천을 목신천 또는 한천이라 한다.



# 7 가을에 더 멋진 추계천

추계천(秋溪川)-6.8 km



가을에 추계리 앞개울의 흐르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추계천이라고 하는 하천은 지산CC 북쪽 동막이산에서 발원하여 식금리에서 오천 북하천에 흡수되는 용인의 동쪽 끝 하천이다.

지산CC 북쪽 동막이산에서 발원한 물은 1.6km를 내려와 평창 저수지에 도착한다. 저수지에서 2km쯤에 무수막 용구리고개(4km) 물과 합수되어 평창리를 지나 42번 국도 근처에서 마수고개(0.9km)물과 절골에서 출발한 물은 총신대학(1.5km)을 지나 영동고속도로를 질러 공세울 물은 제일초등학교를 지나 1km를 달려와 본류에 합류한다. 동쪽으로 흐르는 물은 1.7km에서 오봉산에서 발원,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서 2.7km 내려온 물과 합수하여 아래정수리고개에서 출발한 지류는 금곡마을과 식금리마을 앞을 통과해 봉배들을 지나는 식금천(3.9km)은 0.6km 아래에서 추계천과 합수하며 오천읍내를 흐르는 북하천으로 남한강의 한 지류가 된다.

여 백



# 제5장

## 용인시 경계 밝기

### \_향토순례

1. 굴암산-용인고개
2. 용인고개-간들보
3. 간들보-오산천보
4. 오산천보-능원농협
5. 능원농협-머내
6. 머내-발아산리
7. 발아산리-광고산
8. 광고산-버들치
9. 버들치-고속도로
10. 고속도로-경희대
11. 경희대-대한통운
12. 대한통운-석고개
13. 석고개-원암천
14. 원암천-장울
15. 장울-쌍령산
16. 쌍령산-석천리도로
17. 석천리도로-길마재
18. 길마재-구백암
19. 구백암-추계42국도
20. 추계42국도-굴암산출발점

## 개요

---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우리 땅에 대한 통일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반쪽이 유일한 조국이라고 살아온 우리에게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새로운 조국을 보며 놀라며 진실로 통일을 기원하고 염원해 본다.

우리 것에 대한 아낌과 지킴이 이기주의와 편협심의 차원이 아니라 더욱 아끼고 사랑하여 보존 보호하는 길이 결국 모두를 이롭게 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조국의 땅 중에서 우리의 선조가 살아왔고 내가 살아온 용인의 땅과 산과 강이 어떻게 생겼을까? 지도로 보면 빗긴 마름모형 모양 지형의 경계는 어떨까? 등등 용인을 알고 싶어 알아보고자 용인시경계 내 고향의 땅을 밟아본다. 평생 내가 살아왔고 죽는 날까지 살아가고 싶은 또 우리 후손이 살아갈 고향의 산하를 연구하여 더 나은 미래, 살기 좋은 용인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용인 향토순례 시경계 밟기를 시작한다.

1-10구간 + 11-20구간 = 1- 20구간

67.1km + 106.9km = 174 km

[1-10구간 거리 조건표]

표(구간)	굴암산										
1	8.5	용인고개									
2	14.7	6.2	간들보								
3	18.4	9.9	3.7	오산보							
4	25.3	16.8	10.6	6.9	능원농협						
5	33.5	25.0	18.8	15.1	8.2	머내					
6	42.2	33.7	27.5	23.8	16.9	8.7	바라사리				
7	45.6	37.1	30.9	27.2	21.3	13.1	4.4	광고산			
8	51.6	43.1	36.9	33.2	26.3	18.1	9.4	5.0	버들치		
9	57.0	48.5	42.3	38.6	31.7	23.7	14.8	10.4	5.4	영동고속도로	
10	67.1	58.6	52.4	48.7	41.8	33.6	24.9	20.5	15.5	10.1	경희대



# 1 굴암산-말아귀리산-용인고개

굴암산-0.6-말치고개-1.3-소목재고개-0.5-삼각점-0.9-말아귀리산-0.3-성황당고개-0.7-마락산-0.6-활공장-0.8-별떡산-0.7-정광산-0.5-노고봉-1.6-용인고개(8.5km)

산은 아름답고 우리에게 몸과 마음의 안식을 주는 곳이다. 못 사는 친정보다 가을 산에 가는 것이 낫다는 옛말이 있다. 요즈음은 보약 한재 먹는 것보다 등산하는 것이 보약 중에 보약이란단다.

용인시경계 밟기는 동쪽 용인의 큰 터(한터)에서 시작하여 시계반대 방향으로 길을 중심으로 걷기로 마음 정하고 출발한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한터)에 있는 굴암산은 용화산(미래 부처 미륵(용화)사상의 사찰 용화사가 있음)이라고도 부른다. 원래 산중턱에 굴이 있는데 굴에다 불을 피우면 멀리 광주 곤지암에서 연기가 난다하여 굴암산으로 부르게 됐다. 굴암산에 오르려면 지금은 별장지로 변한 용화사 뒤로 오를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을 택한다. 한터캠프 운동장을 질러 굴암산 서쪽으로 가파른 산길은 가랑 앞(낙엽)을 밟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르면 오른쪽 능선에 도착한다. 379.5고지는 삼거리로 한터캠프에서 만든 제2봉 정상이란 팻말이 있다.

용인시 양지면 대대리와 광주시 도척면 추곡리 경계인 굴암산(용화산)에서 용인시 향토순례의 일환으로 용인시 경계 밧기를 시작한다. 먼저 향토순례에 앞서 시작하는 기분으로 등산 컵에 청수를 올리며 굴암산 및 용인의 모든 산신께 예를 올린다. 푸른 숲속에서 후디티새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출발하라는 신호음을 보내온다. 출발한 산길은 숲속으로 이름 모를 야생화 사이로 이어진다. 낮 익은 은방울 꽃이 예쁜 방울을 딸랑딸랑 흔든다. 언덕으로 올라서면 굴암산에서 제일 높은 382.6고지에 정상이란 팻말이 있다. 능선길은 왼쪽으로 내리막길이다. 다시 올라서는 능선이 말치고개(대대리 음달안이-도척 말치고개)이다. 말치고개 이야기가 생각난다.

옛날 이곳에서 장례가 있었다. 광중을 파는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말하길 “광중을 한금정 덜 파라”고 하였다. 산역꾼들은 이 말을 무시하고 한금정을 더 파려는 순간 광중 속에서 땅기운이 솟아오르며 말 형상으로 고개를 넘어 갔다 하여 그때부터 말치고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시경계는 계속 마루금으로 이어진다. 그리고는 임도와 차량이 다니는 길을 만난다. 옆에 성황당 터가 있다. 산마루를 자른 길이 소목재고개(대대리 음다라니- 추곡리)다. 능선에 오르면 벗나무 한 그루가 있는 삼거리 봉 415.9고지다. 뒤돌아 보면 전망이 좋다. 양지면 숲원이 유림동 고림동에서 이어진 능선과 만나며 마루금인 시경계 길은 계속 북쪽으로 이어진다. 긴 능선은 말아가리산으로 오르기 전 쇠내실에서 추곡저수리를 잇는 넓적고개에 도착한다. 쇠내실에서 이곳까지 오르는 길엔 아름다운 작은 연못 그리고 용인의 상징 나무 아름드리 전나무가 많은 곳이다.

용인에서 제일 높은 말아가리산을 향해 힘들게 오르다 보면 오른쪽에 중절모 모양의 큰 산 태화산이 동행하는 것 같다. 이곳부터 오르막길은

심상치 않다. 등산로에서 첫 산마루 봉이 정락봉이다. 그리고 조금 올라 서면 산마루에 광주시에서 만든 이정표는 광주 백마산에서 태화산까지 나무로 만든 이정표가 있다. 이곳이 김랑고개, 동쪽의 연지봉과 태화산으로 가는 길목이다.

이곳에서 바위능선을 통해 용인의 제일봉 말아가리산에 도착한다. 정상(595m)은 바위가 있고 옆으로 돌무더기 위로 나무로 만든 이정표와 태극기가 있다. 마구산 595 산을사랑하는사람들이 만든 나무표식 정상목이다. 정상목 앞으로 용인시에서 2008년 11월에 만든 정상 표지석엔 마구산(馬口山)이란 한문글씨와 뒷면에는 한글로 마구산 595m 용인시라고 음각되어 있다. 그러나 마구산은 말아가리산을 한문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 옆에 철판으로 마구산악회에서 만든 정상표식도 있다. 이 산은 포곡읍 유운리서 보면 말이 입을 벌린 말 아가리 같다 한데서 유래한 이름으로 자칭 유식한 분들이 한문인 마구산으로 부르고 있다. 마구산보다는 우리 말 말아가리산으로 부르는 것은 어떨지.

남동쪽으로 중절모 모습의 광주의 태화산과 앞에 연지봉(헬기장)이 동쪽에 있다. 태화산에서 말아가리산까지 봄에 멋들어진 철쭉꽃이 필 때는 즐거운 꽃 산행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말아가리산 정상에는 바위 아래로 삼 고라니 노루 등 배설물이 있었고 바위 옆으로 일엽초가 보인다. 일엽초는 잎 뒤로 포자가 일렬로 선다고 한다. 말아가리산은 용인의 생태의 보고다. 봄에는 산나물 등 수목 그리고 야생화 등이 다채로운 곳이기 때문이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흐린 구름을 밀어내 즐거운 마음으로 산경을 볼 수 있었다. 산에선 산짐승 날짐

승이 놀란다고 큰소리를 지르지 말라는 산악인들의 말을 알면서도 새로운 기분으로 용인의 최고봉에서 호연지기를 한다. 야호! 야호! 야야호!

말아가리산 운무 속에서 산음가를 부르며 가파른 북쪽 내리막으로 출발한다. 하산은 가파른 절벽으로 내려선다. 바위를 지나며 미끄러지듯 내려서면 말아가리산의 다양한 식물을 만난다. 새로 움쑥는 이름 모를 잡풀 사람들이 장삿속으로 베어간 엄나무 옷나무의 잔해들이 안쓰럽다. 그리고 도착한 고개가 성황당고개(광주 터골- 대대리 통점)이다. 15년 전 쯤에는 이곳에 오면 사금파리 웅기 조각 등이 있다. 지금은 돌무더기만이 남아 있다. 보통 성황당엔 개복송아나무가 있다고들 한다. 개복송아 나무를 만져 술을 담아 마시면 허리에 좋다고들 일부러 찾는 분들도 많다.

겨울이나 초봄에는 급경사 길을 조심해야 한다. 응달에 습기가 많아 눈길과 잔설로 미끄럽고 위험하다. 성황당에 돌 하나를 정성으로 올려 놓는다. 임도가 옆으로 지나간다. 임도는 산허리로 산을 돌아간다. 임도를 따라 내려가면 포곡면 금어리 통점마을로 이어지는 하산길(나들목, 날머리 들머리)이다. 성황당 고개부터 마락산으로 오르는 길은 경사가 심하다. 가파른 능선으로 오르면 민둥봉 위에는 삼각점이 있는 마락산(475.4m)이다. 뒤돌아 보면 위로 보이는 말아가리산 때문에 마락산이 높은 느낌이 없다. 멀리 북쪽으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 보인다. 마락산을 뒤로하고 내려서며 왼편에는 상부곡에서 오르는 넓은 길로 패러 팀이 차량으로 올라온다. 바리나무고개, 올라선 곳이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 있는 바람냉이산(473.5m)이다. 아래 바람냉이 고개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산으로 오를도 주말이라 수십 명의 패러 동호인들이 바닥을 덮개로 덮은 활공장에

서 하늘을 나는 기분을 만끽하고 있다. 활공장에서 보는 전망은 거침없이 용인 모습을 열어주고 있다. 활공한 패러는 하늘을 날다 산 아래 용인시 휴양림을 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산 아래 부계라 불리는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라서 부계울이라 부른다. 부계울에는 도암 이재 선생이 썼다는 휴암(休岩) 그리고 초서체의 탁영(瀟纓)은 '갓을 빨다'라는 말로 중국에서 연유된 말로 깨끗함을 상징한다. 전에 부터 삼단폭포 계곡 주위의 물이 맑고 깨끗한 곳으로 많은 시민이 찾는 곳이다.

북쪽으로 보이는 바위 위에 안테나 풍향계가 있는 바위가 형제바위다. 길옆에 구조물은 무인음성기기 방송시설로 산불감시와 정보를 알리는 구조물이다. 이어지는 바람냉이고개(광주 소태골-초부리) 바위를 따라 오르면 바위봉이 큰 산(517m)이다. 마락산까지 이어온 방화선 흔적 때문에 산길은 넓은 길로 변해 시경계 길은 발이산까지 편하게 이어진다. 이제부터는 용인에서 맛볼 수 있는 암릉 길이다. 용아릉(설악산), 자연성릉(제룡산), 사다리병창(치악산)만은 못해도 산길은 바위를 오르고 내려야 산행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바위능선이 끝나며 내려선 안부는 털썩한 안부로 쉽터이다. 꽃다지와 노란 꽃냉이는 하얀 꽃을 피우며 봄을 부르는 꽃이다. 매미 날개 같은 씨가 맺힌 열매가 달리면서 잎을 벌리며 조금 퍼지면 신나무, 반쯤 열려 있으면 단풍나무, 다 열려 있으면 고로쇠나무이다. 마줄기와 담쟁이가 나무를 감고 올라간다. 용인의 3대 봄꽃의 전령을 소개하면 이곳 벌떡산에 있는 복수초 운학리 형제봉의 바람꽃 광고산의 노루귀가 용인의 봄의 전령이다.(양춘모 님)



몇 년 전만해도 이곳을 지날 때면 가시나무(산초)가 온몸을 찌르곤 했는데 지금은 훌쩍 자란 산초나무가 길옆에서 보초를 선다. 이어 오른 외딴 봉우리 별떡산(510m), 무었에 놀라 우뚝 섰는지 외로워 보인다. 걷기 편한 산길을 내려서면 472고지는 헬기장으로 변해 있다. 앞에 높아 보이는 산이 정광산이다. 헬기장에서 내려선 곳이 정강이고개(초부리- 정강이 광주)이다. 정강이고개에서 상부곡으로 내려서면 아름다운 초부리 계곡에 삼단 폭포와 용인자연휴양림을 볼 수 있다. 동근 정상봉우리에 모현 왕산 초등학교 동문 동심회에서 만들어 놓은 정광산(562m) 표지석이 있다.

“앞만 보고/ 달려올라/ 험레벌떡/ 뒤를 보니/ 별떡산은/ 어느새/ 저 멀리/ 벌떡/ 자빠져 있네”

서쪽으로 내려서는 길은 하부곡으로 약천 남구만 선생의 묘로 이어 45번 국도로 연결되는 긴 등산로이다.

정광산은 정광사라는 절에서 유래된 산으로 서쪽에서 볼 때 노고봉과 바위봉으로 이어진 산세가 매우 좋은 산으로 알려져 있다. 서쪽으로 쪽동백나무가 여러 그루 보인다. 작은 봉을 두 개 넘으면 500m쯤에 모현면의 최고봉 노고봉에 도착한다. 삼각점이 있는 용인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으로 외국어대학교 직원산악회에서 만든 표지석이 있고 산 중심에 빛바랜 표지목이 노고봉 정상목이다. 남쪽 정광산, 동쪽 새재달음산(광주) 바위봉이 합해져 서쪽 45번 국도에서 보면 넉넉한 품을 가진 노고봉을 모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알게 된다. 노고봉 아래는 맑은 물이 흐르는 갈월저수지가 있다. 갈월은 연산군 때 홍철이란 분이 연산군에 폭정에 실망하여 벼슬을 버리고 이곳에서 칩녕쿨로 의관을 차려입고 선정을 베풀어 달라고 기원을

했다하여 홍철골에서 갈곡으로 갈월 갈담에 갈자가 생겼다고 한다.

시경계는 계속 북서쪽으로 이어져 삼각점이 있는 작은 봉을 넘으면 바위봉이 있다. 봉우리는 전망대다. 북서쪽의 모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아래로 구만이산 달기산이 경안천과 어우러져 보인다. 바위 아래로 스키장 리조트 공사로 길을 돌려놓아 왼편으로 돌아 내려서면 양쪽으로 줄을 매어 등산로를 만들어 놓았다. 왼편 길은 넓은 등산로로 노고봉에서 모현면 왕산리로 통하는 하산로(날머리)이다. 임시로 만든 양쪽 줄 사이로 계단을 통해 산길을 내려서면 노고봉의 뒤편을 깎아 만든 스키장 슬로프가 한눈에 들어온다. 산능선 길에는 방화선을 칠 때 잘라내지 않은 잘 생긴 미인송이 많다. 작은 돌봉에서 스키장을 내려다보면 요즈음은 스키보다 보드를 더 많이 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진달래꽃이 보이고 방화선을 칠 때 만든 화단에 영산홍 철쭉이 있다. 진달래는 벚꽃처럼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핀다. 작은 나무에 걸쳐진 등근오목눈이새 동지가 바람에 흔들린다. 새집(새둥지)을 접해본 지 얼마만인가. 신기하기도 한 입 벌린 동지를 들여다보니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진다. 옆에 썰기 집이 어찌나 파란지 산 속이 전부 초록 같다. 이어 내려서면 스키장으로 연결된 돌고개다. 가을엔 갈대가 많아 멋이 있던 곳이다. 왼쪽으로 내려서는 계곡은 외국어대학 학생회관 도서관 쪽으로 흐르는 실개천길이다. 이어서 한참을 오르고 내리면 넓은 안부에 서 있는 이정표에 도동리 표시가 보인다. 용인고개(광주 도동리-왕산)가 지금은 외국어대학교 안으로 연결된다. 오른쪽 길은 스키장으로 연결된 도동리길이다. 왜 여기를 용인고개라 하는지 궁금하다.



## 2 용인고개약사사-간들보

용인고개-0.7-발이산칼림길-1.8-약사사칼림길-0.3-약사사-  
0.4-곰들고개-0.5-성황당-0.6-공동묘지-0.5-45국도-0.4-  
경안천-1.0-간들보(6.2km)

용인의 산은 아름답다. 모습에 따라 계곡과 능선으로 이루어지는 산들은 계절에 따라 빛깔이 더욱 아름답다. 산 속에 숨어있는 풀과 나무 꽃과 열매 그리고 그곳을 가르는 계곡수는 겨울을 토하는지 냉랭함마저 느껴진다. 그 속에 묵묵히 산을 지키는 바위는 힘과 무게를 느끼게 하며 자연 속에 마음껏 살아가는 산짐승 날짐승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도 자연을 더 아름답게 한다. 그리고 바람 비 눈 운무까지 더욱 자연의 신비를 느끼게 한다.

용인고개는 넓은 평지에 사거리다. 광주에서 만든 이정표가 방향을 가르쳐 준다. 녹슨 철망을 따라 북쪽으로 오르는 길이 시경계로 작은 봉을 두서너 개 넘어 올라가는 산이 발이산이다. 발이산 중턱에서 왼편으로 갈림길로 시경계가 이어지며 왼쪽 산 아래로 내려서는 시경계 길은 걷기에 편하다. 서쪽으로 이어지며 아래로 광주공원묘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시경계는 계속 묘원을 끼고 내려선다. 그리고는 묘원 내 큰 길로 이어지며 묘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 같은 산길에 선다. 매산저수지를 낀 묘원

은 혐오시설이라기보다는 좋은 느낌을 주는 자연의 한 부분 같다. 이어 산길로 묘원 내 사찰에 도착한다. 나한전 요사채를 지나 시경계는 서편으로 내려선다. 왼쪽 계곡 아래 외국어대학에서 들려오는 음악소리 앰프소리가 용인의 경계를 느끼게 한다. 산길은 오르막 그리고 또 오르면 258.5고지에 쉼터가 있다. 쉼터를 지나면 시경계가 여기라는 선답자의 리본이 보인다. 이곳에서 길을 잘 찾아야 하며 오른쪽 길로 내려선다. 나무 사이로 약사사 지붕이 보인다. 내려서면 미륵보살상 뒤를 통해 시경계는 이어져서 약사사 대웅전이 눈에 들어온다. 약사사는 광주공원묘원에 있는 영혼들을 극락으로 보내려고 지은 절 같이 호수와 묘원과 사찰이 조화를 이룬다.

매산저수지 파란 물결/ 따듯한 봄향기/ 바람에 실어/ 내 마음 닦아준다.

약사사에서 바라본 광주공원묘원은 매산저수지와 봄빛과 잘 조화되어 한 폭의 그림이다. 입구의 소나무 숲과 호수는 묘지가 혐오시설이란 표현과는 달리 이웃과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리고 약사사에서 울리는 경소리가 묘원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는 듯 하며 여유마저 느끼게 한다.

약사사를 출발하면 소나무 숲을 지나 싸리나무철망으로 내려서면 곱들고개에 도달한다. 차량이 다니는 길로 왕곡에서 비아메기골 삼영산업 옆으로 넘는 고개다. 용인 쪽으로 산에 붙은 집 쪽으로 내려서면 고개 너머로 시경계는 수종갱신을 하느라 산 전체가 벌거숭이로 한술(한국소나무)을 모종하여 심어 놓은 나무 사이 길로 올라선다. 넓고 긴 공터 길로 가면 오른쪽으로 철망을 지나친다. 광주 쪽은 전나무조림지에 묘지로 이어진다. 이어 선황당나무가 있는 서낭고개다. 돌무더기에 또 돌 한 개를 고이고 침을 뱉는다. 시경계 길은 소나무길로 여러 곳 갈림길이 나오지만 계

속 오른쪽 길을 택하면 된다. 경계길은 서쪽능선으로 이어진다. 붉은 진달래와 흰색의 조팝나무꽃(길가에 흔연히 피는 흰색의 봄꽃)이다. 길 옆으로 공동묘지에서 모현이 내려다 보인다. 멀리 경안천 옆 세심정이 보인다. 망객들께서 매일 세심정으로 달려가 마음을 닦고 지내시니 이곳에 묻힌 영혼은 신선이 아닌가? 이곳에서 보이는 물은 역수(북쪽으로 흐르는 물)이며 앞 안산은 일자문성(책상 모양으로 문인이 태어날 형상)으로 우측의 문필봉이 여럿 있어야 하는데 하나뿐이라 약하며 가운데 계곡으로 올라오는 바람이 굽어 왼편 내령이 산소로는 좋은 곳이나 전면의 바람이 부딪치는 이곳에 내령은 제설관이 길어야 시신이 다치지 않으며 뒤가(주산) 약하므로 왼쪽 산 중턱에 쓴 묘가 좋아 보인다. 어느 풍수의 말씀이다. 양지 바르고 땅이 쉴 만한 곳이니 음택 양택 모두 좋은 곳이 아닌가?

돌자개부터 일산리와 멀리 수지 대지산까지 훤히 내려다보인다. 그리고 45번국도가 보이는 작은 빌라를 끼고 전나무 앞 산다랑이로 내려서면 느티나무를 끝으로 45번 국도에 다다른다. 발이봉에서부터 따라오던 매자리천의 물은 이제 매산교를 지나 300m쯤에 용인천에 이른다. 독산마을 산이 홀로 있다 하여 독산마을이 생겨났으며 독산마을을 관통하는 매자리천은 용인쪽 수로는 시멘트로 만들었지만 광주시의 수로는 자연석으로 만들어 곱게 자란 풀들이 독으로 가득하다. 넓은 강 같은 용인천을 가로지르는 물막이 독산보(경안보)를 지나 독방에서 멀리 빗겨 막은 간들보에 도착한다. 간들보 아래 모래밭엔 자라들이 많은 곳이다. 물하면 고기 생각이 난다. 용인은 물고기가 많아 여름 천렵은 용인 사람이면 모두가 동경하는 옛 이야기다. 빗겨 막은 긴 간들보가 시경계다.



## 3간들보-오산천

간들보-0.8-가일삼거리-0.4-홍계희묘-0.7-43국도신길  
(동쪽)-0.9-43국도(서쪽)-0.9-오산천보(3.7km)

길을 떠날 때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나 나보다 한 수 위인 사람과 떠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내가 맛보지 못한 체험담과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산 따라 바람타고 물에 실려 정이 가는 이웃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그네처럼 길에 오르면 어떨까, 시경계밧기 산천경계 성지순례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 신성한 마음 새로운 견문 신비한 대자연의 경관 발전하는 도시모습 고유한 우리지방의 미풍 고결한 예법 등 이 모든 것은 참신하게 살아가는 소시민의 삶을 더욱 신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계 밧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경안천이라 불리는 하천은 용인천이라 불려야 하지 않을까? 용인시 처인구 동부동 용해곡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용인시내를 통해 용인의 북쪽 유림동 포곡읍 모현면을 관통하여 이렇게 멀리 용인을 통해 왔는데 하천 이름이 왜 경안천인가? 용인사람인 나는 되도록 용인천이라고 부르고 있다.

150m 빗겨 막은 간들보를 조심해서 건너서 간들보를 지나면 둔덕으로

비닐하우스 길을 따라간다. 경안천으로 이어졌던 시경계는 이제 비닐하우스 사이 시멘트길로 이어진다. 앞에 작은 전설의 산이 있다. 통피(산)는 어느 해 큰 물 난리가 난후에 어디에선가 떠내려 왔다. 마을은 풍수적으로 약점이 있는 곳을 통산이 막아주고 있다는 비보의 산의 일화다. 78m의 통산은 모습이 고래 같다하여 고래산으로 더 알려져 있다. 공장지대를 지나 가일상회 뒤로 시경계인데 거대한 골프연습장이 들어 앉아 오를 수가 없다. 왼쪽 집 사이에 골프장으로 올라서면 골프장 옆으로 산 능선을 끼고 작은 잔디 골프 연습장이 길을 막은 가일고개다. 전엔 잣나무도 많았는데 지금은 다 파헤치고 자동차학원 미니홀 골프연습장이 되었다. 시경계선이 막혀 왼편으로 동네 길로 들어서며 산다랭이에 홍계희 선생의 묘지가 있다. 홍계희 선생의 묘(향토유적 39호)는 이곳에서 구능으로 불린다. 능이란 원래 원이나 묘와는 달라 임금 왕후 왕비에만 쓰는 용어인데 구능이라고 쓰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이 분에 대한 존경심이 아닌가 싶다.(자연마을기행 중에서)

묘 앞에는 석물로 양두마리 망주석 옛것 1개 추후로 만든 것 2개 상석과 비석에는 비문을 감추려 비문을 쪼아버린 모습이 8군데나 보인다. 묘를 끼고 능선으로 오르면 산 너머 공장을 만난다. 산꼭대기까지는 절개지로 경사가 심해 조심을 요하는 경계길이다. 정상에서 계속 서쪽을 고집 하여야 한다. 새로 생긴 큰 길에서 굴다리를 통해 길을 통과하면 오른쪽 숲으로 광주시의 독립유공자묘 표식을 지나 옆 산으로 잘 조성된 묘지로 오른다. 왼편으로 대단위 공장 건물들이 즐비하다. 서쪽 산 능선까지 건너서야 하는데, 전에는 건물이 없었지만 지금은 맞은편 능선으로 가기가 어렵

다. 묘지 옆으로 절개지에 나무로 만든 울타리 끝에 주유소 뒤로 돌아 내려선다. 길 건너 주유소 옆 산다랭이 숲으로 가야 하지만 큰길이 가로막혀 있다. 건물 사이 한국항공전문학교 앞에 모현면 매산리 26-6 편지함을 보며 이곳이 용인이라는 사실을 증명 받고 다시 왔던 굴다리를 넘어 주유소로 향한다. 주유소 서쪽 끝에 산다랭이로 시경계는 잣나무가 많은 산길이다. 남쪽으로 잣나무 숲속으로 이어진다. 오른쪽으로 광주 종말처리장이 한눈에 들어오고 깊이 파고 들어온 절개지를 피해 올라서면 정상에 소나무가 홀로 있는 산이 봉배산이다. 이어 오른쪽 비탈길로 계곡으로 내려서면 전에 있던 큰 묘지는 도로 확장으로 없어지고 묘지 하나만 있다. 스테인레스 난간을 잡고 시멘트계단으로 내려서면 용인과 광주시계이정표가 자리하는 4차선도로다. 시경계는 아니지만 모현초등학교를 지나가며 하마산 쪽으로 최 씨 여인의 정려비와 비석이 있다.

#### 열부 최씨 정려비, 열녀비

본관은 강화이며 이선양의 처가 최씨이다. 그의 남편이 역질로 자리에 누워 위독할 때 여러 가지 약과 비방으로 간호하였지만 차도가 없었다. 산신에게 정성을 드렸고 피접도 해 보았으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운명 직전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손을 단지하여 수혈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남편은 최씨의 정성도 모른 채 운명하였다.

남편이 임종할 때 남편이 사용하던 허리띠를 풀어 몸에 간직한 후 남편의 장례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절차를 끝마쳤다. 마침내 장사날이 찾아 왔을 때 미리 간직 했던 남편의 허리끈으로 목을 매어 남편의 뒤를 따랐다. 이 일이 인조에게 알려져 인조19년(1641년) 정려의 은전이 내려져서 그의 외증손인 유수가 묘문비와 열녀최씨 정려비를 세웠다.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시경계 근처에 있다.





## 4 오산천-하월미당-능원농협

오산천보(43국도변)-1.3-건너고개-1.0-첫봉-0.7-할미당-1.0-  
전나무(노인정입구)-1.0-오산보 -0.6-동림 1교-0.4-다랑고개  
-0.9-능원농협(6.9km)

용인시 경계에 들면 편안함을 느낀다. 찾아들 때부터 흡족하고 넉넉한 생각이 든다. 고향의 산하는 글자 그대로 어머니 품이다. 고향의 산은 가까이 있어 눈에 익고 산행 자체도 시간에 쫓기지 않아서 좋다.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가방을 메고 식수정도 챙기고 달려도 보고 걸어도 느낄 만큼은 다 보여 준다. 금강산이 금강 봉래 풍악 개골로 계절에 따라 모습과 이름을 달리하지만 우리고향의 시경계에서 만나는 산과 들과 개울 등도 철마다 접할 때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니 즐거운 마음으로 쉽고 편안하게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 용인의 산하는 더욱 좋다.

앞에 오산(능원천)천 물막이 보를 따라 오산천을 넘어서면 지도상엔 넓은 공터가 광주땅으로 되어 있지만 하천이 변해 독길로 시경계가 이어진다. 진해곡 참바다라는 이야기 진=참 해=바다 마을 명칭과 유래를 음미해 본다. 빌라와 공장을 끼고 독 길로 돌아서 산다랭이에 도착하면 네모반듯

한 발이 전엔 연못이다. 수종갱신과 묘지조성으로 만들어 놓은 산길로 묘지를 통해 산 위로 오르면 넓은 공터는 전엔 묘지였던 곳이 이젠 정상상의 상징처럼 변해 있다. 공터인 산 위에서 동편으로 바라보면 처음 시작했던 굴암산 말아가리산 정광산 노고봉이 쪽 이어져 보인다. 저 산들을 내가 지나쳐 왔다니! 하는 뿌듯한 마음 가득 추억을 안고 출발한다. 후닥닥 날개 치는 장기(수평)의 날아오름이 나를 놀래킨다. 벌써 몇 번째인가. 전에 개기르던 곳에 가족 묘지를 잘 만들었다. 산 아래로 별장지만이 멋을 부린다. 별장 너머로 용인시 상수도사업소의 모습이 보인다. 이어 넘어서면 넓은 공간이 건너고개길로 모현 매산리 굽은골에서 문형리 안골로 이어지는 고개다. 몇 개의 보기에 좋지 않은 이정표가 있는 곳으로 내려선다. 이정표를 정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나무아래에 앉아 더위를 식힌다.

길 옆으로 외딴 건물이 예담마을(청지기재단) 빌라다. 능선으로 오르면 또 공장의 절개지를 따라 올라서야 한다. 산능선에 오르면서 43번국도와 멀리 공원묘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내려오는 산길 오른쪽으로 소나무 숲이 뽁뽁하고 길 옆으로 뱀바위가 있다. 오르막엔 흰 줄을 매어 놓은 산으로 고개 넘어 고압철탑을 지나면서 능선은 할미당 산길을 오른다. 오르며 만난 바위봉은 뽕죽뽕죽 영성한 바위봉이지만 친해지고 싶은 쉽티다. 산속에서 바위를 만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다. 이곳부터는 나무는 흉물스럽게 생겨 무섭기까지 했던 나무군락지다. 서어나무란다. 서어나무가 산다는 것은 극상림으로 원시림에 가까운 생태림이란다. 생긴 모양을 봐서는 영 아닌데 전에 이 나무가 생긴 모양이나 쓰임 자체도 별 볼 일 없어 거기 서어 있으라고 해서 서어나무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재미있다. 나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나무 이름이 궁금 했었는데 나무를 알고 나니 서어나  
 무가 새롭게 보인다. 전에는 괴물나무라고 불렀었다. 이후에는 용인의  
 서어나무가 많은 곳을 기억하게 됐다. 급경사로 오른다. 갈림길로 오르는  
 정상 길에서 보이는 독수리모양의 바위가 망바위다. 망바위 위에 서면 숲  
 속으로 보이는 자연의 파노라마는 오른 자만이 느끼는 즐거움이 있다. 망  
 바위 옆이 할미당산 정상이다. 주위 사람들은 동쪽의 산을 할미당 서쪽의  
 산을 굴아이라 부른다. 할미당은 전에 한 할머니가 움막(당)을 짓고 살았  
 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굴아이는 굴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정상엔  
 나무를 기댄 돌탑 생나무를 잘라 만든 의자가 모두가 이채롭다. 내려서면  
 오른쪽으로 갈림길이 시경계길이다. 직선으로 오르면 레이크사이드CC  
 옆으로 향수산으로 통한다. 큰 바위 아래로 내려서면 낙타바위를 지나며  
 길은 더욱 미끄러지듯 내려선다. 이곳 능선에서 갑자기 고라니가 앞으로  
 치고 나온다. 할미당에서 굴아리로 넘어 선 것이다. 경계란 아주 넓고 먼  
 것이 아니라 구별하는 선에 불과한 것이다. 내리막길은 왼쪽으로 묘지를  
 지나며 산 아래 묘지(지금은 이장을 많이 했고 건물이 들어설 모양이다)  
 오른쪽이 시경계다. 왼쪽 멀리 묘지 옆 별장이 보인다. 별장지를 조성한  
 곳으로 내려서며 큰 전나무 앞 공장 옆으로 허술한 집 사이로 내려서며  
 멀리 300m쯤에 민간기동대 컨테이너 박스가 보인다. 이곳에서 박스까지  
 직선으로 시경계다. 경계는 아니지만 공장을 피해 왼쪽으로 돌아가면 느  
 티나무아래 경노당이다. 길은 동림식당과 삼거리상회 앞으로 시멘트길이  
 시경계다. 원래 이곳은 시멘트로 수로를 덮어 길을 만든 곳이다. 산 쪽은  
 용인 땅이고 하천 쪽은 광주 땅이다. 산다랭이 아래 흰색 큰 건물이 광주

땅 퇴치미 마을이다. 수로입구 산 아래 능원천을 가르는 물막이 보가 있다. 오산천이 경계다. 산으로 진입이 곤란하다. 물막이보를 넘을 수 없으므로 아래로 보이는 동림교를 통해 능원천을 넘어선다. 이곳부터는 오산천을 끼고 독으로 지나칠 수밖에 없다. 하천이 시경계이기 때문이다. 오른쪽에 모래채취장을 지나 다리를 건너 공장사이로 오르면 영일정씨 선산에 묘를 쓰지 말라는 표지판을 지나 황산과 오른쪽 조막봉(다람산) 사이로 다랑고개길이다. 고개 넘어 새로 생긴 신작로가 길을 막는다. 빙글 돌아서 가는 길이 용인과 광주가 길 하나 사이로 갈린 동림리 왕림이다. 상가에 새겨놓은 전화번호는 오른쪽은 광주번호 왼쪽은 용인 전화번호다. 그리고 만난 길가 들메나무는 시보호수다. 전에 크고 멋진 나무가 속이 썩어 죽어갈 때 동림리 한 식당주인이 막걸리를 썩는 곳에 계속 뿌렸는데 그 후 나무가 살아나 지금처럼 동림리가 자랑하는 보호수가 됐다. 가지를 너무 많이 잘라 전에 우아했던 옛 모습이 사라졌지만 멋진 나무임은 틀림없다. 나무 옆 동림1리 마을회관은 아이러니 하게 광주땅이란다.

남의 땅에 내집 짓고 사는 것이 배짱이 아니라 사람 사는 정이 아닌가. 독길은 전에는 무궁화 등 꽃밭이었는데 지금은 시멘트벽으로 위험을 미리 방지한 듯 보인다. 하지만 도시 미관도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각박해 보이는 시멘트문화를 벗어나고 싶다. 능원농협 옆 계단을 통해 능원천을 넘어서면 오른쪽에 시경계 표시가 보인다. 더위와 긴 도보로 피곤하게 시경계를 밟으니 고향을 지키려는 사명감이 다시 샘솟는다. 즐거운 표정을 짓노라니 “희망찬 삶은 밝은 얼굴에 늘 미소 짓게 한다” 는 성인의 말이 실감 난다.



## 5 능원농협-숫돌봉-수지벽산-머내

능원농협-1.6-유청약수-0.6-숫돌봉 1-0.4-숫돌봉 2-1.0-대지산-0.4-앞산-1.2-범봉-0.4-범봉고개-1.0-탄천-1.6-머내(8.2km)

5월에는 용인에서 제일 큰 축제인 포은 문화제가 열린다. 오늘 시계 밟기는 포은 정몽주 선생의 묘소가 보이는 숫돌봉 코스다. 모현면은 현인을 사모하는 마음의 고장이다. 면 이름도 그래서 모현이다. 포은 정몽주 선생의 영일정씨 이택형 선생의 연안이씨 남구만 선생의 의령남씨가 모현의 3대 명가라는 이야기가 있는 곳이지만 오산리는 해주오씨 산이 있는 곳이라 오산리라 불리는 곳이다. 오씨 문중 묘소에는 원삼면 학일리에서 태어나신 삼학사 오달재 선생의 묘소가 있다. 사당은 남한산성에 있다.

광주 쪽에서 내려오는 신현천 물이 오산천으로 합치는 곳이 능원농협뒤가 왕림으로 시경계다. 34번국도 농협 앞길을 지나면서 개천 옆으로 능평교에서 개천을 따라간다. 300m쯤에 양지하이츠빌라를 끼고 왼편으로 돌면 느티나무군락지 가운데로 모현면에서 만든 등산로가 있다. 잘 만든 등근 나무계단을 따라 오르면 산다랑이 능선이다. 철망을 자른 흔적을 보며 오르면 운포거사 묘 옆으로 등산로는 이어진다. 만나는 묘는 영일정씨 묘

다. 영일정씨하면 포은 정몽주 선생과 출가외인 이야기가 생각난다. 능선은 남쪽은 갈참나무 북쪽은 전나무 군락지다. 용인시나무가 전나무인데 나무는 반대로 조성됐다. 능원초등학교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갈림길 이정표가 있다. 이어 오르면서 오른쪽 경계에는 광주 대지골에 별장촌에서 만든 철조망이 시경계 산길로 연결된다. 산을 오르는 동안 소나무 아까시나무 짙레나무 등 계속 수종이 바뀐다.

첫 봉을 지나며 철망을 벗어나면 237고지 고압철탐을 지나서며 나무계단이 있는 곳에서 왼편으로 바위 아래 약수터가 자리 잡았다. 운동기구 배드민턴장 넓은 터에 비닐호수에서 생수가 흘러 내린다. 많은 등산객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 생명수를 마신다. 위쪽으로 나무에 걸려있는 목판에 與靑水(여청수) 아래로 “새야 새야 어디 가니 여청수골 생명수 먹으러 胡停(호정) 누워 침 뺏지” 라 쓰인 목판이 있다. 누워 침 뺏지란 말이 이해가 안간다. 약수터를 깨끗이 하라는 뜻으로 해석해 본다. 전에 있었던 약수터는 바위로 메워 비닐파이프로 수로를 만들었다. 전에 보았던 아주 독특하고 느낌 좋던 약수터가 이곳에 어울렸는데, 예전에 목판을 보고 동네 분에게 약수터를 물어 보았더니 유청수라고 한다. 그래서 약수터는 물수 변 맑을 청(淸) 주로 쓰는데 왜 물수를 쓰지 않고 푸를 청(靑)을 쓰고 유를 왜 여라 썼냐고 물어 본 적이 있다. 이곳 골짜기는 선 바윗골 너른 바윗골 유청골(幽그윽할 유靑푸를청 幽靑水) 세 골짜기가 알려진 곳으로 목판의 이름이 틀린 것이라 한다. 산길을 따라 능선으로 오른다. 가파른 길로 오르면 뱀이 허물 밟는 모습을 한 물박달나무(자작나무과)가 많이 보인다. 이어 오른 곳엔 큰 바위 옆에 잣나무가 뻗뻗하다. 나무 사이로 잘

정돈된 정성이 담긴 종종 묘지는 모두에게 묘지 관리란 이렇게 하는 것이란 걸 보여주는 것 같다. 김 장군 집안 묘라고들 한다. 능선으로 올라서면 능원리로 내려서는 길을 지나서 벤치 및 운동기구가 있는 봉우리가 솟돌봉이다. 광주 쪽을 향한 세 개의 벤치가 있다. 전망이 좋은 곳이다. 이어 남쪽으로 다음 봉우리 등산로가 있는 삼거리봉이 솟돌봉이란다. 두 곳이 다 솟돌봉 같다. 두 봉 사이가 솟돌 같이 편평해 붙여진 이름처럼 어느 산이 솟돌봉이라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는 높낮이가 비슷한 봉우리가 몇 개 연결된다.

산이/ 너무 빨리/ 다가와/ 뒷산은/ 커녕/ 앞산/ 보기도/ 바쁘다. 능선에 오르면 왼편으로 철조망이 보인다. 철조망 아래로 오산리로 내려가는 셋길에 이정표가 있다. 철조망은 500m를 굽이굽이 울렁울렁 이어져 삼각점이 있는 대지산(326m)에 도착한다. 이어지는 철조망은 남쪽 대지고개 큰길로 이어진다. 대지산 정상엔 넓은 터에 벤치를 많이 만들어 놓아 등산객의 쉼터로 이용되는 곳이다. 상수리나무의 까치집에서 사방을 둘러보고 싶은 곳이다. 서북쪽에 큰 고압 첩탑이 보인다. 그곳을 향해 내려서다 보면 멀리 수지시내 빌딩숲 너머로 광고산 토끼봉 형제봉으로 이어지는 광고산릉이 한눈에 들어온다.

대지산에서 내려서는 길은 산책로같이 아주 좋다. 이곳이 광고설경(용인팔경)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곳이다. 내대지로 내려가는 길을 뒤로하고 올라선 고압선 첩탑봉(329m)은 원상복구를 하느라 작은 소나무를 심어 놓았다. 갈림길을 뒤로하고 내려서면 성남에서 만든 이정표엔 부천당고개 15분 휘남에고개 8분으로 쓰여 있다. 휘남에고개 쪽으로 시경계는

이어진다. 그리고 큰 평상이 보인다. 평상 옆으로 산에서는 불조심, 산에서는 금연, 등산로 외에는 출입을 금함이란 목판을 보며 내려서면 평상 앞으로 띄봉 450m 9분 골안사 표시가 있는 곳이 휘남에고개다. 내대지에서 성남 구미동(九美)으로 넘던 큰 고개다.

이어 내려서는 길은 바위가 섞인 내리막으로 갈래 길이 많다. 아무 길로 내려서도 된다. 가끔 나무 이름을 붙인 목판을 보며 내려서면 사각정과 운동기구 쉼터를 만난다. 대지마을 빌딩과 초등학교가 옆에 있다. 출발사이로 내려서면 갈림길이다. 구미동 산림욕 길이 넓지만 시경계는 용인시에서 만든 띄봉 이정표를 따라 죽전동으로 내려서면 된다. 왼쪽으로 현대 흙타운 아파트 나무담장을 끼고 내려서면 능선으로 이어지는 큰 다리가 있다. 출입이 금지된 다리(이 능선 길이 시 경계 길이다) 왼편으로 내려서면 진고개다. 죽전과 구미동을 잇는 고개로 지금은 흔적 없는 넓은 길이다. 큰 도로를 넘어서면 구미동 무지개아파트 앞 인도로 올라선다. 왼편에 작은 구름이 시경계다. 구름 안에 천주교 성당이 있다. 용인 땅이다. 구름으로 철조망이 있어 아파트 인도를 따라 끝까지 내려선다. 왼편으로 돌아가며 하천이 있다. 능선 아래 작은집들이 용인 죽전이다. 하천 옆에는 여기부터 성남이란 글자를 새겨 놓은 안내판을 지나 개천으로 들어서면 두 갈래 징검다리가 물 위로 나와 있다. 탄천이다. 용인 수지 구성의 물을 모아 달려온 하천이다. 하천을 넘어서면 글로리아교회가 용인 땅이다. 글로리아교회 앞으로 작은 길을 따라 엘지트윈 건물 뒤를 따라 돌아가면서 용인과 성남 셋길을 걷는다. 넓은 건널목 용인시 수지와 성남시 분당이 합쳐있는 사거리다. 서쪽으로 쪽 뺀 길 왼편 벽산아파트는 용인



이고 오른쪽 농협하나로센터가 분당이다. 고속도로 전철 독 수지 분당대로 너머로 용인경계 이정표가 보인다. 길을 따라 고속도로 둔덕에서 북쪽으로 길을 따라 올라서면 전에 토끼굴(고속도로 건너 머내로 통하는 굴길)을 다시 넓은 인도를 만들고 다리 밑으로 머내 하천 고수부지(하천공원)로 직접 연결되어 쉽게 머내에 도착한다. 용인시에서 머내 하천변을 휴식공간으로 체육공원으로 만들었다.

### 출가외인

우리나라에서는 시집간 여성을 가리켜 출가외인이라고 한다.

용인의 모현땅에 포은 정몽주 선생 묘소와 손서(손녀사위)인 연안이씨 이석형의 묘소가 나란히 있다. 이곳이 명당이라 해 풍수 학인들이 많이 참관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의 진짜 명당은 정몽주 묘소가 아니라 연안 이석형 묘다. 장사를 지내러 경상북도 영천으로 향하던 중에 용인 모현땅을 지날 때 번고가 생기고 말았다. 바람이 불면서 건이 갑자기 날아가는 게 아닌가. 건은 금방 잡힐 듯 하면서 계속 일행을 끌고 가더니 어느 지점에서 딱 멈추었는데 동행한 지관에 의하면 그 자리가 후손들이 크게 발복할 천하의 명당이라는 것이 아닌가.

유족들은 회의 끝에 고향까지 갈 것이 아니라 선생 영혼의 뜻인 듯 하니 이 자리에 산소를 쓰자는 합의를 하고 땅을 파서 중광까지 파놓고 장례는 다음날 지내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터를 욕심낸 손녀가 인부들에게 독한 술을 먹여 잠을 재운 후, 밤새 산소 자리 아래의 연못(명당수)에서 물을 퍼 날라 그 터에 물을 퍼부었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올라와 보니 이게 웬일인가. 어제 분명히 천하의 명당이 물이 나는 곳이라니 결국 회의 끝에 그보다 좀 더 윗자리의 두 번째로 좋다고 꼽힌 자리에 산소를 쓰고 말았다.

그런데 훗날 손녀가 자신의 남편이 죽은 후 그 터에 산소를 썼고 그 이후로 연안이씨의 후손들이 대발복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영일정씨와 연안이씨는 사돈 사이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사이가 되었으며, 손녀에게 '출가외인'이란 불명예스런 딱지가 붙었다고 한다.



## 6 수직 벚꽃산사바라산리

머내-0.4-동천천-1.0-동천2교-1.4-낙생저수지-1.6-고기천교-1.0-고기리 갈림길-1.0-성남갈림길-2.3-바라산리(8.7km)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물이 많다고 했다. 용인의 시경 밝기 중에 높은 산으로는 말아가리산 노고봉 시궁산 등이 있지만 광교산만큼 물이 풍부한 곳도 드물다. 맑은 물이 골골이 흘러 계곡마다 유원지에 먹자촌이 되어있는 곳이 고기리다. 말아가리산 금어리계곡 노고봉의 갈월계곡 시궁산 목리계곡 모두 용인시민의 쉼터 물놀이 터다.

북쪽 둔덕을 따라 신장로는 분당 쪽으로 300m쯤 고속도로 굴다리 일명 토끼굴로 불리는 굴이 있었지만 올해 교량 공사 때 굴다리를 확장했다. 굴다리를 지나면 머내 버스정류장이다. 길 건너 기업은행이 보인다. 대로를 지나 오른쪽 대교앞 s-oil 두꺼비주유소 옆길 아래 고기천(탄천지류) 변으로 잘 조성한 체육시설이 있는 공원 자전거 도로가 있다. 고기리에서 달려온 머내는 많은 물이 흐르고 이끼와 수초도 많다. 길 건너 물가에 여러 그루의 능수버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분당의 둑은 시멘트, 용인 쪽은 자연석으로 된 둑이다. 동막천교는 동천동계곡에서 내려온 물이 동막천으로 들어오는 곳에 있는 다리다. 하천위로 아파트, 골프연습장에서 끝난

다. 독을 벗어난 소로는 하천을 따라가면 분당구청 양묘장 앞을 지나 긴 물막이 보를 만난다. 전에는 성남 묵방 숲속에 이름없는 작은 식당을 생각 하며 옛 분위기에 젖어 본다. 긴보막이는 물이 넉넉하고 말풀이 물속에 넓 게 퍼져 있고 고기가 많다고들 한다. 하천 넘어 백로 해오라기가 여러 마 리 나는 모습을 보아도 물고기가 많아 보인다. 길가에 조그만 공원이 있 다. 팔각정 옆으로 돌로 만든 벽수(장승) 솟대를 설명한 안내판이 있는 작 은 공원을 지난다. 독방길이 끝나고 길은 고기리 큰 길로 나선다. 시경계 가 하천이다. 동천3교를 넘어 성남 쪽으로 하천 길로 이어진다. 성남에서 수원으로 이어질 쌍굴과 도로 공사가 한참인 곳을 지나면 시멘트 물막이 보는 자연생태가 좋은 곳이다. 자연석 물막이 보, 시멘트 물 막이보를 지 나면 동천2교다. 분당 쪽 길가에 “음악이 흐르는 초가” 간판이 맘에 든다.

다리를 건너면 동막골 끝 마을이다. 동막골에는 옛부터 수지 동막골에는 천하대장군장승을 분당 동막골에는 지하여장군장승을 만들어 두 마을이 하나됨을 보이는 한 마을이 동막골이다. 용인동천동 동막골 성남 조원동 동막골 사람들이 한데 모여 소 한마리로 산제를 지냈으며 두 장승아래 수 원 30리, 용인 50리, 안양 30리라고 거리를 표시한 이정표를 겸한 장승을 만들었다는 동막골 출신 이종민 문화원장의 고증이다. 오른쪽으로 아카시 아 나무길을 따라 낙생저수지(관개면적 613Ha만수 면적 만수 면적 29.5Ha 유효 저수량 1,416천 톤 제당거리(독길이) 237.5m 제당높이 17.21m 1961년에 만든 저수지) 독을 향한다. 오른쪽으로 저수지에 넓은 수로가 보인다. 이내 저수지 독에 오르면 푸른 물결에 마음까지 녹이는 물 바람이 더위를 씻긴다. 광고산에서 뺀어 내린 첩첩이 걸친 산은 숨은 산골

냄새를 느끼게 한다. 뚝 왼쪽 산다랭이에는 저수지를 따라 작은 길로 이어진다. 시경계는 저수지를 가로지른다. 라크포레스빌 별장 철조망을 끼고 물가 옆 낚시꾼 길로 이어진다. 낚시꾼들이 많다. 베스를 잡으러 릴을 던진다. 붕어 잉어 등 우리 물고기도 많다고들 한다. 저수지 마을길을 따라 오르면 고즈넉한 곳에 황림 선생 묘를 만난다. 향토유적 40호 묘 가운데 묘비 문인석 망주석이 올라다 보인다. 그리고 마을을 지나 고기교다. 고기교 오른쪽으로 고기보건소가 자리하고 시경계는 고기초등학교 앞을 지나 고기리계곡으로 이어지고 길은 하천을 따라 계곡으로 달리며 고기리 식당촌으로 접어든다. 어린이도서관 밤토실, 들꽃동산 처음자리, 퓨전 하늘향기, 은소반 등 고기리 먹자골이다. 왼편으로 골짜기다. 위쪽으로 고분재마을(고기리)로 가는 갈림길이다. 이제부터는 서광사 이정표를 따라 간다. 오른쪽 물가를 따라 2차선 도로가 1차선으로 줄며 계곡으로 향한다. 갈림길 마을이 장의다. 오른쪽으로 오르면 성남 석유비축기지로 가는 길이며 왼편으로 서광사 쪽으로 잣나무에 영산홍 나무를 심어 놓 꽃밭이 있다. 왼편으로 시멘트벽의 별장지를 만들어 놓았다. 산길로 오르면서 석운동 자율기동대가 컨테이너 건물에 있다. 시경계는 계곡으로 이어지고 계곡 너머로 서광사 지붕이 보인다. 묘사채에 가려 절은 보이지 않고 절 윗길에는 절과 어울리지 않는 스키이 펜션이 자리한다. 길은 바라산리 꼭대기 별장지를 지난다. 전에는 쉬고 먹고 마시던 산 속 외로운 찻집은 간데없고 주위는 별장촌을 만드는 중이다. 셋길로 들어서며 바라산고개 이정표가 길을 안내한다. 하우고개 4km 백운산3.1km 바라산700m 왼쪽 능선으로 시경계길이다. 요즈음은 청계산에서 광교산으로 많은 등산객이 다닌다.



## 7바라산라광고산

▮ 바라산라-0.4-바라산-0.7-고분재-1.7-백운산-1.6-광고산(4.4km)

청계산에서 광고산까지 이어진 능산로로 많은 등산객이 다녀 등산로는 매우 발달해 있다. 바라산 등산로는 5부 능선까지 부드럽다. 경사가 높아지며 로프 길로 전망대에 선다. 북쪽능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쉼터다. 산마루에 서면 멀리로 굽이친 산릉과 의왕의 백운저수지가 산속의 멋진 호수를 보여 준다. 가파르게 오른 산은 10여 그루의 묘하게 생긴 소나무가 둘러싸인 곳이 정상이다. 바라산은 묘하게 분재 같이 생긴 소나무가 많다. 잘 발달한 소나무길은 두서너 개 산마루를 지나 고개를 만난다. 고분재(곡현)다. 고기리 고분재 마을과 의왕 백운동으로 넘는 고개다.

고분재는 고분재 마을에서 오르는 고갯길이 꼬불꼬불 굽은 길이 많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다. 고분재에서 시작되는 능선길은 매우 좋다. 참나무가 뽕뽕한 산길은 능선을 오르면서 산마루로 이어진다. 한 고개 두 고개 넘어 가면서 색다른 능선의 맛을 느낀다. 6봉쯤에는 큰 바위 주위는 등산객의 편한 쉼터다. 무명산에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 고운(고분재고 백운의 백)산이라 부르고 싶다. 산 높이도 500고지를 넘는 산이다. 이어 내려서

면 헬기장에서 고분재로 내려서는 길 백운동으로 내려서는 날머리 길이 있다. 이어 헬기장부터 백운동으로 오르는 맛있는 산길엔 철쭉나무 군락지다. 산 전체가 큰 나무 사이로 철쭉이 흰 피부를 내민다. 밧줄이 걸려있는 곳을 지나면서 정상에는 흰색 백운산 정상 표지석이 있다. 앞쪽 망바위에서 보는 경관은 미군통신(U.S Army net.com)대 건물, 산속에 박힌 별장이 멋있다. 한남정맥인 지지대에서 올라오는 길이 보인다.

산 정상에 차와 막걸리를 파는 임시목로주점이 있다. 남쪽에 통신탑 헬기장 철조망길이다. 오른쪽 길은 통신탑 입구로 돌아가는 길이고 왼쪽 길로 가면 시경계로 이어진다. 흐르는 산물결은 숲의 바다다. 광활한 산 속에 우뚝우뚝 솟은 빌딩 아파트는 자연 속에 키다리아저씨다. 자연의 소리 빌딩소리 기계소리 사람소리가 어우러져 백운산을 키운다. 철조망을 지나면서부터 한남정맥 길이 시경계다.

지지대 고개에서 오르면 한남정맥과 만나며 시경계는 남으로 길을 열어 간다. 이어서 있는 얼룩무늬 통신부대 안테나를 지나면 기분 좋은 광고릉의 산길로 내려서며 산 속에 벤치가 있는 곳으로 넓은 공터가 광고산 역새밭이다. 이정표 옆 돌무더기 탑을 지나치며 커다란 안테나가 있다. 시경계 길은 노루목을 지나며 광고산 삼거리에 도착한다. 시루봉 125m 이정표가 있는 곳에서 등산로를 따라 가는 길이 경계길이다. 시경계에서 능선으로 올라서면 용인땅 광고산 주봉이다. 바위들 위에 수원시장이 만든 성루모양의 돌로 된 상징물에 시루봉이란 음각의 글과 뒤편에는 광고산 유래를 새겨 넣었던 시루봉의 명물은 2008년11월 용인시에서 7개산 정상석을 설치할 때 수원시로 이전시켰고 지금은 광고산 정상석을 다시

만들었다. 동쪽으로 작은 봉우리 능선으로 300여m에 솟은 바위봉이 있다. 이곳이 시루봉이다.

오른쪽 계단은 용인시 수지시내로 연결되는 등산로다. 밧줄을 따라 바위에 올라 보면 수지 분당의 신도시가 한눈에 들어온다. 옆의 바위로 내려서면 광고산에서 전망이 제일 좋은 전망대가 있다. 그곳에서 광고산의 아름다움을 보며 아름다운 용인의 산하를 느껴 본다.



## 8 광교산-형제봉-버들치

광교산-0.8-토끼봉-0.8-양지고개-0.4-형제봉-1.0-첫봉-  
2.0-버들치(5.0km)

시루봉에서 동쪽으로 300m쯤 가면 큰 바위봉이 있다. 바위 위에 오르면 수지와 분당의 도시가 한눈에 보인다. 이곳의 야경은 참으로 아름답다. 혹 야간산행을 할 때면 하늘에 별이 너무나 아름다워 별천지도 구경꺼리다. 이 바위봉이 시루봉이다. 이제 정상을 광교산으로 부르게 되었으니 시루봉도 본래의 이름을 다시 찾게 되었다.

정상에 서면 멀리 서울관악산 백운대까지 올라다 보인다. 바라산에서 백운산으로 이어진 산릉에 안테나가 용인의 위용을 자랑하듯 하늘을 찌른다. 1998년 전 문화원장 고 박용익 선생과 우상표 시민신문 사장 등 몇 명이 광교산이 용인 땅이라는 사실을 지리원의 확답을 듣고 현수막을 걸고 용인 땅이 수원 땅이 되는 것을 바로잡은 적도 있다. 바위봉에서 남쪽으로 내려서면 수지 토월약수터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있고 동쪽으로 내려서면 배나무골과 상손곡으로 내려 설 수 있다.

다시 시경계로 내려서는 광교산 길은 등산로라기보다 산책로처럼 오가



는 사람도 많고 길도 잘 만들어 걷기에 편하다. 서너 개 봉우리를 넘어 갈림길을 만난다. 수원 사방댐에서 오르는 나무계단 길로 연결된다. 이곳이 토끼재다. 토끼재에서 남쪽으로 지름길이 있다. 오른쪽 나무계단으로 오르면 토끼봉 정상이다. 언젠가부터 비로봉이라 부르더니 이번에는 종루봉이라 써 놓았다. 팔각정이 있는 전망 좋은 곳이다. 동쪽능선으로 내려서면 오른쪽에 서봉사지가 있는 능선이 있다. 옛날 이 능선에 용마등이란 명당이 있는데 이곳에 묘를 쓰면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일본을 호령하는 인물이 난다는 이야기는 전해오자 일본인이 이 줄기를 끊으려 그 자리를 봤더니 피가 솟구쳐 내를 이뤄 붉은 내라 하여 지금의 홍천이란 지명이 생겼다.

시경계는 새로 만든 계단으로의 고개를 넘으면 또 계단이다. 내려서면 양지재(황골고개)다. 수지 양지골과 상광교동을 잇는 고개지만 상광교동 길은 휴식년제를 통행금지다. 간이화장실이 위로 형제봉의 세 봉우리가 우람한 모습이다. 나무계단 길로 올라선 곳이 형제봉이다. 바위봉에서 전망이 좋다. 용인시에서 만든 정상석이 우뚝 서 있다. 이어 형제봉의 상징인 큰 바위에는 로프를 걸어 놓았다. 줄을 타고 내려서며 서쪽으로는 바위를 피해 돌아가는 지름길이 있다. 산길은 남쪽으로 이어진다. 백년수 그리고 갈림길에서 오른쪽은 경기대 방향이고 시경계는 왼편으로 올라서면 사각 스텐봉 이정표가 있다. 한적한 산길은 천년약수터에 도착한다. 용인시에서 조성한 넓은 쉼터다. 의자 운동기구와 입구의 약수터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약수터 기둥에 써 놓은 한시의 구절이다. “산중호우간조(山中好友間鳥) 세외청음석상천(世外靑音石上泉) 산중에

좋은 친구는 산속 새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는 바위를 흐르는 물소리다” 능선으로 올라 다시 남쪽으로 향하면 고압철탑이 지루했고 계속 내려서면 삼각점을 만든 전망 좋은 터에서 보면 성남에서 용인으로 잇는 신작로 쌍굴 터널이 보인다. 이어서 또 철탑을 만난다. 다시 만나는 고갯길이 버들치(고개)다. 용인 쪽으로 LG자이 아파트로 이어진다. 이의 동 승죽골로 넘어 고개로 전엔 버드나무가 많아서 버들치가 되었다 한다. 포장도로에는 용인시에서 만든 등산 안내판이 광교산의 모든 산길을 보여준다.

###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보물 제9호 고려명종 15년(1185년)에 세운 탑이다.

서봉사지에 있는 이 비의 전액은 증시현오국사비명(贈諡玄悟國師塔碑銘)이다.

비신은 높이 1.88m 너비 0.97m 전판암으로 화강암의 부석 위에 세워졌으며 이수(水首)는 없다 전액의 글자는 지름이 약 8cm의 전서이며 본문은 3.3cm의 해서이다.

현오국사는 고려중기 승려로 휘는 종린 자는 중지 속성은 왕씨다.



## 9버들치-고속도로

버들치-1,3-응봉-1,0-43국도(독바위)-0,4-고속도로(상현동)-  
1,1-신대삼거리-고속도로(삼막곡) (5.4km)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한다. 그렇지만 큰 것만 보고 작은 것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큰 그늘을 가진 뿌리 깊은 나무도 마치 솜털처럼 가볍고 여린 뿌리털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나는 새벽에 집근처에 있는 노구봉 중앙공원에서 아침 운동을 한다. 시계밧기를 시작하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동안 눈멀고 귀먹고 냄새도 모르고 살았던 삶이 새로운 자연을 만나면서 새롭다. 신기롭게 만개한 꽃도 만나며 경이로움이 가녀린 잎새를 매만지며 사랑도 익히고 들꽃 향기에 취해도 보게 되었다. 나무의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며 자연에 동화되는 나를 느낀다. 그래서 시경계 밧기는 평화 속에 자연을 통하여 나의 하루하루를 즐거움으로 열어간다.

버들치고개는 용인시에서 등산안내도를 잘 만들어 놓았다. 멀리 버들마을 아파트를 보면서 남쪽으로 시경계 길과 백운산에서 이어진 한남정맥

이 계속 이어져왔다. 언덕에 올라서면 왼편으로 쉽터다. 이곳부터 응봉이다. 매봉이라 불리는 산길은 숲아베기를 해 산길이 좋다. 왼편으로 갈림길이 자주 나오지만 결국은 한남정맥길이다. 세 번째 갈림길은 잘 만든 계단으로 산책코스는 매봉샘으로 이어진다. 능선으로 오르면 산머리에 철조망이 길을 막는다. 왼편으로는 한남정맥이고 오른쪽으로 철조망 길이 시경계다. 군부대 철조망 옆으로 소나무가 많은 산길은 경사도 적고 솔잎이 양탄자를 깔아 놓은 듯 걷기에 편하다. 능선 오른쪽으로 갈림길을 지나 시경계는 군부대 철조망과 함께 한다. 한참을 내려서면 군부대 후문에서 길이 막힌다. 부대로 들어 설 수 없으므로 앞 43번 8차선 국도로 내려서야 하는데 이미 43번 국도는 8차선으로 변해 독고개는 흔적도 없다. 넓은 국도에는 용인의 마스코트와 이정표가 경계를 알려준다. 용인과 수원 경계 이정표가 길을 갈라놓았지만 수많은 차량 때문에 내려 설 수 없다. 동쪽으로 보이는 건널목까지 화단으로 가야 하므로 무척 힘들었다. (지금은 군부대 후문을 통하면 된다. 광고신도시 건설로 군부대가 철수해서 군부대가 공터가 되었다.) 결국 내려 선 곳이 군부대 입구 넓은 교차로에서 43번 국도로 변한 독고개를 넘는다. 서쪽에 가로지른 시 경계 이정표 아래 SK가스충전소 뒷산이 시경계로 독산이다. 주유소 뒤로 올라서면 철조망이 길을 방해하지만 시경계는 산업도로와 고속도로 사이 조막봉으로 올라서면 문화재 발굴현장을 지나면 고속도로 옆이다. 이곳부터는 수원시와 용인시가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바꾼 곳이다. 광고 신도시 개발로 주위의 집들은 빈집으로 폐허가 되어있었다.

아래 고속도로 굴다리 앞으로 내려선다. 토지가 바뀐 관계로 이제 고속

도로 너머는 용인이 아니므로 건너갈 필요가 없어 경계밧기가 그만큼 쉬워졌다. 고속도로 옆 산다랭이로 산길이 열린다. 고속도로를 끼고 우거진 숲으로 전진한다. 전에 수원 하동과 상현동 경계길이 나오지만 계속 고속도로를 고집한다. 고속도로 순찰대 앞을 통해 내려서면 고속도로 아랫길은 전엔 별장지가 지금은 모두 빈 터다. 빈 터 앞으로 고속도로로 통하는 통로로 들어선다. 앞산이 숲이 우거져 걷기가 힘들어 고속도로를 질러 신대 저수지까지 수원쪽 길로 일직선이다. 신대 저수지 앞으로 용인과 수원으로 통하는 넓은 길로 들어서면 물줄기는 삼막곡 산에서 내려오는 수로 옆길이 시경계다. 북쪽으로 길마재 너머로 상현동 아파트 머리가 보인다. 경계길은 동쪽으로 향한다. 길은 삼막곡고개 산 능선에서 한남정맥을 다시 만난다. 응봉에서 갈린 한남정맥이다. 정맥길과 같이 몇 백 미터를 더 같이 가다 능선 마루에서 오른쪽으로 길도 없는 능선으로 시경계가 시작되고 한남정맥은 동쪽 길로 계속 이어 간다. 능선으로 들어서면 잡풀이 많다. 남쪽으로 고속도로를 향해 가다보면 급경사를 만난다. 고속도로 너머로 산으로 이어지는 철계단이 보인다.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이쪽도 맞은편 산처럼 철계단이 있다. 내려가기 위험도 하고 겁도 많이 난다. 위험한 길을 피하려면 왼쪽 계곡으로 내려서야 했다. 묘지 옆으로 작은 집 앞을 통해 고물상(자원공사)을 지나 고속도로 굴다리로 다시 넘어선다. 언제나 길 절개지는 접근하기가 어렵다. 주위에서 보고 미친 사람 아니냐는 소리를 듣지만 개척자로 시 경계 길을 밟는다는 자부심으로 철계단을 오른다.

※ 광고 신도시개발에 따라 상현동 주위의 땅을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수지구 상현동 14만 6080평방미터 기흥구 영덕동 6910평방미터를 수원시 영통구 하동 15만 2990평방미터 행정구역 경계조정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 10 고속도로-42국도-경향대

고속도로-2.7-원천천-1.4-42국도(태평양)-2.0-아울렛앞-  
1.0-돌고개-1.6-청명산-1.4-경희대(쑥고개)(10.1km)

환경보호 차원에서 지구는 하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용인의 자연도 하나밖에 없다. 시경계 밟기를 하면서 자연이 훼손 되는 것을 많이 보고 왔다. 자연을 보호하려고 행하는 공공단체의 사업 중에도 알게 모르게 자연이 훼손 돼 버리는 경우는 더욱 안타깝다. 산속에 임도 방화선 고압철탑 구조물을 만들며 산허리를 파헤치고 자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무척 많다. 또 찾길이 닿는 골짜기나 으스스한 오솔길 주위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변해 버렸고 물놀이로 이름이 좀 알려진 계곡은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 투성이다. 예전엔 양지 바른 곳에 묘지를 썼는데 지금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국토가 묘지화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제부터는 시민들이 힘을 내어 용인의 자연을 조기에 치유시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용인이 되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사람 사는 냄새가 우리의 고향 용인에서 풍기기를 기대한다.

원래의 시경계 밟기를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고속도로를 따라 철계단을

로 올라 능선에 도착한다. 계단을 피하려면 굴다리를 넘어 산비탈의 가  
옥 앞으로 해서 산다랭이로 능선에 올라서면 된다. 능선에 오르면 편평하  
고 나지막한 산이다. 오른쪽은 노무현 대통령을 화장하여 더욱 알려진 수  
원 화장장 연화장이 있는 곳이다. 신대저수지는 삼막곡으로 가는 길에 만  
난 저수지다.

편평한 능선으로 태광CC 물탱크에 피뢰침이 있다. 물탱크를 통해 태광  
CC 필드로 클럽하우스로 간다. 이동하는 길에 골프장 필드에 잔디를 밟  
지만 워킹맨에게는 평지만 못하다. 골프장 사람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  
다. 클럽하우스 앞산이 덕암산이다. 옛날 기차 길인 수여선이 있을 때 덕  
암터널이 있었으니 그때는 이 산 속이 깊은 골짜기였다. 클럽하우스 서쪽  
으로 산다랭이를 따라 영덕과 이의동 사이를 작은 동산을 통해 내려선다.  
몇 개의 작은 산마루봉을 넘으면 광역상수도를 묻은 아스팔트길을 통해  
다시 산길능선을 넘어서면 신대저수지에서 내려서는 길로 들어선다. 이  
곳은 모두 신도시 관계로 빈 터 뿐이다. 동쪽에 새로 지은 고층아파트만  
있어서 썰렁한 기분이다. 신대저수지 하천으로 원천저수지 지천이 만나  
는 곳으로 하천이 시경계 길이다. 원천천은 42번 국도 500M 앞에서 한  
국토지공사 용인사업단 앞으로 태평양화장품 담까지가 시경계 길이다.  
옛날 수여선 기차 길이다 태평양화장품담을 따라 시경계는 42번 국도에  
도착한다.

이곳에 오면 나는 화가 난다. 용인시 땅을 수원에 빼앗기면서 용인시민  
은 무엇을 했는가? 전에는 불모지였지만 수원으로 편입될 당시는 무한한  
가치의 땅인 줄 다 알면서도 수원에 넘겨준 비사를 관계한 분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42번 국도 남쪽이 모두 영통이 아니다. 영통 안에 영덕동 용인의 땅이 있다. 태평양화장품 건너 고구마 모양의 땅이 용인 땅이다. 전면은 함흥 면옥에서 동쪽으로 아울렛 매장까지 남쪽으로는 황곡산 반이 용인땅인데 용인시청에서 2005년에 만든 용인시지도에도 2009년 용인시공무원수첩에도 큰 지도에도 영덕이 빠져 있다. 같은 해에 만든 수원시 전도에는 용인 땅으로 표시돼 있는데 남의 시에서는 인정하는데 용인시는 용인 땅이 아니라고 만들었다니 무척 속이 상한다. 일본은 자기 나라 땅도 아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데 용인시는 자기네 땅도 버리려고 하는 것인지 저의를 묻고 싶다. 42번 국도에 용인대로 삼성전자 사거리다. 태평양 화장품 앞 국도를 질러가면 전에 삼거리 코너의 건물이 용인 땅이었는데 지금은 수원 땅이란다. 내가 실수를 한건지.

삼성전자로 통하는 길에 고개가 있다. 이 근처에 말통고개(원수고개)가 있었는데 고개에는 조선 숙종때 용인 양지면 사는 농사꾼이 농사일이 너무 힘들어 일을 열심히 해서 번 돈으로 소를 사러 화성 남양 우시장으로 향했다. 새벽 장을 보려고 황곡 주막에 이르러 하루 밤을 묵기를 청했다. 상을 물리고 주인 내외와 돈 자랑을 하며 우시장에 가야 하므로 아침 일찍 깨워 주기를 청하고 잠을 청했다. 주인 내외는 엽전 꾸러미 전대를 보고 욕심이 생겨 농부가 잠든 사이에 돈을 뺏기로 하고 집에서 해치우면 뒤처리가 곤란하므로 말통고개에서 해치우기로 했다. 남편은 말통 고개에 숨고 부인은 닭 우는 소리를 내어 농부를 깨워 길을 떠나게 했다. 농부가 죽은 후 주막에 손님이 들면 닭 우는 소리가 나면 손님들은 일어나 말



통고개에 올라 농부가 죽은 곳에서 시체로 변하곤 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용인 현감은 나그네로 가장하고 주막에서 잠을 청하는데 닭 우는 소리가 울렸다. 현감은 닭 우는 곳으로 따라 가니 말통 고개 위에서 농부의 원혼이 나타났다. 남달리 담력이 컸던 현감은 농부의 원혼을 꾸짖고 원한이 무어냐고 묻자 원혼이 된 내력을 말했다. 이를 알게 된 현감은 주막집 주인부부를 잡아다 치죄하고 암매장한 농부의 시체를 찾아 후하게 장사를 치러주었다. 그 후로는 이 고개에서 사람이 죽는 일은 없어졌으나 농부의 죽은 혼이 원한을 갚으려 했다 하여 사람들은 이 고개를 원수고개라 불렀다.

왼쪽 함흥면옥 앞길이 시경계로 대한통운 앞길과 이어진 곳부터 웅벽으로 된 길을 따라 북쪽은 용인시 영덕동이다. 길을 따라 영통 쪽으로 가면서 산쪽으로 길이 있다. 길로 올라서면 왼편으로 작은 오솔길로 올라가는 길이 용인시와 영통의 경계길이다 오솔길을 따라 산능선으로 해서 정상으로 오른다. 정상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정상을 넘어서면서 길은 능선으로 넘어서면서 골짜기로 작은 산길로 내려서면 발 사이로 영통 신도시 길에 도달한다. 이곳부터 길 왼쪽 산다랭이 건물이 용인 땅이라 건물 앞에 도로표시 번호가 용인시를 나타낸다. 길을 따라 나서면 전에 영덕 6리 새마을회관(황곡경노당)을 포함한 용인 땅에 센트레빌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 센트레빌 앞길로 세차장을 통해 남쪽 아울렛매장 모두가 용인 땅이다. 렉서스(일제차)판매장을 통해 밀레니엄아울렛 경계선에서 42번 국도로 신갈 쪽 돌고개(석고개)로 향한다. 돌고개에서 청명산으로 올라야 하는데 절개지가 높아 올라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양편 절개지 시멘트 배

수로로 올라 설 수는 있으나 무리다. 영통 신명한국아파트로 오르는 방법, 한전영업소를 지나 돌고개 넘어 식당으로 해서 오르면 새로 낸 도로 밑으로 산으로 통하는 통로로 오를 수 있다.

절개지 꼭대기에는 삼각점이 있다. 양쪽으로 수로가 있고 멀리 새로 만든 도로 길 건너 아파트가 보인다. 청명산으로 향하면 3번째 봉우리가 쉽터로 놀이기구가 있다. 청명산은 영통과 신갈시민이 많이 찾는 산으로 길과 놀이 기구가 산재해 있다. 능선길로 내려서면 공동묘지 넓은 터가 관자고개다. 이정표를 보면 확실하게 청명산 관자고개임을 알 수 있다.

관자고개는 옛날 고개를 넘어 황곡으로 가던 선비들이 고개에서 갓을 벗어 두고 쉬던 곳으로 관자고개로 불리게 되었는데 지금은 영통에 접해 교회 앞으로 연결되는 길이 됐다.

관자고개에서 이정표 쪽으로 올라서면 넓은 빈터에 갈림길이 있다. 왼쪽 넓은 길은 철탑공사 후에 길로 사용되고 있으며 능선으로 오르는 길은 정상까지 오솔길로 연결 된다. 삼각점이 있고 스테인레스 이정표 옆으로 영통으로 통하는 길이 있는 곳이 정상이라고 하는데 다음 운동기구가 있는 봉우리가 더 높아 보인다. 영통의 높은 아파트와 어깨를 같이하는 청명산은 정상에서 영통사로 내려선다. 청명산은 용인 신갈과 영통시민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신갈의 허파 같다. 높아 보이는 봉우리에서 남쪽으로 내려서면 갈림길이 있다. 왼편으로는 내려서면 신갈저수지 쪽으로 가는 길이며 오른쪽 능선길로 내려서는 경계길은 노블카운티(삼성 실버타운) 정문으로 큰 고개인 쑥고개를 통해 경희대로 이어진다.

노블카운티를 통과할 때는 지정된 문을 통과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1-20구간 거리 조건표]

표2	경희대										
11	7.1	대한통운									
12	22.3	15.2	석고개								
13	33.1	26.0	10.8	하천							
14	41.4	34.3	19.1	8.3	장물						
15	53.1	46.0	30.8	20.0	11.7	쌍령산					
16	66.7	59.6	44.4	33.6	25.3	13.6	석천도로				
17	76.9	69.8	54.6	43.8	35.5	23.8	10.2	길마재			
18	88.8	81.7	66.5	55.7	47.2	35.7	22.1	11.9	구백암		
19	97.7	90.6	75.4	64.6	56.3	44.6	31.0	20.8	8.9	42번국도	
20	106.9	99.8	84.6	73.8	65.5	53.8	40.2	30.0	18.1	9.2	굴암산



## 11 경희대-대한통운

경희대-1.0-석천리길-0.5-망포교회-1.3-한양이엔지-  
1.5-한전변전소-1.2-오산천-1.6-대한통운(7.1km)

경희대학교 부지는 전체가 용인시 지역이다. 분명 용인 땅에 있으면서도 외지 이름으로 유명한 고속도로 수원요금소, 수원CC, 경희대수원캠퍼스 등 용인시민으로서 자존심을 다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경희대학은 자리를 잘 잡았다. 위치와 서울과의 거리 교통 등 대학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나는 가끔 경희대 수원대캠퍼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수원 땅이 한 평도 없는 기흥구내의 대학을 왜 수원캠퍼스라고 부르는지 들을 때마다 아쉽다.

시경계는 경희대 정문을 지나 서쪽으로 상가촌을 지나면 서천동으로 향하는 길이다. 왼쪽마을에 용인에서 제일 유명한 도보호수 향나무가 있는 동네다. 큰길과 함께 빗겨진 길로 한참을 걸으면 길가에 서천골 마을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서농동사무소와 농협이 있다. 길은 왼편으로 돌아 남쪽을 향한다. e좋은세상아파트(영통방축마을A)가 전면에 보인다. 길을

따라 내려서면 사거리를 직진하여 계속 남으로 향한다. 영통천주교건물이 e좋은세상 아파트에 접해 있다. 비탈길을 내려서면 왼편으로 현대홈타운(예현마을)아파트단지가 용인 땅이다. 길은 서쪽으로 이어지고 경희대에서 내려오는 하천에서 수원시 망포동, 화성군 태안면, 용인시 서천동 세 시경계가 만나는 곳이다. 근처가 모두 아파트부지로 개발 중이라 표시가 없다. 쉽게 경계를 보면 전기고압철탐을 따라 가면 용인과 화성의 경계길이다. 그러나 아파트부지로 확정되어 출입이 제한되어 길을 따라 돌아 멀리 보이는 조막봉으로 돌아가야 한다.

무작정 큰 길로 나선다. 화성에 두산 위러브(반달단지)로 들어가 뒷길을 찾아도 그 곳도 아파트 부지여서 다시 큰 길을 따라 삼성반도체를 향한다. 뒤뜰에 소나무정원이 있는 코너식당 사이 길로 올라보니 한양엔지니어링 건물은 그대로 있다. 앞은 모두 기흥단지까지 주택공사 서천사업단에서 시공하는 택지다. 큰 길가의 용인시 농서동 버스정류소를 만나니 여기가 용인 땅이 확실해 기분이 좋다. 길에 택지부지 바리케이드로 이어져 삼성기흥단지로 가는 갈림길로 접어든다. 2차선으로 올라서면 택시가 많이 주차한 삼성반도체 기흥단지 후문이다. 후문 앞 긴 상가 건물 입구에 소나무 사이로 가족 묘지를 잘 조성해 놓았다. 이곳부터 용인 땅이다. 멀리 철탐을 따라온 용인경계 길은 골프 인도어 뒤 흰색건물인 신성장으로 회를 끼고 묘지 아래로 통하는 길로 연결된다. 반도체 사원 점심시간이라 직원들이 많이 몰려다닌다. 반도체 후문에 나지막한 산자락으로 시경계는 이어진다. 산 능선으로 가다 보면 절개지다. 절개지를 통해 넘어야 용수골로 내려서는데 반도체 근처 거미줄 도로 때문에 능선을 포기하고 삼

성일렉트릭이 보이는 농서 2길 직선도로로 들어선다. 처음 시경계 밟기를 할 때는 능선을 넘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갈 수가 없어 안타깝다. 남쪽으로 지역난방은 화성이고 삼성그린센터는 용인이다. 용수골 뒷산에 한국전력 동탄변전소로 경계는 계속되지만 접근이 어렵다. 강동 제 2냉장 앞으로 해서 고매리로 향한다.

농서교에서 기흥저수지 수문이 보인다. 하천 옆으로 낸 수로로 물이 세차게 흐른다. 이어 큰길에 도착한다. 고매리 고매과출소 정류장 사거리다. 직진하여 전에 고속도로 진입로로 해서 대한통운 앞으로 가면 쉽게 시경계 길을 만날 수 있다. 몇 년 전에는 시경계 밟기를 할 때는 삼성반도체에 능선으로 용수골 뒷산 한국전력공사 동탄변전소 뒤로 산능선을 따라 오산천 근처 작은 저수지를 지나면 신갈저수지 뚝으로 올랐다.

그러나 지금 찾아온 경계길은 도로 사정 때문에 용인쪽 길로 오면서 먼 발치서 보며 왔으므로 경계길을 다시 찾아보러 남쪽 길로 접어든다. 새미냉동을 지나면 용인시 경계표시에서 길건너 화성시 경계표시가 있다. 화성시로 들어서 영천1리 버스정류장 뒤로 고속도로로 향한다. 차량 진입로는 고속도로 2개 굴통로를 지나 공장촌을 통해 고개를 넘으면 대한통운 기흥물류창고 후문이다. 고개 길로 오면서 북쪽은 작은 산 능선에 KMW 빌딩은 화성시 땅이며 앞 KMW복지관은 용인시 땅이다. 시경계선은 알지만 접근이 곤란해 이 길을 택해본다. 대한통운 물류창고는 전에 동아건설 탁구팀이 훈련하던 곳인데 고속도로 입구가 바뀌어 길 찾는데 신경 쓰이는 곳이다.



## 12대산통운-석고개

대한통운-2.0-저수지입구-2.4-클럽하우스-1.0-아흔아홉고개-1.9-349.7봉-2.3-함봉산갈림길-0.6-병봉산-2.6-화성산-2.4-석고개(15.2km)

산을 다니면서 돌아보면 환경운동을 겸한답시고 산을 더럽히지나 않았을까 내 자신을 생각해 본다. 산길을 질러간 두더지가 파놓은 길을 보며 용인의 땅이 아직은 죽지 않고 살아 있음을 보는 듯 했다. 용인의 산하에 두더지처럼 숨어 숨 쉬는 작은 미물까지 보호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이제부터 골드CC 후문까지 가는 하천 옆길이 경계길이다. 북쪽은 고매리 남쪽은 화성 통탄이다.

시경계 길은 동쪽으로 이어지지만 오래 된 포장길이라 길은 좁고 차량은 많아 이동하기가 불편하다. 고매동은 띄엄띄엄 동네가 이어지고 아담한 별장집 앞 다리를 지나며 고매천과 만나는 곳에서 북쪽으로 마을회관 앞 골드CC 후문으로 시경계 길이 이어진다.

시경계를 걷는데 나타나는 골프장을 통과할 때는 무척 조심해야 한다.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혹 영업에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되므로 늘 신경을 써야 한다. 골프장 휴일이나 아침 일찍 통과

하는 것이 좋다. 시 경계에 만나는 골프장은 신갈 태광CC, 코리아CC, 골드CC, 남사 한일CC, 백암 동진CC, 크라운CC, 지산CC 등이 있다.

골드CC를 동서로 가로 질러 코리아CC 클럽하우스 남쪽 산다랭이로 급경사로 올라서면 무봉산 능선 줄기에 올라선다. 화성쪽에서 이어지는 산길은 작은 봉우리를 몇 개 넘으면 헬기장이 있다. 이름 없는 무명봉이다. 무명봉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길은 화성시 동탄면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시경계는 동쪽으로 내려선다. 이 능선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길이 잘 발달되었다. 안부로 내려서면 왼쪽으로 코리아CC 아래 상덕 저수지가 은빛 비늘로 춤을 춘다. 올라서는 봉우리는 무봉산(362m)이다. 무봉산은 동탄에 있는 산으로 동탄초등학교 교가에 나오는 산이고 동탄 아래 평택에도 무봉산이 있다. 무봉산을 지나면 다음 봉우리는 소나무를 둘러놓은 봉우리로 만의산이라 부른다. 안부로 통하는 만의사가 있는 산이라서 붙여진 산 이름이다. 오른쪽 길로 내려서면 대단히 규모가 큰 만의사로 연결된다. 산에서 보아도 만의사의 규모와 가람 배치가 색다른 사찰이다. 넓은 마당과 전각들이 아늑하고 그곳에서 불심을 이곳까지 전하고 있다. 만의산에서 만의사로 산길로 내려설 수 있다. 반대쪽으로는 지도상 아흔아홉고개 인데 내려서는 길을 찾지 못한다. 이어 오르고 내리길 몇 번 하면 삼거리 360봉에 도착한다.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든 돌무더기에 표지목이 있다.

남쪽으로 두 갈래 길이 있다. 왼쪽 길은 이동면 중반으로 내려서는 길이다. 오른쪽 시경계 길은 암릉으로 걷기가 만만하지 않다. 삐죽 삐죽 바위와 소나무가 어우러지며 좌우로 전망 또한 좋다. 능선길을 돌아 내려서면



동탄 풀무골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산 아래로 한국사회봉사회 연수원의 잔디밭과 건물과 호수가 잘 어울리는 광경이 눈을 사로잡는다. 남쪽으로 작은 봉을 몇 개 넘으면 산불감시초소가 있는 곳이 349봉이다. 화성쪽으로 산허리까지 골프장이다. 산길은 능선으로 동쪽으로 향한다. 널따란 길로 내려서면 심부고개를 만난다. 서리 중반에서 동탄 신리(월각사)로 이어지는 고개다. 심부고개를 뒤로 하고 소나무가 뺄뺄한 조막봉을 넘으면 서낭당 돌무데기 고개에 도착한다. 용인 쪽은 참나무군락 화성 쪽은 소나무 밭이다. 이어 내려서면 돌탑 옆에 다시 돌탑을 만들어 놓았다. 이곳이 삼봉고개로 서리 하반곡과 바른골(신리)로 이어지는 고개로 지금도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이다.

이어지는 오르막은 작은 능선에 묘지가 있다. 묘지에서 오른쪽 능선이 시경계 길이다. 왼편으로 가면 서리 앞산 함봉산으로 이어진다. 함봉산으로 통해 서리고개를 지나 연안이씨 연화사 옆 산으로 해서 이동면 원덕성리로 이어지는 산릉이다. 시경계는 함봉산 쪽이 아니라 서쪽 능선으로 잡아야 한다. 이곳은 예전하고 달라 길이 좋다. 능선으로 해서 봉우리로 오르면 남사면 완장리(중동)에서 화성 신리로 이어지는 불의선 고개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어서 나무 잡가지 등이 피곤하게 한다. 144고지에 서면 북쪽 화성 쪽이 한눈에 들어온다. 산도 관리를 해야 할 때다. 숲 아베기도 해야 하고 수종 갱신도 서둘러야 할 때 같다. 쓸모없는 소나무 참나무들이 흔하고 소나무는 참나무가 햇빛을 가려 죽어가고 있다. 벌거숭이산을 푸르게 하겠다던 50-30년 전에 산림녹화는 우리나라 산을 울창한 숲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이제는 국토를 체계적으로 이용

하는 새로운 산림계획이 필요할 때 같다.

남쪽으로 트랙터, 마차 길을 따라 가면서 갈림길을 찾아야 한다. 왼쪽으로 꺾여 있어 방심하면 큰 길로 가야 한다. 남쪽 봉우리로 올라서면 157고지로 오른다. 157고지부터 산길은 평지 같은 오솔길이다. 안부를 지나 올라서면 작은 시멘트 작은 기둥이 있다. 그리고 작지만 가파르게 봉우리를 오르면 화성산(170m)이다. 남사면 쪽의 산은 높지 않지만 오산 환원CC 주위 산중에서는 주산(진산)이 화성산이다. 환원CC가 내려다보인다.

화성산 위에서 골프장으로 내려서는 길은 없다. 서쪽으로 오솔길은 골프장 옆으로 이어진 길이 있다. 좁은 곳으로 골프장으로 내려설 수 있다. 필드를 가로질러 클럽하우스로 시경계가 연결되어 있다. 클럽하우스에서 골프장 정문으로 나선다. 노란 원추리 꽃이 화사하다. 입구의 나무들은 벚꽃이다. 전에는 침엽수로 분위기가 있었는데, 골프 입구는 어느 골프장이나 조경에 신경을 많이 쓴다. 왼쪽 정문 앞에 환원CC 조경석이 있다. 동쪽으로 동아전기 정문으로 향하면 오른쪽 철망이 끝나는 곳에 산으로 통하는 소로가 보인다. 산다랭이로 시경계는 이곳으로 이어진다. 소나무 산으로 들어서면 소나무가 길을 내어준다. 소나무 밭 셋길은 걷기 편하다. 산길 전체가 솔가리로 나뭇잎 카펫이다. 산 속에 미인송 선비송 장군송 아래 금 솔가래는 보기만 하여도 훈훈하고 신비롭다.

잡나무 아래 누런 솔가래와 부화뇌동 하는 아까시나무를 무시하고 내려선다. 철조망을 따라 서쪽으로 내려서면 다시 소로가 있다. 이곳부터는 사람이 다니지 않아 길이 확실치 않다. 숲 사이로 겨우 내려다보면 여러 개의 묘지가 보인다. 묘지 동산을 통해 내려서지만 주유소길이나 화룡약

수 길은 찾을 수 없다. 묘지 옆 엉겅퀴 꽃이 많이 피었다. 묘지 아래 동쪽 농구대가 있는 회사 주차장으로 내려선다. 그리고 공장촌을 돌아서면 오산과 남사를 잇는 석고개에 도착한다. 용인 쪽은 넓은 자리에 컨츄리 주유소가 자리한다. 용인과 화성 고갯길에 이정표가 마주한다. 박정연 전 남사면장이 고향 사랑을 담아 만든 남사면 경계점 네 군데 만든 경계의 조경석 앞면엔 환영 고향길 남사면 뒷면 청수정풍(淸水瀾風) 정면에는 “내가 태어나 자라고 살아온 정든 내 고향 남사! 여기가 우리와 후손이 천만년 이어나갈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내 고향 남사 라네” 시구가 면민의 정표다. 오산 쪽으로 전에 유명한 화룡약수터를 찾아본다. 건물 절개지로 변한 화룡 약수터는 기억 속에 묻는다. 용인 쪽은 공장지대 오산지역은 식당촌이 쪽 늘어서 있는 석고개는 이제는 먹거리촌이다. 차량이 쉬지 않고 지나다닌다. 위험한 도로로 조심해야 할 곳이다.



## 13 석고개-능선

석고개-1,2-갈마재-1,4-구실고개-2,1-고속도로 북-3,4-고속도로 남-1,5-개마고개-1,2-하천경계(10,8km)

산을 오르다 보면 산불 났던 곳을 여러 곳 본다. 불이 났던 산을 오르면 사방이 검정뿐이다. 큰 나무 작은 나무가 다 타죽어 결국은 폐허가 된 산의 모습을 보게 된다. 몇 년 전 고성 산불의 흔적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자연의 삶은 무궁하다. 몇 년 후에 산불 났던 곳을 다시 가보면 고사리 사이로 새로 솟는 새싹을 보게되어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 산불은 우리 자연의 수십 년 수백 년된 희망을 무너뜨린다.

송전과 오산으로 연결되는 석고개는 청수정풍이란 남사면 4군데 조정 석이 있는 화성시와 경계다. 컨츄리주유소 넓은 공터에서 남쪽으로 용인시 이정표가 보인다. 공장에 붙은 작은 산자락 앞에 엔씨비네드윅스 입구 두 기둥 사이가 들머리다. 숲속에 돌계단이 입구를 만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길은 명확치 않아도 덤불길로 밀고 간다. 우인기업 쪽 대전차 철조망이 길을 막지만 결국 철조망과 검정 플라스틱 수로를 따라 능선으로 오

른다. 묘지에서 왼쪽 능선으로 올라서면 산속으로 길이 있다. 산 너머엔 전에 수종갱신을 하느라 나무를 많이 베었는데 이제는 키 큰 나무가 됐다. 앞산 능선으로 오르면 갈림길이다. 우측으로 내려가는 길을 택한다. 그리고 아까시나무가 몰려있는 안부에 고개가 있다. 농막고개를 지나면서 일렬로 선 소나무길로 능선으로 오르면 넓은 곳에 갈림길이 있다. 왼편에 있는 국사봉(국수봉)으로 오르는 오산시민들을 여럿 만난다. 정상에는 오산소방서에서 만든 빨간 불조심기가 양쪽에 있다. 오른쪽 길을 택한다. 넓은 등산로에서 왼쪽으로 능선을 찾아야 한다. 큰 길에서 갈라져 두서너 봉을 오르고 내린다. 삼각점이 있는 산에서 남쪽으로 작은 봉을 하나 넘으면 시멘트 길이 있다. 길마재다. 고개위에서 보면 남사면 쪽으로 교회와 주택이 고개까지 접해 있다. 동막골에서 사후동으로 넘는 고개로 아래 사후동저수지가 있다.

동막골 고개로 오르는 길은 넓은 고개지만 올라서면 화성 쪽으로는 고개까지 논배미다. 시멘트 길을 질러 산다랭이로 올라선다. 소나무가 뺨뺨한 산을 넘어 내려서면 평택으로 넘는 고개를 만난다. 신구실고개를 지나 남쪽으로 향하는 길은 서쪽으로 바뀌면서 긴 능선으로 오르면 목골뿌리산이다. 계속 능선으로 전망이 빼어난 봉우리에 선다. 목골뿌리산 정상에서는 순간 즐겁던 마음이 확 가라 앉는다. 산봉우리부터 서쪽이 불이 났던 곳이다. 왼쪽에 있는 경기소방학교 앞 봉에 불이 났으니 소방학교 학생들이 불 끄느라 고생도 했고 마음 또한 힘들었을 것 같다. 불탄 흔적은 오래 간다. 정상에서 조금 내려서면 전면에 경기소방학교 건물과 15층 높이의 훈련 빌딩이 보인다. 목골뿌리산과 뒷동골산 사이가 목골이고 산길

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길이 넓다. 작은 봉을 넘어 내리막길에 묘지를 만난다. 오른쪽으로 현대택배 앞으로 내려서면 2차산 도로를 만나고 앞 하천은 사후동 저수지물이 합친 달박산(평택)계곡물이다. 길가에 새말길 표식을 따라 내려서면 옆으로 남사(용인)-오산 도로 확장 현장이 있다. 소방학교 입구 봉명4리 새말(마을)에 도착하게 된다. 전에 동네 어귀 빨래터에서 빨래하시던 아주머니들이 생각한다. 동네 어귀에 고속도로와 국도가 접하는 곳에 도착한다. 주유소 옆으로 공사 중이다. 고속도로 아래 새로 생긴 도로가 시경계다. 3km 직선으로 통매(산)마을 까지가 시경계이다. 고속도로 너머 일부가 남사면 월경리였는데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마을이 잘리면서 평택시 월경동으로 이름도 곱지 않아 은산리에 편입되었다. 평택 쪽 다리를 지금도 월경교라 부른다.

경부고속도로 평택시와 용인시 경계길은 약3km에 달한다. 용인 쪽으로 2차선 길은 시경계로 걷기에 피곤한 길이다. 땀 뻘뻘 차들이 달리는 고속도로 둔덕 아랫길을 따라 남쪽으로 무작정 걷는다. 전에 경계를 걸을 때는 1/2500지도에 시경계가 옛길이라 평택과 경계 하천을 따라 걸을 때는 시경계선을 찾느라 재미 있었다. 이번에는 직선을 택하니 푹푹 찌는 열기는 대단하다. 길가 가로수 몇 그루를 지나치면 멀리 산림청 광고판이 보인다. 그 산이 통뿔(통산)이고 통뿔리 입구에 도착하니 우사에 소들이 많다. 길옆이라 소들과 인사하는 기분으로 굴다리를 보며 통뿔을 돌아간다. 울타리의 개나리와 짙레나무가 뻗뻗하다. 돌아서면 진목교회와 있다. 통매 마을은 용인의 끝이다. 용인에서 순지를 통해 하루 세 번 버스가 다닌다. 남쪽의 선전탑은 산림청 광고를 한다. 고속도로 입구가 용인 안성 평

택 3개 시의 경계점이다. 통산으로 이어지는 산다랭이는 오른쪽 소농장까지 용인이다. 농장과 과수원 셋길로 들어선다. 큰 밭두렁을 넘어 숲길 왼쪽으로 약사암을 지나친다. 능선에서 작은 봉을 넘어 서면 붉은 고개다. 이어서 긴 능선으로 시경계가 이어진다. 길은 가마고개를 지나 산 아래 대각사가 보인다. 대각사를 끼고 돌면 잘 발달된 등산로에 갈림길이 나타난다. 한국공업표준연구소가 내려다보인다. 등산로는 연구소에서 표식과 긴 의자 철봉 그리고 향아리를 문어 쓰레기통이 있는 곳에서 왼쪽으로 갈린다. 화살표 등산로 표시를 보면서 북쪽으로 돌아 동쪽을 향한다. 하산 길로 내려서면 묘지에 시멘트로 하나하나 계단을 만들어 놓아서 쉽게 내려설 수 있다. 표준연구소 정문 입구에서 연구소 길을 따라 다리를 건너면 100m 앞 큰길은 안성으로 이어지는 국도이며 청수정풍 조경비석이 있다. 길 건너 용인시마크 모양의 화단이 있고 옆에 원암2리 표지석이 있다. 산직교 4거리이다.



## 14 능하천-장골

하천경계-0.9-원암3교-2.9-285고지-2.0-검은산-  
1.2-어비로-1.3-45 장물(8.3km)

안성으로 이어지는 23번국도에서 산직교로 흐르는 성주천은 멀리 동쪽으로 보이는 신선봉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다. 하천을 경계로 북쪽은 용인, 남쪽은 안성 땅이다. 경계인 하천을 따라 도로가 있다. 사기막으로 이어진다. 원암리로 접어들면 바로 입구에 원암숲길이 있다. 고려 후기 때 문인 매호 진화묘 표식이 있다. 길가에 진화 선생의 후손들이 시 비석을 세웠다. 경계길은 동쪽으로 이어진다. 원암1교는 무명슈퍼(잡화점) 앞에서부터 2교-6교까지 이어진다. 안성 쪽으로 원암교회, 주인코단, 삼보인재개발원 등이 있다. 산 밑으로 양지바른 곳이 원암동 마을이다. 용인의 남쪽의 마을을 찾으려면 남사면 원암동 마을일 것이다. 길은 신선봉에 가까이 오면서 산 속 깊은 마을 사기막(성주리)앞을 지나친다. 사기막 하면 옛날 같으면 초가삼간이 어울리는 곳 같은데 이제는 멋진 집들이 모여 있는 사기막이 별장지이다. 사기막고개로 향하던 길은 신선봉으로 들어선다. 실개천을 따라 사기장골로 오른다. 잔디밭이 있는 2층집 정원을 피해



산으로 들어선다. 산다랭이를 따라 올라 서면 길은 묘지로 향한다. 3개봉으로 2개봉이 용인시 경계이고 정상인 3봉은 안성 땅이다. 두 번째 봉으로 오르려면 군 참호를 지나쳐 오른다. 신선봉(303m)의 아름다움은 이미 알려진 곳이라 정상까지 올라선다. 헬기장이 있고 정상까지 조경을 하여 일출이나 정월 대보름 때 많은 인파가 오른다고 한다. 사방이 전망터라서 용인 어비리 저수지 수문도 보인다.

기분 좋게 구경하고 내려서는 길에는 반공호가 자주 보인다. 넓어 보이는 하산 길은 작은 봉우리로 연결되며 어비리 저수지 아래 수역마을 그리고 코 앞에 덕우리 저수지가 있다. 동쪽으로 내려서면 서낭고개인데 서낭목에 촛농덩이 돌무더기가 서낭고개라고 알려준다. 산길로 아카시-갈참나무 숲을 지나 기어 오른 산이 검은 산이다. 검은 산은 나무 몇 그루가 있는 민동봉이고 내려서며 만나는 검은 고개는 양성에서 어비리로 넘는 고개이다. 검은 산에서 북쪽으로 내려서면 전통사찰 동도사가 있는 갈미산이 있다. 시 경계는 동쪽으로 능선을 따라서면 안성 쓰레기 매립장이 보인다. 멀리 안성골프장의 잔디가 새롭다. 길은 어비리 저수지 끝을 향한다. 계곡으로 들어서면 신혜내란 계곡수다. 어비리 저수지에 도착한다. 은빛 물결 춤추는 어비리 저수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수지 한 귀퉁이에서 황금물결 저수지를 바라다 본다. 수역 아래는 저수지 물로 농사를 짓고 물새들의 보금자리엔 낚시꾼들이 붐비고 여름철 수상스키로 레저 붐을 일으키고 대추나무집 붕어찜으로 취기가 돌면 어호 8경을 노래하는 어비리 저수지는 크기만큼이나 우리 모두에게 큰 혜택과 즐거움을 준다.

우편배달원이 나에게 뭐하는 사람인데 이 터위에 산을 오르고 내리냐고

묻는다. 어비리 수몰지 사람이란다. 어비리 시경계에서 수역 쪽으로 길가에 원어비동영세불망비가 있다. 지금 걷고 있는 시경계 밭기는 고향을 걸으며 고향의 포근함 속에서 편한 마음으로 걷고 있는데 고향에 살면서도 고향에 못 가는 수몰로 실향민이 되어 비석을 세우고 비석을 보면서 고향을 잃어버린 아픔과 아쉬움을 달래는 그들의 깊은 마음과 같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이해가 간다.

멀리 호수 넘어 북동쪽으로 마을이 보인다. 안성의 난실리와 용인의 장울이 한 마을처럼 보인다. 그 곳이 직선으로 시경계다. 오른쪽 산을 끼고 장서리를 거쳐 45번 국도로 장울까지 이동한다. 모든 길을 걸어서 이동하는 시경계 밭기는 힘은 들어도 간산주마했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 걸을수록 보람을 느끼면서 또 걷는다.



## 15 장울-쌍령산

장울-0.7-정자봉-1.8-묘봉-2.0-갈미봉-2.3-미리내고개  
(애덕)-1.0-원삼삼거리(산)-1.3-396.5봉-1.2-484고지-  
1.4-쌍령산(11.7km)

크리스마스는 공휴일이다. 또 사월초파일도 공휴일이다. 쉬는 날이 많으면 나름대로 좋다고 한다. 그런데 이 분들은 성인이다. 성인의 탄신일을 휴일로 정한 것은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계 4대 성인인 공자, 소크라테스의 생신도 휴일로 정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런데 네 분 모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외국인 탄신일은 휴일이고 우리 조상 생신은 휴일이 없다. 휴일도 사대주의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우리민족이 자랑하는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빠졌다. 어쩌면 세종대왕 생신 같은 기분이 드는 날은 없애가면서 남의 나라 사람 생일은 노는 날로 정한 통이 큰 한국민의 양심을 본다.

모든 생명이 성장을 중지하고 산은 낙엽이 지고 앙상한 가지 속으로 속살을 보여준다. 시계 밟기를 하면서 계절의 흐름을 쉽게 느낀다. 여름 가을은 숲이 우거져 앞을 볼 수가 없다. 특히 산길이 없는 무명산에는 인적도 없어 길 찾기는 어렵지만 겨울과 봄에는 시야가 트여 있어 사람이 잘

찾지 않는 산도 오르기가 쉽다.

어비리저수지 동쪽 마을 앞 45번 국도에는 용인시 안성시 경계 이정표가 국도를 두고 양쪽에 있다. 어비리 저수지에서 불어오는 호수바람은 여름답지 않게 미풍으로 시경계를 향해 불어온다. 장울마을 느티나무를 지난다. 이곳이 용인 장례문화센터건립 지역이다. 어떻게 보면 지역 이기주의도 이곳에도 나타난다. 장울 위로 장자봉 전지봉은 용인 지역이라기보다 양성에 접해 있다. 이곳 장울에다 화장장을 만드는데 용인의 묘봉리 사람들이 아우성친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형 사업은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 좋은 제도가 무조건 반대를 하면 특별보상을 해주면서 국민에게 거저정신 무법자 억지를 부리면 이익이 된다는 좋지 못한 개인 지역 단체 이기주의를 키웠다. 혐오시설은 우리 집은 안 되고 남의 집으로 하지는 도덕 불감증의 국민으로 만들면 곤란하다.

장울에는 마을 노래가 있단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용인에향가(시의 노래)와 서석정님이 작사 작곡한 남사면의 노래는 들었어도 마을 노래가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마을 느티나무 의자에서 영감님이 노래를 일러준다.

투구봉 내린 터에 앉은 장울리/ 꽃밭인가 같은 받드는 밤나무 숲/ 북동말 정자나무 근방 산골로 아랫말 그네 뛰는 용인 비행기/ 누구나 살고 싶은 장울 이 동네/ 살구 보면 구수한 장울 이 동네/

45번 국도 장울버스 정류장 옆에 보호수 느티나무 쉼터에서 남동쪽 야산이 용인시경계다. 도로가 장울과 난실리 사이 계곡을 따라 올라 산다랭이에 도달하면 시멘트 다리를 건너 밭도랑 위로 오솔길이 있다.

오솔길을 따라 올라서는 길은 가족묘로 이어지는 넓은 길이다. 한 기의 묘지 뒤로 후렉스 간판재료에 조명을 켤 수 있는 구조물에 하얀 손님 시구가 있는 곳이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로 용인시와 경계점이다. 조병화 시인의 고향이라서 이곳에 까지 시비를 만들었나 보다.

애뜻한 시를 읽고 산으로 오르려니 발이 무겁다. 아마 다른 곳에 있던 것을 이장하면서 시판도 옮겨 놓은 듯 싶었다. 매우 독특하다.

묘지 뒤로 경계길은 산을 향한다. 첫 봉우리에 삼각점이 있다. 능선으로 오르면 첫 번째 고압철탑이 있는 곳이 장자봉이다. 그때부터 화장장 부지에서 벌목하는 여러 개 전기톱 소리가 들린다. 이어 두 번째 철탑은 시멘트 옹벽을 쳤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거미줄이 많다. 철탑을 지나면 소로는 북쪽으로 이어진다. 능선에는 사람들이 다녀서 길이 확실하다. 그리고 평지로 오른봉은 북쪽으로 갈림길이 있다. 중리저수지에서 오르는 길이다. 이곳에 서면 중리 마을이 보인다. 길은 능선으로 동쪽으로 향한다. 갈림길에서 오른쪽을 택하고 올라서면 길가에 삼각점이 있다. 묘봉 정상이다. 산모양이 토끼 모양이라서 묘봉이 됐다 하나 산이 고만고만해 지금은 토끼로 보이지 않는다. 동네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 되었다. 묘봉(卯峰)은 토끼묘로 토끼봉이다.

지리산의 토끼봉은 반야봉에서 묘시 방향의 산이라 토끼봉이라 부른다. 정상에는 아무 표식도 없어서 묘봉이 이곳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전에는 삼각점에 붉은색 깃대를 세워 정상인줄 알았는데 오늘 정상은 나무 통로 사이에 불과했다. 이어 내리막길로 내려서면 고개를 만난다. 커다란 당상목 옆에 돌탑이 있다. 오른쪽 안성 방향에는 큰 사찰이 있

다. 겨울철에는 나무 사이로 지붕이 보이는데 지금은 나무에 가려 안보인다. 당상목이 있는 고개는 노곡고개로 묘봉리 성리와 노곡리로 이어진다. 성리로 내려서면 주목 조경수 밭 너머 김대중 전 대통령 선산이 북쪽으로 있다.

육관도사 손석우가 뗏자리를 잡았고 금시발복형(今時發福形)이라고 한다. 실제 가서 보면 묘지 지체가 편안감을 주고 앞에 산이 첩첩으로 쌓여 있다 하여 명당이란다. 시경계는 동쪽으로 이어진다. 고개를 넘어 오르면 능선에 갈림길이 있다. 긴 오름길이 시작되지만 그래 봐야 쉬지 않고 걸으면 5분이면 올라선다. 그리고 내려선 안부에는 작은 소로가 보인다. 미리내 입구 미산저수지에서 고 김 대통령 선산으로 갈수 있는 길이다. 조금 올라 선 곳이 갈미봉(338m)이다. 능선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삼각점이 있고 주위의 나무가 정상을 느끼게 한다.

북쪽으로 내려서는 길은 인적이 적은 곳이라 길은 있어도 잡나무가 옷깃을 후려친다. 오른쪽으로 아름다운 녹색의 미산저수지와 쌍령산 능선이 계속 따라온다. 이어 낮은 고개를 넘으면서 나타나는 새미지고개는 길을 찾기 어렵다. 능선길은 미리내 성지를 끼고 북으로 이어진다. 긴 능선의 오름길은 작은 봉우리에 도착한다. 갈림길에 도착해서 시경계길은 오른쪽으로 향해야 한다. 그러나 앞길로 계속가면 시궁산으로 통해서 시궁산 거문정 길이다. 오른쪽으로 내려서면 거문정으로 내려서는 계곡길이며 이동천(진위천)의 발원지인 시궁샘이 있는 곳이다. 거문정길로 150m쯤 내려서면 나무다리를 건너면 긴 의자가 2개 있다. 의자에서 3-40m 위 계곡에 발원지가 있다.

이정표에서 되돌아 능선으로 올라서면 시경계 길로 들어선다. 고개를 넘으면 헬기장이다. 지금부터는 미리내가 보이는 미리내 북쪽 능선이다. 만만치 않은 내리막은 계속 되어서 급경사 임도로 내려선다. 넓은 임도에 미리내로 넘는 애덕고개비가 있다. 천주교 은이(골마실)성지부터 미리내까지 김대건신부 운구 길의 세 고개를 삼덕의 고개라 부른다. 별미고개는 신태고개, 용해곡고개는 망덕고개, 그리고 거문정고개가 애덕고개다. 원래 이곳 고개는 거문정고개, 미리내고개, 오두재고개로 불리다 이제는 천주교의 성지고개로 더 알려져 있다. 애덕고개 동쪽으로 임도에서 능선으로 오르는 입구가 보인다.

애덕고개 임도에서 동쪽으로 산으로 오르는 길이 보인다. 능선에 오르면 남쪽 미리내를 끼고 편평한 능선길로 이어진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다. 길가 꽃들을 구경삼으면 나지막한 봉우리에 오르면 북쪽으로 성륜산(굴암산), 서쪽으로는 장중한 시궁산이 보인다. 높지 않은 5개째 봉우리에 갈림길이 있다. 왼편으로는 학일리로 한남정맥 문수봉과 망덕고개 사이로 통하는 산길이다. 이곳이 원삼면 이동면 고삼면 3면이 접하는 곳이다. 시경계는 미리내를 끼고 도는 동쪽길이다. 주마간산하는 산행 같다. 멀리서 보는 산너울이 아니라 넘는 언덕 같은 봉이 너울처럼 이어지는 산은 참나무와 밤나무로 이어지며 소나무는 능선에서 볼 수 없다. 산길 옆으로는 아기나리밭이 연속이다. 오른쪽에서 미리내 미산저수지가 멋진 자태로 동행을 한다. 작은 언덕 위에 삼각점이 있다. 돌아서 내려서면 돌탑이 있는 고개 길이다. 미리내와 학일리 고초골로 연결된다. 고초골은 유명한 삼학사 오달제 선생의 고향이며 선생이 태어날 때 땅이 힘을

모아 풀이 말라 죽었다 하여 고초골이다. 작은 봉우리를 두 개 넘으며 올라서면 고압철탑이 불쑥 나선다. 철탑 옆 폭신한 잔디에 앉아 본다. 이어 다음 철탑까지는 평지 길로 이어진다. 철탑 옆으로 잔디밭이 넓다. 잔디에서 보면 앞 봉이 삐죽 솟았다. 가파르게 올라서는 길에 밧줄을 매어 놓았다. 중간에 서면 전망이 끝내준다. 즐거운 마음으로 평지 길로 이리지는 능선은 갈라지는 길에 이정표가 있다. 거북바위 표시를 그냥 지나친다. 이어 능선길은 평지 같다. 큰 바위 옆에 또 나타난 이정표에는 배내기 약수터와 헬기장표시가 있다. 산길은 그래도 역시 바위가 있어야지 운치가 있다. 쉽게 능선에 오르면 쥐똥씨나무 꽃이 예쁘다. 평지 같은 능선을 걷다보면 바위 길을 지나며 나타난 쌍령산 정상이다. 두 개의 긴 의자 옆에 잘 생긴 검은 돌 정상석이 옆이 쌍령산 헬기장이다. 앞에 보이는 봉우리와 두 봉을 쌍령산이라 부르는 봉우리다. 멀리서 보면 낙타 등처럼 생긴 모습이 두 개의 고개 같다고 생긴 이름이다. 산 아래 안성에는 고삼면 쌍령마을이 있다. 헬기장 왼편으로 시경계 길이 있다. 쌍령산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산이어서 어렵게 오른 만큼 오래 머물고 싶다.





## 16 쌍령산-석천리 도로

쌍령산-1.6-332.8봉-2.5-경수산-1.5-벼루모퉁이-1.8  
 -구봉산-1.1-달기봉-0.7-쉼터-1.5-천주교공원묘-  
 2.9-도로(석천리)(13.8km)

쌍령산의 모습은 두 개의 봉우리가 고개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유명한 구들바위 배내미약수와 옛날 침 잘 놓는 명의 이야기 그리고 명당 이야기는 쌍령산을 영스러운 산으로 떠올리게 한다. 헬기장 왼편으로 내려서면 왼쪽으로 밧줄이 길게 내려져 있다. 쌍령산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가 깊다. 이어 안부에 이정표가 있다. 배내기 약수터 갈림길로 가는 길과 직진으로 등산로 표시가 있는 곳으로 가면 앞에 고압철탄이 보인다.

철탄 아래로 시경계가 이어지지만 낭떠러지라 내려설 수 없다. 봉우리 입구에 한전 노랑 리본을 따라 내려선다. 계곡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작은 능선으로 올라야 한다. 계곡 갈림길을 따라 내려서면 배내기 약수터를 지나 청룡약수터 위 저수지 길로 내려선다. 길을 못 찾으면 이렇게 해서 청룡낙시터에서 계곡으로 올라 능선을 타야 한다. 작은 봉으로 올라서면 산길이 좁다. 두 번째 봉우리에 서서 쌍령산을 보면 두 봉우리가 확실히 보인다. 안부에 도착하면 청룡저수지 그리고 저수지 너머 원삼의 산릉이 한

눈에 들어온다. 별안간 절개지가 나타난다. 옛날 고갯길이 사람이 다니지 않아 절개지로 변해 조심스럽게 넘어야 한다. 이곳부터 경수산 철탑까지는 높지도 않은 능선의 연속이다. 좌우가 나무로 가려져 있어 오직 길만 보고 간다.

경수산이 보이는 곳에 계곡 전체를 벌목한 곳이 있다. 긴 의자가 있는 곳은 전망이 좋다. 앞에 구봉산 전체와 목신리 마을이 그림 같다. 구봉산에 태영CC 우측으로 별장촌 기도원들이 산색과 잘 어울린다. 앞 경수산이 임도에 잘린 모습이다. 큰 철탑 앞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철탑 동쪽 가운데로 내려서면 임도의 시작이다. 시멘트길 임도를 따라 내려서면 갈림길에서 올라서는 오른쪽 길을 택한다. 오른쪽 길 옆으로 산자락으로 올라야 경수산의 정상인데 길이 좋지 않다. 정상 구경을 하고 내려서면 또 임도이다.

임도를 따라가면 다시 산자락이 나온다. 이번에는 꼭 능선으로 올라야 한다. 임도는 철탑에서 길이 끝나 앞으로 이동이 어렵다. 능선으로 오르면 경수사 뒷산이다. 내려서면 철탑 뒤다. 등산로로 조금 이동하면 왼편으로 길이 있다. 이 길로 내려서야 경수사로 들어선다. 철탑 있는 계곡에 절이 있으므로 조금 더 옮기면 안성 쪽 능선으로 가야 한다. 초행길엔 조심해서 길을 찾아야 한다. 경수사는 나라에 번고가 있을 때 땀을 흘린다는 부처님이 있고 절 뒤에 조성한 불경을 조각해서 만든 돌조각은 예술이다. 어마어마한 돌의 조화를 보노라면 입적하신 보경 큰스님의 불교에 교화된다. 시경계길은 경수사 산길을 따라 내려온다. 한천(목신천) 넘어 벼루모퉁이까지 연결된 시경계길로 향해, 길 모양이 벼루모퉁이처럼 생겼

다 하여 벼루모퉁이는 구봉산자락에 걸쳐 있다. 벼루모퉁이에서 산다랭이로 구봉산 고압철탑으로 올라야 한다. 그러나 급경사에 길이 매우 힘들다. 조금 쉽게 가려면 벼루모퉁이에서 북쪽으로 큰길을 따라 올라가면 한전에서 만든 철탑길로 오르게 된다. 철탑길은 굽이굽이 돌아가는 긴 임도 같다.

급경사는 시멘트포장 길에 비포장이 교차한다. 첫 번째 철탑에서 보면 철탑 사이로 경수산까지 두 개의 철탑이 겹쳐 보인다. 한전길은 계속 다음 철탑 길로 길게 이어진다. 철탑에 가까이 접근하는 커브 길에 들어서면 벼루모퉁이로 급경사로 올라오는 길과 만난다. 서울 우정산악회 리본이 보인다. 그리고 산중턱에 걸친 철탑에 도착해서 고압철탑 북쪽 기둥을 넘어서면 산으로 오르는 등산로를 만난다. 능선까지 급경사로 산마루에 오른다. 갈림길이다. 넘어가는 길은 모리아산 기도원으로 내려서는 길이다. 구봉산 끝 봉까지는 급경사길이다. 첫 마루봉은 바위가 많다. 이어 세 개의 작은 봉우리를 넘으면 나무 숲속에 용인시에서 멋지게 만든 이정표가 있다. 가현치 3.4km구봉산 900m 표시는 우리가 가려는 곳의 반대쪽이다. 첫 봉우리가 삼각점이 있는 정상이어서 이곳에 정상석을 세우려고 별목은 한 흔적이 있는데 정상석 세우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다음 봉에 새운 것 같다. 곱게 굽은 구봉산 정상석이 용인의 정상석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워 보인다.

구성면 삼막곡 산에서 갈라졌던 한남정맥을 이곳에서 다시 만나는 한남정맥과 시계길이다. 달기봉으로 가는 급경사 길은 계단과 밧줄을 걸어 두었다. 계단으로 급하게 내려가는데 달기봉까지는 긴 안부이다. 안부에서 왼쪽

산 아래는 MBC 문화동산으로 TV 촬영장이 있고 평지 길로 이어진 가파른 길로 봉우리에 오르면 달기봉 첫 봉이다. 능선을 향하면 이정표가 있다. 한남정맥 길에 만든 이정표와 11개 용인산 정상에 표지석을 설치한 것은 용인시다. 멋지게 만든 용인시 관계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

달기봉에서 내려서는 길은 매우 평탄하다. 전에 오른쪽 계곡을 벌목하여 길이 왼쪽으로 더욱 좋아졌다. 안부에서 보면 벌목지의 시멘트 도로가 보인다. 안부사거리로 시경계는 나무계단이며 북쪽 길은 MBC 문화동산으로 가는 임도다. 남쪽으로는 황새울농장길이다. 계단으로 올라서면 능선에 백암면에서 만든 등산로와 만난다. 정배산, 조비산(조비산-정배산-체육시설-달기봉-구봉산-석술암산-두무재-두무산(창말산)까지 백암면에서 등산로를 만들었음) 길이다. 시경계와 한남정맥 길은 오른쪽으로 돌면서 체력단련장을 만난다. 이렇게 접근하기 힘든 곳에 체육시설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 동쪽에는 용인CC와 황새울농장이 있는 석천리 황새울마을이다. 조금 오르면 한전철탑공사길로 이어지고 200m쯤 걷다 다시 산능선으로 오르지만 결국 철탑에서 다시 만난다. 철탑사이를 지나 깊은 안부를 따라 다시 높은 봉우리를 넘어서면 철탑 옆으로 오른다. 천주교 공원묘지 가현산까지 가려면 철조망 옆을 택하여야 한다. 납골당 때문에 철망 울타리를 친 것 같다. 울타리 길은 좁고 백암 흙의 상징 흰 마사토 흙비탈길이므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철조망이 능선에서 끊겨서 안으로 들어가 납골당을 둘러본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앞으로 매장보다는 화장을 하거나 납골, 수목장 등의 다른 장례 문화를 선택했으면 한다. 납골당을 지나 울타리를

넘으면 가현산 정상이다. 철망을 쳐놓아 이정표가 있는 곳이 정상 같아 보이지 않는다. 옆에 산불감시초소가 있던 구조물 철재가 아직 남아 있다. 전에는 울타리가 없을 때엔 바로 옆까지 모지가 있었다. 바로 철조망 10m 가까이 까지 모지 봉분으로 내려 설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철조망뿐이다.

산 아래 고압철탑이 있어서 길을 찾기가 어렵다. 낙엽이 지면 용인CC 정배산 황새울농장 조비산이 보일텐데 숲에 가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산 속에서 길을 찾기란 어렵다. 작은 능선의 갈림길에서는 긴장을 해야 한다. 지도나 나침반도 도움이 못 되어서 시경계 중 가장 길 찾기가 어려운 곳 같다. 능선 중에서도 오른쪽을 택한다. 왼편이 용인이라고 생각하며 황새울길로 내려선다. 오른쪽 능선은 전에 겨울철에 왔을 때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산중턱에서 철조망을 만나서 철조망을 따라 내려서면 작은 농장에서 끝난다. 철조망을 돌아 능선으로 내려서면 석천리와 안성 삼죽면 새말로 잇는 황새울고개를 만난다.

고개를 넘어 산다랭이로 새말에 도착한다. 새말 동리 옆으로 이어지는 산다랭이 길은 좋아 쉽게 내려설 수 있고 큰 모지를 지나 산길은 계속 동쪽으로 향한다. 산 아래 인삼밭 옆으로 도로를 통해 새말에서 내려오는 하천과 만난다. 다리 옆에 용인시장의 안내문이 있다. 수로를 따라 내려서면 백암면 석천리와 안성 삼죽면 울곡리의 경계점인 국도이다. 큰 다리가 경계점이다. 이정표를 보니 지친 몸이 생기가 난다. 길옆으로 용인의 상가건물이 있다. 글로는 이렇게 쉽게 지껄이지만 산 속에서 헤맨 걸 생각하면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능선이다.



## 17 석천리 곡도-길마재

도로-1,2-하천경계-2,3-한택식물원-1,2-비봉산-2,4-도로  
(이송)-1,0 -아송교-1,0-한다리보-1,1-길마재(10,2km)

백암면 석천리와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경계 길은 안성에서 흘러오는 물과 석천리 계천물이 모여 다리를 통해 석천별로 이어진다. 개천 독길로 300m쯤 내려오면 외딴 농장을 멀찌감치서 지나친다. 그리고 하천에서 보면 멀리 장털마을이 보인다.

시멘트 다리를 건너 묘지 소나무 숲속에 꼭 박힌 듯한 벽돌집의 초록색 지붕이 이채로운 삼희동산이다. 계속 하천 200m 쯤에 징검다리 시멘트 보막이를 건너면 산속에 넓은 밭으로 시경계이다. 독 길로 해서 산다랭이로 오른다. 밭 위 소나무 숲은 묘지가 많다. 묘지를 넘어 능선으로 오르면 장털마을에서 넘어오는 마чат길과 만나 산능선으로 시경계길로 이어진다. 넓은 길을 따라 가면 좌우로 큰 갈림길이 있다. 오른쪽을 택해서 만나는 곳이 율곡농장이다.

농장 왼쪽 산다랭이를 따라 가면 길이 끝나는 곳에 큰 농장인 삼죽농장이 있어서 왼쪽 절개지로 올라서야 한다. 영성한 철조망을 넘으면 넓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택하면 된다. 절개지 능선으로 가서 산 끝 왼쪽으로 농장이 용인이다. 오른쪽 농장담벽을 펜스로 만든 울타리 농장은 안성이다. 용인쪽 농장으로 내려서면 삼거리라서 안성자원화(폐기물 공장) 과 3개의 컨테이너 앞으로 철조망을 끼고 동쪽으로 향한다. 비봉산이 보이고 오른쪽 초지를 지나면 우사에 소들이 많다. 왼쪽은 한택식물원 부지로 단풍나무 등 조경수가 많다.

대단위 농장의 정문을 통과 하는데 수원 농원이다. 넓은 길은 한택식물원이 처음 시작된 농장으로 오래된 철 대문을 지나치면 한택식물원이다.

한택식물원엔 20만평 규모에 9000여종의 식물이 있다. 지상식물이 홀대받던 70년대부터 30년간 가꾼 이택주 원장은 한택식물원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보호하고 가꾸어갈 생명문화유산이라한다. 8500원 내고 입장하여 비봉산에 오른다.

10여 년전 한택식물원은 언덕 위에 있었다. 지금 식물원 뒤쪽으로 비봉산으로 오른 적이 있다. 실제 길도 없는 능선으로 오르기가 어려웠었다. 비봉산은 동쪽 서쪽 양쪽은 경사가 심해 접근이 힘이 들고 시경계는 9부 능선이다. 한택식물원에서 용인시경계 이정표를 지나 안성 길로 비봉산을 통해 비봉산에 오른다. 비봉산 정상은 용인이 아니다. 비봉산 정상은 예전에 허허벌판이었는데 빗나무 숲으로 변해 있고 비봉산 정상석도 조경을 해서 아담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죽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수종 왕 빗나무 산벚나무 수량 250주 죽산발전위원회에서 비봉산 가꾸기 사업으로 비봉산 정상을 빗나무 군락지로 만들어 놓았다.

정상석은 1998년 10월에 비봉산악회에서 만들었다. 정상에서 안성 쪽

으로는 전망이 좋다. 죽산이 한눈에 들어오고 칠장산도 보인다. 안성땅이라 죽산에서 올라오는 길은 잘 만들었다. 시경계는 산 9부능선 빈터까지이다. 이곳에 서면 죽주산성이 보인다. 우리 주위에 민족 문화유산인 수원성, 남한산성, 죽주산성은 한번 보라고 권하고 싶다.

산을 내려서면 죽주산성으로 오르는 길을 만난다. 죽주산성이 바로 옆에 있고 백암의 산과 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내리막은 작은 봉우리 3-4개를 통과해서 큰 바위를 지나면 갈림길이다. 오른쪽 길로 파란 공장지붕을 따라 내려서며 고개를 넘는다. 작은 희미한 산길로 산다랭이 끝으로 농장을 통해 외딴 집을 지난다. 냉동창고 뒤 산다랭이로 내려서 큰길로 오면 아송교에서 시경계는 청미천으로 북쪽을 향한다.

긴 아송교를 지나 청미천 둑길은 잡초가 많다. 걷기가 불편하지만 청미천 물가에 왜가리 물까마기 산비둘기 등 수많은 물새들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 보는 조비산의 모습은 일품이다.

1km 정도 위에 오방양수장으로 통한다. 양수장은 거대한 한다리보여서 시멘트 바닥이 보인다. 수로를 통해 물을 방류하고 있다. 농수로 쓸 때는 수중보를 올려 수로로 쓸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양수장 옆으로 산다랭이로 길이 있어서 소나무 밭을 지나 조막봉을 넘으면 외딴 집이 있다. 산길은 신도로 옆 미성주유소 미성휴게소로 이어지지만 공장이 들어서고 길 찾기가 어려워 한다리보에서 안성마을을 통해 미성주유소 아래 방조리 터널로 17번국도 구길로 들어선다. 식당촌을 지나 언덕길로 고안리로 향한다. 17번 국도 구길로 안성 일죽면 방조리와 용인 백암면 고안리를 잇는 길마재다.





## 18 길마재-봉의산

길마재-1.5-266고지-1.3-309봉 고안리-1.5-256봉(대우)-  
1.8-대덕산-0.9-입석재고개-1.0-소대덕산-2.6-봉의산-1.3-  
구백암(11.9km)

길마재에서 아곡 쪽으로 100m쯤 내려오면 현대오일 신아주유소 옆 공장과 부지를 만든 철조망 사이가 시경계다. 길을 따라 묘지 뒤 새로 만드는데 농장 서쪽 철망으로 시경계다. 그러나 길이 없어 접근할 수 없어서 아곡마을에서 동쪽으로 산다랭이로 오른다. 산다랭이에 묘지사이로 산길이 열린다. 길마재 넘어 옛마당 뒤로 오르는 길이 있지만 시경계와는 너무 멀어 마을길이 더 쉽다. 7부능선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 산마루에 배낭을 두고 옛마당으로 오르는 길을 따라 경계를 찾아보지만 별 소득이 없다. 두 번째 산마루까지 경사가 심하다. 정상으로 오르는 길은 거칠다. 우측으로 돌면 산길도 좋지 않았다. 불쭙 묘지가 나타난다. 묘지 위가 바로 정상(268고지), 나무 숲속에 삼각점이 보인다.

서쪽으로는 구봉산 조비산이 얼굴을 내밀고 동쪽으로는 안성에 마국산이 위세 좋게 서 있다. 이곳 사람들은 산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다들 대덕산이라고 한다. 대덕산 줄기란 말이겠다. 안부로 내려서면서 왼쪽으로 올

라서면 대우연수원길과 만난다. 지금은 대우연수원이라고 하지 않고 퓨처리더십센터라고 한다. C코스라는 표식이 보이고 큰길로 이어지는 길은 등산로라기보다는 넓은 숲속 길이다. 그리고 서너 개 봉우리마다 기기묘한 바위가 산객을 사로잡는다. 바위에서 산책하는 아주머니를 만난다. 주유소 옆에 살고 계신 아주머니는 아곡 길마재 경계를 확실히 가르쳐 주신다. 고맙기도 하고 확실한 시경계를 알고 보니 기분도 좋다. 조금 경사지로 오르니 넓은 터에 운동기구가 있다. 연수원선생님이 훈련생을 기다린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시경계는 이어진다. 이렇게 좋은 경계길로 이동하니 마음도 몸도 가볍다. 조그만 봉우리를 지나치면 동쪽 마국산과 사이에 중부 고속도로가 있다. 고속도로의 소음이 심하다. 길은 서쪽으로 이어지며 긴 의자와 깃대가 있는 봉우리에 도착한다.

이곳이 용인(백암) 이천(모가) 양성(안성) 3개 도시 경계점이다. 그렇게 내려서고 오르면 골프장에 접근한다. 골프장에 접근하면 대전차 철조망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다. 경계 산길은 소나무가 삐죽 솟은 251봉을 지나치고 이어서 만나는 안부는 미륵덩이 고개다. 대홍동으로 넘는 고개이다. 계속 올라 선 곳에서 오른쪽은 작은 갈림길이다. 대부분 리본이 없으면 길은 놓치는 곳이다. 이어 길게 오르는 산이 청계산이다. 산길은 능선으로 좁은 길로 계속 이어진다. 안성 쪽 골프장을 끼고 등산로는 이어진다. 한참 후에 동진CC 뒤 주차장 절개지로 내려선다. 넓고 긴 주차장을 지나면 골프장 물탱크 근처에 절개지가 있다. 산다랭이로 연결되어 영정귀가 난무한 입구로 올라서면 공터에 불조심 공고문이다. 용인시장 용인경찰서장 명으로 붙어 있다. 이어서 긴 등산로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산길

로 이어진다. 골 몇 개의 봉우리를 넘지만 전에 가장 높았던 곳이 골프장으로 허물어지고 없다. 그래서 요즈음은 어디를 대덕산이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입석재고개 넘어 309m 대덕산은 모두 아는데 이곳은 산 높이가 비슷해 대덕산이라 단정할 만한 봉우리가 없다. 이 산에는 대부분 330-350 고지이다. 오방난골에서 약수터로 올라오는 곳이 대덕산(360m)인데 알아보지 못한다. 대덕산은 지도상 이름이 두 개다.

오방난골은 백암면 박곡리 근처의 지명이고 전에 박곡사지에 오백 나한이 있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무속인의 굿당이 되었다. 대덕산과 입석재고개 남쪽 비에이베스타 골프장 너머에 대덕산(308m)은 요즈음 소대덕산이라 부른다. 대덕산에서 굽은 길로 산릉으로 긴 산길은 비에이베스타골프장 절개지에서 멋진 조망을 보게 해준다. 골프장입구부터 거대한 바위를 조정하여 보기에 멋지고 잘 어울린다.

절개지 급경사로 골프장으로 들어서 필드를 지나 잔디로 이루어진 비탈로 입석재로 통하는 길로 내려선다. 여기서부터 앞에 보이는 산 절개지로 걸어야 한다. 1km 정도 포장도로로 걷는 것도 날씨가 더우니까 편하지 않다. 입석재고개 중간에 바위 위로 올라서 무인 카메라 옆을 통해 능선 중앙으로 오른다. 정수리에 오르면 북쪽으로 등산로가 보인다. 다음 능선에 올라서면 전에 산사에서 만든 대덕산 돌탑위에 표지목을 없애고 대신 검정 대덕산 정상석을 2006년 3월 5일 호법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 만들어 놓았다.

호법초등학교 출신들은 대덕산이 두 곳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교가에 대덕산이 있거나 또 다른 무슨 큰 뜻이 있어 대덕산 정상석을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전망이 좋은 곳이라 멀리까지 보인다. 이어 북쪽으로 이어지는 능선길로 시경계는 이어진다. 동북쪽 덕평CC에 접근해서 아까시나무 군락지를 지나고 계속 능선을 택하면 골프장으로 들어선다. 다시 산길은 골프장을 벗어나 사용하지 않는 골프 초소를 지나 능선으로 올라선다. 길가에 참호가 자주 보이는 넓은 길가가 예비군훈련장이다. 지형지물을 구경하면서 올라선 곳이 운동 시설이 있는 쉼터다. 이어서 오르는 길은 줄을 매 놓아 긴 오르막길은 편하다. 그리고 올라선 곳이 봉의산이다.

빈 터에 바위탑도 무너져 버렸다. 소나무엔 이곳이 봉의산이란 코딩 종이가 있다. 봉의산은 구백암 뒷산이다. 봉우리가 멀리서 보면 두 개다. 다음 봉을 넘어서면 산 속에 검은 차광막으로 길을 막았다. 산삼을 경작하는 용인산삼농원 산림청이란 현수막이 있다. 차광막 펜스를 끼고 계속 내려선다. 중간 갈림길로 내려서면 이천이다. 끝까지 내려서면 멀리 산 너머로 파란공장 지붕이 보인다.

그 지붕은 이천이다. 산길은 소나무밭이어서 왼쪽을 택하여 구백암쪽으로 향한다. 지도를 보면 실수하는 지역이다. 구백암 공장철망 북쪽으로 내려설 수 없으므로 구백암 길로 내려서면 주유소 동쪽 두 그루의 소나무가 경계다. 예전에는 10여 그루가 있었는데 이제는 3그루만 있다. 앞 야산으로 이어지는 시경계다.



## 19 구백암-42국도 추계리

구백암-0.5-뒤동골산-2.6-건지산-1.5-서낭고개-2.1-미륵산-  
2.2-42국도 식금리(8.9km)

구백암 아래 큰길로 고개에 도착한다. 주유소 뒤로 소나무가 서있는 곳에서 바로 올라다 보이는 산은 낮아 보이는데 소나무를 지나 산다랭이로 올라서면 산길이 희미하다. 높지 않은 산이라 쉬울 것이란 기대를 버려야 한다. 없는 길을 찾아 능선으로 오른다. 갈림길에서 오른쪽을 택해야 한다. 나침반이 없을 땐 방향 잡기가 어려운 곳이다.

오른쪽으로 내려서면서 산길은 동쪽을 고집한다. 오른쪽으로 물류창고 파란 지붕이 나타난다. 그리고 물류창고 절개지로 시경계길은 이어진다. 너무 가파르다. 가시나무 덩굴이 위험해도 절개지를 택해야 한다. 곡에 하듯 절개지를 돌아서면 능선에 독특한 집이 보인다. 산 속에 사람이 살지 않는 특이한 집이다. 용인시 백암면 가창리 소재다. 너무 변해 동네를 알고 싶어 마을로 내려서 본다. 용인임을 확신하고 원위치에서 계속 진행한다.

앞도 보이지도 않고 길도 없고 앞은 숲이 막아서 진퇴가 어렵다. 그래서

위험해도 계속 절개지를 고집해 본다. 안부에서 가창리로 연결되는 막힌 길을 지난다. 계속 절개지를 고집하면 길가에 컨테이너 옆 삼밭에 도착한다. 인삼밭 뒤 산 능선으로 지나쳐서 인삼밭이 끝나는 곳에 이천과 용인으로 통하는 작은 길로 연결된다. 인삼밭이 끝나고 조정지로 들어서 오른 쪽 큰 묘지를 보며 능선으로 올라선다. 산길은 경사가 급해지며 올라선 곳이 뒷동골산(귀동골산 222,7m)정상이다.

가창리에서 보면 동쪽의 큰 능선 봉우리다. 시경계 길은 계속 몇 개의 산마루를 지나다 보면 뱀 그물이 있다. 산에 뱀이 많은 곳에 가을에 동면하려 가는 뱀의 길을 막아 뱀을 몰아 잡는다. 울무나 창보다 더 생태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어 돌이 많은 고개를 만난다. 돌이 있는 고개를 지나 가파르게 올라서면 봉우리에 도착한다. 바루산(235m) 삼각점이 있는 산이다.

이어 시경계길은 능선으로 길이 확실하다. 몇 개의 산마루를 오르고 내려면 왼쪽으로 갈림길과 마주친다. 소학산(정상 봉우리가 이천, 지도상에는 이천 쪽으로 뾰족한 곳이다. 소학산 7부 능선 좀 되어 보인다. 소학산에 왔으니 정상을 구경을 하기로 하고 정상으로 오른다. 경사는 크지 않지만 긴 능선길이다. 정상에는 꽃밭이 있다. 개인이 만든 운동기구가 있으며 나무에 걸린 시계가 돌아간다.

다시 시경계로 내려와 서쪽 능선으로 내려서면 밧줄을 매놓은 비탈길로 내려서면 몇 기의 분묘가 있다. 분묘 앞의 산길은 능선으로 내려선다. 왼쪽 경기농장 쪽 산능으로 내려서면 가창리와 마장리로 잇는 마장고개 2차선 포장길이다. 길가에 용인 이천 시경계 이정표가 있다. 시경계 너머로 신일밸브 경계점에 조막봉으로 들어서면 능선에 길이 있다. 조막봉을

넘어서면 사거리고개에 수정산 쪽에서 철조망을 통하는 길과 청강대학에서 오는 길이 만나는 사거리 고개다. 이제 부터는 건지산 남서쪽으로 오르는 경계길의 시작이다. 길은 계곡을 따른다. 경사 길로 능선으로 오른다. 수정산에서 안부를 통해 오르는 길과 만난다. 결국 급정사를 통해 건지산은 남쪽 정상을 열어준다. 특이한 정상표시가 있는 곳이 남쪽 바위봉이다. 북쪽으로 계단으로 내려선다. 그리고는 작은 봉우리를 넘어 이정표 옆으로 긴 의자가 있다. 만든 형태로 보니 이천시 작품 같다. 하산 길 1310m 정상 290m 표시도 남쪽을 향하고 건지산 정상 쪽에는 지산스키장으로 표시되어 있다. 건지산의 정상은 지산 스키장 봉우리다. 능선을 타다 보면 리본에 독조지맥이란 리본이 보인다.

독조지맥은 백두대간에서 갈라선 한남정맥이 원삼면 문수봉에서 곱든 고개-칠봉산-독조봉-바루산-뒤동골산-봉의산-이천으로-마국산-노성산-여주 중근이봉에서 끝나는 작은 산맥으로 70여km 쯤 된다. 또 독조봉 전에 용실산에서 금박산으로 가는 (양자산)광주의 양산지맥은 광주로 이어지는 지맥이다.

능선길은 또 작은 봉우리 그리고 만나는 봉우리에서 갈림길로 내려서는 능선은 건지산 봉수대 터로 이어지는 능선이다. 계속 능선으로 오르면 높아 보이는 봉우리를 지나치면 큰 바위가 있다. 이 바위가 건지산(411m)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다. 바위를 지나쳐 바위틈을 넘어 오르면 정상 큰 바위에 오를 수는 있으나 위험하다. 북쪽 넓은 터에 삼각점을 파기해서 이곳을 정상이라고 한다. 전에 산사가 만든 정상목도 없다. 사방으로 전망이 좋은 곳이다. 북쪽으로 숲이 우거진 틈으로 하산길이 시경계길이다.

너무 경사가 심해 신경을 쓰고 조심조심 내려서게 된다. 지산 스키장에 도착한다. 스키장 넘어 봉우리로 통하는 길이 시경계 길이다. 경계길로 넘어서면 지산CC 영선부 창고 앞으로 해서 클럽하우스 근처로 시경계길은 이어진다. 멀리 평창리 미륵봉 앞 동맥이산이 보인다. 지산CC 필드를 질러가는 방법과 도창마을을 통해 가는 방법이 있다. 지산 골프장 서쪽 길로 내려서면 골프장 옆에 느티나무가 있다. 밖으로 통하는 길이 성황당 고개다. 골프장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면 도창마을(도창말 용인 321독립운동 시발지)에서 재너머 길로 들어서면 골프장에 20분 정도 걸려서 도달한다.

느티나무 앞에서 밖으로 나서 산으로 향한 독으로 올라서면 산길이 나타난다. 골프장 옆으로 길은 골프장을 끼고 돈다. 좁은 길로 오르면 수로를 통해 능선으로 오르게 되고 경사로로 올라서면 시멘트 담이 산 속에 있다. 오래 되어 허물어진 곳이 많은 울타리는 능선 위 봉우리로 연결되어 안부에서 끝난다. 계속해서 능선길은 오르고 내리고 평지길 같다. 급경사는 정상을 알리는 신호 같다. 가파르게 오른 봉우리는 골프장에서 보이는 동맥이산이다. 지산 골프장이 한눈에 들어온다. 동맥이산을 뒤로 하고 내려서면 갈림길이다. 왼쪽을 택하여 내려선다. 한참을 내려오면 산불이 났던 산으로 접어든다. 앙상한 가지 아래 새로운 삶이 움트는 모습을 보면서 식물이나 동물의 삶에 대한 생명력이란 경이롭다. 작은 돌이 많고 정상에도 앙상한 불탄 흔적과 잔돌뿐이다. 미륵산이다.

북쪽으로 내려서는 시경계길은 안부에서 조금 올라서다 왼쪽 갈림길에서 작은 리본을 따라가야 된다. 길이 확실치 않은 곳에 벌목을 해서 나무



를 피해 내려오면 묘지를 만난다. 묘지 아래 급경사에 고개 길은 셋골 고개다. 내려서 서쪽으로 가면 용인의 논배미다. 다시 능선으로 오른다. 이어 평탄로로 오르고 내리다 갈림길이다. 오른쪽 싸리나무 숲으로 들어서야 한다. 산마루를 지나 올라선 곳이 영동고속도로 절개지 위다. 고속도로 절개지 아래에 확장공사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멀리 금박산이 큰 몸집으로 내려다 본다.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가 보인다. 고속도로에 이천시란 표식도 보인다. 고속도로 확장하는 곳으로 내려서서 굴다리로 향한다. 굴 통로를 지나면 포장길이 산으로 이어진다. 시멘트길 입구에 오른쪽으로 계곡으로 산길이 있다. 능선에도 산길이 있다. 계속 동쪽을 고집하면 폐타이어로 만든 참호가 길게 이어진다. 참호를 왼쪽에 두고 오른쪽으로 향한다. 고속도로 쪽을 택하여도 되고, 묘지로 내려서면 넓은 길이 고속도로에 연결된 길로 하산한다. 고가 도로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42번 국도 추계천 가까이에 새로 짓는 공장까지가 용인땅이다. 공장앞 다리로 42국도 구길에 연결된다. 추계천을 가로지르는 시경계길은 구길로 양촌리 이천 쪽으로 향한다. 숲속에 공원 안에 아주 오래된 옛길 플라타너스 나무를 보니 옛날 42번 국도의 가로수길이 생각난다.



## 20 42국도 추계라 골암산

42국도-1,3-봉바위산-1,0-식금리길-1,4-바자니고개-2,2-정수리고개-2,3-아래말치고개-1,0-골암산(9.2km)

42번 국도 양지면 추계리 끝에 큰길은 고가 도로다. 그 길로 굽은 이천 시 오천면 양촌리와 경계다. 경계 이정표와 철쭉 도우미가 있는 곳에서 이천 쪽으로 해서 골짜기로 올라선다. 산 속에 조정석이 보인다. 토사를 막으려 만든 돌담이다. 나무 가지를 피해 왼쪽으로 계속 두 개의 내령을 바꾸는데 선답자의 표식이 가끔 보인다. 결국 풀 나무에 찢기면서 산 능선으로 오른다. 그리고 높아 보이는 산을 만나고 작은 봉을 지나 산길은 동쪽으로 향한다. 첫 봉엔 나무가 없어서 앞이 잘 보인다.

왼쪽으로 독조봉에서 칠봉산 삼봉산 앞에 금박산 태화산과 말아가리산은 쌍령산같이 쌍둥이봉 같이 있다. 멀리 노고봉에 광주 백마산까지 보인다. 정말 이곳에서 용인의 산이 모두 보이는 것 같다. 오르막으로 동쪽으로 향한다. 세 갈래 길이 있는 봉바위산이다. 옛날에 이 산 바위 위에서 부엉이가 많이 울었다 하여 부엉바위가 봉바위로 바뀌었다. 한문으로는 봉현산(鳳顯山)이다. 다른 지도엔 보현산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기도 하

다. 노무현 대통령의 봉바위가 생각난다. 봉바위산에서 서쪽인 왼쪽 길을 택한다. 경계 밟기를 하면서 수 십-백 차례는 길을 잃었다. 이곳에서 큰 길로 올라 마장면 천주교 성당으로 내려간 것이 시경계 밟기 첫 작품이었으니 피식 웃어 본다. 산길은 한 내령만 잘못 타면 낭패다. 지금은 등산객이 많이 늘면서 자연스레 길이 생긴 곳이 많아 편하다. 왼쪽 길로 내려서면 안골고개(식금리 신구실-오천면 안골)를 만난다. 전기 철탑을 지나 길은 좋다. 길이 막힌 곳에 사슴농장에서 뒷산으로 올라선다. 작은 봉을 넘으면 고개 길에 시멘트포장이다. 옆으로 능선에 이천 쪽 집 뒤 숲 속으로 올라서면 산길이 좋진 않아도 길을 따라간다. 넓은 농로를 따라 시계는 연결된다. 넓은 길이 가로막는데 가마실 고개다. 멀리 동쪽으로 가마실 마을이 보인다.

농로는 미루나무 둔덕으로 연결된다. 독 아래 이름난 가마실 약수터가 있다. 이 근처가 용인 이천 광주 3개시의 경계점이다. 전에 식수공장을 짓는다고 법석을 떨더니 군사보호지역에 묶여 나대지 그대로다. 산으로 가야 하는데 길이 없다. 초지를 따라 멀리 보이는 독으로 향한다. 독으로 올라서면 가루쟁이 길이고 포장도로 아래 동선사가 있다. 기호제일선원 동선사 정원스님이 생각난다. 매 주일 탄약부대 군인들에게 설법하시고 점심공양을 주시던 모습. 이어 포장도로는 서쪽으로 탄약부대 후문 허미실 고개에 도착한다. 이곳부터가 고민이다. 부대 앞 길로 올라서면 대단히 큰 종종 묘지가 있고 그 후로는 부대 철조망이다. 군부대 철조망으로 갈 수는 없다.

시경계밟기는 이제부터 광주시 길로 가야 한다. 방도리 마을이 되재마

을이다. 방도리로 들어서면 방도 1리 마을회관 앞으로 해서 서쪽 골짜기 끝으로 가야 한다. 저 넘어 산봉우리에 군부대 경계초소가 보인다. 시멘트길로 무작정 서쪽으로 향한다. 이곳은 경계길이 아니므로 경계에 가까운 남서쪽으로 향하면 산속으로 길이 있다. 철탐길을 버리고 능선으로 오르는 되재고개이다. 전에 용인과 광주 경계 측량하는데 측량이 잘못 되어 다시 잴다 하여 되재라고 한다. 능선에 올라 왼쪽 안부로 내려서면 묘지 아래로 넓은 논배미를 양달말이다. 양달말로 내려서면 농로를 만난다. 농로는 서쪽 논두렁 길로 연결된다. 이곳부터 농로가 시경계길이다.

논두렁을 따라 내려서면 멀리 큰 길이 보인다. 이어 44번 산악도로를 만난다. 정수리는 용인시의 맨 꼭대기라는 뜻이다. 정수리마을 하면 기남이 고개가 생각난다.

박기남 선생 이야기는 너무 알려져 있는 이야기다. 아시아나 CC 안에 있는 기남이고개 노랫말이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울고만 넘던 이십 리 고개 길이 얼마나 슬퍼 눈물로 한숨으로 한이 되었나. 산새도 벼를 삼는 그 시절 생각나는 기남이 고개”(용인자연마을기행 우수표)

기남이 고개는 1960년10월12일자(당시 신동준 이종석 이용희 동아일보 기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부산의 모씨가 작사, 오아시스레코드에서 이미자가 노래로 발매 됐다고 한다. 고 박기남 선생에 대하여는 이시대가 필요로 하는 용인이 낳은 최고의 애향인으로 외지에서 애향하는 사람들에게 박기남 상을 만들어 그의 위상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

산다랭이로 올라서면 길 없는 야산이다. 북쪽으로 공장 신축지로 산을

잘라내 절개지 길이 위험하다. 나무를 헤집고 들어가면 산 주위가 대부분 서어나무이다. 극상림이라지만 숲아베기를 안 해 길이 없다. 희미한 숲 사이 길은 정수리 마을 뒷산이다. 정수리 마을에 개짓는 소리가 요란하다. 그리고 낭떠러지를 만난다. 오른쪽으로 내려서면 비료포대가 쌓여 있는 아래말치고개다. 시경계 길은 정수리 마을을 돌아 간다. 이어 넓은 길은 산다랭이로 연결되고 용화사 길과 맞물려 넓어졌다 좁아졌다를 반복하다가 산다랭이로 올라선다. 산길은 좁고 사람이 다닌 흔적이 조금씩 배인 길을 따라 능선에 오른다. 이제 등산로가 나타난다. 계속 올라서야 능선이 나온다. 산마루가 굴암산 입구를 알게 한다. 능선입구에 삼각점이 나타난다. 앞에 산사에서 만든 오래 된 이정표는 용화사 방향 표시다. 넓은 삼거리에 기둥나무 하나가 서 있다.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정한수 한 컵을 바쳤던 곳이다. 마음이 쩡하다.

장장 175km 약4백리를 걸어 용인시경계를 돌아온 순간이다.

압록강 넘어 요동땅을 보며 백두산에 올라 정계비 앞에 서서 우리영토를 지켰던 조상님들의 숨은 뜻과 숨결을 느끼고 싶다. 전에 용인땅 이었던 고삼면, 월경부락(남사), 영통시, 이의동 등을 지나치면서 안타까웠으며 우리 땅의 소중함을 느낀 향토순례 시경계밧기이었다. 마음을 가다듬고 서쪽능선으로 내려서면 왼쪽으로 걷기 편한 용화사 길이다. 용화사는 미래부처님의 상징이다. 미륵보살상에 예를 올린다. 우리 땅 용인이 앞으로 복지가 되게 해주기를 빌며 한터로 내려선다. 대대리, 한터, 큰 밭에서 있다. 시작할 때는 미약하게 시작하였지만 순례를 마치며 큰 대지에서 서서 보니 고요한 평화만이 몸에 깃든다.

## 걸어온 길

굴암산2봉(376.6)-382.6-말치고개-소목재고개-삼거리봉(415.9)-넙적고개-정락봉-김량고개-말아가리산(595)-마락산-바리나무고개-바람냉이고개-큰산(517.8)-벌덕산-(510.8)-정광산(562)-노고봉(578.6)-489.5-용인고개-440(발이산중턱)-약사사-곱들고개-공동묘지-뒷산-45번국도-경안천보-간들보-홍계희묘-43국도-오산천-건너고개-할미당산-오산천-다랑고개-모현농협-신현천-약수터(유청수)-숫돌봉-대지산-휘남애고개-떡봉고개-구미동-탄천-토끼굴-머내-동막천-동원교-낙생저수지-황림묘-석기천-손기교-정의교-석운사길-발화산리-바리산-고분재-백운산-노루목-광교산-토끼봉-김용준전승비-황골고개-형제봉-백년수-천년약수-버들치-응봉-43국도-독고개-고속도로-신대교-삼막곡고개-고속도로-태광CC-신대천-금강하교-원천천-태평양화학-42국도-황곡산-아울렛-돌고개-관자고개-청명산-쑥고개-경희대-기흥반도체후문-동탄변전소-기흥저수지오산천-고속도로-대한통운-고매천도로-골드CC-코리아CC클럽하우스-무봉산-만의산(아흔아홉고개)-360-349삼각점-심부고개-작은고개-불선의고개-병봉산(336)-불성리고개-화성산(158)-한원CC-석고개-갈마고개-구살고개-봉명교-고속도로-통산(통뫼)-불은고개-가고개-한국표준연구소-신작교-성주천-원암교-사기막-신선봉(중턱151.9)-검은산-덕우리고개-어비리-장물-장자봉-묘봉-노곡고개-갈미봉(339)391-미리내고개(이동-남사)갈림길-419.5-쌍령산(502)-303-253-경수산-한천-머루모퉁이-구봉산(464)달기봉(415)-가현산(347)-황새울고개-도로-계천-장들-수

원목장-한택식물원-비봉산-아송교-청미천-한다리보-길마재-345-청계산-대덕산(360)-입석재-대덕산(309)-산넘어고개-구백암고개-귀동골산(뒷동골산)-바루산-소학산-경기농장-건지산-지산CC-동맥이산-미륵산-말등대산-고속도로-42국도(추계리)-봉바위산(봉현산)-354-가마실약수-동선사-허미실고개-탄약부대-바자니고개-도룡골고개-정수리고개-소일고개-44번산악도로-아래말치고개-굴암산

## 시산제

시산제는 산제(山祭), 설제(雪祭)라고도 한다. 시산제는 새봄이 되면 웬만한 산악회면 빼놓지 않는 연례행사가 되었다. 하지만 정작 예법을 몰라 얼치기 시산제를 지내거나, 소란만 피우는 행사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다. 또 신설산악회의 경우 산제를 지내고 싶어도 정작 방법을 몰라 망설이기도 한다. 또 일부 관광 산악회에서는 열기에 급급해 사람을 불러 모음으로써 자연 훼손을 가져 온다는 비난도 들어 왔다.

시산제는 산악회에 따라 창립기념일을 잡아 지내기도 하지만 산행을 시작함에 앞서 한 해 동안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면에서 이삼월도 적당하다. 일월은 시작의 의미는 크지만 혹한과 폭설 등 기후조건상 피하는 것이 좋다. 요새는 설을 기준으로 음력 정월에 많이 지내는 추세라고 한다.

시산제 장소로는 당일로 넉넉히 다녀올 수 있으면서 인적이 뜸한 산이 좋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정기산행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많으므로 등산객이 많은 곳은 계획대로 행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요즘은 경비도 절약하고 이동하기 쉬운 관내 산에서 부담 없이 시산제를 지내는 산악회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장소로 석성산, 말아가리산, 문수봉, 시궁산, 광고산 등 접근성이 좋아 인기가

상차림은 많은 산악회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다. 예로부터 제례는 가가례(家家禮)라 하여 지역이나 가문이나 집집마다 차이가 있다. 기본적인 상차림을 설명하면 우선 시산제는 고사의 의미가 강하므로 돼지머리 통북어가 빠질 수 없다. 여기에 시루떡 과일 술이 꼭 들어간다.

제를 지내는 산 산신 이름으로 지방(삼봉산신 신위)을 맨 뒤 부분에 배열한다. (돼지머리나 떡에 절하는 모습보다는 지방이 있으므로 제를 올리는 대상이 확실한 것이 보기에 더 좋다.)



지방 앞으로 시루떡을 놓는다. 시루떡의 붉은 팔은 옛부터 악귀를 떨치거나 접근을 막아 준다고 한다. 요즈음은 돼지머리를 정중앙에 놓는 형태가 많다. 그리고 시루떡을 우측, 왼편으로는 통북어 머리를 동쪽으로 놓는다. (제사는 지내는 쪽을 북쪽으로 향하거나 북쪽으로 생각하며 진설한다.) 양편으로 촛불을 켜고 앞으로는 과일을 놓는다. 진설하는 우리나라 유교식으로 조율시이(棗栗柿梨)로 진설함은 성균관제례를 참고한다.

조(棗)는 대추로 씨가 하나 있다 하여 임금이나 유일함을 상징한다.

율(栗)은 밤으로 삼정승(씨가 셋으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상징한다.

시(柿)는 감으로 씨가 여섯으로 육판서를 상징한다.

이(梨)는 배로 씨가 여덟으로 팔도 절도사를 상징한다.

그래서 진설을 좌로부터 조율시이로 쓰고 나머지는 오른쪽에 진설한다. 진설은 모두 통과일을 쓰며 가지 수와 개수도 홀수 3,5,7,9로 진설한다. 보통 오색으로 대추 밤 감 배 사과를 놓는다.

산악회에 따라 조율시이를 쓰지 않고 홍동백서를 쓰는 경우에는 맨 오른쪽에 대추 밤 사과 순으로 붉은 과일은 오른쪽(동) 흰 과일은 왼쪽(서)으로 진설한다. 조율시이와 홍동백서는 방향이 정반대이다.

그리고는 향과 술잔, 저분, 축문을 준비한다.

시산제의 의식은 유교식 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정성이 들어가고 엄숙한 분위기로 진지한 마음을 갖고 임한다. 제문은 한문 축은 이해를 하기 어려워져 한문 축에 한글축을 겸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문에 가서는 한글식이 됨으로 우리말 제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문 축은 집에서 고사, 제사 때 쓰는 축문 중에 밥(반)을 떡(병)으로 바꾸면 된다.

내용은 산신에게 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뢴 후 자연보호에 정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고 한 해 동안 무사 산행을 비는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을 취한다.

시산제를 지내다 보면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이 많다고 과음 과식을 하거나 제례 도중 소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는 꼭 피해야 할 대목이다. 자칫하면 산악인의 행사가 아닌 향락으로 전락할 수 있다. 미신이라고 치부하거나 가벼운 재밌거리

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산악인, 회원으로서 산을 오르는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가다듬는 의미에서도 시산제는 격식을 갖춰 엄숙하게 치르며 적극 참여 하는 것이 좋다.

통복어는 오래도록 무궁하라고 실을 감아두기도 하며, 시루떡 위에 청수(맑은 물)를 올리기도 한다. 불교나 무속에서는 산신에 채를 올릴 때는 오이, 당근, 미나리, 사탕도 올리며 고사 때는 나물도 올리지만 시산제는 대부분 생략한다.

절은 어른께 일배, 돌아가신 분께 이배, 불교나 성인이나 신께는 삼배를 한다. 보통 산악회에서는 2배를 한다. 그러나 3배를 하는 것도 괜찮다.

고수래(고시래, 고씨네)는 의식 후 음식을 조금씩 모아 술에 넣고 버리는 의식으로 불교 무속에서 행한다. 고사 후에 집안 곳곳에 떡을 놓는 것과 같은 것으로 시산제에는 보통 생략한다.

## 시산제 진행 순서

### 1.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태극기를 준비한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의식행사로는 예전 문구가 나아 보인다)

### 2. 묵념

순국선열 및 먼저 가신 산악인에 대하여 묵념

### 3. 산악인의 100자 선서

산악인은 무궁한 세계를 탐색한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정열과 협동으로 온갖 고난을 극복할 뿐 언제나 절망도 포기도 없다 산악인은 대자연에 동화 되어야 한다 아무런 속임도 꾸밈도 없이 다만 자유와 평화 사랑의 참 세계를 향한 행진이 있을 따름이다. (노산 이은상)

자연보호 헌장을 읽는 모임도 있다.(시간을 보아 가며 하는 것도 괜찮다.)

#### 4 회장 인사

인사와 소개 및 축사를 해도 된다.

#### 5 시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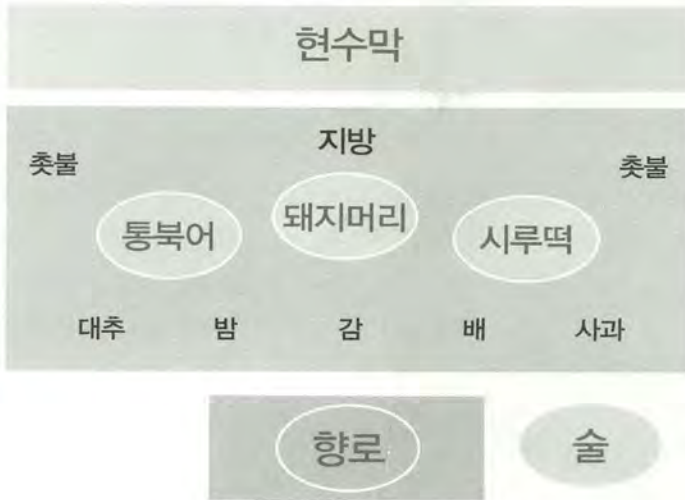
집사가 행사를 진행하며 도우미도 필요하다.

- 1) 향을 피운다 (회장) 향은 하늘에 계신 신, 땅에 지음은 땅에 계신 신을 모셔옴
- 2) 회장이 잔에 술을 받아 땅에 3번 붓고(지우고) 빈 잔을 올린 후 회원 모두 3배 한다.
- 3) 회장이 첫잔을 올리고 (잔을 올릴 때마다 저분을 굴러 준다.) 무릎을 꿇고 축문을 (축관:회장이나, 부회장)읽고 인사(돈은 봉투에 기타 물건은 젓상에)를 올린 후 회장과 축관이 함께 3배 한다.
- 4) 순서에 의해 차례로 잔을 올린다. (설이나 추석 차례는 한 잔을 올리며, 제례에는 3 잔을 올리지만 시산제는 모두 잔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3배 한다.(여성은 남자에 두배 절을 올린다 하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 관습이다.)
- 5) 마지막잔을 올릴 때는 잔을 다 채우지 않고 첨작할 수 있게 한다.
- 6) 제주가 무릎 꿇고 올린 잔에 첨작(세번 채움)한다. 그리고 잔을 조금 옮겨 놓는다.
- 7) 저분을 원 위치 시킨다.
- 8) 모두 절을 하면 시산제를 마친다.(지방과 축문을 소자:불태운다.)
- 9) 총무는 절값을 먼저 챙긴 후 철상을 한다.
- 10) 퇴주 그릇의 술을 나눠 음복 한다.

#### ◇ 제수준비물

돼지머리, 조율사이(대추, 밤, 감, 배) 사과 통복어(1개), 시루떡 술(탁주 또는 청주), 퇴주잔(코펠), 컵, 은박지, 젓가락 지방 축문 양초 2개, 향, 향로(종이컵에 쌀, 또는 흙 한줌 넣어 대신 함), 돛자리, 현수막(시산제).

◇ 제수상 차리는법



◇ 己丑年 시산제 축문 (2009년 2월8일)  
 維歲次 己丑年 正月辛未朔 一十四日甲申 會長 홍길동  
 (유세차 기축년 정월신미삭 일십사일갑신 회장 홍길동)  
 敢昭告于 土地之神 龍仁 龍丘山岳會員 一同  
 (감소고우 토지지신용인 용구산악회 일동)  
 合心恭修歲事于 龍仁 二東 窟庵山(星倫山) 神位  
 (합심공수세사우 용인 이동 굴암산(성륜산) 신위)  
 惟時保佑無事山行 日就月將寘賴 神伏敢以  
 (유시보우무사산행 일취월장설뢰 신복감이)  
 酒脯果敬伸尊獻 尙 饗  
 (주병포과경신존헌 상 향)  
 삭은 지내는 달 첫날 일진이다 (설날일진 신미)

◇ 시산제 축문(한글축)

저희 용인 용구산악회 회장 홍길동의 회원일동은 굴암산 신령님께 삼가 고하  
나이다.

오늘 모든 산악인들이 즐겨 찾는 용인시 이동면 굴암산에서 항시 산의 높은  
정기를 주시는 산신령님의 위엄 앞에서 한해의 안녕과, 자애자중을 경건한 마음  
으로 다짐하고 겸손하고 가룩한 마음의 산악인이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  
니다.

지난해 저희들은 산행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수련할 수 있었고

회원으로서의 우의를 두터이 할 수 있었습니다.

산신령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서 다지는 마음이 어느날 어느 곳에서도 안전  
하고 보람있는 산행이 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저희들과 회원과 그 가족이 더욱 건강한 가운데 소망하는 일이  
성취되고 경영하는 사업과 근무처의 여러 업무가 모두 순조롭게 발전하고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늘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올리는 술과 음식은 작고  
보잘 것 없지만 이는 우리의 정성이오니 어여삐 여기시고 부디 흥향 하옵소서.

---

〈참고문헌〉

- |            |            |
|------------|------------|
| 내고장용인지명,지지 | 이인영 김성환(저) |
| 조선지지자료     | 용인문화원      |
| 용인자연마을기행   | 이상표(저)     |
| 실전백두대간중주산행 | 조선일보       |
| 용인의 산수이야기  | 이제학        |
| 용인시 소하천현황도 | 용인시        |
| 수지읍지       | 용인문화원      |



저자 이제학



용인 최초의 베스트셀러는 이제학의  
 〈용인의 산수이야기〉일 것이다.  
 그 책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낯설기만  
 했던 용인의 산을 찾기 시작한지 10년  
 이 지났다. 이젠 그들이 걸었던 발자  
 국마다 길이 생겼다. 새롭게 태어난  
 〈아름다운 용인의 산하〉.  
 여기엔 '용인 올레'가 숨어있다.

김종경(시인 · 언론인)



값 12,000원  
 03980  
  
 9 788996 040316  
 ISBN 978-89-960403-1-6